

신라의 왕권 강화와 발전

집필진 (집필순)

이영호 경북대 (권별책임자)
김수태 충남대
조이욱 전 영산대
故 김상현 전 동국대
한준수 국민대
서영교 중원대

자료제공 (가나다순)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일본 쇼소인
권덕영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집위원회의

신라의 왕권 강화와 발전

05

연구총서

일러두기

1. 본 총서는 신라의 태동에서부터 고려에 복속된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신라사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렴해서 총론, 시대사, 분류사로 구분·서술하였다.
3. 전문성을 갖춘 일반 교양서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4. 집필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국가기관의 학예연구관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외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5.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작은 글씨로 병기하였다.
6. 인물에 대해 존칭은 생략하였다.
7. 삼도의 유적 명칭은 지자체명 + 유적명으로 하되, 같은 유적의 명칭이 계속되는 경우 지자체명은 생략하였다.
8. 찾아보기는 장별로 keyword가 될 만한 용어만을 선정하였다.
9. 사진 출처는 권별로 일괄 표기하였고, 필자가 제공한 경우는 출처를 생략하였다.
10. 참고문헌은 단행본을 위주로 하였지만 부득이한 경우 논문도 포함하였다.
11. 각 원고는 권별책임자의 1차 교열, 편집위원회 실무진의 2차 교열을 거친 후 감수위원회의 감수를 거쳤다.

발 간 사

천년왕국 신라는 한민족 최초의 통일대업을 완수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특유의 개방성과 진취성으로 실크로드를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세계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역사서가 없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터전인 경상북도가 편찬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손으로 민족의 뿌리찾기 사업을 펼친다는 역사적 소명도 함께 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는 가장 큰 규모의 신라사 편찬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신라의 모태가 되었던 사로국의 출현에서부터 고대국가체제로의 발전, 한민족을 아우른 삼국통일의 완성, 고려로 이어진 신라의 전체 역사를 시대적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해를 높였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신라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연구총서를 집필하고 발간한다는 것은 정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라가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민족의 자산이며 우리 문화의 원류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2011년 ‘신라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학술대회 개최를 시점으로 완성되기까지 장장 5년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국내의 신라사 전문가 136명이 힘을 모은 역작으로 총 30권, 1만 2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는 오로지 편찬위원, 편집위원, 집필진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민족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편찬의 성과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세계와 교류했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이야기, 신화와 전설, 문화유산은 우리에게 문화콘텐츠의 바탕이 되어 문화 관광산업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암울한 중세를 종식시켰고, 산업혁명이 근대사회를 형성하였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의 세계는 문화혁명의 시기입니다. 또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물질문명의 발전이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이 첨단 기술혁명의 시대에 ‘우리’라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이야말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가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변치않는 역사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미래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미 신라는 오래전 사라진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혼을 찾는 일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경북시대의 힘찬 출발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시기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완성은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북의 여정에 정신적·문화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편찬이 또 다른 시작의 서막이기를 바라며, 국민의 역사 의식 함양에 길이 남을 대중 역사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서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편 찬 사

신라 천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700년 이상은 삼한 열국(列國) 중의 한 나라인 사로국(斯盧國)으로 출발, 일전(一轉)하여 왕국으로 비약한 뒤 선진 고구려·백제와 더불어 정립(鼎立)의 형세를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삼국통일 이전의 장구(長久)한 한국고대사는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삼한 및 삼국 전체의 유기적인 틀 속에서 파악할 때만 비로소 그 진정한 이해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半世紀) 동안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문에서 눈부신 연구상의 진전을 보았으므로, 그 풍성한 성과를 편의상 각 나라 별로 총정리·집대성하는 노력이 줄곧 시도되어 왔습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북한 당국이 일찍부터 고구려를 삼국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백제와 신라를 그 부庸(附庸)국가로 폄하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사 연구에 온갖 힘을 쏟아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쪽에서도 가야사와 백제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야심찬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 다. 1990년대 말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를 임시로 두어 가야문화권 개발과 정비 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수년 간 김해지역의 가야 사적(史蹟)정비와 더불어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사업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추진기관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는 충청남도의 예산지원 아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3년 간에 걸쳐 연구총서 15권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고고학자료를 수록한 『백제문화사대계(大系)』 25권을 발간하여 학계에 비익(裨益)한 바 매우 컸습니 다.

이같은 추세와 동향에 비취볼 때 경상북도가 2011년 12월 경북문화재연구원을 책임기관으로 하여 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사업에 착수한 것은 좁게 보면 경북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지만, 넓게 보면 우리 민족사의 근간(根幹)이 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현단계에서 총정리함으로써 그 빛나는 전통을 재정립(再定立)하려는 뜻깊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라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대사 연구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습니 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대사 연구 자료의 쌍벽(雙

璧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개 신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보조자료인 비문(碑文) 등 금석문(金石文)자료도 신라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며 또한 신라사회의 내부 정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목간(木簡)만 하더라도 백제에 못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들은 삼국 중 신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신라는 성장 과정에서 정치·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많았습니다. 이는 역(逆)으로 생각한다면 신라의 문물이나 사회제도를 갖고서 자료가 없어 잘 알기 어려운 고구려·백제의 그것을 유추(類推)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신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구려·백제·가야 세 나라 역사 이해의 기초를 잡아가는 추세라고 하겠습니까.

본 편찬위원회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연구총서 22권과 자료집 8권, 그 밖에 전체 개요(概要) 2권의 한국어판과 그에 대한 3종의 외국어판을 펴냄에 있어 그것이 한낱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발시켜 애향심(愛郷心)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信念)이 사명감에서 편찬에 임했습니다. 다만 140인 가까운 전문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270편의 글을 모은 대부서(大部書)를 엮는 거창한 사업인 만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난관에 부딪혔으며, 이 때문에 경북도청 이전(移轉)사업과 연계되어 있던 본 총서의 출간이 예정보다 2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끝까지 인내(忍耐)해 준 경상북도 당국의 넓은 양해(諒解)에 감사하며 특히 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한 이주석·주낙영·김현기·김장주 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편찬위원회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반 편찬실무를 훌륭하게 집행한 편집위원회의 노중국·주보돈·이희준 교수와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이동철 선생의 헌신적인 노고에 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기 동

목 차

개 관

제5권

신라의 왕권 강화와 발전

010

제 1 편 지배체제의 정비

제1장 삼국통일 정책의 방향

1. 무열왕 직계의 중용	021
2. 김유신계와의 결속 강화	024
3. 당의 분열책과 신라의 대응	029
4. 백제 유민 통합책	035
5. 고구려 유민 통합책	042

제2장 지배체제 정비와 지배세력 재편

1. 문무왕과 국제질서의 변화	049
2. 유교적 관료제의 추구	056
3. 대민정책의 추진	069
4. 불교계의 재편	073
5. 지배세력의 재편	075

제3장 왕권의 안정과 만파식적의 이상

1. 신문왕의 즉위와 만파식적	081
2. 통일 후의 체제 정비	095
3. 달구벌 천도 추진과 실패	109
4. 효소왕의 즉위와 정치 과정	116

제 2 편 왕권의 강화와 문화의 융성

제1장 왕권 강화와 북방 개척

1. 성덕왕의 즉위와 정국 동향	123
2. 패강진의 개척과 지배	133
3. 동북면 축성과 국경의 확정	140

제2장 불국사와 석굴암의 세계

1. 중대 불교와 경덕왕	153
2. 불국사·석불사의 창건과 그 의미	172

제3장 국제질서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1. 발해의 건국과 남북국시대	187
2. 당 중심의 국제질서와 신라	195
3. 일본과의 외교와 교역	203

제 3 편 지배체제의 변화

제1장 지배세력의 갈등과 한화정책 추진

1. 왕비의 교체와 친위세력의 강화	219
2. 근시기구의 확충과 유교이념의 강화	228
3. 한화정책의 추진	234
4. 귀족세력의 대응과 왕권의 약화	242

제2장 진골귀족의 반발과 개혁의 좌절

1. 중대의 난제들과 경덕왕의 대응	251
2. 혜공왕대의 정변	267
3. 만월부인의 섭정과 김웅	272
4. 개혁 정책의 실패와 파국	276

색 인

286

개관

김춘추의 즉위와 통일전쟁

문무왕과 삼국통일

문화의 황금시대

김춘추의 즉위와 통일전쟁

654년에 진덕여왕이 죽자 귀족회의에서는 상대등 알천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비담의 난 후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춘추·김유신 연합세력에 의해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다. 그가 곧 제29대 태종무열왕이었다.

김춘추의 즉위는 신라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귀족들에게 폐위되었던 진지왕의 손자였기 때문이다. 또 중전의 왕이 성골 출신인 데 비해 그는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태종무열왕의 즉위를 기점으로 각각 상대^{上代}와 중대^{中代}, 중고^{中古}와 하고^{下古}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에서도 그 중요성을 살필 수 있다. 이제 태종무열왕계라는 새로운 왕통의 대두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중대의 성격에 대해 진골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개창된 점에서 상대의 귀족연합이 무너지고, 중대 전제왕권의 시기로 이행하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태종무열왕대의 왕권은 그의 즉위를 둘러싸고 야기된 진골귀족들의 불만을 회유해야 했으며, 더욱이 백제와의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력을 분산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태종무열왕과 그 이후의 왕들은 직계 세력의 등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진골귀족에 대한 타협과 회유정책을 실시하여 새로운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 하였다.

태종무열왕이 재위 7년(660)에 백제를 멸한 뒤 이듬해에 죽자 제30대 문무왕이 즉위하였다. 문무왕에게는 부왕대에 성립된 중대 왕권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신라를 군사적으로 괴롭혀왔던 고구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 당의 압력을 어떻게 배제하면서 옛 백제 지역을 영토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문무왕은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일찍부터 외교적, 군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668년에 고구려를 멸하여 삼국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던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676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을 위하여 일시 군사동맹을 맺었던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였다. 또 자신의 세력기반인 무열왕계와 김유신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권력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

다.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개혁도 단행하여 신문왕대에는 이른바 전제왕권이 확립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태조무열왕이 즉위 전에 당 태종과 맺은 밀약에 의하면, 당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한 이후 신라의 영토는 '평양平壤 이남巴南 백제百濟 토지土地'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처음부터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고구려 공격에 대하여 군사적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문무왕과 삼국통일

문무왕은 즉위 직후 당의 요청으로 곧바로 고구려 정벌에 참가하였다. 더욱이 백제 지역에서 전개된 부흥운동은 신라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였다. 또 당이 신라까지 공격할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이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문무왕은 당의 침략을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이룩한 5년 뒤인 681년(문무왕 21) 7월 1일에 56세로 사망하였다. 이에 태자 김정명金政明이 새 왕으로 즉위하니 제 31대 신문왕이었다. 문무왕 말년 및 신문왕 즉위 무렵의 정치상황은 태자에게 관 앞에서의 즉위를 당부한 문무왕의 유조에서 그 대강을 살필 수 있다.

신문왕 즉위 직후, 왕의 장인인 김흠돌의 반란이 일어났다. 김흠돌은 왕경의 유력 진골귀족으로서, 신문왕의 귀족세력에 대한 억압 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신문왕의 신속한 대응으로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진골귀족 세력의 반발은 일시 잠복되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신문왕의 지지 세력은 무열왕계와 김유신계(구 금관가야계), 왕을 따랐던 일부 진골귀족(나물왕계), 구 백제계, 구 고구려계 등이었다. 이들은 신문왕에게 비판적이었던 전통적인 진골귀족과는 지향점이 달랐다. 따라서 귀족세력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은 신문왕대의 정치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중대왕권을 확립해 가던 신문왕대 초기에 만파식적이 등장하였다. 만파식적은 무열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상징하는 보물이었고, 동시에 호국적인 기능까지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만파식적 설화에는 불교사상적 배경과

유가의 예악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때문에 만파식적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과 김유신의 위덕에 의탁한 신비한 물건으로 상징되었다. 만파식적을 보관한 천존고天尊庫란 이름과, 효소왕대에 만파식적을 만만파파식적이라고 봉작하니 해성이 사라졌다는 일 등은 모두 그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열왕계의 등장 이전에 이미 호국의 기능을 가진 신라삼보가 있었다. 그런데도 다시 만파식적이 등장했다는 것은 신라삼보가 중고기 성골왕실의 상징적인 보배였으므로, 만파식적은 중대 무열왕권을 상징하고 그 정당성과 신성성을 대변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신문왕이 동해변에 행차하여 만파식적을 얻게 된 것은 682년(신문왕 2) 5월의 일이었다. 다음 달인 6월에 신문왕은 국학國學을 설치하였다. 국학의 설치는 유교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문왕은 685년(신문왕 5)에 9주 5소경제를 완비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 권력이 지방 촌락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또 오묘제가 시행되고, 왕실의 원당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성전사원成典寺院이 완성된 것도 이때였다. 또 687년(신문왕 7)에는 문무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관료들을 우대하는 한편, 2년 뒤에는 녹읍을 혁파하여 귀족들의 경제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로써 신문왕은 한층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신문왕은 그 여세를 몰아 기존의 왕도를 버리고 오늘날의 대구인 달구벌에 천도하려고 하였다. 이는 달구벌 천도 기도가 녹읍의 혁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왕이 달구벌로 도읍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짧막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전하는 기사는 매우 빈약하다.

달구벌은 경주보다 광활한 분지였고, 내륙이므로 지역 편재성 극복에 유리하였다. 또 북쪽에는 팔공산이, 남쪽에는 비슬산이 병풍처럼 뻗어 있어 국방에 유리하였다.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금호강, 신천 등이 형성한 평야는 지리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들을 형성하였다. 그러면서도 왕권의 행사를 견제할 만한 이렇다할 토착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신·구 수도 상호관계에서 대구는 경주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주와 가까운 달구벌을 새 수도로 결정한 것은 천도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문화의 황금시대

제33대 성덕왕대(702~737)는 신라가 유례없이 번영을 구가한 시기였다. 동북아 주변 정세도 비교적 안정되어 만파식적으로 상징되는 평화를 누리기도 하였다. 성덕왕은 40년 가까이 재위하면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 성덕왕은 신문왕의 아들로써 제32대 효소왕과는 친형제 사이였다. 본래 이름은 융기(隆起)였으나 당 현종의 그것과 같아 뒤에 흥광(興光)으로 고쳤다. 효소왕은 혼인하지 않아 아들이 없었으므로, 국인이 동생을 왕으로 세웠다. 즉 성덕왕은 태자 책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왕자가 아닌 왕의 동생 신분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성덕왕은 귀족세력의 추대를 받아 즉위한 중대 유일의 국왕이었다.

성덕왕은 이와 같은 왕위계승으로 말미암아 즉위 초기에는 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8세기 초 신라를 둘러싼 주변 정세도 방심할 형편이 아니었다. 나당전쟁 이후 당과의 교섭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고, 북방에는 발해가 버티고 있었다. 바다 건너 일본도 점차 국가의식이 고취되면서 신라에 대한 경쟁의식을 유발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덕왕은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중대 서북방 개척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예성강 일대를 군현제적 지배체제 하에 편입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었다. 둘째는 예성강 일대에서 수취원을 새로이 확보함에 따라 민생 안정은 물론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의 서북방 영토 개척은 이후 고려와 조선의 북방 개척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말갈은 한반도 동북방 일대에 흠어져 살았다. 따라서 중대 왕권은 통일 이후 번영과 국력의 비약적 성장 속에서도 말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이루어진 동북방 일대 축성 사업은 주로 말갈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라는 중대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이 하나로 융합되었다. 정치는 안정되고, 문화 또한 크게 융성하였다. 동시에 북방에서는 698년에 발해가 건국되어 점차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8세기 전반 신라는 발해를 말갈과 동일시하여 말갈, 발해말갈, 적국(狄國) 등으로 불렀다. 그런데 발해가 적극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

을 표방하자 말갈이라는 호칭 대신에 발해, 고려국 등으로 표현하였다. 즉 신라가 말갈을 국가로 인식할 때에는 말갈발해, 말갈이라고 한 반면, 고구려 계승국으로 인식할 때는 발해, 고려 등으로 칭하였던 것이다.

733년 7월에 당이 성덕왕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영해군사(寧海軍使)’라는 직함을 더해주면서 발해를 남쪽 방면에서 공격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신라에 온 당의 청병 사절단의 규모는 무려 604명이나 되었다. 김유신의 손자인 윤중·윤문 형제를 비롯한 네 명의 장군이 지휘한 신라군은 당나라 군대와 함께 발해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큰 추위와 눈을 만나 병사들이 반 이상이나 얼어 죽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되돌렸다.

이듬해인 734년 2월에 신라의 숙위 왕자 김충신이 발해를 재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표문을 당에 올렸다. 신라에 발해 공격을 허락하는 칙서가 내려졌으나 실행에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 실제로 신라가 발해와의 싸움에 전력을 기울이지는 않은 듯하다. 신라는 당의 이이제이 정책을 역이용하여 735년 3월에 견당사 김의충이 귀국하던 즈음에 당에서 패장 이남의 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신라 불교 문화의 꽃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제35대 성덕왕 10년(751) 김대성에 의해 조성되었다. 김대성이 혜공왕 10년인 774년 12월에 죽었으므로, 국가가 이를 완성했다고 한다. 불국사는 창건을 시작한 지 2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완성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석가탑에서 발견된 목서지편에 주목하면, 창건 시기는 다소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김대성은 745년(경덕왕 4) 5월에서 9년 정월까지 집사부 중시(시중)를 역임한 대정(大正)과 같은 사람으로 추측된다.

김대성은 처음 모량리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었다. 공덕에 의해 재상 김문량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토함산에서의 곰 사냥이 인연되어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리하여 현세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창건하였다. 이 설화에서는 김대성의 전생담을 강조하였다.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불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생에 닦은 보시 공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답고 정교한 건축과 조각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찬탄과 경이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창건자 김대성의 위대성이 강조되고, 그가 설화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제34대 효성왕과 제35대 경덕왕은 모두 성덕왕의 아들들이었다. 효성왕은 재위기간이 6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하였다. 오히려 성덕왕대 이래의 정치적 안정이 위축되고 귀족세력 간 대립과 마찰이 표면화되었다. 740년(효성왕 4)에 후궁의 아버지였던 파진찬 영종(永宗)이 왕비 종당을 원망하며 모반을 시도하다 처형되었다. 이는 왕실의 외척이 하나의 통일된 정치집단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음을 나타낸다. 영종은 파진찬의 관등을 가지고 있었다. 파진찬은 17관등 가운데 제4관등으로, 진골귀족만이 오를 수 있는 품계였다. 그러한 점에서 후궁은 왕비와 비교해 신분적 차이가 없었다. 영종의 모반은 신분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왕비와 후궁 세력 간의 권력투쟁이었던 것이다.

효성왕이 아들 없이 죽자 친동생이자 태자였던 김현영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경덕왕이었다.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여 효성왕대에 드러난 귀족사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악화되던 대외적 상황을 극복하려 하였다. 하지만 신문왕대 혁파되었던 녹읍이 756년(경덕왕 15)에 부활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경덕왕은 757년(경덕왕 16) 12월에 지방의 군현의 명칭을 개편하였다. 개혁의 첫 출발점이었던 중시의 시중 개칭에 비하면 한층 강도가 강화된 것이다. 그는 685년(신문왕 5) 이후의 변동 상황을 9주 5소경 117군 293현으로 정비하였다. 일시에 전국의 모든 군현의 명칭이 중국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방군현의 명칭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경덕왕은 한화정책의 완결을 위해 중앙관제를 개혁하고자 했다. 지명개혁 2년 뒤인 759년(경덕왕 18) 정월에 중앙관부의 명칭을 지방군현의 개명처럼 우아한 한자식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다분히 획일화된 관료제도의 개편을 의도한 조치였다. 본래 신라의 중앙관부는 관직체계상 4단계로서 영승-경(卿)-대사(大舍)-사(史)의 편제였다. 신문왕대 모든 관부에 사지(舍知)를 설치함으로써 영-경-대사-사지-사의 5단계 체제가 되었다. 당나라의 6부가 상서(尙書)-시랑(侍郎)-낭중(郞中)-원외랑(員外郎)-주사(主事)의 조직이었던 점을 참고하여 중앙관부를 개편한 것이다. 핵심관부인 집사부의 경우 대사, 사지, 사를 각각 낭중, 원외랑, 낭으로 고쳐서 당제의

도입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 관호개혁은 경덕왕 당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대 전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이었고, 태종무열왕 이후 줄곧 전개된 정치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나타났다. 이는 신라 국왕의 시호가 삼국통일기에 들면서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등 한식(漢式)으로 표현된 것과 궤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경덕왕의 한화정책은 다음 왕인 776년(혜공왕 12)에 원래대로 복고되고 말았다.

제36대 혜공왕은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다. 그는 중대 왕실의 안정을 위한 소망을 담아 부왕이 미처 이루지 못한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하였다. 771년(혜공왕 7) 12월 14일 완성된 이 종 주조의 책임자는 김웅과 김양상이었다. 이들은 봉덕사성전의 책임자로서 병부령과 속정대령 등의 직위에 있던 당대의 실력자들이었다.

그러나 혜공왕은 6차례의 대란 속에서 피살되었다. 신라 말기의 사람들은 780년 혜공왕의 피살을 태종무열왕계 왕통이 단절되어 중대가 종말을 고한 것으로 보았다. 『삼국사기』는 혜공왕과 그 왕비가 김지정의 난병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김지정의 난병을 격파하고 궁궐을 수복한 김양상과 김경신이 혜공왕과 그 왕비를 죽였다고 한다. 상반된 두 기록 사이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그 해석에 따라 중대 정치사 이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죽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정치적 성격을 끌어올려 해석할 경우 사실과 다른 의외의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 정치사에 있어서 혜공왕 말기는 중대와 하대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기왕에는 중대와 하대의 의미를 추구하여 중대는 전제왕권의 시기였다고 논단하였다. 그리고 중대 전의 상대가 귀족연합 시기인 데 비해, 하대는 귀족연립의 시기로서 대체로 상대로의 복귀를 지향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전제왕권의 개념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중대가 전제왕권시대란 주장은 연구자들의 편의적인 용어라고 하겠다.

(권별책임자: 이영호)

제 1 편

지배체제의 정비

제1장
삼국통일 정책의
방향

제2장
지배체제 정비와
지배세력 재편

제3장
왕권의 안정과
만파식적의 이상

제1장

삼국통일 정책의 방향

1. 무열왕 직계의 중용
2. 김유신계와의 결속 강화
3. 당의 분열책과 신라의 대응
4. 백제 유민 통합책
5. 고구려 유민 통합책

1. 무열왕 직계의 중용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태종무열왕의 즉위는 새로운 시대인 중대를 여는 것이었다. 이는 성골왕에서 진골왕으로 바뀌는 왕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도 또 다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즉 진골귀족의 정치적 반발을 무시하고 왕위에 오른 그의 즉위 과정은 신라 상대의 귀족연합정치가 무너지고, 이제 권력이 국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전제왕권이 새로이 성장해 나감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태종무열왕대에 성립된 전제왕권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의 즉위과정을 둘러싸고 야기된 진골귀족의 정치적 불만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으며, 더욱이 백제와의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력을 분산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종무열왕계는 직계세력의 등용 등을 통해 나름대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진골귀족 세력에 대한 타협과 회유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다.

통일신라시대 전제왕권의 성립과 함께 권력의 정상을 차지한 것은 바로 국왕이었다. 태종무열왕계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났던 커다란 변화는 중국식의 묘호를 쓰기 시작한 점이다. 김춘추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즉위를 꿈꾸면서 새로운 지배 질서를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교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구현이었다. 이는 묘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묘호의 시작은 태종무열왕으로부터였다. 신라 왕실은 그의 묘호를 태종이라 함과 동시에 김씨 시조왕의 묘호는 태조라고 했다. 그것은 신문왕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대상자의 묘호가 태조대왕, 진지대왕, 문흥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으로 되어 있고, 그 첫째가 태조대왕으로 되어 있는 데서 짐작할 수가 있다. 당의 압력이 없었다면, 신라는 태조, 태종 하는 식으로 조와 종이 붙는 묘호를 계속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무열왕, 문무왕 등으로 시호가 사용되기는 하였어도, 이는 불교적인 것과는 다른 유교적 색채를 지닌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군주가 지닌 전제군주적 성격에 대한 동경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묘호의 사용이란 중대의 성립과 함께 나

타나는 전제왕권의 성장을 상징해준다.

이와 같이 통일신라시대에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왕족 김씨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 직계세력의 부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즉위한 다음 해인 655년에 만아들 법민을 태자로 삼았다. 당시 그는 병부령이었다. 법민은 태종무열왕의 즉위와 함께 654년(태종무열왕 원년)에 병부령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직계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시하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태종무열왕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법민은 병부령으로서 대백제전에 직접 참여하였다.

나머지 여러 아들 중 문왕은 이찬으로, 노차는 해찬으로, 인태는 각간으로, 지경과 개원은 각각 이찬으로 삼았다. 이러한 태자 책봉과 다른 아들의 등장이 주목된다. 태종무열왕계는 왕위의 장자상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왕이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장자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태자를 책봉한 기록은 그 전에도 한두 번 나오기는 하지만, 왕위계승자로서의 태자를 책봉한 기록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태종무열왕 이후의 일이었다. 태자 법민의 군사적 활동도 이때에 두드러진다. 둘째 아들인 김인문의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크게 활약을 하였지만, 당나라에서 돌아온 다음 해인 656년에는 마침내 군주에 임명되었고, 백제 공격을 위한 나당연합군을 구성할 때 소정방에 이어 부대총관으로 활약하였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김인문의 뒤를 이어 제3자인 문왕이 656년 파견되었다. 그후 그는 658년에 중시에 임명되었다. 태종무열왕의 즉위 다음 해에 상대등에 임명된 금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렵다. 그의 뒤를 이어 문왕이 중시가 되었다. 다섯째 아들인 인태의 경우 태종무열왕대인 660년 당나라 군사 1만 명을 거느린 유인원과 함께 신라군 7천명을 거느리고 사비성을 지키는 활약을 하였다. 이후 문무왕 때인 668년에는 고구려 원정군에 참여하였으며, 당나라 군대가 회군할 때 당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여섯째 아들인 지경은 문무왕대인 667년에 파진찬으로서 고구려 원정군의 장군에 임명되었으며 668년에는 중시가 되었고, 같은 해에는 대당 총관으로서 고구려 원정군에 참여하였다. 670년까지 중시에 머물렀다. 막내 아들인 개원은 문무왕대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였다. 667년에는 대야찬으로 장군이 되었으며, 668년에는 대

당 총관이 되어 고구려 원정군에 참여하였고, 신문왕 때에는 이찬으로서 조카인 신문왕의 재혼에 관여하였으며, 효소왕대인 695년에 상대등이 되었다. 이와 같이 직계 왕자들이 정치·군사적으로 크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직계 왕자들의 등장과 활동은 왕제의 위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주는 현상의 하나가 갈문왕 제도의 소멸이다. 대체로 중고시대에는 왕제^{王弟}가 주로 갈문왕에 임명되었다. 이는 비록 왕제가 왕위계승권자로서의 지위로부터 밀려나긴 했지만, 그에게 왕에 버금가는 정치, 사회적 지위가 허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갈문왕 제도가 소멸되고, 따라서 왕제는 그러한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왕제는 갈문왕의 지위로부터 밀려나는 대신에 집사부의 중시와 같은 행정직에 많이 기용되었다. 문무왕대에는 그의 동생인 지경이 중시에 임명되었으며, 그의 동생인 개원도 또한 중시에 임명되었던 것 같다. 문무왕대에 총제에 임명되었다는 왕제 차득공이 취임 전에 전국을 순방하며 민정을 살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지만, 이것도 왕제가 행정직에 임명된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왕제나 왕자와 같은 혈연적 측근자를 갈문왕 대신에 행정기구의 요직에 임명한 것은, 요컨대 그들이 왕권의 옹호자이기를 기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왕제에게 왕과는 또 다른 독립된 가계의 장으로서 왕위에 준하는 지위가 허락되던 것과는 크게 다름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속에서 왕족들은 중시와 같은 행정계통의 요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김씨 왕족 안에서 족내혼이 행해지고 있었던 사실일 것이다. 우선 태종무열왕의 혼인정책이 눈에 띈다. 태종무열왕의 비는 가야 왕족 출신인 김유신의 누이였다. 성은 같은 김씨라도 족내혼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무왕 이후는 계속 왕족 김씨 안에서 족내혼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에까지 알려져서 『신당서』 신라전 기록에는

그 족명은 제1골, 제2골로 스스로 나뉘는데, 형제의 딸, 고모나 이모, 종자매를 모두 취하여 처로 삼았다. 왕족은 제1골이고, 처도 또한 그 족이며,

아들을 낳으면 모두 제1골이 되었다. 제2골의 여자는 취하지 않으며, 비록 취하더라도 항상 침입으로 삼았다. (『신당서』동이열전 신라전)

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왕과 왕비의 혈연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이를 결코 과장된 표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를테면 신문왕이 두 번째로 맞이한 왕비인 김흠운의 딸은 김흠운이 태종무열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역시 태종무열왕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효성왕의 경우 두 번째 왕비가 이모이다. 이와 같은 족내혼 혹은 근친혼은 결코 원시적인 전통을 이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생겨난 현상일 것이다. 즉 왕족 김씨가 정치적 권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고 한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는 중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국왕과 왕족 김씨 사이의 결합으로서 중대 전제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태종무열왕계의 통합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김유신계와의 결속 강화

태종무열왕은 즉위 이듬해에 김유신을 대각간으로 임명한 다음, 계속해서 자신의 셋째 딸 지조를 대각간 김유신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는 혼인을 통해 김유신 세력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시도였다. 사실 태종무열왕의 직계 왕자들 대부분은 바로 김유신의 누이인 문명왕후 소생이었다. 그만큼 태종무열왕대 이후 김유신 가문의 세력은 막강하였다. 때문에 태종무열왕은 김유신 가문과 혼인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즉 이를 통해서 중대 초기의 국왕들은 김유신 가문과의 연합 속에서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군사적으로 크게 활동한 김유신 가문의 정치적 진출로 이어졌다. 655년에 상대등에 임명되었던 금강이 죽자, 이찬 김유신을 660년에 그 후임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태종무열왕은 김유신에게 그동안 누려온 군사적 실권과 함께 이제 정치적 실권까지를 주었다. 아직까지 상대등은 최고의 정치적 지위였다. 진골귀족 세력을 통괄하는 인물로 그를 임명한 것이다. 이는 김유신으로 하여금 국왕인 자신에 이어 신라 사회에서 그의 뒤를 잇는 인물로까지 부각시켰다. 다시 말해 태종무열왕계와 김유신 세력과의 확실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파격적 임명이었다. 가야계인 김유신은 신분적으로 상대등에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등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말해 준 것이다. 때문에 김유신은 그의 사후에 태종무열왕 혹은 문무왕과 함께 삼국통일을 이룬 두 명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의 사후 묘비가 세워진 사실도 이를 알려준다고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유신으로 하여금 백제정벌에 보다 적극적인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사실 백제정벌에서 보여준 김유신 가문의 혁혁한 공로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 정벌에 나섰을 때 김유신은 동생인 김흠순과 함께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벌에서 백제와 전투를 벌였다. 백제 장군 계백이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해 세 군데에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유신의 군대는 네 번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고 사졸들은 힘이 다 빠지게 되었다. 이때 장군 흠순이 아들 반굴에게 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이런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바치면 충과 효 두 가지 모두를 갖추게 된다.”고 하여, 반굴이 백제 진영에 뛰어들어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이는 이른바 ‘충효 양전론’으로, 이후 품일의 아들 관창이 뒤를 이어 용감히 죽음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반굴과 관창의 죽음으로 신라군은 모두 죽을 마음을 먹고 진격해 계백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는 백제의 멸망을 촉진시킨 중요한 승리였다.

이후 661년 6월에 김유신은 고구려를 원정하였다. 그는 이 원정에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다 군량이 떨어져 곤경에 처한 당나라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구려 중심부까지 왕복하는 결사적 수송 작전을 펼쳤으며, 당나라 군대가 퇴각하자 이듬해 정월 고구려군의 매복과 추격을 물리치고 돌아왔다. 663년에는 백제 부흥을 꾀하는 백제 유민과 그들을 지원하는 왜(倭)의 연합 세력을 격파하였고, 664년에도 백제 유민이

사비성에서 봉기하자 은밀한 계책을 일러 주어 평정하게 하였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 신라군의 총사령관 격인 대총관이 되었다. 그러나 늙고 병들어 원정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고 왕경에 남아 원정을 떠난 왕을 대신해 신라 국내의 통치를 담당하였다. 문무왕과 생구관계甥舅關係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원정군의 수뇌인 김인문과 김흠순도 생질과 아우였던 만큼 국가의 원로로서 고문과 지도적 구실을 하면서 신라 진영의 단결과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 고구려를 평정한 직후에는 다시 한 등급을 높인 ‘태대서발한’이 제수되고, 여러 가지 특전을 포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직접 일선에서 정치나 군사적 일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김유신 가문의 정치적 진출은 김유신이 문무왕대인 673년 7월에 사망함으로써 상대등 자리가 공백이 된 시기의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유신의 친동생인 김흠순이 문무왕에 의해 총제(冢宰)로 임명된 것이다. 총제는 문무왕의 동생인 차득공이 역임한 직책이지만, 그 성격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중시 임명설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와 달리 김유신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김흠순이 상대등이 되었다고 보는 설명도 있다.

김흠순 역시 문무왕 초년에는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668년 6월에는 대당총관으로 고구려 원정군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670년에는 당나라에 사죄사로 파견되어 신라의 당면한 현안이었던 옛 백제 땅에 대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김유신에 이어 김흠순까지 중대 정권의 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태종무열왕계는 김유신계와의 결합 속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며, 대당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하겠다.

삼국통일 전쟁과 나당전쟁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활동한 김유신 세력의 움직임은 결국 김해지역을 준왕경인 소경으로 승격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문무왕은 680년 가야군을 금관소경으로 삼았다. 진흥왕대인 532년에 금관가야가 항복하자, 그곳을 금관군으로 삼았다고 하였지만, 가야군으로도 나온다. 다시 그 이름을 살려서 금관소경으로 한 것이다. 금관소경의 설치는 중고기 가야유민들이 지방인과 왕경인으로 구별되면서 단절된 김해지역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됨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김유신의 세력기반인 금관군의 성장은 문무왕대 소경의 설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문무왕대는 지방 통치조직상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사실은 소경제도의 새로운 정비였다. 삼국통일 이전에 소경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체계 있게 정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통일 뒤인 문무왕 678년에 복원소경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2년 뒤에 김해소경을 설치하면서 소경제는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후 이것이 신문왕대에 5소경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금관군이 소경으로 승격된 배경에 대해서는 문무왕대의 왕권 강화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왕경이 동쪽 한 끝에 너무 치우친 결함을 보충하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왕경의 귀족들을 이주시켜 거주케 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5소경은 지방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때문에 전제왕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해되기도 한다.

견제 역할이 필요하였던 이유는 각 소경에 신라가 정복한 국가의 귀족들을 사민정책에 의해 강제 이주시켜 살게 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소경의 설치는 이러한 사민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가령 대가야의 귀족들은 중원소경에, 고구려의 귀족들은 남원소경에 옮겨 살게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그것은 신문왕 때에 보덕국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고구려 유민을 남원소경으로 옮긴 데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경 설치의 이유를 그것만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금관소경의 경우 피정복민의 사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보다는 9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옛 정복지역에 대한 통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정복민이 거주하는 곳이 소경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그들의 신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름 아니라 소경이 설치됨으로써 그들은 준왕경인이 되는 것이다. 지방인이 아닌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왕경인에 비해서 출세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크게 강조하였는데, 그들의 신분은 다른 지방인들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는 당시 신라 중앙정부가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를 통해 이들을 화유하면서 이들과의 통합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함이 낮지 않을까 싶다.

사실 김해소경의 설치의 무엇보다도 통일기 이전과 달리 중대의 지배세력이

바뀐 점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터이다. 삼국통일이나 대당전쟁 승리 모두 태종무열왕계가 김유신계와의 결합을 통해 이룬 것이었다. 그러므로 태종무열왕계로서는 김유신계의 출신지인 김해지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본다. 중대 왕실의 김해지역에 대한 관심은 백제의 멸망 직후인 661년부터 찾아볼 수 있다. 문무왕이 그동안 끊어졌던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잇게 한 것이다. 이는 신라왕실의 김해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말한다. 이는 무열왕과 수로왕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종묘에 대한 제사를 함께 말하고 있다. 또 수로왕의 17대손을 파견하였다. 그러므로 문무왕이 680년 김해를 소경으로 새롭게 편제한 것은 태종무열왕계의 김해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것은 김유신계의 요구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문무왕의 어머니가 가야계 왕족의 후예라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특히 김유신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관소경의 설치는 가야계 후손의 정치적 비중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이루어진 변화였다. 그동안 김해지역의 가야계 사람들은 지방인으로서 신분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신라 골품제라는 신분 구조 내에서 경위를 받지 못하고 외위를 받으면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문무왕대 수로신화를 비롯한 가락국의 역사가 문자로 일단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락국기』에서 김무력을 강조하고 있다든지, 개황 15년이 김유신의 출생시기와 관련해서 이해된다든지 하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삼국사기』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무력이 둘째 아들로 언급되며 그의 정통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김유신계의 가야지역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왕후사가 창건되었을 것이다. 『가락국기』에 문무왕의 모후가 언급되는 점으로 보아 역시 문무왕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대당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김유신계의 정치적 비중이 한층 더 높아졌을 때 금관군의 지역적 우월성 또한 크게 강조되면서 소경으로 승격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김유신의 사후에 이루어졌다.

금관군에서 김해소경으로의 변화는 금관군민의 신분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지방인이었던 금관군민들의 신분적 변화를 의미하였고, 토착세력의 변화를

야기시켰을 것이다. 신라 골품제에서 금관소경인들은 이제 지방인이 아닌 왕경인에 준하는 존재이다. 이들은 소경인으로서 왕경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이 경위를 받고 활동한 것은 신라 말의 경우이지만 충지 잡간이나 영규 아간이 김해소경인으로 그런 관등을 받은 사례로 알 수 있다.

한편 신라 왕경에 머물고 있던 김유신계의 소경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중앙의 김유신계가 이와 같이 금관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가야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세력기반이 가야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왕경인의 이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무렵 가야왕실의 후손들이 신라 왕실의 일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금관소경에 거주하였을 것이며, 지방귀족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이다. 그에 해당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갱세 급간의 경우 그러한 왕경인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중앙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소경에 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제사를 지내며, 왕후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출신지로서의 김해지역을 크게 강조하였을 것이다.

이제 김유신계는 중고기와는 달리 중대에 들어와서 김해가 소경이 됨으로써 그들의 출자를 비로소 드러내게 되었다. 이는 가야군의 김해소경으로의 승격은 중대에 들어와서 한층 높아진 김유신계의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김유신 가문이 중대 왕실에 버금갈 정도의 이상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김유신계가 태종무열왕계와의 결합 속에서 중대 전제왕권을 형성시키고, 발전시켰으며, 또한 삼국통일과정과 대당전쟁과정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었다.

3. 당의 분열책과 신라의 대응

태종무열왕이 김유신을 극히 우대한 이유는 그로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해 나갔지만, 한편으로 당나

라로부터의 압력을 막기 위해 김유신이 꼭 필요하였다. 백제 정벌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끝난 전후 처리에 있어서도 김유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자칫하면 분열되기 쉬운 진골귀족 세력의 내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유신이 군사적으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신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유신은 일찍부터 당나라의 신라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간파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었다. 백제 침공을 위해 처음 시도한 작전으로 황해를 가로질러 공격하는 위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백제 영토로 들어온 소정방은 곧 바로 나당동맹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태종무열왕과 당 태종이 옛 백제 지역을 포함해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가 차지하기로 한 약속을 맺었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나라는 이러한 의도를 신라에게 노골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당은 백제공격 직전부터 신라에게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신라 지배세력의 내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신라를 견제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당의 이민족 지배정책 아래 묶어두기 위해서였다. 이는 백제를 침공할 때 소정방이 펴 거드름을 피우며 신라군을 대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다. 소정방은 660년 백제 공격 작전에서 약속한 기일을 어겼다고 해서 신라 장군 김문영을 처형하려고 하였다. 소정방은 이를 빌미로 신라군의 통수권을 장악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라군을 대등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당에 속한 휘하 군대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김유신은 먼저 당나라군과 결전하겠노라며 단호히 맞서 소정방의 기도를 무산시켰다. 소정방이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김문영을 처형하겠다는 말에 크게 분격한 김유신이 “먼저 당나라 군대와 결전을 한 뒤에 백제를 멸하라.”고 하여 소정방의 기를 꺾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는 또한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옛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여준 소정방의 달라진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신라는 백제를 바로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싶었으나 당은 이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은 소정방을 통해 한반도에 자신들의 이민족 지배정책을 새로이 실현시키

고자 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당의 기미정책으로, 무력으로 정복한 주변국가에 새로운 지배기구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뒤 신라의 영토로 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함으로써 백제의 옛 땅을 실질적으로 관할하였다.

이와 같이 백제 지역에 대한 전후 처리문제를 에워싸고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정방에게서 일종의 전공자 식읍안이 튀어나왔다. 그의 계획은 백제의 옛 땅을 김유신·김인문·김양도 세 사람에게 식읍으로 모두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신라에게 백제 지역을 모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라의 유력한 귀족 몇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한편 친당파로 만들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신라 왕권과 대립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분명한 신라 분열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당은 신라 지배층의 분열을 획책하며 신라를 침공할 기회를 노린 것이다.

이때에도 김유신은 이러한 유혹을 거절해 신라 지배층의 결속을 굳힘으로써 당나라의 계략을 무산시켰다. 식읍안에 대해서 “우리들만이 홀로 식읍을 받아 스스로의 이익을 꾀한다면 그것은 의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하며 신라의 군신이 모두 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거절하였다. 김유신은 국제관계 속에서 당나라가 신라에 대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이에 대처하였던 것이다. 즉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의 장군들은 소정방의 신라 지배세력 분열책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신라는 당과 맺었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당과의 동맹관계란 수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소정방 역시 신라는 상하가 굳게 결속되어 작지만 쉽게 정복할 수 없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한다.

이러한 가운데 김유신은 고구려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당나라와의 정면 대결을 피해 신라군을 백제 유민군으로 위장하여 당나라군의 행동에 군사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김유신의 의도와는 달리 이후 신라와 당의 대립은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그 뒤에도 당나라는 665년 김유신을 봉상정경(奉正卿) 평양군(平壤郡) 개국공(開國公) 식읍(食邑) 2,000호(二千戶)로 봉하는 등 유혹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뻗쳐 왔다. 이 역시 김유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당나라의 이러한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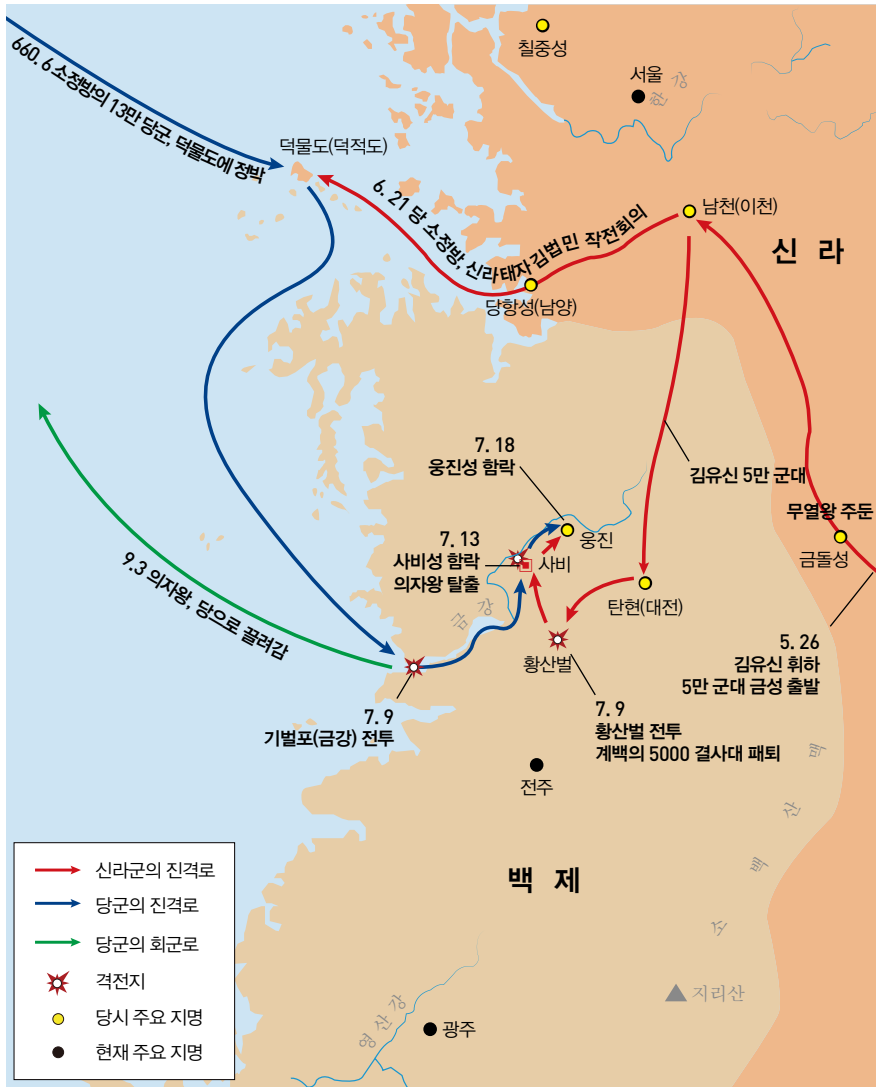


그림 1.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투도

은 결국 자신들이 추구한 의도와 달리 신라와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나당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본격화된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투쟁에서도 김유신은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672년 석문전투에서 신라군이 당나라에 참패했을 때 문무왕이 그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이 기록에 나타난다. 바로 김유신의 아들 원술의 처리 문제

였다. 원술은 정치적으로 크게 활동한 삼광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사실 원술의 군사적 활동은 대당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원술의 참전은 문무왕대에 대당전쟁이 본격화되는 672년에서 찾아진다. 신라와 당나라는 672년 8월에 들어서 황해도 서흥에서 규모를 갖춘 정면승부를 벌였다. 이른바 석문전투이다. 석문전투에 원술은 비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는 기선을 제압하였다. 주요 군부대의 하나인 장창당이 당나라 병사 3천명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창당의 공로를 시기한 다른 부대원들이 전공을 얻기 위해 각각 군사를 나누어 흩어졌다. 그 바람에 미처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라군을 당군이 공격하자,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원술은 멸악산맥으로 보이는 무이령으로 탈출하였다.

석문전투에서 패배한 원술은 무이령을 거쳐 대장군 일행을 따라 몸을 숨기고 경주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석문전투의 패전 책임에 대한 논의가 문무왕과 김유신 사이에 있었다. 왜냐하면 석문전투의 패배가 신라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과연 신라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김유신은 원술의 처형을 주장하였다. 김유신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막료인 담릉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는 원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무왕은 원술에게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사면을 시켜주었다. 그러나 김유신은 그를 아들로 대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술은 부끄럽고도 두려워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산골로 달아나 숨었다고 한다. 이는 김유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김유신이 죽자 원술은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고자 하였으나, 지소부인 역시 원술이 김유신에게서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술은 태백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이후 675년 10월 매소성전투가 벌어지자, 원술은 다시 자기의 죽음만이 치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전투에 참여하였다. 매소성전투는 천성전투에 이어 벌어진 신라와 당나라의 대 전투였다. 당시 당나라는 671년 이래 신라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전선은 임진강 유역에 고착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힘들다

고 판단한 당나라는 매소성 일대에 주둔하면서 신라 경략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초기의 매소성전투는 신라에 불리하였다. 신라군은 이근행이 주둔한 매소성을 3차례나 공격했다. 그러나 모두 패하여 퇴각하였다. 패전은 문무왕이 당에 사죄사를 보낼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675년 9월에 들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신라가 임진강 하구의 천성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천성전투를 통해 설인귀의 보급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이근행이 거느린 군대의 자유로운 활동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제 신라는 이를 바탕으로 매소성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석문전투에서 패배하였던 원술의 전투 참여도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정규군 소속이 아니었을 원술이 죽음을 각오하고 벌인 군사적 활동 덕에 신라군은 당나라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매소성에는 20만 명으로 언급될 정도의 대규모 당나라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결국 당나라 군대를 쫓아내고, 3만 필에 달하는 말과 그에 해당되는 병기를 노획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원술은 공이 있어 상을 받았다고 한다. 매소성전투에서 초기의 전세 불리를 후반에 만회해 승리로 이끄는 데 원술의 군사적 활약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당전쟁은 676년의 기벌포전투를 통해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남으로써 끝나게 되지만, 675년 매소성전투는 이후의 나당전쟁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전투였던 것이다. 이는 나당전쟁의 흐름을 신라 쪽으로 기울도록 만든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술은 나당전쟁기간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원술은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이에 그것을 한스럽게 여겨 벼슬하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김유신이 이와 같이 원술이 비극적 최후를 맞도록 가혹한 태도를 보인 이유를 원술이 왕명, 즉 충을 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훈인 효 역시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전쟁에 나아가 힘써 싸워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 다시 말해 임전무퇴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소부인 역시 이러한 김유신의 의도를 따라 원술을 계속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즉 김유신은 원술의 처형을 통해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사회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덕목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가야계 출신인 김유신은 이를 통해 자신이 이룬 신라 사회에서의 위치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던 측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유신은 자신의 가문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한 신라 사회 전체가 지향하고 있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원술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의 아들만이 아니라 자신 역시 신라 사회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석문전투의 패배 책임을 논의할 때 김유신은 원술의 생존이 신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비록 비장의 직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처형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통해 김유신은 신라의 내부 분열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김유신의 결단 이면에는 스스로를 엄격히 단속하며 신라인들의 결속과 사기를 북돋우려는 한결같은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김유신의 이러한 노력은 신라가 대당전쟁마저 승리하여 삼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4. 백제 유민 통합책

태종무열왕은 당나라 군대와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키고 또 백제 부흥군을 평정하면서 옛 백제 땅을 점령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투해온 백제 유민을 회유하고 포섭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포섭정책은 백제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된 태종무열왕 말년부터 백제 부흥군에 대한 평정작전이 전개된 문무왕 초년에 주로 행해졌다.

태종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백제인도 재주를 해아려 임용하였다. 좌평 충상과 상영, 달솔 자간에게는 일길찬의 관등을 주고 총관의 직을 주었으며 은솔 무수에게는 대나마의 관등을 주고 대감의 직에 충당하였고, 은솔 인수에게는 대나마의 관등을 주고 제감의 직에 충당하였다. 이는 태종무열왕이 백제 왕도를 함락시키고 의자왕의 항복을 받은 후 3개월간 백제 지역에 머물면서 아직 항복하지 않고 반항하는 세력들을 평정한 뒤 왕경으로 돌아와 논공행상을 어떻게 하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좌평 충상과 상영 등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의해 패배하면서 포로가 된 자들이었는데,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해올 때 당나라 군대에 대해서는 예봉을 피하기 위해 방어 작전으로 대항하고 신라군에 대해서는 공격책으로 나아갈 것을 건의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잘못된 작전을 의자왕에게 건의함으로써 백제군의 전열을 분열시키는 커다란 잘못을 범한 인물들이었다.

사실 이들 가운데 충상은 신라와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맺고자 노력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충상은 648년 백제 장군 8인과 김품식 부부의 유해를 교환하자는 신라의 제의를 의자왕에게 받아들이도록 간언한 인물이기도 하다. 『삼국유사』에 실린 선화공주 설화가 보여주듯이 당시 백제 사회에서는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데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후 충상은 신라에 적극적 충성을 보여주었다. 661년에 사비성을 공격하는 백제 부흥군을 평정하기 위해 태종무열왕이 이찬 품일을 대당 장군으로 한 일단의 출정군을 편성하였는데, 아찬 충상은 대당의 부장군으로 출정하였다. 같은 해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신라에게 거병을 요청하자, 이때에도 충상은 상주 총관에 임명되어 웅산성에 주둔한 백제군을 공격함으로써 수천 명을 참살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에 내투한 백제인들 가운데서 신라에 충성을 보여 그 지위가 상승하기도 한 이들이 있었는데, 충상은 일길찬에서 아찬으로까지 승진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유민들을 모두 그와 같이 대우하지만은 아니하였다. 문무왕 때인 670년 부흥운동을 일으킨 백제 유민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밝히지 않은 내지로 이주시켜 버리는 사민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신라의 백제 유민들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아마도 대부분 포로들로서, 혹은 신라지역으로 강제 사민된 백제인으로, 혹은 옛 백제 지역에서 씩씩하고 용감한 자를 소집해 구성하였을 9서당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문무왕은 672년에 들어오면 백제인으로서는 구성된 백금서당을 만들었다. 이는 9서당 가운데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다. 9서당은 신문왕 때인 687년에 들어가서는 백제 잔민으로서 구성된 청금서당을 만들면서 완성되었다. 9서당 가운데 두 개가 백제유민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백제국의 민과 웅진도독 부여융의 지배하

에 있었던 백제민으로 서로간 구별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백제유민만이 아니라 고구려유민, 보덕국민, 말갈민 등 피정복민으로써 9서당이 구성된 사실과 관련해서 이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유민을 포용하기 위한 일종의 융합정책의 산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피정복민 중에서 모집된 군대이기보다는 포로로서 조직된 군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아마도 천민적 성격이 농후하였을 것이며, 전제왕권을 옹호하는 왕경의 중앙군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선화공주 설화의 형성

『삼국유사』 소재 선화공주 설화의 형성은 백제 익산세력의 친신라 우호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선화공주 설화를 보면 신라와 익산세력 사이에 형성된 우호적인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모두 무왕과 같은 시기인 진평왕과 관련되어 서술되고 있다. 무왕과 익산세력인 선화공주의 혼인이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공주와의 혼인으로 설명되거나, 진평왕대 중국에 유학했다가 귀국하여 활동한 승려인 지명이 지명법사로 또한 존재한다든지, 그리고 진평왕이 백제 무왕을 존경하여 늘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는 사실이나, 미륵사의 창건에 진평왕이 기술자를 보내어 후원한 내용 등이 새롭게 덧붙여진 것이다. 즉 신라에 의해서 진평왕 때 신라와 백제가 실제로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화공주 설화가 백제가 아니라 신라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중대 초기 신라와 익산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의 기록에서 익산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곧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태종무열왕에 의해 익산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이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금마군에 이변이 일어난 후 태종무열왕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태종무열왕대, 특히 중대 초기의 정권과 익산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든다. 다름 아니라 중대왕권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요 지역의 하나가 익산지역이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익산의 선화공주 설화가 새롭게 부각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때

신라에 의하여 진평왕대를 중심으로 익산세력에 의하여 추구된 친신라 우호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익산세력에 의하여 형성된 선화공주 설화가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통일신라의 옛 백제 지역 지배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백제인을 회유하고 포섭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안승의 익산 안치와 보덕국 수립이 백제 유민의 저항을 제어하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면, 이 설화를 통일 이후에 펼쳐진 사상 통합정책, 백제 유민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한 견해는 주목된다. 신라는 백제 멸망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펼쳤다. 이때 신라에 의해 포섭된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영은 군신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황산벌전투를 결정한 인물인데, 홍수나 성충과는 다른 정책을 건의함으로써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충상이나 임자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된다. 충상은 김품석 부부의 해골을 돌려보내기를 건의하였으며, 임자 또한 김유신과 내통한 인물이었다. 또 의자왕대 전기에 신라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정복과 같은 인물을 백제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였던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는 모두 신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할을 한 인물들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이를 통해 백제 지배층의 분열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신라에게 익산세력은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세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무엇보다 익산세력은 무왕대에 친신라 우호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익산세력은 대신라전을 주도한 사씨 세력과 충돌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신라는 백제 멸망이후 익산지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성격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신라는 무왕 때에 친신라 우호정책을 추구하였던 익산세력을 회유하거나 포섭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패하도록 하는 한편, 옛 백제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멸망 이후 익산지역에 대한 신라의 관심은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왕궁리유적은 익산지역이 통일신라시대에도 집권세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후 익산 왕궁리유적들은 후삼국에서 고려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거의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이는 익산지역이 견훤정권의 주된 세력기반이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익산지역이 백제 멸망 후 통일신라에 의하여 새롭게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는 백제를 병합한 이후 3주를 설치하면서 군사적 중심지는 전주에 두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는 공주에 두어 통치하려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때 익산까지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익산이 전주나 공주에 못지않은 정치적 사상적 비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세한 양상은 현재 모두 파악하기 힘들지만, 왕궁리유적에는 아마도 통일신라시대에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사찰유적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여기에다가 사찰유적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킨 의미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익산지역이 백제 멸망기에 불교와, 특히 미륵신앙과 밀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백제불교에 대한 신라의 통제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 익산이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670년대에 들어서 안승을 이 지역에다 안치해서 보덕국을 세워 주었다는 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신라가 고구려 유민인 안승을 왜 익산에다가 배치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이이제이의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는 유력한 백제세력이 잔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안승 집단의 금마저 이주는 곧 이 백제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라의 조치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 중앙정부의 관심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익산세력을 통해 안승집단을 견제하려고 한 측면도 함께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한 사실은 안승의 보덕국이 여러 면에서 독자적 모습을 보여 주었음에도 자신의 거주지인 익산에서 별다른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암시한다. 더욱이 보덕국은 중요세력이 여러 곳으로 사민되면서 소멸되었다. 거기에는 익산에 자리를 잡고 있던 백제 유민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신라가 익산지역에 안승 집단을 정착시킨 배경에 관련해서는 익산세력과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 유민들이 친신라 우호책을 추구한 세력이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때 신라가 익산세력과 고구려 유민을 한 군데에 모아두었던 이유는 친신라 세력의 결집을 추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지역에 친신라



그림 2.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우호세력을 함께 모아 둠으로써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익산지역이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선화공주 설화 역시 신라에 의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강조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선화공주 설화의 변화는 삼국통일 이후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백제와 신라의 우호적 관계를 부각시킨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덕국의 멸망으로 익산 세력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 말에 들어서 웅진이나 김제지역 등 옛 백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라가 강조한 익산의 의미도 점차적으로 퇴색되었을 것이다.

웅천주 출신 경흥의 국로 임명

통일신라의 백제유민에 대한 융합책은 백제문화의 수용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함께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궁남지에 영향을 받은 안압지의 건립이 이를 잘 알려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불교관련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의 승려로서 백제의 불교에 관심을 가진 신라 승려 원효와 의적을 통해서도 그런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은 백제계 승려로

서 경흥이나 의영 등이 통일신라 중대에 신라에서 크게 활동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경흥은 문무왕이 신문왕에게 경흥을 국사로 삼으라는 유조를 남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문왕에 의해 국로로 임명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경흥이 어떠한 계기에서 문무왕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의 불교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통일신라의 백제 유민에 대한 융화정책을 배경으로 하였음을 말한다. 웅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는 부흥운동을 평정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경흥을 국사로 모셨다는 것이다. 백제유민의 민심 수습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경흥은 백제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들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여기에서 백제 유민으로서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활동한 인물들의 성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 좌평 입자의 경우처럼 의자왕 때의 정치에 비판적이었던지, 혹은 달솔 상영과 같이 그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하여 백제를 멸망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인물로 나누어진다. 아마도 경흥은 전자에 속하는 인물로 보인다. 그의 사상적 경향은 이를 잘 알려 주기 때문이다.

한편 문무왕이 경흥을 국사로 지목한 것은 신라 불교가 백제 불교를 흡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백제의 문화 가운데 우수한 것은 적극적으로 흡수하려고 하였다. 당시 신라의 문화가 백제의 문화를 흡수함으로써 크게 발전되었으리라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밝혀지고 있다. 문무왕대가 신라가 백제의 문화를 흡수하려고 한 사실은 임해전을 무왕 때의 궁남지 혹은 망해정을 본받아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그래서 당시 백제 불교에서의 경흥의 위치가 크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룬 그의 학문적 업적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대단히 해박한 불교 지식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무왕은 그를 포섭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래서 신문왕에게 국사로 천거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그는 신문왕에 의해 국로로 임명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불교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 반발은 그가 백제유민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불교의 수용 이래 백제 불교의 직·간접

적 영향을 받아오던 신라 불교계가 이제는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려 한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백제 유민으로서 신라불교계를 통솔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 모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경흥은 통일신라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것은 그가 원효, 태현과 함께 3대 불교저술가의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여기에는 그가 신라 불교계에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제 불교의 영향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한 측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만큼 경흥은 백제 유민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라 불교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신라에 멸망 당한 백제의 불교는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 어떠하였을까. 우선, 통일 직후 백제 귀족으로 연기 지방에 은거한 사람들 속에서 정토신앙이 일어났음을 찾아볼 수 있다. 673년(문무왕 13)과 689년(신문왕 9) 백제 유민인 진씨, 전씨 등에 의해 만들어진 「계유명_{癸酉銘} 아미타불_{阿彌陀佛} 삼존석상_{三尊石像} 조상기_{造像記}」와 「기축명_{己丑銘}아미타불_{阿彌陀佛}급제불보살석상_{及諸佛菩薩石像} 조상기_{造像記}」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현재 백제불교와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할 수 없지만, 당시 교학연구의 수준이나 크게 유행했던 미륵신앙이나 관음신앙 등을 고려할 때 백제불교가 통일신라의 불교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5. 고구려 유민 통합책

고구려 귀족으로서 신라에 처음으로 귀부한 사람은 연정토이다. 666년 연정토는 12개의 성읍과 3,500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귀부해왔다. 연개소문의 사후 당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연정토는 고구려 내부로부터의 거센 반발을 받고 또 백제를 멸망 뒤 본래의 목표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한 당나라의 의도를 확인한 이후 신라로의 귀부를 결정하였다.

연정토 이후 고구려인들이 신라로 귀부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668년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공격 직전 웅진도독부가 고구려인들이 귀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신

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지역의 고구려인들이 넘어온 것이다. 이들은 당과 신라의 계속되는 공격에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 크게 동요하여 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고구려 유민들이 계속적으로 신라로 귀부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안승의 신라 귀부라고 할 수 있다. 안승이 신라로 귀부한 것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669년 2월의 일이었다. 이때 안승은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로 귀부하였다. 그 규모는 연정토의 경우보다도 훨씬 컸다. 이는 고구려 멸망 직후 일어난 고구려 유민들의 첫 움직임이다. 그는 보장왕의 외손이면서 연정토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신라 귀부는 고구려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인 연정토의 신라 귀부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귀부해온 고구려 유민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고구려 멸망 시 문무왕이 포로로 잡아온 7천명의 고구려인들까지를 포함한다면 고구려 유민의 숫자가 상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신라의 고구려 유민 지배정책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고구려 멸망 직전 고구려인들이 신라로 귀부해 왔을 때 신라의 정책은 연정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유민을 왕경과 주·부로 사민시키거나, 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직접 통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 당으로 연정토를 보내 신라의 대당 외교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연정토를 통해 당에게 고구려의 정세를 직접 전하도록 하면서 신라의 고구려 정벌을 위해 당을 끌어들이려고 하였던 것 같다.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안승 집단이 대거 귀부해오면서 고구려 유민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신라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고구려 유민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670년 안승 집단에 속하는 장군 고연무로 하여금 정병 1만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함께 말갈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때 신라가 안승에게 고구려유민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직접 거느리던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고구려 유민까지를 포함해 조직된 군대를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라가 이와 같이 고구려 유민을 조직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제압하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백제 유민들을 통해 백제부흥운동을 진압하려 했던 신라의 정

책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옛 고구려지역에서 신라를 계속해서 괴롭힐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또한 북쪽 옛 고구려지역에서의 움직임을 약화시키면서 옛 백제 지역의 지배에 매달리고자 한 신라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신라가 처음 고구려 부흥운동을 제압하려고 한 사실을 전해주는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670년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 신라는 그 사실을 웅진도독부에 알리면서 군사를 동원해 공격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가 고구려 멸망에 이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약화까지 추진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사실 신라는 활발한 부흥운동을 벌였던 검모잠 일행이 신라로 향해 내려오자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더욱이 검모잠이 남하하면서 신라에 와서 당나라 황제의 명을 전하고 돌아가던 승려 법안을 죽였다는 점은 신라로 하여금 더욱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공격의사를 분명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라는 웅진도독부와 연합해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당시 평양지역에서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의 진압에 주력하였던 당나라는 신라로 하여금 말갈 군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후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군을 약화시킨 당나라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자 신라군은 물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신라로 향해 내려올 때까지 신라의 일관된 기본입장이란 옛 고구려 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을 평정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고구려 유민 지배정책은 검모잠이 신라와 연결하려 함으로써 크게 달라졌다. 신라가 고구려 잔여세력을 평정하려는 입장에서 고구려유민과의 연결로 그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당나라 군대에 의해 평양성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온 검모잠은 한성지역에서 부흥운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검모잠이 신라와 연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신라로 간 안승을 맞아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애소문을 신라에 보냈는데, 이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에 대한 신라측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모잠이 신라 쪽으로 향하였던 이유는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신라의 협력을 얻으면서 재기를 꾀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당과 신라의 양면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던 고구려 부흥운동 세

력의 자구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라도 곧 입장을 크게 바꾸고 있어 주목된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공격하려고 하던 신라가 검모잠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에 머물고 있던 안승을 보내준 것이다. 이에 서해 사치도에서 안승을 만난 검모잠은 한성으로 가서 고구려의 재기를 외치면서 부흥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신라의 대고구려 유민정책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로서 그때까지 고구려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려 했던 신라로서는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70년 6월은 지금까지의 신라의 고구려유민 지배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변화는 웅진도독부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인 검모잠을 공격하려던 신라의 의도는 웅진도독부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당과 연결된 백제세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웅진도독부는 신라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의 웅진도독부에 대한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웅진도독부는 끊임없이 옛 백제 땅의 회복을 노리며 신라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었으며, 또한 당의 이민족 지배정책에 편승해 신라의 의도를 당에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등 당과 신라의 관계 악화를 계속적으로 꾀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나라 역시 이러한 웅진도독부의 의견을 신라측보다 오히려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면서 신라에 대해 계속적으로 강력한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다. 그것은 백제 멸망 이후 당의 일관된 대 신라 정책이었다. 신라는 옛 백제 지역에 취한 자국의 행동에 대한 당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당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당 외교는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신라는 이제 자국을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검모잠으로부터 신라에 귀부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하급귀족이자 지방인이었던 검모잠으로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속하는 데 신분적으로 일정한 제약이 따랐기에 왕족인 안승을 내세워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안승을 웅립함으로써 신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군을 단순한 저항세력이 아니라 끌어

진 왕조를 다시 이은 왕조의 군대로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과 웅진도독부가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던 신라로서는 이러한 검모잠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신라는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옛 백제 지역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라는 변경지역에 이들을 안치함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통해 당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신라로서는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당에게 일정한 압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검모잠의 이해와 신라의 이해가 서로 일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가 이와 같이 옛 백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 연결하려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자 당은 크게 우려하였다. 신라의 예상대로 당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당은 우선 검모잠의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 강력한 진압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당의 군사행동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당의 집중적 공격이 전개되자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 내의 권력투쟁으로 검모잠이 피살되고 안승이 다시 신라로 내려오자 신라 역시 고구려 유민정책을 수정하였던 것 같다. 신라는 안승집단을 옛 백제 지역인 금마저로 옮기고 같은 해인 670년 8월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옛 백제 지역의 지배에 직접 동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당시 신라의 고구려 유민정책에서 주목할 사실은 신라가 그 유민들을 옛 백제 지역에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신라는 옛 백제 지역 지배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함으로써 당 및 당과 결탁한 웅진도독부의 백제세력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다.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임명한 것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이미 왕으로 추대한 안승을 신라가 다시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신라가 고구려의 왕족을 왕으로 책봉하였다는 사실은 당의 이민족 지배정책에 대한 신라 나름의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웅진도독부 설치에 대한 신라의 보덕국 설치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과 대등한 관계로서의 신라의 국제적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라는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지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제도 아울러 실시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신라가 674년 고구려왕 안승을 보덕왕으로 다시 책봉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때 보덕왕의 의미를 신라왕의 덕에 보답해야 하는 왕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고구려왕의 변신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명백히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670년의 고구려왕 책봉 때보다 종속도를 한걸음 더 진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본격적 편입은 대당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취해졌다. 680년 신라는 안승을 문무왕의 누이와 혼인시켰다. 이는 문무왕의 혼인정책이다. 여기에는 신라의 대당전쟁 투쟁에 참여하였던 고구려 유민의 협력에 대한 논공행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정책을 통해 고구려 유민들을 본격적으로 신라체제 속에 편입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한층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안승을 신라왕실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혼인정책을 통해 그를 신라 왕실의 일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고구려 유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조치는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에 의해 추진되었다.

(김수태)

참 고

문 헌

- 김수태, 1996, 『신라중대정치사연구』, 일조각.
김영하, 2010, 『신라 중대사회연구』, 일지사.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서영교, 2006,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아문화사.

제2장

지배체제 정비와 지배세력 재편

1. 문무왕과 국제질서의 변화
2. 유교적 관료제의 추구
3. 대민정책의 추진
4. 불교계의 재편
5. 지배세력의 재편

1. 문무왕과 국제질서의 변화

문무왕은 중대 왕권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백제와 동맹을 맺으면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고구려에 대하여 이제 어떠한 입장을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 예상되는 당의 거센 압력을 어떻게 배제하면서 옛 백제 지역을 실질적으로 영토화하는가 등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무왕이 부딪치게 된 과제였다.

문무왕은 현실적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일찍부터 외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 간에 장기간 치열하게 전개되던 전쟁을 종식시켰으며,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위해 일시 군사동맹을 맺었던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였다. 또 자신의 세력기반인 무열왕계와 김유신계를 적절히 활용해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신문왕대에 전제왕권이 확립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가 언제부터 고구려정벌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또 신라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통일을 위해 싸웠는지도 현재로서는 하나의 의문이다. 태종무열왕이 당 태종과 맺은 밀약에 의하면 당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한 이후 신라의 영토는 평양 이남 백제 토지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신라가 처음부터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고구려 공격에 대하여 군사협력을 하며 협공을 하기로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서로의 동맹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문무왕의 입장에서는 백제 멸망 직후 태종무열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구려를 공격할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백제 지역에서 전개된 부흥운동은 신라의 발을 계속 묶어 두고 있었다. 또 당이 신라까지 공격할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것이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백제 부흥

운동 세력에 대한 고구려의 계속적 후원이 있었으므로 신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는 강력한 독재정권을 유지한 연개소문의 통치 아래 당의 압력을 잘 지탱하고 있었다. 이는 백제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라가 당과 약속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당은 신라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바로 움직임을 보여왔다.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당은 예정대로 곧 공격의 화살을 고구려로 돌렸다. 즉 백제가 멸망한 다음 해인 661년(문무왕 원년) 정월에 당은 소정방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침략케 하였다. 혹한의 계절에 작전을 수행하려 한 것은 당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당의 고구려 침공군이 지녔던 최대의 약점은 보급선의 문제였는데, 군수품의 일부를 신라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당은 문무왕에게 당의 고구려 공격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문무왕으로서의 갑작스러운 요구였다. 문무왕이 상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무왕의 즉위에 대한 당의 책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일단 당의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원년 8월에 마침내 군단편성을 완료하여 출병하였다. 그러나 당의 요구는 10월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하라는 것으로 다시 바뀐다. 이에 문무왕은 다음 해인 662년(문무왕 2) 김유신·김인문 등의 장군으로 하여금 군량을 싣고 평양성으로 향하게 하였다.

당의 고구려 공격은 당의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정방은 바다를 건너 대동강 입구를 거쳐 들어와 661년 8월에 평양성을 포위하고, 6, 7개월 동안 공격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성을 굳게 지키고 당의 별장 방효태와 그의 군대를 전멸시켰다. 한편 계필하력이 거느린 육로군은 남생의 군대에 막혀 압록강을 넘지 못하였다. 신라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김유신은 군량을 가지고 평양성에 다가갔으나, 당군은 추위로 인하여 고전하고 있었다. 이에 소정방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신라로부터 군량을 받자마자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 신라군도 이어 철수하였다. 문무왕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고구려 공격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멸망은 백제와 마찬가지로 정세 변화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것은 고구려 내부의 분열이었다. 연개소문이 665년(문무왕 5)에 죽자 그의 독재정

치 후유증으로 집권층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마치 고구려의 운명을 재촉하는 신흥세력도 같았다. 이러한 고구려의 내부 정세는 문무왕으로 하여금 마침내 고구려 공격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즉 문무왕은 고구려 내부에서 노출된 약점을 인식하자마자 고구려 공격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문무왕의 대당 외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무왕은 666년(문무왕 6) 2월 천존의 아들 한림과 김유신의 아들 삼광이 당에 건너가 숙위할 때 당의 출병을 다시 요청하였다. 이 때 문무왕은 이미 백제가 평정되었으므로, 다시 고구려를 멸하려 한다고 말하면서 당에게 군대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신라의 고구려 공격에 대한 주도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 내부의 정세 변화가 작용하였겠지만, 백제 부흥운동이 어느 정도 진압된 상황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가 12성을 들어 신라에 투항한 사실은 문무왕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문무왕이 백제에 이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무왕의 요청에 대하여 당은 666년 12월 이세적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667년(문무왕 7) 7월에 문무왕에게 고구려 정벌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8월에 들어 군단을 새로이 편성하고 경주를 출발하여, 9월 경기도 광주에서 이세적의 평양 공격을 직접 기다렸다. 그러나 평양을 공격하기로 한 이세적이 철군함으로써 문무왕의 의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연정토를 당에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한편, 당나라 군대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문무왕은 668년 6월에 당이 고구려를 다시 공격하자, 7월 평양에서 당나라 군과 만나서 고구려와의 접전을 벌였다. 고구려는 이에 항쟁하였으나,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보장왕은 남산으로 하여금 당군에게 항복케 하였다. 다만 남건만은 저항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남건을 격파하는 데 신라의 군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답서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신라의 병마가 홀로 선봉이 되어 먼저 적의 대진을 격파하니 평양 성중은 예기가 꺾이고 기운이 퇴축되었다. 후에 이세적이 다시 신라의 날랜 기병 5백인을 이끌고 먼

저 평양 성문에 쳐들어가 드디어 격파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무왕은 당시의 정세를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주도하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문무왕은 태종무열왕의 즉위 이후 대내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체제를 한층 정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권력 분산 과정을 걷고 있던 백제와 고구려의 내부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또 대외적으로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속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만들었다.

국제질서의 개편

문무왕의 삼국통일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과 신라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 백제 및 왜가 외교적으로 연결되면서 크게 두 세력이 상호 대립하던 국제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이에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자기 주도하의 국제질서를 편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무왕이 거기에 저항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로 전환하였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한반도에 자신의 이민족 지배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당의 기미정책으로, 무력으로 정복한 주변국가에 새로운 지배기구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은 백제 멸망 뒤 그곳에 웅진도독부를 두어 백제의 옛 땅을 관할 밑에 두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나라 장군을, 이어 의자왕의 아들 부여 용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백제의 옛 땅을 실질적으로 관할하였다. 또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는 9개의 도독부를 두고 이어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렇게 이민족 지배체제의 일환으로서 고구려와 백제에 지배기구를 둔 당은 왜에 대해서도 자신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외교질서 속에 들어오도록 노력하였다. 당은 부여용이 도독으로 있는 웅진도독부와 신라로 하여금 취리산에서 맹약하게 하여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유인케가 당으로 귀국할 때 신라, 웅진도독부의 사신뿐만 아니라 왜의 사신을 함께 동행시킨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 웅진도독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당은 군사적으로 왜를 침공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경

계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웅진도독부 소속 백제관료들을 왜에 파견하여 당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당은 이러한 고구려·백제 지배 의도를 문무왕에게 노골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당은 백제에 이어 신라를 자기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림도독부라 칭하고 문무왕을 계림대도독에 임명하였다. 이는 신라조차도 형식상으로나마 당의 한 도독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의 표시였다. 그래서 당은 백제 멸망 직후부터 신라에게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내분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신라를 견제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자신의 이민족 지배정책에 묶어두기 위해 서였다. 당은 신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로 여전히 그를 번신으로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의 신라에 대한 압력은 그만큼 끈질기고 강력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대한 당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문무왕에게는 큰 불만이었다. 신라는 당의 지배체제 속에 포함됨으로써 그들이 멸망시킨 나라들과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동등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결코 문무왕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며, 삼국통일의 꿈을 키워 온 문무왕으로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문무왕은 신라를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빠뜨리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문무왕의 입장에서는 태종무열왕과 당 태종이 맺었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당이 추구하는 외교질서에 신라가 순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는 한 당과의 외교관계란 수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문무왕은 당과 일종의 군사동맹을 맺었을 때의 약속에 따라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의 영토로 차지하려고 하였다. 문무왕의 목표는 최소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우선 문무왕은 당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당의 제도를 신라에 수용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등 대당 외교를 한층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670년(문무왕 10) 당이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신라의 정책에 대해 품은 당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사신으로 파견된 김양도가 감옥에서 죽기까지 하는 등 문무왕의 대당 외교는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미 웅진도독부의 의견이 신라측보다 오히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에 문무왕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였다.

문무왕은 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옛 백제 지역을 실질적으로 신라 영토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갔다. 그 조치의 하나가 소부리주 설치이다. 이제 백제는 더 이상 당의 일부가 아니라, 신라에 속한 하나의 주일뿐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671년(문무왕 11)의 일이었다. 한편 문무왕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의 연결을 지어 나갔다. 그리고 왜와도 관계개선을 꾀하였다. 복잡하게 전개된 외교상황 속에서 왜가 백제와 연합함으로써 태종무열왕 즉위 이후 단절되었던 왜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당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과 웅진도독부의 대일 외교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시도되었다고 여겨진다.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나타낸 이러한 구체적 행동은 당의 의도를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었다. 문무왕이 옛 백제 지역을 점령하고, 고구려 유민들을 받아들여 서로 연결하는 일 등은 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바였다. 이에 당은 백제 멸망 직후부터 시도하고자 했던 신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마침내 결심하게 된다. 문무왕 11년에 들어와 당은 설인귀를 통해 신라를 나무라는 글을 보내면서, 백제의 옛 땅을 자신들에게 돌려주라는 등 신라가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신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문무왕은 이에 대답하여 신라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보냈는데, 그것은 사실상 당에 대한 문무왕의 선전포고였다. 이와 동시에 문무왕이 소부리주를 설치하고 도독을 파견하면서 백제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 마침내 신라와 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신라와 당의 군사적 충돌은 이미 앞서 발생하였지만, 문무왕의 소부리주 설치 이후 두 나라의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신라와 당의 전쟁은 옛 백제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 땅에서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의 옛 땅을 모두 점거한 뒤에 침략해 온 당나라 군대와의 전투가 가장 치열하였다. 즉 672년(문무왕 12) 이래로 당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군을 동원해 침략해 온 것이다. 이리하여 한강으로부터 대동강에 이르는 각지에서 신라군은 당군과 여러 차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라의 당에 대한 항쟁은 675년(문무왕 15)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

당 고종이 신라 침략을 다시 명령하자 설인귀가 쳐들어왔다. 그러나 당의 군

대는 문훈이 거느린 신라군에 의하여 격파되었다. 그리고 이어 당의 이근행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신라군은 이를 매초성에서 다시 크게 격파하였다. 이 전투는 대당전쟁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매초성의 승리로 북쪽 육로로의 당군의 침략은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로로 계속 남하하던 설인귀의 군대 역시 676년(문무왕 16) 시덕이 거느린 신라 해군에 의하여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격파됨으로써 서해의 제해권을 신라가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6년에 걸친 당과의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났다. 당은 고구려와의 단독 전쟁과 마찬가지로 신라와 벌인 전쟁에서도 다시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문무왕은 마침내 당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반도내에서 신라의 정치적 독립을 확고히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을 굽는 선 이남의 땅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태종무열왕이 당과 맺은 밀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또한 문무왕이 목표로 하였던 최소한의 범위로 신라의 영토를 평양 이남까지 자력으로써 쟁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신라는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무왕의 이와 같은 승리는 신라가 한반도 내에서 마침내 당 세력을 축출하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 나갔다는 단순한 의미에만 머물지 않는다. 신라의 승리는 국제질서가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당에 의하여 추구되었던 이민족 지배정책이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것은 당이 안동도호부를 결국 평양으로부터 요동성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후 당은 신라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지만, 그에 따라 신라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또한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의 신라의 위치를 새로이 확인·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당에 대한 투쟁과 승리는 신라의 계속적 지원을 받았을 고구려 부흥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후 진행된 발해 건국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역시 이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신라의 비중과 역할을 새로이 인식하면서, 신라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변 정세의 변화는 앞으로 당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아니라 당과 신라를 중심으로 발해·일본이 참여하면서 상호관계를 맺어 가는 형태로 변경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이 형성된 국제질서는 문무왕의 당에 대한 승리가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유교적 관료제의 추구

백제의 멸망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달성한 문무왕은 대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려고 하였다. 이는 그의 재위 전 기간에 걸쳐서 추구되었다. 그것은 유교적 관료제로의 정치 개혁 추구로 나타났다. 문무왕은 전제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진골귀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력기반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관료들의 존재가 주목되었다. 이 관료들이란 왕권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골품제도에 크게 의존하는 진골귀족과는 달리 신분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행정적 능력에 의존하는 새로운 성격의 집단이었다.

율령격식의 정비와 관료제의 형성

태종무열왕의 정치 개혁 목표 역시 유교적 관료제의 추구였다. 그의 관심은 율령으로 나타났다. 중대의 개막과 함께 당의 율령을 참작해 기존의 중고기 율령체계에 대해 일대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태종무열왕이 즉위하자마자 5월에 이방부령 양수 등에게 명하여 종래의 율령을 살펴 이방부적 60여조를 수정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새로운 율령 보수작업은 그 후 삼국통일 전쟁 시기를 통하여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것은 681년 문무왕이 유조를 통해 율령과 격식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곧 개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법제화의 추세는 중앙의 입법관서인 이방부의 확대 및 그 소속 관원의 증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방부는 651년(진덕여왕 5)에 좌이방부로 창설되었는데, 그 후 667년(문무왕 7)에 우이방부가 증치되어 결국 좌우 두개의 관서가 병립

하게 되었다. 영을 장관으로 하는 신라의 일급 중앙행정관서로서는 이례적인 사실이다. 또 좌우 이방부의 차관직인 경은 678년(문무왕 18) 정월 각각 1인이 증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대 초에 대규모적인 형틀을 포함한 법전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법전 정비야말로 유가 정치사상의 실현이며, 법전에 의해 왕권을 합법화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법전의 정비는 다른 아닌 관료제의 추구라는 중대 왕권의 목표와도 연결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법전 정비는 행정관서의 확충, 정비와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일급 중앙행정관서라고 할 수 있는 관청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는 문무왕대를 지난 신문왕대의 일이다. 하지만, 신문왕대의 보완에는 문무왕의 의지가 반영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무왕대를 실질적 의미에서 관부의 완성 시기라고 볼 수 있다. 663년(문무왕 3) 선부, 667년(문무왕 7) 우이방부, 677년(문무왕 17) 녹봉을 담당하는 좌사록관, 681년(문무왕 21) 우사록관이 설치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것은 중앙행정관서의 관원 조직에도 반영되어 있다. 중앙관부에 속하는 관원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 그 한 가지 현상이다. 관원 증가는 특히 문무왕대에 말단 행정 담당직인 사에서 그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문왕대에는 사지가 설치되면서 중앙행정관청에서 5단계의 관직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경-대사-사지-사를 기본으로 정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고책임자인 장관(영)과 정책의 입안담당자인 차관(경)이 있고, 그 밑에 실무를 주관하는 자(대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자(사지) 및 말단의 행정보좌관(사)으로 각 관청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관직제도의 정비는 곧 통일신라의 관직체계 전체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골격은 문무왕대에 대부분 만들어졌다. 관료의 양성과 배출을 목표로 해서 682년(신문왕 2)에 설치된 국학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므로 신라 관료제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형성된 시기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신라 사회에 관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행정관서의 증설, 관원 조직의 확장으로 관료군이 급격하게 팽창하자 자연히 감찰업무의 비중이 높아졌다. 신라에서 관료에 대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관부는 사정부였다. 중전의 사정부 장관은 659년(태종무열왕 6) 사정부 개편 때에 차관으로

떨어지고, 이때 새롭게 장관인 영이 설치되었다. 이는 사실상 이때 사정부 기구가 한 단계 격상한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감찰업무의 중요성이 커진 것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사정부 장관인 영이 1인인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이것은 집사부의 장관이 1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귀족세력의 침투를 배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료들을 감찰할 때 왕과의 관련 속에서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감찰업무에 대한 관심은 문무왕대에도 계속되었다. 문무왕대에는 이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관서가 오로지 중앙의 행정기구뿐 아니라 지방의 주와 군으로도 확대되어 갔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것은 차득공이 관리의 청탁을 파악하였다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673년(문무왕 13)에 설치된 외사정제는 그 명칭으로 보아 지방에 파견된 사정관이 확실한데, 주에 2인, 군에 1인이 파견되었고 그 수는 전국적으로 133인에 달한다. 이는 삼국통일 후 지방 통치체제가 종전의 행정·군사 이중 지배적 성격에서부터 행정으로 일원화된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감찰업무를 지방에까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생겨난 데서 기인한 조치였다. 이것은 지방관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직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역시 문무왕 때 관료제의 완비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차례의 관등 승진 및 중위제의 실시

문무왕이 즉위하자마자 취한 조치는 지배세력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그것은 전 관료에 대한 관작을 두 차례나 일급 특진시킨 데서 나타났다. 중대에 전 관료인 문무관에 대한 관작을 일급 특진시킨 사례는 전후 3차례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661년(문무왕 원년) 9월이고, 두 번째는 668년(문무왕 8) 10월이며, 세 번째는 702년(성덕왕 원년)이다. 세 차례 가운데 두 차례가 문무왕대에 실시된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특진 사례는 각기 백제와 고구려 정복 달성을 기념한 논공행상으로 보아도 좋다. 문무왕이 유조에서 밝힌 것처럼 따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포기하겠다는 것을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왕위에 오른 문무왕이 거기에 참여한 세력

에 대해 실시한 논공행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단순히 백제 정벌에 대한 논공행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고구려와의 전쟁, 서서히 대립하고 있던 당나라에 대비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지배세력의 결합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668년의 조치 역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배려라고 할 수 있지만, 옛 백제 지역을 지배하는데 대비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될 당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즉 태종무열왕이 왕족들에 대한 관등 승진을 통해 결속을 꾀한 것과 같은 문무왕식의 지배세력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무왕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진골귀족의 동향을 고려한 측면이 많았을 것이다. 6두품 이하의 관료들에게 중위제를 적용하여 관등 승진에 제한을 가하던 조치와는 대조적으로 진골귀족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제5관등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같은 진골이라고 하여도 현실의 국왕을 중심으로 할 때 그 친족 관계에는 원근의 차가 있게 마련이며, 결국 그것이 각 가문의 격에서 고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진골귀족들 사이에도 그러한 관등의 승진 효과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진골귀족들은 관등의 승진에 있어서도 반드시 순차적 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이는 6두품 이하와는 달리 진골귀족들에게 특진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진골귀족들을 계속적으로 화유할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무왕의 관료제 추구가 처음부터 기존의 신분제인 골품제의 기반 위에서 서로 마찰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조치는 진골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골귀족들보다 광범위한 숫자를 차지하였을 하급 귀족들을 겨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문무왕 원년의 전공 포상 내용은 중고기 이전의 그것과 현저히 달라진 점이 있다. 검劔과 극戟과 같은 상징적 성격이 강한 위세품의 하사와 관위만의 승급을 하였는데, 이는 중고기 이전에 전리품을 분급하던 관행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기왕에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귀족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제약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분급해줄 필요가 없었던 데 기인한다. 중대 초기의 대외전쟁은 태종무열왕계가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김유신이나 김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족세력이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진골귀족 세력의

경우 대부분 관등 승진만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골귀족이 아닌 하급 귀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등 승급이 되면서 그와 함께 현물로서의 조租와 粟稅이 추가로 하사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서 문무왕은 이들과 인적 유대와 결합을 강하게 형성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는 문무왕의 통치방식이 강한 왕권을 지향하면서 기존의 진골귀족 집단을 장악하는 한편, 그들과 구별되는 중하위 신분층에 대해서는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파악된다.

사실 문무왕은 진골귀족 세력 못지않게 하급 귀족들의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진골귀족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1등급 관등 승진은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태종무열왕계가 추구하는 관료제의 실시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분 등급에 따라 관등,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이 규정되었다는 점이었고, 그를 극복해야만 했다. 골품제의 원리를 따를 때 6두품 귀족에게 관등을 한 단계 승진시킨다면 바로 관등 승진의 상한선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것은 김유신과 문무왕의 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당이 백제 공략에 성공을 거둔 이듬해에 다시 소정방을 파견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식량난에 직면하자 문무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유신을 파견하였다. 이때 김유신에게 국경을 벗어난 뒤에는 상벌을 마음대로 하여도 좋다는 소위 편의종사권을 부여하였다. 보기갑 열기는 김유신의 지시로 식량을 평양까지 조달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목적을 무사히 완수하였다. 김유신은 그에게 전장에서 임의로 급찬의 관등을 지급하였는데 왕명으로 귀환한 후 다시 1등급을 높여 사찬으로 삼도록 요청하자 문무왕은 그것이 지나치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작록은 공기(功記)로서 공에 대해 보답하여 주는 것이니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고집하여 끝내 본래의 뜻을 관철시켰다. 문무왕이 열기에게 사찬을 지급하는 데 반대한 것은 군공의 크기 문제보다도 아무래도 관등 승진에서 원칙을 마련하자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만큼 하급 귀족의 관등 승진에 대해서 문무왕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진골 중심의 골품제와 비 진골(주로 6두품) 중심의 관료제라는 두 개의

이질적 계층, 원리가 서로 마찰하는 것을 피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종의 타협점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중위제이다. 가령 6두품 출신으로 아찬 관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1등급 위인 대아찬으로의 승진이 골품제의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경우에 처한 사람을 위해 중위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로써 한정된 관직 수에 대비한 관인층의 증가는 3두품 이하를 평인화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한 상황 속에서 종래의 귀족세력은 왕에게 예속된 관료로 전화해 관직체계로 편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주로 6두품 이하 출신자들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던 중대의 관료제가 일정한 한계 속에서만 자체 발전하고 있었던 한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문무왕의 이러한 조치는 태종무열왕이 추구하고자 했던 관료제 확립이라는 현실적 목표와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무왕은 자신의 왕권 강화와 관련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진골귀족 세력에 대신하여 새로이 6두품 이하의 관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보인 것이다. 진골귀족을 공동의 대항세력으로 생각하는 전제왕권과 6두품 이하 하급 귀족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무왕대의 정치적 분위기는 확실히 관료제적 경향을 뚜렷이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중시와 상대등의 성격 변화

문무왕대 관료제의 성장은 중고기의 권력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는 상대등의 성격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시직의 상대적 강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가령 중대에 국왕의 행정적 대변자임과 동시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집사부 장관인 중시는 그 임기가 3년이 아니었을까 추측될 정도로 거의 정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진골귀족의 합의제를 기본 원리로 하는 화백회의 의장으로서의 상대등이 왕의 교체와 동시에 바뀌는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물론 상대등 자리도 중대에 들어와서는 전제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변질되어 갔다. 그것은 상대등의 임명이 중시의 그것과 때를 같이하는 등 그 절차상의 변화에 반영되어 있다.

태종무열왕은 화백회의의 결정을 번복시키고 즉위했기 때문에 귀족회의의 위상 약화는 기정 사실이었다. 태종무열왕대에 금강, 김유신이, 문무왕대에는 김유신

이 계속해서, 그리고 그의 사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김군관이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금강이 중고기의 상대등처럼 새로운 왕의 즉위와 더불어 취임하는 관행을 따랐더라도 문충의 중시 임명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은 중대에 들어 약화된 귀족회의의 위상을 반영한다. 김유신은 태종무열왕계와 중첩된 인척관계를 맺은 인물로서 가야계 세력의 중심이다. 그의 상대등 임명은 귀족세력을 억제함으로써 태종무열왕계의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였다. 그의 뒤를 이어 현재 공백기간으로 된 시기에 만약 김흠순이 상대등에 임명되었다고 한다면 중대 초기의 왕권이 친 태종무열왕계를 상대등에 임명함으로써 귀족회의를 약화시키려고 하였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김군관의 경우는 조금 모호하다.

중시의 경우 태종무열왕대는 문충, 문왕이, 문무왕대에는 문훈, 진복, 지경, 예원, 천광, 춘장, 천존이 임명되었다. 중시는 상대등과 달리 자주 교체될 정도로 관료적 성격이 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문왕과 지경은 태종무열왕의 아들이므로 문무왕과는 형제간이었다. 지경은 경도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할 정도로 중대 전제왕권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만약 예원이 개원과 동일한 인물이라면 그러한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이밖에 신문왕대에 상대등으로 승진한 진복의 경우로 볼 때 상대등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문충, 문훈, 천존, 천광 등은 진복과 마찬가지로 모두 백제 또는 고구려 원정에 참가하였고, 춘장은 당과의 전쟁에 참여한 친 태종무열왕계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중대 초기 중시직에 이러한 인물들이 임명되었다는 데에서 이들의 정치적 위상과 활동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6두품 유학자들의 등장

6두품 유학자의 등장에서도 유교적 관료제의 추구를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각부의 장관을 제외한 차관 이하 말단의 사·부에 이르기까지 관료조직의 중하층을 구성한 집단, 그 가운데에서도 진골 출신을 제외한 6두품, 5두품, 4두품 출신의 정치적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교에 대한 지식을 발판으로 진골귀족 만능의 정치 사회에서 하위 관료

로서 일정한 승진을 목표로 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귀족적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관료 지향적 성격이 강한 소위 비 진골 출신의 이 유학자들은 권력 집중을 끊임없이 꾀하던 중대의 전제군주들과 쉽사리 결합,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들은 장관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관료로서 크게 활동하였다. 요컨대 중대의 관료제라는 것은 비 진골 출신 유학자 관료를 주축으로 성립되어 전제왕권에 기생하면서 성장, 점차 지배체제의 근간으로 발전해갔다.

문무왕대에 크게 활동한 강수가 좋은 사례이다. 대가야 출신인 강수는 6두품이라는 신분에 의해서보다도 능력에 의해서 출세한 사람이었다. 그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유교적 도덕률의 실천가였지만, 그가 중앙정부에 관리로 등용된 것은 훌륭한 한문을 구사하는 문장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문장력 덕분에 중앙정부에 등용되면서 관료생활로 들어섰다. 그는 문장가로서 많은 국가적 공헌을 하였다. 특히 통일 사업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는 문장가로서 크게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다. 즉 태종무열왕대 당의 사자가 전해온 국서를 받았으나 난해한 곳이 있어서 왕은 강수를 불러 물어보았다. 강수는 그때 왕의 눈앞에서 한번 읽어보고서는 막힘이 없이 해석을 해냈던 것이다. 이에 태종무열왕은 놀라고 기뻐서 서로 늦게 만났음을 한탄할 지경이었다. 강수란 이름은 이때 태종무열왕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문무왕대에도 강수는 왕명으로 당에 보내는 국서를 지었는데 뜻이 잘 나타나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가 지은 「청방인문표」를 보고 당나라 고종이 눈물을 흘리며 김인문을 놓아 보냈다는 데서 드러난다. 또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설인귀에게 보내는 문무왕의 글도 그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반도를 통일한 뒤 논공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강수는 크게 표창되었다. 문무왕은 ‘삼국통일이 비록 무력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또한 문장의 도움에도 말미암은 것인즉, 강수의 공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적 생활은 가난하였다. 적어도 그가 관리로서 서울 금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생활 기반은 세조(歲租)에 있었다. 처음 태종무열왕은 세조를 100석씩 주었는데, 그 뒤 문무왕이 통일에 대한 논공행상을 함에 이르러 올려 200석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그가 죽은 뒤에는 지

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강수는 귀족적이기보다도 관료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토지가 아닌 녹봉에 생활을 기대했던 관리였다. 말하자면 일종의 기술료써 국가에 고용된 존재였다. 그리하여 문무왕이 추구한 전제적 왕권 하에서 이들은 국가의 정치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관료층이 되었다. 그것은 그보다 약간 뒤지는 시기에 원효의 아들 설총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설총은 국학의 성립과 같은 일에 조언자의 구실까지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이들의 등장은 유교적 관료제를 추구하고자 했던 태종무열왕계의 정치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태종무열왕대와 마찬가지로 문무왕대에도 여전히 권력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김유신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수는 대가야 출신이었지만, 금관가야 출신이었던 김유신에게서 합리주의적 정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647년(선덕왕 16) 비담의 반란 때였다. 반란군이 도리어 우세하여 왕궁이 있는 월성을 포위한 지 10일째 되는 날 밤 삼경에 큰 별이 떨어지자 선덕왕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안고 연에 올려 띄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양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는 다음 날 사람을 시켜 “어제 밤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선전케 하였다.

이 이야기는 김유신이 민심 수습을 위하여 비합리적 사고와 타협을 하면서도, 합리주의적인 원칙을 내세운 사실을 일러 주는데, 이 역시 그의 유교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문무왕 때 전제왕권하 관료제도의 성장과 짝하여 유교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지금까지 행정기구에서 여전히 장관직을 독점하면서 정치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진골귀족과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하였다.

외위제의 소멸

문무왕은 유조에서 왕경인과 지방인에게 고루 관위를 내렸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종래 지방민을 차별하던 외위제를 폐지해 경위제로 일원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지방 출신의 군사와 촌주에 대한 경위 수여는 왕경인 중심의 골품체제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백제 유민에게 경위와 외위를 구분하여 관등을 수여한 지 1년 뒤인 674년(문무

왕 14)에 이르러 외위가 소멸된 것이다. 674년 외위 소멸의 배경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7세기 대 이후의 군공 포상 등과 관련시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673년에 이루어진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와 관련시켜 새롭게 이해하는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백제 유민에게 경위와 외위로 구분해 지급한 기준이 원래 신라에서 적용해 온 원칙과는 어긋났기 때문에 신라의 지방인과 일부 귀족이 여기에 반발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반발에 직면한 신라 중앙정부가 외위를 소멸시키고 경위로 관등을 일원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경위를 지방민에게까지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군공 포상 등과 관련이 있지만, 외위 소멸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백제인에 대한 관등 수여였다는 것이다.

674년 외위 소멸의 배경을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와 관련하여 이해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신라 지방인의 반발이라는 측면에서만 외위 소멸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는 원래 신라에서 적용하여 온 원칙과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가 가야를 복속한 후 시행한 중앙과 지방의 지배세력에 대한 편제 과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가야 지배층의 일부에게 경위를 주어 골품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재지세력의 경우에도 외위체계에 편입시켰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신라는 가야의 재지세력을 차등적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외위체계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외위 수여 대상자 가운데 그 일부를 경위로 포함시키는 일은 7세기에 도 계속해서 시행되었다.

661년(문무왕 원년)에 군사 구근이 열기와 함께 평양의 당나라 군대에게 편지를 전한 공로로 사찬을 받았고, 667년(문무왕 7)에 이동혜촌 촌주 대나마 강심이 왕에게 당나라 군대의 편지를 전한 공로로 급찬에 제수되었다. 실제로 지방민들은 전쟁에서의 공로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겼는데, 668년(문무왕 8) 평양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구율이 군령 없이 싸운 까닭에 포상에서 제외되자 자살을 꾀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그러므로 백제 유민들에게 경위와 외위를 준다는 사실 때문에 신라 지방인의 반발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백제 유민을 통해서 외위 소멸의 배경을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경위와 외위로 이원화하여 관등을 수여하려던 신라의 지배정책에 대한

백제유민의 반발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주목된다. 옛 백제 지역인 연기 지역에서 출토된 계유명아미타삼존사면석 상龕西銘阿彌陀佛四面石像·계유명삼존천불비상龕西銘三尊千佛碑像의 명문이 바로 그것이다. 둘 다 백제 유민이 673년 4월에 만든 것이다.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가 이루어진 해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당시 백제유민이 가지고 있던 신라의 관등과 백제의 관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달솔, 나마, 대사, 소사가 보이고 있다. 즉 신라 관등으로서는 경위인 나마, 대사, 소사 등이, 그리고 백제의 16관등 가운데에서는 달솔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백제 멸망 직후 연기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들이 관등 수여 규정을 따라 신라 관등을 가졌다면 경위와 외위가 함께 기록에 나타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기라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경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명문이 결락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씨처럼 확실히 지방 토착세력으로 인정되는 인물의 경우에도 모두 관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아예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라의 외위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비문들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외위를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백제 유민에 대한 신라의 관등 수여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문 가운데서 가장 관등과 직책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달솔 신차의 경우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차가 신라 관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그것을 백제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다. 즉 신라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로로서 신라에 심복·동화하기를 거부하여 굳이 백제 관등을 고집한 것이라고 한다. 명문에서 언급되는 국왕이 신라 국왕이라고 한다면, 백제 부흥운동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그들의 불만을 좀 더 구체적인 데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이는 신라가 경위와 외위를 일방적으로 수여하고자 한 것에 대한 백제 유민의 반발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673년(문무왕 13) 경위와 외위로

나누어서 백제 유민을 편입하려고 하였던 신라의 시도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미 일원화된 관등체계에 익숙해 있던 백제 유민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그만큼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백제의 중앙귀족으로 활동한 이 세력들은 각기 지방에 나름대로의 세력 근거지를 갖고 있었다. 즉 지방세력이 중앙세력과 별개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은 일원화된 관등체계가 아니라 일원화된 관등체계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신라는 673년(문무왕 13)에 백제유민에 대한 체계적 관등 수여를 실시하였다.

백제인百濟人의 위位는 문무왕 13년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내외관內外官을 주었는데 그 위의 순서는 본국本國에서의 관함官銜을 보아서 하였다. 경관京官의 대나마大奈麻는 본국 달솔達率에게, 나마奈麻는 은솔恩率에게, 대사大舍는 덕솔德率에게, 사지舍知는 본국 한솔汗率에게, 당幢은 본국 나솔奈率에게, 대오大烏는 본국 장덕將德에게 주었으며, 외관外官의 귀간貴干은 본국 달솔達率에게, 찬간撰干은 본국 은솔恩率에게, 상간上干은 본국 덕솔德率에게, 간干은 본국 한솔汗率에게, 일벌一伐은 본국 나솔奈率에게, 일척一尺은 본국 장덕將德에게 주었다.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외관)

이때 백제에서 온 사람들에게 내·외관을 주었다고 한다. 내외관은 경관과 외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신라의 외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위와 외위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 유민을 왕경에 거주할 수 있는 자와 지방에 거주하는 자로 구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백제 유민에게 경위와 외위를 주는 기준이란 바로 왕경인이나 지방인이라는 신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알려 준다. 이에 백제 유민은 왕경이나, 지방이라는 자신들의 원래 거주지에 따라 신라로부터 관등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백제 유민에 대한 이러한 관등 수여는 이미 경위와 외위의 구별이 없이 일원화되었던 백제의 관등체계를 무시한 것이었다. 신라의 방식대로 백제 유민을 경위와 외위로 나누어 신라의 지배체제 내에 편입시켰다. 이는 이제

표 1. 삼국통일 후 고구려·백제인의 신라 관등제 편입 대조표

관등	신라		고구려인 관등	백제인 관등
	경위	외위		
1	이별찬(각간)			
2	이찬			
3	잡찬			
4	파진찬			
5	대아찬			
6	아찬			
7	일길찬	(1) 약간	3 주부	
8	사찬	(2) 술간	4 대상	
9	급찬	(3) 고간	5 위두대형 6 종대상	
10	대나마	(4) 귀간		2 달솔
11	나마	(5) 선간	7 소상 8 적상	3 은솔
12	대사	(5) 상간	9 소형	4 덕솔
13	사지	(7) 간	10 제형	5 한솔
14	길사	(8) 일별	11 선인	6 나솔
15	대오	(9) 일척	12 자위	7 장덕
16	소오	(10) 피일		
17	조위	(11) 아척		

()안의 숫자는 신라 외위의 관등임.

백제 유민으로서 경위를 받는 사람은 신라의 왕경인이 됨을 의미하며, 외위를 받는 사람은 신라의 지방인으로서 차별을 받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등 수여를 통해 백제의 중앙과 지방의 지배세력을 신라의 통치 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의도는 큰 혼란을 야기시켰을 것이다. 이에 백제 유민은 모두 경위를 사용한다든지 관등 수여를 거부함으로써 신라에서 규정한 원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신라의 복속민 지배정책에 대한 백제 유민의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라는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의 원칙이 마련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673년의 외사정 파견을 통해 이러

한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라는 옛 백제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을 크게 고려해 오히려 신라의 외위를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이미 외위의 소멸단계를 걸어가고 있던 신라의 발전과정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외위 소멸은 신라가 복속민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제 1년 만에 백제 유민은 새로이 경위로 일원화된 관등을 받게 되었다. 외위 9위 일척과 그에 해당하는 경위 15위 대오가 실수로 생략되었지만, 외위 1위 약간과 경위 7위 일길찬부터 외위 11위 아척과 경위 17위 조위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대응시켜 조정하였다. 외위가 경위로 일원화됨으로써 지방민은 적어도 동일한 관위 수여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이후에는 외위에 관한 사례가 사료 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후 고구려 유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외위의 소멸은 이제 모든 지방인과 왕경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3. 대민정책의 추진

신라사에서 중대는 민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포착한 사회였다고 평가된다. 중대 초기에 강화된 왕의 권력은 통수 계통을 통해 전쟁에 동원된 민에게도 미쳤다. 즉 중대 초기의 왕은 군의 통수 계통을 통해 민에게로 권력을 관철시켰다. 지방의 성주는 중앙귀족이 임명 파견되어 거기에 토착해 살던 주민들을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편성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평상시에 공동체적 조직 속에서 농경에도 동원되었으나, 유사시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기도 하였다. 675년(문무왕 15) 아달성의 소나 이야기가 이를 잘 말해준다. 아달성의 백성은 농민이자 동시에 군인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장군인 총관이 왕경인과 지방인을 망라해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기왕의 신분 구분은 더욱 이완되었고, 전후에도 총관은 일정 기간 주의 장관으로서 민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대에 들어오면 민을 지배하는 양상 역시 달라졌다. 중대왕권은 민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는데, 그것은 왕의 지배가 민에게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공민화의 조치로 나타났다.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의 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농업을 안정시킴으로써 민들을 안정시켜 국가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문무왕대는 백제의 평정과 고구려 복속을 이루기 위한 장기간에 걸친 전쟁 수행으로 대다수의 정남이 병력으로 차출됨으로써 생산 활동이 거의 마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는 대 백제 및 고구려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정상적 농업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전쟁 수행을 위한 대규모 전비 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담한 신라민들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피폐화되었다. 자국의 군비뿐만 아니라 연합군으로 파견된 당나라 군대의 병참보급품 및 운진에 주둔한 1만여 당병의 의식을 전담한 신라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징수를 강화하였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경작은 어린이가 하고, 과부들이 전쟁 물자를 수송했으며, 농사 및 생산 활동은 거의 마비된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도 역병까지 유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축성과 궁실 조영 등을 진행함으로써 이를 부담할 수 없는 백성들을 범법자나 도적 또한 귀족계층의 사노비로 전락시켜 백성층의 몰락을 몰고 왔다.

문무왕은 이 같은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사면조치를 5차례나 단행하였다. 한편 일반 백성의 사채부담을 경감시키는 부채 탕감법을 마련함으로써 붕괴 직전의 신라민 신분층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사면은 662년(문무왕 2), 663년(문무왕 3), 665년(문무왕 5), 666년(문무왕 6), 669년(문무왕 9)에 행해졌다. 이때 사면의 이유는 백제 평정, 백제 부흥운동 평정, 고구려 평정, 그리고 태자를 책봉한 일 등 국가적 기념할 일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사면 원칙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횡수가 5차례나 진행된 예는 다른 왕대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한 왕대에 대사大赦는 단 1회 즉위 시에만 행해졌고, 죄수 방면의 경우도 가뭄이 든 경우에 민심 수습차원에서 최대 3차례만 시행되기에 일반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반적 양상과 비교할 때 문무왕대의 조치는 이례

적이며, 더욱이 영묘사에 화재가 났을 때 행한 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그만큼 대사면이 빈발했던 이유는 그만큼 사면해야 할 범법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단행된 문무왕 9년의 사면은 구체적 대상과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확인케 해준다. 이 사면은 고구려를 평정한 기념으로 시행된 것인데, 대상자가 범법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범죄자의 경우 가장 극악한 범법자인 5역죄를 범해 사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한 모든 죄인으로서 도적질하여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자들도 포함되어 거의 모든 범법자가 대상이었다. 한편 백성 가운데 부유층에서 곡식을 빌어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사노비로 전락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을 모두 구제하는 강력한 사채 탕감을 추진하였다. 이는 양인 신분의 백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면은 신라 사회의 경제적 피폐화에 따른 민 신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단순한 국가적 경축의 기념 차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천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의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즉 부채를 갚지 못해 노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민들을 국가가 개입하여 구제하는 특단의 조치였다. 당연히 예상되는 귀족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문무왕의 민에 대한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립한 민들에게 인신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하는 한편, 공적인 역역동원을 제외하고는 항상 안정적인 농업노동력의 수급을 가능하게 한 조치는 국가 경제의 토대를 확보하는 길이었다.

문무왕은 이러한 사면과 연결되는 정책으로서 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를 축소시키는 일을 함께 하였다. 중대 초 호조의 징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점은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 호조의 징수량은 전 시기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65년(문무왕 5) 겨울에 견과 포의 길이를 약 절반 정도로 줄인 사실에서 살필 수 있다. 이는 전공 포상 등으로 많은 견과 포가 소요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기도 하며, 한편 동맹관계에 있던 당나라 견포의 필단 크기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필단의 길이를 짧게 한 것은 한편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이었다. 문무왕 9년에 단행된 빛의 탕감과 이자 면제 조치까지를 생각해

보면 통일기에 일반민, 특히 대다수의 가난한 호들에 대한 각종 수취가 축소되어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장기간 지속된 전시경제가 하층 일반민들의 경제 상태를 극히 악화시켰던 만큼 일반민들의 각종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문무왕대의 요역 동원 시기에서도 알 수 있다. 각각 3년 정월, 5년 겨울, 19년 가을로 모두 가을에서 겨울 사이의 농한기에 집중되었던 사실은 농업에서 특히 중요한 계절적 노동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것은 681년(문무왕 21) 서울에 성곽을 쌓으려 하다가 의상의 건의를 듣고 그만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왕의 정치가 밝으면 비록 초구에 땅을 그어서 성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감히 넘지 못하고 재앙을 가히 씻어 복이 될 것이나, 정치가 밝지 못하면 비록 장성이 있더라도 재해를 소멸치 못할 것’이라고 의상이 말하자 그 역을 그만두었다. 이는 문무왕이 그만큼 백성들의 요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해 준다. 아마도 꾸준한 요역 경감 조치로 이제는 이러한 토목공사를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상의 반대로 이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문무왕대는 결부제의 시행으로 주목되는 시기이다. 결부에 관한 신라 최초의 확실한 기록은 문무왕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대략 문무왕 때를 전후한 시기에 법제화되어 신문왕대에는 관료전의 지급을 위한 양전사업이 있었으며, 늦어도 정전이 지급된 성덕왕대인 8세기 전반에는 전국적 양전사업이 일단 완료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결부제의 법제화 역시 중대 전제왕권이 추구한 수취체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제 고대의 인두세적 지배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로 바꿈으로써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수취체제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관념이 노동력의 확보를 중시하는 경향에서 토지의 확보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또 국가는 토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기준으로 한 조세수취를 통해 대민지배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주요한 대민지배의 방향은 공민으로 성장한 민을 토지에 긴박시키고, 그 토지를 매개로 해서 국가적 수취를 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진 직후인 아마도 671년 무렵 문무왕은 차득공을 보내 국내를 잠행하게 하였다. 이는 중대 전제왕권이 추구하는 관료제의 올바른 시행

을 위해서 관리의 청탁을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 백성들이 부담하고 있는 요역의 내용 및 조부의 가볍고 무거움을 살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문무왕이 이후 중시직에 오르는 차득공을 보내어 이러한 상황을 살피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중대 전제왕권의 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 주된 목적이란 요역과 조부로 대표되는 수취 내용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때문에 지방에서 이들을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맡은 관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중시직에 오른 차득공이 추구한 정책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문무왕은 그의 유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병기를 녹여 농구를 만든 이유도 바로 백성의 농업생산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없어졌으니 국가적 기반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업을 장려하고 조세의 징수를 한층 철저히 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업적을 부세를 가볍게 하고 요역을 줄이고, 집이 부자가 되고, 인구가 늘었으며, 민간이 안정되었으며, 창고는 채워지고, 국내에 우환이 없고 감옥조차 채워지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그만큼 문무왕은 백성들의 살림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우환을 없게 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백성들에 대한 문무왕의 관심이 컸음을 보여 준다. 이제 민을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예측상태에서 풀어내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는 국가의 공민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는 문무왕이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중대 전제왕권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4. 불교계의 재편

유교적 관료제를 추구한 문무왕은 기존의 진골 중심 귀족사회에서 전제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6두품 이하의 하급 귀족 및 백성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이

는 사상적 기반의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오악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 통일신라의 다섯 산악이 오악으로 성립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문무왕대로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라의 영토가 확대되고 통일을 성취한 뒤에 오악도 국토의 사방에 있는 산악들로 바뀌었다. 특히 의상이 676년(문무왕 16) 오악의 하나인 태백산에 부석사를 짓고 화엄종을 폈던 것이다. 그는 오악을 위시한 전국 각지의 명산에 화엄 계통의 사찰을 세워 전교하였는데, 그 유명한 것이 가야산의 해인사, 지리산의 화엄사 등 열이 있어 화엄십찰이라고 한다. 게다가 동악인 토함산에 탈해왕의 소상을 모신 것이 680년(문무왕 20)이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그러므로 오악의 성립을 문무왕대, 특히 676년(문무왕 16)에서 680년(문무왕 20)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오악은 통일기 신라의 국가적 진호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들은 당시의 전제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오악은 대개 신라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통일의 상징적 존재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성립된 전제왕권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구실을 담당한 화엄종이 이 오악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화엄십찰이 오악을 중심으로 성립된 것은 그러한 사정을 말하여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왕에 충성심을 지닌 귀족 관료들이 은퇴해 여생을 보내는 장소도 오악이었다는 점에서 전제왕권의 주된 세력기반인 관료들과의 관계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무왕대에 의상에 의해 성립된 화엄종은 전제왕권의 사상적 기반으로 중고기에 유행하던 기존의 불교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의상의 화엄종이 오악의 하나인 태백산이 있는 영주에서 부석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의상은 676년 왕 혹은 조정의 뜻, 즉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그는 화엄종의 본산인 부석사의 창건 장소로서 문수보살이 거주하는 성지라고 믿은 태백산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오악 중에서도 북악인 태백산이 문수보살과 연결된 이유는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산이 동북쪽에 있다는 신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백산은 의상 이전에 자장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자장은 태백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여 비극적인 죽음으로 일생을 마친 것

으로 되어 있다. 대국통으로서 전국의 불교계를 호령하던 자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쓸쓸한 최후였다. 자장에게는 비극적 장소였던 태백산에 의상은 부석사를 세웠다. 그리고 이 부석사를 거점으로 해서 의상은 신라에서 화엄신앙을 퍼나갔다. 이렇게 볼 때 의상이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한 사실은 신라 불교계의 하나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자장의 시대로부터 의상의 시대로, 계율종의 시대로부터 화엄종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종교의 불교사상이 중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신라에 화엄종을 크게 떨치게 한 의상은 문무왕을 도와 크게 활동한 인물이다. 정치적으로도 당나라 군대의 침략을 알린다든지, 왕정에 성곽을 쌓은 것을 못하도록 간한다든지 하는 공헌을 하였다. 즉 그는 문무왕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불교계를 대표하여 협력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추구한 화엄사상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화엄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화엄일승법계도」이다. 이에 의하면 하나가 곧 일체이며, 한 작은 티끌 속에 시방이 있는 것이며, 한 찰나가 곧 영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일심에 의하여 우주의 만상을 통섭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주의 다양한 현상이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화엄일승법계도」의 정신은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문무왕은 이러한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이 새롭게 추구하는 정치질서를 사상적으로 합리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5. 지배세력의 재편

문무왕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관된 정책은 결국 진골귀족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전제왕권을 확립시키는 데 있었다. 이것은 왕권 강화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요체는 관료제의 확립과 함께 진골귀족 세력의 군사적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문무왕은 삼국통일 전쟁과 대당전쟁을 치르면서 반대되는 많은 진골귀족을 도태시켜 나갔다. 대외 전쟁을 통해 체제 안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무왕이 “안으로는 의심하는 신하들을 없앴다.”고 지적인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문무왕은 유조에 보이듯이 모반자를 징벌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662년(문무왕 2) 병부령 김진주의 처형에서 살필 수 있다. 김진주는 국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매우 모호한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이때 문무왕이 김진주와 같은 병부령을 제거한 것은 전제왕권의 확립을 지향하면서 병부령이 갖고 있던 병권을 국왕 직속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였다. 사실 그는 백제와 고구려 원정군 편성에서 김유신 다음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지만, 서서히 태종무열왕계의 권력 핵심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국사에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장군 경력을 가졌던 인물들이 빈번히 신라를 배반한 사실이 주목된다. 668년(문무왕 8), 670년(문무왕 10) 각각 반란 사건을 일으킨 박도유와 수세는 모두 장군을 역임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웅진도독부를 통해 당나라와 연결을 꾀하려 했다. 673년(문무왕 13)에는 대토 역시 당에 붙어 모반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이들은 문무왕이 실시하던 왕권 강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위치에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문무왕이 중앙의 진골귀족을 광범위하게 도태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해 나간 것은 군사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당시 군사제도의 핵심인 6정은 진골귀족이 군사적 실권을 행사하는 귀족연합적 성격을 띤 것으로, 상대의 정치적 성격과 부합되는 군사기구였다. 그들은 장군직을 통해서 활동하였다. 이는 병권의 지배를 둘러싼 왕권과 진골귀족 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문무왕은 이제 중대라는 새로운 성격의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군사제도도 새로이 변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문무왕대에 기존의 군사조직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군사조직을 창설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6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진골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군사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당나라 총관제의 수용이 주목된다. 백제 원정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전서 편성방법은 고구려 원정에서는 총관제(總管制)를 매개로 통수체계를 일원

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기존의 장군직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661년(문무왕 원년)에는 대장군과 대당장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군에 점차 이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668년(문무왕 8)에는 마침내 모든 지휘부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때 문무왕은 당으로부터 대장군의 정절을 받음으로써 일반 총관들과 구별되었다. 이러한 총관제의 수용은 군통수권자인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율령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엄격한 군율을 적용하였는데, 이 역시 반 태종무열왕계의 제거와 더불어 그 시행을 통한 왕권 강화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의 진골귀족 세력이 사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무왕에게 한층 큰 문제였다. 독자적 군사력을 가진 진골귀족 세력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왕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삼국통일 전쟁과 대당전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문무왕의 또 다른 목표는 진골귀족 세력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의 혁파에 있었다. 이에 문무왕은 그의 유조에서 “주군의 병기를 거두어 농구를 만들라”고 신문왕에게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진골귀족의 사병과 관련된 언급이었다. 진골귀족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진골귀족의 사적 무력을 제거하는 정책을 과감히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문무왕의 왕권 강화는 관료세력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치 개혁과 밀접히 연관되면서 진행되었다. 문무왕은 삼국통일 이후 지방 통치체제를 행정·군사의 양면을 모두 지배하는 군정적 성격에서 행정일원화의 성격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즉 군사권의 행정권으로의 귀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관료세력의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무왕의 정치 개혁에서 군사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이 결국 서로 맞물리면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제왕권의 확립을 지향한 문무왕의 집중적 왕권 강화 작업은 필연적으로 진골귀족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문무왕의 정치 개혁은 결국 골품제적 신분질서에 입각한 진골귀족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왕권의 전제화를 반대하는 진골귀족들은 문무왕의 왕권 강화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갖고 나름대로 새로운 모색을 꾀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 나갔는데, 이때 당시 태자비의 부였던 김흠돌이 자

연스럽게 부각되었다. 그는 문무왕의 왕권 강화와 함께 소외된 진골귀족 세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김흠돌 세력에는 그를 중심으로 김군관·홍원·진공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당시 활동한 대표적 진골귀족으로서, 문무왕과의 밀접한 관계, 즉 그들의 개인적 능력 보다는 오히려 신분 혹은 문벌에 의하여 정치적 출세를 이룬 사람들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삼국통일 전쟁에서도 크게 활동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두 장군을 역임한 인물들로, 6정의 핵심군단인 대당의 장군과 군사관계의 최고관직인 병부령을 역임한 인물도 있었다. 그러나 문무왕의 왕권 강화와 함께 서서히 소외되고 있었다. 홍원은 적전에서 퇴각하였으므로 사형에서 감하여 면직된 인물인데,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김흠돌의 난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흠돌 세력은 문무왕의 왕권 강화에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세력이었다. 이는 김흠돌 세력이 “능히 처음과 끝을 삼가거나 부귀를 보전하지 않고, (중략) 관료를 모멸하고 상하를 속이어 매일 그 탐욕스러운 뜻을 나타내고 포학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흉사한 자를 불러들이고 근시와 결탁하여 화가 내외에 통하고 같은 악인들이 서로 도와 기일을 약정한 후 난역을 행하려 하였다.”는 기록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문무왕의 가장 중요한 세력기반 가운데 하나인 관료를 모멸하면서 그들과 충돌·대립하는 등 전제왕권의 확립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문무왕은 김흠돌을 중심으로 하는 진골귀족 세력을 소외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제 진골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김흠돌 세력과 무열왕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유조를 통해 그의 뒤를 잇는 신문왕에게 자신의 정치 개혁을 바탕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김흠돌 세력은 문무왕의 죽음과 신문왕의 즉위라는 정치적 전환기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다. 김흠돌을 중심으로 한 진골귀족 세력이 세력회복을 노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681년(신문왕 원년)에 일어난 김흠돌의 난이었다.

(김수태)

참고

문헌

- 김수태, 1996, 『신라중대정치사연구』, 일조각.
김영하, 2010,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이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이기백, 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이문기, 1997, 『신라병제사연구』, 일조각.

제3장

왕권의 안정과 만파식적의 이상

1. 신문왕의 즉위와 만파식적
2. 통일 후의 체제 정비
3. 달구벌 천도 추진과 실패
4. 효소왕의 즉위와 정치 과정

1. 신문왕의 즉위와 만파식적

관 앞에서의 왕위계승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는 시기는 일정한 위기였다. 안정적 왕위계승에 대한 불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로 이러한 상황을 무사히 넘긴 예가 많지만, 이를 계기로 반란이 일어난 예도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신문왕 즉위 초의 정국은 곧바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신문왕은 중대를 개창한 태종무열왕의 손자인 동시에 문무왕의 아들이었다. 『삼국사기』에서 태종무열왕 이전 시기를 상대라 한 데 비해 이때부터를 중대라 하여 새로운 시대로 설정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태종무열왕은 660년에 백제를 멸하였다. 뒤를 이은 문무왕은 668년에 고구려를 멸하고, 676년에는 당의 세력마저 한반도에서 축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는 5년 뒤인 681년 7월 1일 56세로 사망하고, 태자 정명(政明)이 새 왕으로 즉위하니 이가 제31대 신문왕이었다. 신문왕 즉위 무렵의 정치상황은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실린 다음과 같은 문무왕의 유조를 통해 그 대강을 살펴볼 수 있다.

(A) 과인은 나라의 운이 어지럽고 싸움의 때를 당하여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하는 무리를 치고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평안케 하였다. 위로는 조상들이 남기신 염려를 안심시켰고 아래로는 부자의 오랜 원수를 갚았으며,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상을 두루 주었고, 벼슬을 터서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하였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백성을 어질고 장수하는 땅으로 이끌었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덜어주니 집집마다 넉넉하고 백성들이 풍요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근심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곡식이 산

언덕처럼 쌓여 있고 감옥은 풀이 무성하게 되니, 신과 인간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고 관리와 백성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만하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B) 스스로 온갖 어려운 고생을 무릅쓰다가 마침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고, 정치와 교화에 근심하고 힘쓰느라 더욱 심한 병이 되었다. (중략) 태자는 일찍이 밝은 덕을 쌓았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니, 위로는 여러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못 관원들에 이르기까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도리를 어기지 말고 살아 있는 이 섬기는 예의를 빠뜨리지 말라. 종묘의 주인은 잠시도 비워서는 안 되니 태자는 곧 관 앞에서 왕위를 잇도록 하라.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C) 죽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곧 고문庫門 바깥의 뜰에서 서국西國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 상복을 입는 등급은 정해진 규정이 있거니와 장례 치르는 제도는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는 데 힘써라. 변경의 성城·진鎭을 지키는 일과 주州·현縣의 세금 징수는 긴요한 것이 아니면 헤아려 마땅히 모두 폐지하고, 율령격식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하라.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위에 제시한 유조의 대체적 내용은 첫째 문무왕 자신의 공적, 둘째 태자의 왕위계승에 대한 당부, 셋째 장례절차와 제도개편에 대한 문제 등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가 백제 및 고구려 정벌과 대당전쟁을 통해 이룩한 자신의 통일 위업과 민생 안정을 과시하였다면, 셋째는 사후의 화장과 검소한 장례 등에 대한 당부라고 하겠다. 더욱이 둘째는 태자에게 관 앞에서의 즉위를 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 앞에서의 왕위계승은 무엇보다 문무왕에서 신문왕으로 이어지는 법통을 확인하고 권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 같은 의식은 중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바, 여기서 신라에서도 중국식 즉위의례가 수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를 상징하기도 한다. 유조라는 점에서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라도, 왕위계승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내정세가 안정적



그림 1. 경주 대왕암(문무대왕릉) 원경

이지 않았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무왕이 죽자 유언에 따라 동해 어귀 큰 바위 위에 장사지냈다. 민간에서는 왕이 변해 용이 되었다고 하고, 또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大王石이라 불렀다. 이는 오늘날까지 경주의 대왕암 설화로 남아 있거니와, 문무왕은 신라 국왕 가운데 화장된 최초의 사례였다. 그의 능비는 절단된 형태로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유조와 내용이 대략 일치한다.

장인 김흠돌의 반란

신문왕 정명이 태자로 책봉된 것은 665년(문무왕 5) 2월이었다. 『삼국사기』 신문왕 즉위년(681)조에는 “왕비 김씨는 소관 흠돌欽突의 딸이다. 왕이 태자로 있을 때 그녀를 맞아들였는데, 오래도록 아들이 없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의 반란에 연좌되어 궁중에서 쫓겨났다.”고 하였다. 즉 신문왕은 태자로 책봉된 후 어느 시점에 태자비太子妃를 맞이하였으나, 즉위 직후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자 왕비를 축출하였다. 이로 보면 김흠돌은 문무왕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고 하겠다. 문무왕대에 오랫동안

무자無子이면서도 자리를 지켰던 김흠돌의 딸이 신문왕대에는 아버지의 반란 때문에 바로 내쫓겼던 것이다.

문무왕의 죽음은 7월 1일이었고 장례일은 10일이었다. 신문왕은 부왕의 유언대로 장례 전인 7월에 즉위하였다. 소관 김흠돌은 신문왕이 부왕의 장례를 치르지 미처 한 달도 되지 못한 8월 8일에 반란을 일으켰다. 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은 김흠돌을 비롯해 흥원興元·진공眞功·김군관金軍官 등으로 문무왕대에 주로 활동한 유력진골귀족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신문왕과는 대립적 입장에 선 인물들로서 김흠돌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란은 조정의 신속한 대응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반란군은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거나 대궐 뜰에 와서 항복하였다. 관군은 가 지나 잎사귀 같은 잔당까지 찾아내어 죽였고, 3,4일 동안에 죄인의 우두머리들을 소탕하였다. 그러나 이 반란은 당시 병부령인 이찬 김군관마저 가담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8월 16일, 신문왕이 난을 평정하고 내린 교서에서, “고굉股肱의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를 편안케 하려고 하였더니, 어찌 상중喪中에 서울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하였으랴!” 한 데서, 김흠돌이 왕위교체기의 허점을 노렸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28일에는 병부령인 이찬 김군관을 목 베고 다시 교서를 내렸다. “임금을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벼슬살이하는 도리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여긴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반서班序에 의해 마참내 높은 지위까지 올랐으나, 임금의 실수를 챙겨주고 결점을 보충하여 결백한 절개를 조정에 드러내지 않았고, 임금의 명령을 받음에 제 몸을 잊으면서 사직에 지극한 충성을 표하지도 않았다. 이에 역신 흠돌 등과 사귀면서 그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찍이 알리지 않았으니, 이는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를 위해 몸 바칠 뜻도 없는 것이니, 어찌 중요한 재상 자리에 두어 헌장을 함부로 흐리게 할 것인가? 마땅히 무리들과 함께 처형함으로써 뒷사람들을 경계시키노라. 군관과 그의 적자嫡子 한 명은 자진自盡케 할 것이니 멀고 가까운 곳에 포고하여 이것을 두루 알게 하라.”고 선포하였다. 김흠돌의 반란 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불고지죄不告知罪로 병부령 김군관마저 처형한 것이다. 이는 김군관이 일

정한 반란 가담자였음을 말하며, 기왕의 귀족세력에 대한 신문왕의 대대적인 숙청인 동시에 귀족세력 재편의 신호탄이었다.

김흠돌 세력은 삼국통일 전쟁기에 군사 방면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김흠돌은 661년(문무왕 1)과 668년(문무왕 8)의 고구려 공격에서 각각 대당장군大幢將軍과 대당총관大幢總管으로 출전하였으며, 신문왕이 태자로 책봉되었을 때인 665년(문무왕 5) 이후의 어느 시기에는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들였을 정도로 왕실과 밀착되었다. 그러다가 신문왕 즉위 한 달 만에 반란을 꾀하다가 복주되고 그의 딸은 출궁되었다. 흥원과 진공 또한 문무왕대에 당의 군대와 연합한 고구려 정벌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군관도 고구려 정벌과 웅진도독부의 백제 잔적 토벌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이들이 신문왕의 즉위와 거의 동시에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문무왕의 왕권 강화와 함께 진골귀족 세력을 서서히 소외시킴으로써 김흠돌의 난이 일어났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 전에 책봉된 태자가 새 왕으로 즉위하였음을 상기하면, 신문왕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신문왕은 통일전쟁에서 활약하던 비대해진 무장세력을 제거하려 하였고, 김흠돌은 이에 저항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삼국통일을 달성한 문무왕대 말부터 가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문왕은 부왕과는 달리 귀족세력에 대해 한층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고 하겠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가담자를 처형하였다.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탄압, 곧 ‘피의 숙청’으로 전제왕권이 확립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문왕에게 도전한 세력은 일단 제거되었지만, 신문왕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에 전개된 역사상의 여러 사실들을 보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흠돌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잠복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문왕의 정책 방향은 즉위 직후에 단행한 상대등上大等 임명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680년(문무왕 20) 봄 2월에 이찬 김군관을 상대등으로 삼았는데, 이듬해인 681년(신문왕 1) 8월에 서불한 진복眞福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신문왕대의 정책 변화를 말해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김군관이 680년(문무왕 20)에 상대등이 된 것으로 보아 그는 당시까지 정상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김군관은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곧바로 경질되었다. 신문왕이 진복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시켰던 것이다.

신문왕과 진복의 결합은 문무왕대에서부터 살필 수 있다. 진복은 665년(문무왕 5) 2월부터 668년(문무왕 8) 3월까지 집사부 중시에 재임하였다. 그의 중시 취임 6개월 뒤 신문왕은 태자에 책봉되었다. 태자 책봉이 중시의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임은 뒷날 경덕왕대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니와, 진복이 중시 출신으로 처음 상대등에 임명된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후 진복이 694년(효소왕 3)까지 장기간 상대등에 재임한 것을 보면, 그는 신문왕과 밀착된 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이 즉위와 동시에 그 전까지 우대되던 김흠돌, 김군관 등을 진복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촉발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신문왕의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였을까. 신문왕대의 상대등 진복, 집사부 중사인 순지(順知), 대장(大莊), 원사(元師), 선원(仙元) 등이 곧 그들이라고 하겠다. 특히 신문왕의 즉위와 동시에 상대등에 임명된 진복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복의 상대등 임명 직후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대체로 김흠돌과 같은 전통적 신골귀족 세력들은 신문왕에게 비판적이었고, 이들과 대비되는 세력들이 신문왕을 지지하였다고 판단된다.

김흠돌의 딸을 출궁시킨 신문왕은 683년(신문왕 3) 2월에 일길찬 김흠운(金欽運)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그 때의 광경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먼저 이찬 문영(文穎)과 파진찬 삼광(三光)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대아찬 지상(智常)을 보내 납채하게 하였는데,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등짐, 쌀·술·기름·꿀·간장·된장·말린 고기·젓갈이 135등짐, 벼가 150수레였다. 5월 7일에 이찬 문영(文穎)과 개원(愷元)을 그녀의 집에 보내 책봉하여 부인(夫人)으로 삼았다. 그 날 묘시(卯時)(오전 6시)에 파진찬 대상·손문, 아찬 좌야·길숙 등을 보내 각각 그들의 아내와 양부 및 사랑부 두 부의 여자 각 30명과 함께 부인을 맞아오게 하였다. 부인이 탄 수레의 좌우에 시종하는 관원들과 부녀자들이 매우 많았는데, 왕궁의 북문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대궐로 들어갔다.”

신문왕은 김흠운의 딸을 맞아 부인으로 삼기로 하고(정혼(定婚)), 기일을 정한

뒤(택일(擇日)), 납채, 부인 책봉, 입궁의 절차를 거쳐 왕비를 맞이하였다(친영(親迎)). 곧 중국식 혼인의례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납채에 보낸 예물은 엄청난 양이었고, 부인을 맞이할 때의 광경도 매우 화려하였다. 이런 성대한 의례는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의 위엄을 크게 높여 주었다.

왕비의 아버지 김흠운은 655년(태종무열왕 2)에 낭당대감으로 백제와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한 태종무열왕의 사위 김흠운(金欽運)과 같은 사람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흠운의 딸은 신문왕의 고종사촌으로, 혼인할 때에는 28세 또는 그 이상이 된다. 신문왕이 이 같은 고령의 여자와 혼인을 한 데는 그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적 성격을 같이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새 왕비를 맞이하는 데 관여한 인물들 중 개원은 무열왕의 아들로 신문왕의 숙부였고, 삼광은 김유신의 아들이었다. 또 문영은 백제와의 전쟁 때 소정방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김유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바 있어 김유신과 밀접한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왕비와 그녀를 맞이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무열왕계와 김유신계로 중대왕실의 핵심 세력이었다. 나아가 대아찬 지상, 파진찬 대상·손문, 아찬 좌야·길숙 등도 마찬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신문왕의 지지 세력은 무열왕계와 김유신계가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신문왕은 또한 비신라계의 인물들을 중용하였다. 대덕 경흥(景興)은 성이 수(水(木?))씨이고 웅천주 사람이었다. 681년 문무왕이 승하할 때 유언하기를 “경흥법사는 가히 국사(國師)로 삼을 분이니 짐의 명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신문왕은 그를 국로(國老)로 삼고 삼랑사(三郎寺)에 거주하게 하였다. 경흥이 홀연 병이 들어 수개월이 되었다. 한 비구니가 문안을 와서 보고 『화엄경』 가운데 있는 말로써 조언하기를 “지금 법사의 병은 근심으로 해서 생긴 것이니 기쁘게 웃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11가지의 모습을 지어 각각 우스운 춤을 추게 하니 뽀죽하기도 하고 깎은 듯도 하여 그 변화하는 모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모두 턱이 빠질 정도로 웃었고 법사의 병은 자기도 모르게 씻은 듯이 나았다. 하루는 그가 왕궁에 들어가려 하니 종자들이 동문 밖에서 먼저 채비를 차렸는데, 기마와 안장이 매우 훌륭하고 신과 갓도 제대로 갖추었으므로 행인들이 그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웅천주 사람인 경흥이 신문왕대에 국로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병이 들

어 았다가 한 비구니의 조언으로 나왔다. 그가 병이 든 것은 원 신라 지역에 별다른 기반도 없는 옛 백제계의 인물을 국로로 추대한 데 대한 전통적 진골귀족 세력의 비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국로로서 종자를 거느리고 위세를 과시한 데서 보듯이, 신문왕은 전통적 진골귀족을 배제하면서 원 신라 지역 출신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등용하려 하였다.

또 신문왕대의 옛 고구려계도 주목된다. 고구려 멸망 직후 4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신라에 귀부한 안승(安勝)은 670년(문무왕 10) '고구려왕'에 책봉되었다가 674년(문무왕 14)에는 다시 '보덕왕(報德王)'으로 책봉되었다. '보덕'이란 명칭으로 보아 이제에는 더 이상 고구려 계승을 인정치 않고 신라에의 복속을 강요한 것이었다. 이후 문무왕은 680년(문무왕 20) 3월에 금·은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 가지 채색비단 100단을 안승에게 내려주고 자신의 여동생(혹은 질녀)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급기야 안승을 왕실의 일원으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신문왕 원년에 일어난 김흠돌의 난이 진압되자 보덕왕 안승은 사신을 보내 이를 축하하였다. 김흠돌의 난은 8월 8일에 발생하여 3, 4일 동안에 우두머리들이 소탕되었는데, 안승은 13일에 사신 수덕개를 보내 이를 축하하였다. 보덕국의 근거지가 금마저(현 익산)였음을 감안하면 그 신속함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는 안승 자신의 보덕왕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지만, 신문왕대에도 왕실과 크게 밀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문왕은 안승에게 진골이 받을 수 있는 소관(3등)의 관등을 주고, 김씨 성을 하사하였다. 또 서울에 와서 살게 하고 집과 토지까지 내려주었다. 이는 보덕국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거나, 보덕국을 구성했던 핵심 세력은 이제 신라의 관인층이나 무력적 기반으로 편제되었다. 신문왕의 이러한 조치는 옛 고구려계 세력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그 밖에 9서당이 신문왕대에 완성된 사실도 주목된다. 9개의 서당 가운데 신문왕대에 설치된 것은 황금서당, 흑금서당, 벽금서당, 적금서당, 청금서당의 5개 부대로, 이들은 신문왕 3년에서 8년 사이의 단기간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군관 숫자만 하더라도 6정(停) 전체의 그것과 맞먹는 큰 규모였다. 이 중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것이 황금서당 1개(683), 말갈국민으로서 구성된 것이 흑금서당 1개(683), 보덕성민으로 구

성된 것이 벽금서당·적금서당 2개(686), 백제잔민(百濟殘民)으로 구성된 것이 청금서당 1개(688) 부대였다. 보덕성민은 고구려 유민이었고, 말갈국민 또한 고구려인과 고구려의 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결국 신문왕은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을 9서당의 일원으로 집중 편성한 것이었다. 이는 통일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4개의 서당 중 문무왕 12년에 설치된 백금서당 한 부대만이 백제민으로 구성된 것과 대비된다. 대당전쟁이 끝난 676년(문무왕 16) 이후 만들어지지 않던 9서당 부대가 신문왕 원년에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뒤 비신라계로 집중적으로 창설된 것은 신문왕의 개혁정치의 산물이었다. 물론 이를 '대당전쟁의 여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시점을 상기하면, 신문왕이 이들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고자 한 의도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신문왕의 감은사 행차와 만파식적 설화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한 이듬해 5월, 신문왕은 동해변의 감은사에 행차하였다. 이곳 앞 바다에서 용과 33천(天)의 하나로 각각 변한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낸 사자로부터 흑옥대를 얻고 또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만들 대나무를 얻었다고 한다. 설화적 이야기이지만,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 조에 자세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살펴기로 한다.

신문왕은 681년 7월 7일 왕위에 오른 뒤, 부왕이었던 문무왕을 위해 동해변에 감은사를 창건하였다. 그러나 세주에 인용된 사중기(寺中記)에는 사원 창건에 대해 약간 다른 기록을 전하고 있다. 문무왕이 왜병(倭兵)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 창건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이에 그 아들 신문왕이 682년(신문왕 2)에 절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금당 섬돌 아래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 이는 용이 들어와서 서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개 유언으로 유골을 간직한 곳을 대왕암(大王巖)이라 하고, 절을 감은사(感恩寺)라 하였으며,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장소를 이견대(利見臺)라 하였다. 이로 보면, 문무왕이 처음 사원을 창건한 목적은 왜를 진압하고자 함이었으나, 신문왕이 이를 완성하면서 아버지 문무왕의 복을 빌기 위한 사원으로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겠다.



그림 2. 경주 감은사지 전경

감은사의 완성이 신문왕 즉위 이듬해인 것을 보면 사원의 창건 공사는 이미 문무왕대에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감은사의 완공은 신문왕 즉위 직후 행한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왜병을 진압하려 했던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사원 창건을 마무리 짓고, 그의 덕을 추모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해변에 세운 절 이름을 ‘감은(感恩)’이라 하고, 또 금당 계단 아래에 동쪽으로 향한 구멍을 내어 용이 들어와 서리게 한 것 등은 모두 부왕에 대한 추모의 정을 나타낸 것이다.

682년(신문왕 2) 5월 초하루에 해관(海官)인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중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일관(日官) 김춘질을 시켜 점을 치도록 하자 아뢰기를 “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계십니다. 또 김유신공도 33천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大臣)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켜줄 보배를 내려주시려 하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신문왕이 5월 7일에 이견대로 행차하였다. 사자를 보내 그 산을 살피게 하니, 산의 형세는 거북의 머리 같고 그 위에는 한 줄기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사자가 와서 그것을 아뢰니 왕이 감은사로 가서 유숙하였다.

이튿날 정오에 대나무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천지가 진동하며 비바람이 몰아쳐 7일 동안이나 어두웠다. 5월 16일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도 평온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를 가져다 바쳤다. 왕이 영접하여 함께 앉아 묻기를 “이 산과 대나무가 혹은 갈라지기도 하고 혹은 합해지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고 물었다. 용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아서,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께서는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정조입니다. 대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이제 대왕님의 아버님께서는 바다 속의 큰 용이 되었고 김유신은 천신(天神)이 되었는데, 두 성인이 같은 마음으로 이처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를 보내 저를 시켜 이를 바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문무왕은 죽은 뒤에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될 것을 늘 염원하였다. 평소에 지의법사에게 “짐은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소원이오.”라고 하였다. 법사가 “용은 축생(畜生)의 응보가 되는데 어찌 합니까?” 하니, 왕은 “내가 세상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오. 만약 나쁜 응보를 받아 축생이 되더라도 짐의 뜻에 적합하오.”라고 했다고 한다. 문무왕이 “내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다. 만약 크고 무거운 죄로 축생이 되더라도”라고 운운한 말에는, 전쟁의 시대를 당하여 서정북토(西征北討)하며 보냈던 그의 일생에 대한 회한이 스며 있다. 그리고 문무왕과 지의법사 사이에 오간 대화 중 “과보에 의해 축생이 된다.”고 한 것과 감은사 금당

계단 아래에 동쪽 바다로 향한 구멍을 뚫어 용이 들어와 서리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견대 설화 등에는 불교의 윤회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신라인들의 내세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무왕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대룡이 되고자 염원한 것은, 죽은 뒤에도 그 혼이 사라지지 않고 위급할 때에 음조(陰助)를 내린다고 믿던 신라인의 생각과 호국적 불교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문왕은 감은사에서 유숙한 뒤 17일에는 기림사(祇林寺) 서쪽 시냇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용이 준 흑옥대의 모든 장식이 진짜 용이라고 하므로, 그 한 쪽을 떼어 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승천하고 그곳은 못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못을 용연(龍淵)이라 하였다. 신문왕은 왕궁으로 돌아와 용의 가르침에 따라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신문왕이 받은 흑옥대는 진평왕대의 천사옥대(天賜玉帶)를 방불케 한다.

진평왕이 받은 천사옥대는 황룡사장육상, 황룡사구층목탑과 함께 신라의 호국삼보로 불려졌다. 진평왕은 579년(진평왕 원년)에 궁궐에서 상왕(上皇)이 보낸 천사로 부터 이 옥대를 하사받았다. 이는 금과 옥으로 장식되고, 그 길이가 10위(圍)였다. 1위는 대개 한 아를 말하나, 여기서는 길이 단위로서 한 뼘을 말한다. 이로써 진평왕 신체의 장대함에 걸맞게 천사옥대가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천사옥대에는 새겨 넣은 장식이 무려 62개였다. 만파식적 설화에서는 흑옥대의 여러 장식이 모두 진짜 용이었다고 한다. 천사옥대가 진평왕의 신성성과 권위 및 위엄을 강조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듯이, 신문왕의 흑옥대 또한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중대 무열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당시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등장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졌으므로, 이를 만파식적으로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신라에는 이미 삼보가 있었는데도 새로운 국보가 등장한 것은 당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신라삼보는 중고기의 신라 불국토설 및 호국사상의 강조를 통한 국민정신의 통합에 기여하였지만, 신문왕대에 와서는 그 의의가 약화되고 만파식적이라는 새로운 국보가 그를 대신하였던 것이다.

만파식적 설화는 통일에 대한 감사와 통일 후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내용으

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정당한 해석이 아니다. 오히려 김흠돌의 난 후 나라의 안정과 호국을 내세워야 했던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문무왕과 김유신의 위덕이 연결되어 표현됨으로써 무열왕권의 정당화 및 신문왕권의 강화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 하에 만들어졌고, 지배계층에 의해 형성되고, 유포·전승되었던 것이다.

호국적 보물로서의 만파식적

김춘추에 의해 개창된 중대는 무열왕계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안정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신문왕대 초기에 등장한 만파식적은 바로 무열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상징하는 보물이었고, 동시에 호국적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파식적 설화에는 불교사상적 배경과 함께 유교정치사상의 영향도 나타나 있다.

만파식적의 호국적 기능은 나라를 지키는 보배로서 강조되고, 또 이 피리를 불어 적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 점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이 호국의 보배가 된 직접적인 근거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과 김유신의 위덕에 의탁한 신기한 물건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이다. 만파식적을 보관한 천존고(天尊庫)의 '천존'이란 표현과, 효소왕대에 만파식적을 만만파파식적(萬萬波波息笛)이라고 봉작하니 혜성이 사라졌다는 것 등은, 모두 만파식적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라에는 무열왕계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호국의 기능을 가진 삼보가 있었다. 그런데도 다시 만파식적이 등장하였다. 이는 신라삼보가 중고기 성골 왕실의 상징적 보배였던 반면에, 만파식적은 중대 무열왕권을 상징하고 진골 왕통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대변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대 초 원성왕대의 만파식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는 그것이 호국적 기능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원성왕이 즉위하자 왕의 아버지 대각간 효양(孝讓)이 조종(祖宗)의 만파식적을 간직해서 왕에게 전했다. 왕이 이를 얻었으므로 하늘의 은혜를 후하게 입어 그 덕이 멀리 빛났다고 한다. 786년(원성왕 2) 10월 11일에는 일본왕이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다가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어 군사를 물리친다는 말을 듣고서 사자를 보내어 금 50냥으로써 그 피리를 보자고 하였다. 왕은 사자에게 말했

다. “내가 듣기에는 이전 진평왕대에 그것이 있었을 뿐 지금은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이듬해 7월 7일에 일본왕이 다시 사자를 보내어 금 1천냥으로써 만파식적을 청해왔다. “내가 신비로운 물건을 보기만 하고 그것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왕은 또한 전과 같은 대답으로 거절하고 은 3천 냥을 그 사자에게 주며 금은 돌려주고 받지 않았다. 8월에 일본의 사자가 돌아갔으므로, 그 피리를 내황전(內黃殿)에 간직하였다. 일본왕의 실체나 만파식적이 진평왕대에 있었다고 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중대의 만파식적이 이때에도 여전히 중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신은 정당한 왕위계승자로 인정되고 있던 김주원과의 대립에서 무력으로 왕위를 쟁취하고 하대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 김주원은 집이 북천 이북 20리에 있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입궁치 못하자 김경신이 먼저 궁에 들어가 즉위하였다. 효양이 만파식적을 아들 김경신에게 전한 것은, 김경신의 즉위가 인간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임을 만파식적의 신성함을 빌려 강조하고, 이로써 그의 즉위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서는 해공왕대에 처음 오묘제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687년(신문왕 7) 4월에 대신을 조묘(祖廟)에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아뢰기를 “왕 아 무개는 머리 숙여 재배하고 삼가 태조대왕·진지대왕·문흥대왕·태종대왕·문무대왕 영전에 아뢰입니다.”라고 하여, 이미 오묘제가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태종무열왕대의 오묘제 제정 가능성을 추측하는 견해도 있고, 문무왕이 668년(문무왕 8) 11월 6일에 문무의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선조묘(先祖廟)에 배알했던 사실에서 이때를 오묘제가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 신문왕이 태조 및 부·조·증조·고조의 4친으로 오묘제를 확립시켰음이 유의된다. 특히 정란황음(政亂荒淫)으로 축출되었던 고조 진지왕을 봉안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공왕대에 두 왕이 탈락될 위기에 처하자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큰 공이 있다고 하여 불천지주로 삼았다. 그리고 하대에 들어 애장왕은 시조와 직계 4대로 새로 오묘제를 구상하면서도 태조대왕과 문무대왕은 별도의 신위로 하였다. 문무왕과 김유신의 두 성인이 준 만파식적은 호국의 보물로서 중대뿐 아니라 하대에 이르러서까지 중시되었던 것이다.

2. 통일 후의 체제 정비

유교적 정치이념의 수용

만파식적 설화가 만들어진 것은 682년(신문왕 2) 5월이었다. 신문왕은 그 다음 달인 6월에 국립대학인 국학(國學)을 설치하였다. 국학의 기원은 진덕왕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독립된 관부로서 등장하였다. 국학의 설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왕권의 강화와 삼국통일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배계급의 정치이념이 긴요했기 때문이다.

신문왕을 전후한 시기의 대표적 유학자로 강수와 설총이 있었다. 강수는 일찍이 스승으로부터 『효경』, 『곡례』, 『이아』, 『문선』 등을 배우고, 여러 관직을 거친 당대의 유명한 문사였다. 그는 불교를 세속을 도외시한 종교라 비판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를 배우고 실행하지 않음이 부끄러운 것이라 하여 유교를 강조하였다. 태종대왕이 즉위하였을 때 당나라 사신이 와서 조서를 전하였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강수를 불러 물으니 한번 보고 해석하는데 막힘이 없었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서로 늦게 만난 것을 한스러이 여길 정도였다. 강수는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써서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신문왕대 죽었으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설총은 승려 원효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와는 달리 유학자였다. 그는 배우지 않고도 도술을 알고, 방언으로 9경(九經)을 읽어 후생을 가르쳤다. 그는 화왕(花王)인 목단이 장미와 할미꽃을 대하는 모습에 비추어서 국왕이 아리따운 여인과 늙은 충직한 신하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였다. 임금은 마땅히 아침하는 자를 멀리하고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정치에서 유교의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한편 그것을 글로 남겨 후세 국왕이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에 신문왕은 설총을 발탁하여 높은 벼슬을 주었다고 한다.

신문왕은 즉위 초 김흠돌의 난에 연루된 병부령 김군관을 처형한 후에 내린 교서에서 “임금을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함으로써 근본을 삼고, 벼슬살이하는 도리

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으뜸을 삼는다.”고 하였다. 이 또한 유교적 정치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더욱이 이 무렵에는 제문·수진·양도·풍훈·골답 등의 많은 문장가들이 있었다. 풍훈은 문무왕대에 당에 들어간 숙위학생이었다. 중국어를 알던 김양도는 662년(문무왕 2) 정월에 평양의 당나라 군대에게 군량을 보급하는 일을 맡았고, 669년(문무왕 9) 5월에는 당에도 파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문왕 전후 시기의 유학자들의 활동, 국학의 설립, 설총의 건의에 따라 유교의 도덕적 규범을 왕자의 교훈으로 삼은 점, 교서에 나타나는 유교정치이념, 그리고 이후의 국학 교수 과목이나 하대 독서삼품과의 시험 과목에서 『논어』, 『효경』, 『예기』 등의 유교 경전이 중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당시에 유교적 정치이념을 표방한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물론 유교적 정치이념이 신문왕대에 나타난 데는 삼국시대 이래 유교사상이 착실히 수용되어 온 데다 중국식 시호諡號가 사용된 무열왕 이후부터는 당과의 교섭과 문물의 수입으로 유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686년(신문왕 6)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예기와 문장에 관한 책을 요청하니 측천무후가 담당 관서로 하여금 길흥요례吉凶要禮를 베끼고 『문관사림』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선택하여 50권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더욱이 만파식적 설화에는 “성왕이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왕이 이 대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유교사상의 핵심인 예악사상이 나타나고 있어 만파식적이 중대의 국보로 등장하게 된 사상사적 배경이 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골왕 시대 혹은 불교식 왕명 시대 등으로 명명되는 중고기가 신라삼보 및 불교적 정치이념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크게 대비된다. 그리고 그것은 신문왕대의 제도정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정치제도의 정비

신라의 중앙 관부는 중고기 말부터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삼국통일을 계기로 한층 정비되었다. 특히 문무왕이 죽음에 임하여 율령격식에 불편함이 있으면 개혁하라는 유언을 남겼듯이, 신라의 정치제도는 이후에 이르러 크게 보완되었다. 686년(신문왕

6)에 예작부가 설치됨으로써 중앙의 14처 部·부府의 주요 관부가 일단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759년(경덕왕 18)에 한화정책이 실시되고 776년(혜공왕 12)에 복고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신문왕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86년(신문왕 6) 무렵에 완성된 중앙 주요 관부와 관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앙 주요 관부 · 관직과 관원 수

구분	설치연대	직능	영	경	대사	사지	사	노당	총수
병부 (兵部)	법흥왕 3년 (516)	군사	3	3	2	1	17	1	27
사정부 (司正府)	진흥왕 5년 (544)	감찰	1	3	2	2	15		23
위화부 (位和府)	진평왕 3년 (581)	인사	3	2	2		8		15
조부 (調府)	진평왕 6년 (584)	공부	2	3	2	1	8		16
승부 (乘府)	위와 같음	수레 · 교통	2	3	2	1	12		20
예부 (禮部)	진평왕 8년 (586)	의례 · 교육	2	3	2	1	11		19
영객부 (領客府)	진평왕 43년 (621)	외교	2	3	2	1	8		16
집사부 (執事部)	진덕여왕 5년 (651)	기밀사무	1	2	2	2	20		27
창부 (倉部)	위와 같음	재정	2	3	2		18		25
좌리방부 (左理方府)	위와 같음	형률 · 법령	2	3	2	2	10		19
우리방부 (右理方府)	문무왕 7년 (677)	형률 · 법령	2	2	2	2	10		18
선부 (船府)	문무왕 18년 (678)	선박 · 수군	1	3	2	1	10	2	19
공장부 (工匠府)	신문왕 2년 (682)	공장 · 제사		1	2		4		7
예작부 (例作府)	신문왕 6년 (686)	토목 · 영선	1	2	4	2	8		17
합계			24	36	30	16	159	3	268

관원의 명칭은 소속된 관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위의 표는 해당 직급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를 검토하면 당의 제도를 많이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병부는 당의 병부兵部에, 조부와 창부는 당의 호부戸部에, 예부는 당의 예부禮部에, 예작부와 선부는 당의 공부工部에, 위화부는 당의 이부吏部에, 좌·우리방부는 당의 형부刑部에 상응하고 있다. 이는 신라 정부가 당의 6전六典이나 그에 준하는 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각 관부의 관원구성은 영令-경卿-대사大舍-사지舍知-사史의 5단계 조직으로서, 당의 상서尚書-시랑侍郎-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주사主事의 그것에 각각 상응하고 있다. 이는 경덕왕 18년의 관호개혁 때 집사부의 대사, 사지, 사가 각각 낭중, 원외랑, 낭으로 개명된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애장왕 이후가 되면 일부 관부와 관원의 명칭이 다시 변경되고, 인원수도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난다.

집사부, 사정부, 예작부 등은 장관(영)이 1인이지만, 대부분의 관부에서는 장관 복수제를 채택하였다. 장관 복수제는 귀족의 합의제로서 권력 분산에 따른 상호 견제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병부령은 관등이 대아찬에서 태대각간까지의 범위에서 임명되는데, 516년(법흥왕 3)에 처음 1인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544년(진흥왕 5)에 1명을 추가하고, 659년(무열왕 6)에 다시 1명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장관이 복수라 해도 동시에 둔 것도 아니고, 관등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었다. 장관인 영과는 달리 차관인 경(시랑) 이하의 관원은 거의 모든 관부에서 복수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행정 실무를 보강하려는 의미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집사부는 왕정의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주요 관부였다. 651년(진덕여왕 5)에 창설되었으며, 초대 중시는 파진찬 죽지였다. 집사부의 기원은 국왕의 가신적 기구였던 품주稟主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전대등典大等이 설치된 565년(진흥왕 26)에 대등大等이 분화되어 성립하였다. 그러나 품주에서 처음 조부가 분리되고, 다시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됨으로써 비로소 집사부가 탄생하였다.

통일신라기 권력구조의 핵심은 귀족회의와 집사부였고, 각각의 장관은 상대등과 중시였다. 귀족회의와 상대등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지만, 집사부와 중시는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김춘추, 김유신 세력에 의해 창설된 만큼 중대의 핵심적 정치 기구로서 기능하였다.

상대등에 대한 종래의 이해는 다음과 같았다. 상대등은 귀족세력의 대변자로서 국왕과 대립적이었으나, 중대에 와서는 집사부 중시에게 실권을 넘겨준 정치적 방관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중대에는 집사부가 최고 관부이고, 중시는 최고 관직으로 국무를 총리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집사부가 국왕과, 행정을 분장하는 일반 관부의 중간에서, 위로는 왕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관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봄으로써 중대를 '전제왕권시대'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였다. 상대등은 국왕권을 제약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왕권신장의 결과로서 두어졌기 때문이다. 상대등은 수상으로서, 또 귀족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를 총리하였으며, 그 위상은 중대에도 상·하대와 같이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중대가 되면 상대등은 무력화되고 그 위상은 집사부 중시가 차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왕권의 강화로 상대등의 임면절차가 지극히 불규칙해졌다는 중대에서 상대나 하대보다 오히려 상대등의 재임기간이 더 길었다거나, 김유신의 부수副帥였던 죽지가 중시였음에 비해 김유신은 그 뒤 상대등에 취임한 사실에서 살필 수 있다.

또 중시에서 상대등으로의 승진은 중대 초부터였고, 한 왕대에 동일 인물이 중시와 상대등을 역임한 예도 여럿 나타났다. 이들은 국왕과의 밀접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왕권유지에 노력하였고, 정당한 왕위계승이 어려울 경우 국왕에 추대되기도 한 왕위계승권자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상대등이 결코 중대에 이르러 중시에게 밀려난 무력화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방증해 준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중대의 중시는 그 책임을 지고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중시가 왕권의 방파제로 안전판의 구실을 함으로써 전제왕권이 성립되었음을 말한다고 보기도 하였으나, 실제에서는 중대와 하대에 차이가 없었다. 나아가 중대에 반란이 일어난 후 중시가 교체된 이유가 중시의 정치적 책임 때문이라 보았으나, 이 같은 사실은 오히려 중대라 하더라도 집사부가 최고 관부가 아님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중시의 위상과 관련하여 제기된 '중대=전제왕권시대' 설은 재고를 요하게 되었다.

중시와 상대등은 각기 왕권과 귀족세력을 대표하면서 상호 대립적이었다기보다는 협력하는 관계였으며, 중시가 정책을 집행 혹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획

의 업무를 감당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집사부가 정책을 기획했다면, 귀족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책의 심의·결정을 맡았고, 이때 상대등은 귀족세력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국왕을 대신하여 대등으로 구성된 귀족회의의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귀족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은 국왕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각 관부는 이를 집행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 관부로 사천왕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 등 7처 사원에 설치된 성전이란 관부를 특기할 만하다. 이는 『삼국사기』 직관지에 열거되어 있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장관은 겸직이었으나 병부령 등 당시 최고의 실권자들이 임명되었다. 이 사원들은 모두 왕과 왕비의 발원에 의해 창건된 왕실사원으로 수도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며, 중국·일본의 관사^{官寺}와 차원을 같이 하였다. 중대 국왕을 제사지내는 원당으로 중시되었으며, 중대에는 사천왕사가 가장 격이 높았다. 성전 설치가 제도화된 것은 684년(신문왕 4)경으로 정치제도의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또 토지제도로써 관료전과 녹읍이 주목된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신문왕 7년(687) 5월조에 “교서를 내려 문무관료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고 하였다. 관료전의 지급은 통일 후 행정 관료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당나라 직전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되기도 한다. 관료전은 일본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장적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695년(효소왕 4)에 작성되었음이 거의 확실한 이 문서의 내시령답^{內視令答}과 관모전^{官謨田}·답^答이 그것이다. 이 토지는 주민들이 소유·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연수유전^{烟受有田}·답^答과 구별되었다고 추측된다.

녹읍^{祿邑}은 관직에 취임한 자의 보수로서 지급되는 고을을 말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관료전 지급 2년 뒤인 689년(신문왕 9) 춘정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세조^{歲租}를 차등 있게 주어 일정한 법을 삼았다.”고 하였다.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삼국통일 전쟁의 공로자들이며 국가권력의 핵심세력인 진골귀족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그 대상에는 자신의 장인인 김흠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국학을 설치하고 각종 관부를 정비하였다. 또 9주 5소경제를 실시하여 지방에 대한 행정권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687년(신문왕 7)에 문무관료전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녹읍을 폐지하였다. 이는 진골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유교적 정치이념을 수용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귀족들의 경제기반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다.

녹읍주가 녹읍에 대해 수조권을 가졌는지, 아니면 노동력의 징발권까지 가졌는지 분명치 않으나, 녹읍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귀족들의 경제기반을 일시에 없애버릴 수는 없으므로, 세조의 지급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이 같이 폐지된 녹읍이 757년(경덕왕 16) 3월에 다시 부활되었다. 신문왕대의 녹읍 폐지가 진골귀족 세력에 대한 억압책의 하나였다면, 녹읍의 부활은 왕권에 대한 귀족세력의 승리였다고 하겠다.

9주 5소경제의 확립

신라는 삼국통일 이전에 전국을 5주로 나누었으나, 통일 후 영토가 확대되자 새롭게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상주^{上州}·하주^{下州}·한산주·수약주·하서주 가운데 665년(문무왕 5)에 상주·하주에서 삼랑주를 분리시켰고, 문무왕 11년에는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 685년(신문왕 5)에 하주(거열주)를 나누어 완산주와 청주^{靑州}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9주가 완비되었다. 따라서 9주의 하나였던 발라주는 이미 그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된다.

상주(일선주)·하주(삼랑주)·청주·한산주·수약주·하서주·사비주·완산주·발라주로 완비된 9주는 686년(신문왕 6) 2월에 사비주·발라주 대신에 웅천주·무진주를 설치하고, 신문왕 7년에 상주의 주치를 일선주에서 사벌주로 옮겼다. 이로써 사벌주·삼랑주·청주·한산주·수약주·하서주·웅천주·완산주·무진주의 9주로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9주의 명칭은 757년(경덕왕 16)에 한식^{漢式}으로 개명되었다가 776년(혜공왕 12)에 복구되었으며, 하대에 들어가서는 두 명칭이 혼재하였다.

신문왕 무렵의 주는 10여 개 이상의 군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주와, 주의 직할지인 주치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주로, 이중적으로 쓰였다. 주의 장관은 총관^{總管} 또는 도독^{都督}이라 하였다. 주에는 도독·주조^{州助}·장사^{長史}가 1명씩 있었고, 지방 감찰관으로 외사정^{外司正} 2명이 배치되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외에도 주에는 지방인 출신의 이직자^{吏職者}들이 있어서 행정을 보좌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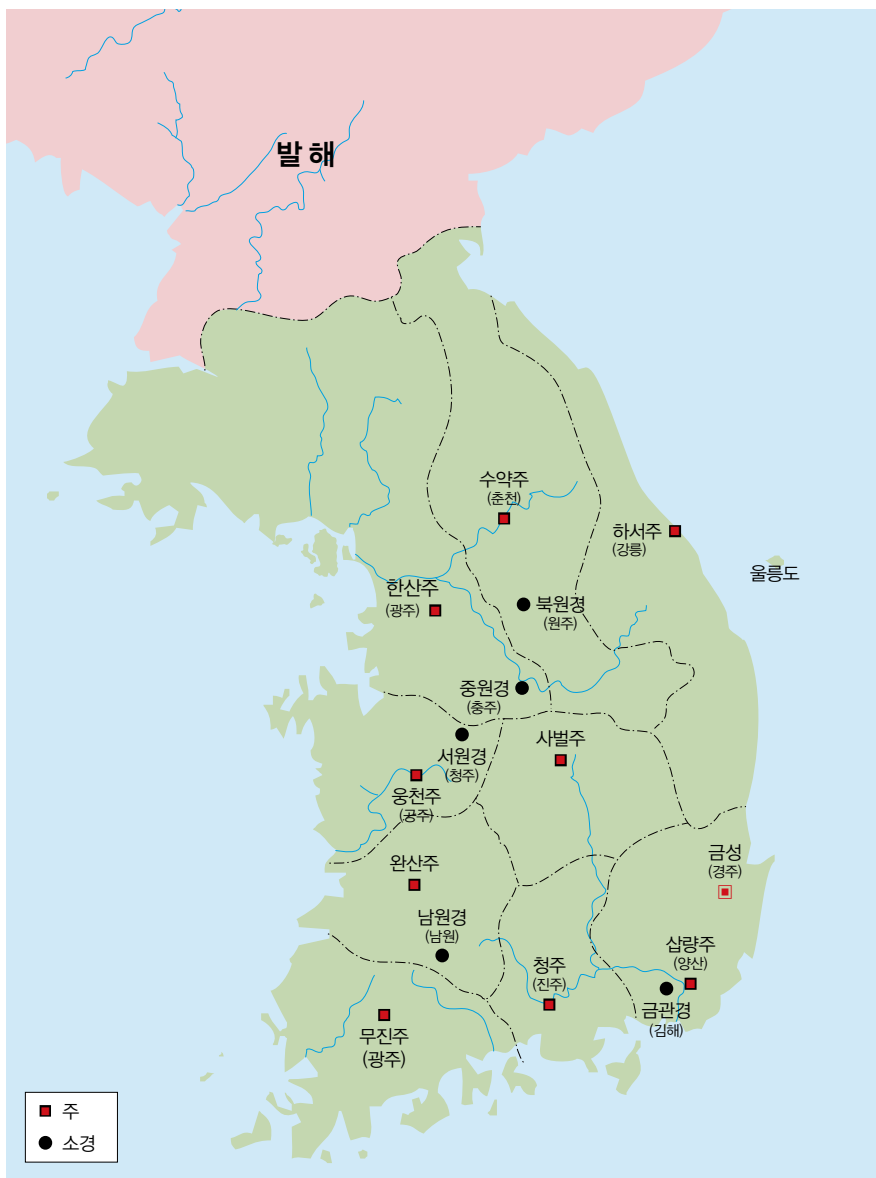


그림 3. 9주 5소경

진주의 주리州吏였던 안길을 들 수 있다. 이 지방관과 이직자들은 주사州司를 구성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의 관리나 군관·병졸, 주민은 도독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도독은 행정권·

병마권·사법권·징세권 등을 행사하였다. 중앙의 명령을 하달 받은 도독은 이를 다시 관내의 군·현과 주의 직속촌에 전달하였다. 중앙에 보고하는 사항은 대체로 이와 역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삼국통일로 영토가 확대되고 지방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군·현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신문왕대의 정확한 군·현 수는 논란이 있지만, 757년(경덕왕 16) 12월의 전국적 지명개혁에서 대략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사벌주를 상주로 고치고 1주 10군 30현을 거느리게 하였고, 삼랑주를 양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2군 34현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청주를 강주로 고치고 1주 11군 27현을 거느리게 하였다. 한산주를 한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27군 46현을 거느리게 하였고, 수약주를 삭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1군 27현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웅천주를 웅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3군 29현을 거느리게 하였다. 또 하서주를 명주로 고치고 1주 9군 25현을 거느리게 하였고, 완산주를 전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0군 31현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무진주를 무주로 고치고 1주 14군 44현을 거느리게 하였다. 이로써 9주 5소경 117군 293현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신문왕대 이후 군·현의 승격과 강등이 단행되고 예성강 이북에 대곡성 등 14개의 군·현을 설치함으로써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였다.

통일 후 신라의 군은 각기 3개 내지 4개의 현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을 1개도 갖지 못한 군도 있었는데, 현이 없는 곳은 군에서 직접 촌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군과 현이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군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속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였다.

군의 지방관은 태수太守였다. 태수는 사지에서 중앙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 태수 이외에 중앙에서 파견된 외사정外司正 1명이 있어 감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군에는 군사郡司가 구성되어 행정을 담당하였다.

현에는 지방관으로 소수少守 혹은 현령縣令이 파견되었다. 소수는 당幢에서 대나마까지의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었고, 현령은 선저지에서 사찬까지의 관등 보유자가 임명되었다. 대체로 소수는 현령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현에 파견되었다. 현에도 현사縣司를 구성하고 소수 혹은 현령을 보좌하였다. 태수·소수·현령은 일반 행정권

을 포함하여 병마권, 요역 징발권, 조세 및 공부 징수권 등을 행사했다.

한편, 군·현과 동질의 지방행정 구획이면서 현으로 삼기에 부족한 곳을 향으로 삼았다. 종래에는 향을 천인집단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군·현과 동질의 행정구획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향의 행정기관인 향사(鄕司)는 주·군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되었다.

소경(小京)은 514년(지증왕 15)에 아시촌에 처음 설치된 이후, 557년(진흥왕 18)에 국원소경, 639년(선덕여왕 8)에 북소경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통일기까지 존속한 것은 국원소경(중원경)이었다. 여기에다 678년(문무왕 18)에 북원소경, 문무왕 20년에 금관소경, 685년(신문왕 5)에 서원소경과 남원소경이 설치됨으로써 5소경 제도가 완성되었다.

소경의 영역은 2, 3개의 영현을 거느린 군 정도의 규모였다. 하지만 소경에는 현이 두어지지 않아서 소경이 촌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였다. 일본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장적은 서원경 관내 및 그 부근 촌들의 존재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경은 일부 중심 지역에만 인구와 읍락이 밀집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지역은 다수의 촌들로 이루어져 외관상 군·현의 내부와 비슷하였다.

소경의 중심 읍락에는 소경의 관아가 있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군관들이 있었다. 소경의 장관은 사신(士臣) 혹은 사대등(士大等)이라 하였으며, 급찬에서 파진찬까지의 관등 보유자가 임명되었다. 사신 아래에는 사대사(士大舍), 곧 소윤(少尹)이 있었고, 그밖에 지방인 출신의 이직자(吏職者)들이 있었다. 소경의 장관인 사신은 주의 도독과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권, 병마권, 역역 징발권, 조세 및 공물 징수권 등을 행사하였다.

중앙 군사조직

신문왕대에는 정치조직과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군사제도를 개편하였다. 삼국통일기에 활동하였던 부대가 해체되는가 하면 새로운 부대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또 삼국 시대에 창설되어 여전히 존속된 부대도 있었다. 이 군사조직들을 그 배치 지역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문왕대 왕정에 편성되었던 군사조직으로는 시위부(侍衛府)와 9서당(九誓幢), 그

리고 3무당(三武幢)·개지극당(皆知戟幢)·계금당(繼衿幢) 등 여러 부대가 있었다. 먼저 시위부는 651년(진덕여왕 5)에 설치되었다. 삼도(三徒)로 편제되었으며, 681년(신문왕 1)에 시위감을 파하고 장군을 둠으로써 조직이 최종 정비되었다. 시위부의 장군직은 6정이나 9서당과는 달리 급찬에서 아찬까지의 관등 보유자도 임명될 수 있어 6두품도 취임할 수 있었다. 시위부의 임무는 궁성의 숙위와 함께 국왕의 호종과 경호 등이었다. 신문왕이 즉위 원년에 일어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병부령 겸 상대등이었던 김군관을 처형한 뒤 곧바로 시위감을 혁파하고 장군 6인을 두었다는 사실은, 시위부의 장관을 6두품 출신으로 임명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9서당과 그 지원 부대 또한 왕권 강화의 군사적 배경이 되었다. 9서당의 편성은 583년(진평왕 5)에 처음 설치한 서당(誓幢)을 녹금서당으로 재편하고 672년(문무왕 12)에 백제민으로 백금서당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625년(진평왕 47)에 설치한 낭당(郎幢)을 677년(문무왕 17)에 자금서당으로 재편하였고, 683년(신문왕 3)에는 고구려민으로 황금서당을, 말갈인으로 흑금서당을 편성하였다. 686년(신문왕 6)에는 보덕성민으로 벽금서당과 적금서당을 편성하였으며, 687년(신문왕 7)에는 백제잔민(百濟殘民)으로 청금서당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672년(문무왕 12)에 설치한 장창당(長槍幢)을 693년(효소왕 2)에 비금서당(緋衿誓幢)으로 재편함으로써 9서당의 조직이 완성되었다.

이처럼 9서당은 신라인 3개 부대, 백제인과 보덕국인 각 2개 부대, 고구려인과 말갈인 각 1개 부대로 편성되었고, 옷깃의 색(衿色)으로 구별하였다. 이들은 대당 전쟁 진행 중에 설치되기도 하였지만, 신문왕이 즉위한 직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통일 후의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9서당은 대부분 이국인 포로들로 편성되어 자연적 결원을 채우지 못하고 점차 축소·해체되었다.

9서당에는 군사당(軍師幢)·대장척당(大匠尺幢)·보기당(步騎幢)·착금기당(著衿騎幢)·흑의장창말보당(黑衣長槍末步幢) 등이 지원부대로 배치되었다. 9서당에 6정(停)의 예하 지원 부대와 같은 이름의 부대가 들어있는 이유는 삼국통일 후 6정을 폐지하고 그 지원 부대를 9서당에 재편성해 넣은 때문으로 추측된다.

삼무당은 백금무당·적금무당·황금무당으로 편성되었다. 백금무당은 675년(문무왕 15)에, 적금무당은 687년(신문왕 7)에, 황금무당은 689년(신문왕 9)에 각기

설치되었다. 옷깃의 색깔 구분이 9서당과 비슷하기에 백금무당은 백제인, 적금무당은 보덕국인, 황금무당은 고구려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기도 한다. 개지극당皆知戟幢은 690년(신문왕 10)에 창설되었다. 개지극이란 가지가 나와 있는 갈구리창을 말하는데, 곧 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부대였다.

왕경에는 이외에 6세기 초나 그 이후에 창설되어 통일기까지 존속된 부대로 경오종당京五種幢·이절말당二節末幢·경여갑당京餘甲幢·사자금당獅子衿幢·백관당百官幢 등이 있었다. 이들은 왕경의 방위와 치안, 관아의 경비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또 사설당四設幢은 노당弩幢·운제당雲梯幢·충당衝幢·석투당石投幢으로 편성되어 노·운제·충차·포차 등의 특수무기를 사용한 부대로 추측된다.

지방 군사조직

삼국통일은 지방 군사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고기의 5주 체제에 맞게 편성되었던 6정이 폐지되고, 통일신라의 9주 체제에 걸맞은 군사조직으로 재편되었다. 신문왕 무렵의 지방 군사조직으로 10정+停·신삼천당新三千幢·5주서五州誓·착금기당著衿騎幢·비금당緋衿幢·사자금당獅子衿幢·만보당萬步幢·삼변수당三邊守幢·이계당二翼幢, 법당군단法幢軍團 등이 있었다.

표 2. 신문왕대의 10정

10 정	위치	현 지명
(1) 음리화정	사벌주 음리화현	경북 상주
(2) 고랑부리정	웅천주 고랑부리현	충남 청양
(3) 거사물정	완산주 거사물현	전북 임실
(4) 삼랑화정	삼랑주 삼랑화현	대구 달성
(5) 소삼정	청주 소삼현	경남 함안
(6) 미다부리정	무진주 미다부리현	전남 나주
(7) 남천정	한산주 남천현	경기 이천
(8) 골내근정	한산주 골내근현	경기 여주
(9) 이화혜정	하서주 이화혜현	경북 청송
(10) 벌력천정	우수주 벌력천현	강원 홍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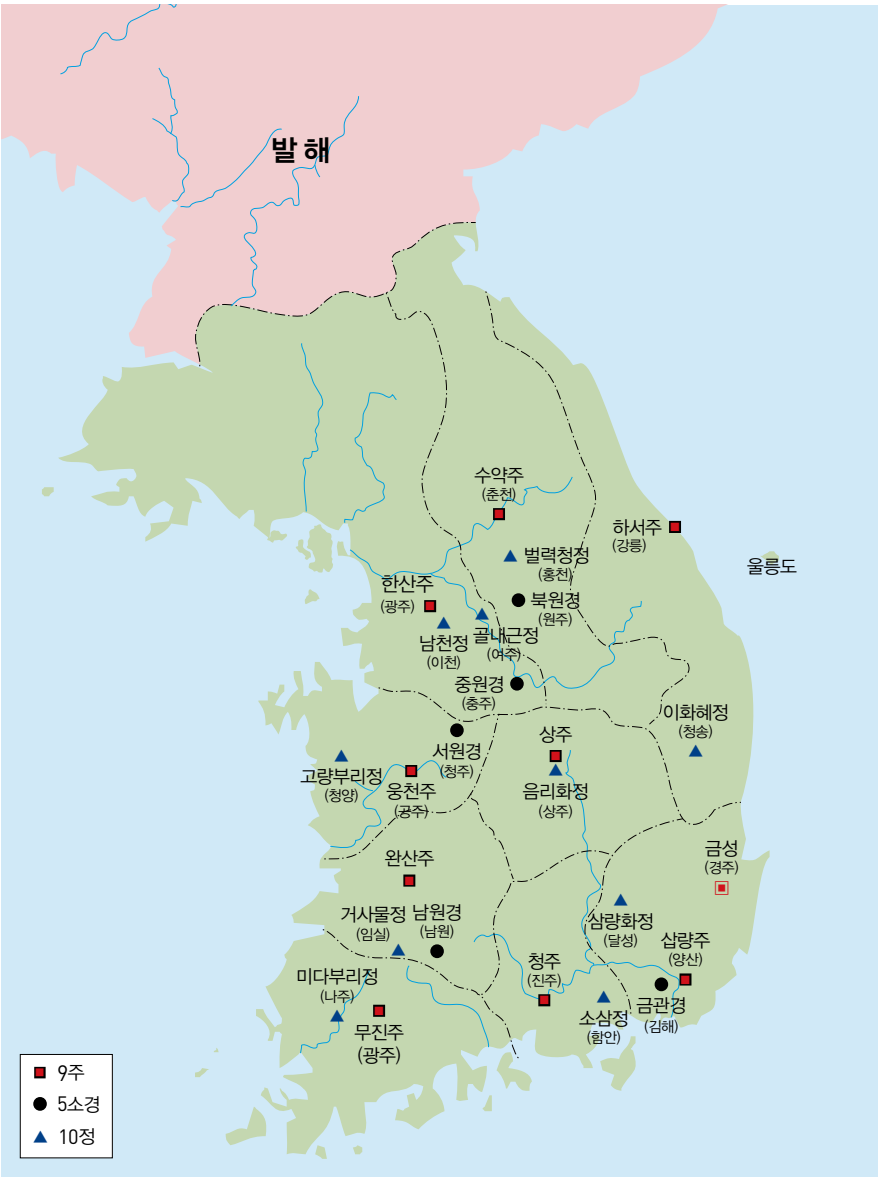


그림 4. 9주 5소경과 10정 위치도

먼저 10정은 <표 2>와 같이 음리화정音里火停, 고랑부리정古良夫里停, 거사물정居斯勿停, 삼랑화정參良火停, 소삼정召參停,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남천정南川停, 골내근정骨乃斤停, 벌력천정伐力川停, 이화혜정伊火兮停이다. 옷깃의 색으로 부대를 구별하였는데, 음

리화정·고랑부리정·거사물정은 청색, 삼랑화정·소삼정·미다부리정은 흑색, 남천정·골내근정은 황색, 벌력천정·이화혜정은 녹색이었다. 각 정이 위치한 곳은 사별주, 웅천주, 완산주, 삼랑주, 청주, 무진주, 한산주, 하서주, 우수주 관내의 현이었다. 10정의 명칭은 당시 주둔한 현縣의 명칭과 일치하며, 8주에 1정씩 배치되고 한산주에만 2개정이 배치되었다. 정이 창설된 시기는 544년(진흥왕 5)이지만, 10정의 설치가 완료된 것은 665년(문무왕 5)이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파악되는 10정의 각 부대는 대대감^{隊大監} 1인-소감^{少監} 2인-화척^{火尺} 2인-삼천당주^{三千幢主} 6인-삼천감^{三千監} 6인-삼천졸^{三千卒} 15인이다. 이들은 다시 대대감-소감-화척 계열과 삼천당주-삼천감-삼천졸 계열로 나뉘는데, 전자의 군관은 기병이고 후자의 군관은 보병으로 추측된다. 이질적인 두 계열의 부대가 처음부터 함께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10정은 544년(진흥왕 5) 삼천당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왕경인으로 구성된 중앙 군단으로 보병 중심의 부대였다. 그러나 통일 초의 대대적 군제개편 과정에서 10개의 삼천당, 곧 10정 군단으로 바뀌면서 기병 중심의 군단으로 개편되고, 이에 따라 지방민을 포함하는 군사조직으로 변하였다.

삼국통일 이전에 삼천당이 설치되었다면, 통일기 초에는 신삼천당^{新三千幢}이 설치되었다. 삼천당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나 처음에는 중앙에 주둔한 군사조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삼천당은 지방에 위치한 부대였다. 신삼천당에 속하는 우수주 삼천당^{牛首州 三千幢}과 나토군 삼천당^{奈吐郡 三千幢}은 672년(문무왕 12)에, 나생군 삼천당^{奈生郡 三千幢}은 676년(문무왕 16)에 각기 설치되었다.

5주서^{五州誓}는 청주서^{靑州誓}·완산주서^{完山州誓}·한산주서^{漢山州誓}·우수주서^{牛首州誓}·하서주서^{河西州誓} 등의 5개 부대로 편성되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문무왕 12년에 5주서를 모두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청주서와 완산주서는 그 이름으로 보아 같은 명칭의 주가 두어진 685년(신문왕 5) 무렵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각 부대의 군관수는 대대감 1인(영기병^{領騎兵})-소감 9인(영보병^{領步兵})-3인(영기병)-화척 2인(영기병)으로 되어 있다. 5주서의 군관조직이 기병 중심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기병의 소감이 3인인데 비해 영보병의 소감은 9인으로 3배나 많아서 5주서의 병졸도 보병이 더 많았다고 하겠다. 또 착금기당은 주둔지가

와 같은 점으로 보아 이에 배속된 부대로 추측된다.

9주의 주치에 배치된 것으로 추측되는 부대로 비금당^{緋衿幢}, 만보당^{萬步幢}, 사자금당^{獅子衿幢} 등이 있었다. 이들은 685년(신문왕 5) 이후에 창설되었다. 비금당은 9서당 중의 하나인 비금서당이 원래 장창당^{長槍幢}이었다는 사실에서, 긴 창을 사용하는 부대로 여겨진다. 비금당주는 40명으로, 사별주·삼랑주·청주에 각 3인, 한산주에 2인, 우수주와 하서주에 각 6인, 웅천주에 5인, 완산주에 4인, 무진주에 8인이 배치되었다. 만보당은 각기 금색^{衿色}을 달리하는 18개 부대가 9주에 2개씩 배치되었다. 또 법당군단^{法幢軍團}은 왕경과 지방의 9주 5소경 그리고 군·현에 편성되어 있었다고 보고, 통일 이전의 군사당을 대신하여 9주의 주치에 편성된 법당을 사자금당이라 파악한 견해도 있다.

그밖에 5소경에는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이 설치되었으며, 노당^{弩幢}도 이곳에 배치된 것으로 추측한다. 소경여갑당은 법당주-법당감-법당화척으로 이어지는 군관과 지방민 병졸로 조직되었으며, 노당은 법당두상-법당벽주의 군관과 지방민 병졸로 편성되었다. 또 군·현에는 법당군단에 속한 부대 가운데 외여갑당·여갑당·외법당이 편성되었다고 본다.

이외에 북방을 경비하기 위해 설치한 부대로 이계당^{二巖幢}과 삼변수당^{三邊守幢}이 있었다. 2계당은 외계^{外巖}라고도 하는데, 한산주 계당은 677년(문무왕 17)에, 우수주 계당은 672년(문무왕 12)에 편성되었다. 3변수당은 변수^{邊守}라고도 하며, 690년(신문왕 10)에 창설되었다. 한산변^{漢山邊}, 우수변^{牛首邊}, 하서변^{河西邊}의 삼변이 그것이다.

3. 달구벌 천도 추진과 실패

천도 추진의 배경

문무왕은 676년(문무왕 16)에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삼국통일을 달성하였다. 이어 685년(신문왕 5)에는 9주 5소경 제도를 완성함으로써 옛 백제·고구려 영

토를 포함한 통일 후의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689년(신문왕 9)에는 오늘날의 대구인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다 실패하고 말았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국가적 대사였다. 그런 만큼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 먼저 지리적 입지 문제를 주목하였다. 통일을 달성한 이후의 신라 판도를 고려할 때, 경주가 수도로서 너무 동남쪽으로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달구벌로 천도를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인 데서 이유를 찾는 견해였다. 신문왕대를 전후한 시기는 무열왕계 왕실이 전제주의를 추진하던 시기로 진골귀족에 대한 탄압과 전제주의 왕권의 추구는 진골귀족 세력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 상징적 사건이 신문왕 원년에 일어난 김흠돌의 난이었다. 경주에 근거지를 가진 보수적 진골귀족의 위협은 난이 진압된 뒤에도 약화된 상태지만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신문왕은 이러한 세력의 위협에서 탈출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천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천도 후에 뒤따를 엄청난 구조변동을 지배층 스스로 감내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천도로 말미암아 기존 귀족들이 지닌 지배 기반이나 구조에 그만큼 변화가 초래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달구벌 천도를 반대한 세력은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 정비에 반대한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신문왕을 적극 지지해 온 세력들로서 경주를 중심으로 전통적 기반을 지녔던 상층 귀족들이라고 하였다.

또 왕경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신문왕대에 이르러 경주가 왕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통일전쟁 이후 새로 흡수한 백제와 고구려 귀족들의 왕경 거주 허용, 유공 지방민들에 대한 왕경 이주 포상책의 실시, 진골귀족 소유 노비의 증가 등으로 왕경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경주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 왕경의 자연조건상 커다란 문제였다고 한다.

신문왕대의 달구벌 천도를 이해하는 데 지리적 환경이나 진골귀족의 보수성 등의 요인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것일 뿐 천도 기도의 궁극적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천도 기도는 정치적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천도 추진의 경과

신문왕대의 달구벌 천도 기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신문왕 9년조에 “윤9월 26일 왕이 장산성(障山城)에 행차하였다. 서원경성(西原京城)을 쌓았고, 왕이 달구벌로 도읍을 옮기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의 중요성에 비해 전하는 기사는 매우 빈약하다. 이 기사 외에는 어디에도 이를 언급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달구벌 천도는 언제부터 시도되었을까. 경위와 외위로 이원화되었던 관등제가 경위로 일원화되어 나갔음을 고려하면, 외위가 폐지된 674년(문무왕 14)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그 시기는 삼국통일을 달성한 676년(문무왕 16)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무왕은 679년(문무왕 19) 2월에 궁궐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중수하였다. 8월에는 처음으로 동궁을 짓고 비로소 내외제문(內外諸門)의 이름을 정하였으며, 사천왕사를 완성하고 남산성을 증축하였다. 또 681년(문무왕 21) 6월에는 수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계획하였다. 문무왕이 왕경을 일신하려 하자 의상이 말하기를 “비록 들뜬 의 떠집에 살아도 정도를 행하면 곧 복업(福業)이 길 것ियो, 진실로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람을 힘들게 하여 성을 만들지라도 또한 이익 되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이에 공사를 그만두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무왕이 수도에 성곽을 쌓으려 하였다고 밝혀 나성을 쌓으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나성 축조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대왕실의 통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도성으로의 혁신을 시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만, 왕경 일신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면 천도에 대한 구상은 이 뒤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문무왕은 공사 계획을 중단한 지 한 달이 못된 7월 1일 승하하고 말았다.

문무왕의 죽음으로 천도 문제는 다음 왕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신문왕이 천도 준비에 나서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685년(신문왕 5)에 9주 5소경 제도를 완성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대체적 정비가 끝난 뒤에는 달구벌 천도를 미리 계획하여 두었다고 보기도 한다. 즉 소경이 된 신라 지역에만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는 구도(舊都)와 신도(新都)를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무렵을 달구벌 천도를 결정한 시점으로 잡을 수 있겠다. 그러나 686년(신문왕 6) 2월에도 후속

개편이 이어진 것을 보면, 이 시기까지로 약간 늦추어 볼 여지도 있다. 687년(신문왕 7)에 일선주를 폐지하고 사별주를 복치한 것은 달구벌 천도를 고려한 조치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천도 후보지를 물색한 시기는 그 이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천도 예정지가 결정되고 천도 작업이 본격화한 것은 686년(신문왕 6)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해 정월, 신문왕은 이찬 대장^{大將}을 집사부 중시로 임명하고 예작부를 개편하였다. 예작부는 영 1인, 경 2인, 대사 4인, 사지 2인, 사 8인 등 5단계 조직, 17인으로 구성된 비교적 큰 관부였다. 예작부의 영 1인, 경 2인 모두 686년(신문왕 6)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686년은 사실상 예작부의 창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사, 사지, 사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이나 경보다는 먼저 설치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686년(신문왕 6)에 영과 경이 설치되면서 종래의 예작전은 예작부로 승격되었다고 하겠다.

예작부에 대해서는 토목, 영선을 담당한 관청이란 주장이 일반적인 가운데 법식을 담당한 관청이란 견해도 있다. 전자를 따른다면 새 수도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의 필요성이 예작전의 확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9주 5소경 제도의 완비와 새 수도 건설을 위한 제반 규정 정비가 예작전의 확대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수도 건설을 기획한 자는 국왕의 측근으로 왕정의 기밀사무를 관장한 집사부의 중시로 추측된다. 대장^{大將}의 중시 취임과 동시에 예작부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무렵의 집사부 중시로는 대장과 원사가 있었다. 대장은 686년(신문왕 6) 정월 중시가 되었으나 재임 중 사망하였고, 그에 이어 원사가 688년(신문왕 8) 정월부터 천도 실패 직후인 690년(신문왕 10) 2월까지 중시에 재임하였다. 이들의 이력으로는 집사부 중시의 최고 관등인 이찬을 소지하였고 중시를 거친 사실밖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천도 작업 등 신문왕대 개혁정치의 핵심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생각한다면, 천도 작업을 실행에 옮긴 시기는 686년(신문왕 6) 무렵부터 실패로 끝난 689년(신문왕 9) 사이의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고구려의 평양 천도나 백제의 사비 천도에 비해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 따라서 천도 작업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천도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면, 달구

벌 천도 작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에 종결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면 왜 달구벌이 천도 예정지로 결정되었을까. 천도 예정지 결정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 달구벌만이 수도가 되어야 할 역사적 필연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인 달구벌이 새 수도의 예정지가 된 것은 수도로서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데 기인할 것이다.

먼저 대구는 국가적 측면으로 볼 때 통일왕국의 수도로서 지역 편재성 극복이라는 면에서 경주보다 유리하였다. 대구는 경주에 비해 내륙에 위치하여 신라 영역의 지리적 중심에 좀 더 가까웠다. 수도란 정치의 중심지이며 정치권력의 집중지이고, 정치철학적·이론적 핵심지이며 '국가적 상징체제(national iconography)'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삼국통일 후에는 새 수도를 건설하여 옛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고 새 수도 중심의 새로운 '국가적 상징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구는 지리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다. 대구는 경주와 같은 분지이지만 경주에 비해 훨씬 넓은 지역이었다. 분지의 속성상 경주처럼 나성 축조와 같은 큰 토목공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산성을 이용한 방어가 가능하였고, 주변에 분포한 팔공산, 비슬산 등 큰 산들은 국방에도 유리하였다. 한편, 대구는 경제적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컸다. 인근의 낙동강과 그 지류인 금호강이 형성한 평지나 구릉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형적 기반을 구비하였고, 신천은 가장 먼 우록동 부근에서 발원하여 북쪽의 금호강에 합류함으로써 그 범람원에 큰 평야를 형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구는 이런 큰 강과 하천을 끼고 있는 수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조운을 통한 물자 수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달구벌은 8세기경 수창군^{壽昌郡}을 구성하는 영현^{領縣}의 하나였다. 달구벌의 구체적 위치는 신천의 서쪽 지역으로 오늘날의 대구 중심부에 해당한다. 바로 이곳에 새 궁궐과 관아가 계획되었다고 하겠다. 오늘날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성 토성은 마립간기 초에 이미 쌓은 천혜의 요지였다. 바로 이곳에 왕궁이 건설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신문왕은 달구벌 천도가 실패로 돌아가기 직전 장산성^{獐山城}으로 순행하였다. 장산성을 청도 인근인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용산성에 비정하기도 한다. 그러

나 908년(효공왕 12)에 최치원이 찬술한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를 분석해 대구의 중심 지역인 달구벌에 호국성이 있었고, 그 동쪽의 장산(獐山)은 대구와 경산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비교적 큰 산으로 파악한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후자의 해석은 장산성의 위치 파악에 매우 시사적이다. 대구와 경산이 인접해 있고, 두 지역을 차단하는 큰 자연적 지형지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산성이 곧 천도 공사를 후원한 거점이 아니었을까 한다.

천도 실패와 그 이후

달구벌로 천도하려던 신문왕의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를 따지면서 수도가 협소하고 동쪽에 편재하여 신 왕경 건설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재정적 비용이 드는데다 수백 년의 연고를 떠나기 어렵고 서라벌에 오랜 토대를 가진 전통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해석이 있다. 수궁할 수 있는 견해이지만, 이를 따르려면 천도를 기도한 이유가 불명확해진다. 특히 과도한 재정적 비용은 천도 실패의 부차적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주된 이유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천도 작업이 추진되던 중 마지막 단계에 가서 국왕을 지지했던 세력의 적극적 반대로 실패하였다고도 한다. 이들은 경주와 그 인근에 상당한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천도 작업이 별달리 진척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천도를 강행하려던 국왕의 의지가 좌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왕에 비판적인 진골귀족 세력의 반발 때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중대왕실은 김춘추와 김유신의 결합에 의해 탄생하였거니와, 신문왕은 새 수도 건설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정치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천도는 그 반대 세력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성장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신문왕은 달구벌 천도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 진골귀족 세력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였다.

687년(신문왕 7) 5월에 문무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 지급된 토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지만, 관료들의 경제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서 신문왕을 지지하는 관료들에 대한 우대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2년 후인 689년(신문왕 9) 정월에는 녹읍을 혁파하고 조(租)를 차등 있게 주어 일정한 법

을 삼았다. 녹읍의 혁파는 진골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획기적 조치였다. 이는 달구벌 천도를 달성하기 위해 신문왕이 취한 전통적 귀족세력에 대한 억압책이었던 것이다.

신문왕은 달구벌로 천도해 중대왕실에 비판적인 전통 진골귀족 세력의 굴레를 벗어남으로써 통일왕국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구시대를 청산하고 경주 지역의 토착 귀족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통일왕국의 상징인 새 수도는 토착세력이 미약한 달구벌을 선정하고, 강력한 왕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왕실을 건설하려 하였다.

새 수도 건설에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천도가 단행되었다면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대규모의 중국식 도성이 건설되었을 것이다. 새 수도 달구벌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비약적 발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도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신라는 기왕의 굴레를 탈피할 수 없었고, 경주 지역의 전통적 진골귀족 세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또 고구려·백제를 멸망시킨 근원이었던 경주 중심의 ‘국가적 상징체계’를 혁신하지도 못하였다.

달구벌 천도의 실패는 신라의 정국에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그 이듬해 2월, 이찬 대장에 이어 천도작업을 추진해왔던 집사부 중시 이찬 원사가 병을 이유로 물러나고 선원이 임명되었다. 원사는 병을 이유로 면직된 것이라기 보다 천도 실패에 따라 교체된 것이었다. 원사에 이어 중시에 취임한 선원의 이력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의 관등이 아찬(6등)이란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집사부 중시의 관등은 대아찬(5등)에서 이찬(2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의 관등은 관례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천도 실패 후 집사부의 위상은 일시 낮아졌다고 하겠다.

신문왕은 691년(신문왕 11) 3월 1일에 왕자 이흥(理洪)을 태자로 책봉하고, 13일에는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이로써 이흥은 5세의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신문왕이 서둘러 태자를 책봉한 것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진골귀족 세력들로부터 왕위 계승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듬해 7월 2일, 신문왕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어린 태자가 새 왕으로 즉위하니, 이가 효소왕이었다.

4. 효소왕의 즉위와 정치 과정

효소왕의 즉위

효소왕이 즉위할 때 그의 나이는 6세에 불과하였다. 아직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정국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만파식적과 관련한 다음의 이야기에서 당시의 정국을 짐작할 수 있다. 692년(효소왕 원년) 9월 7일에 대현 사찬의 아들 부례랑을 국선國仙으로 삼았는데 낭도가 천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례랑은 승려 안상과 더욱 친하였다. 이듬해 부례랑이 무리를 거느리고 금란金蘭(강원도 통천)에 가서 놀다가 말갈에게 잡혀가게 되었다. 문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왔지만, 안상만은 홀로 그를 추적해 갔다. 이때가 3월 11일이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 “선왕께서 만파식적을 나에게 전하여 지금 현금玄琴과 함께 궁중 창고에 간수해 두었는데, 무슨 일로 국선이 갑자기 적에게 잡혀갔는지 모르겠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말하였다. 이때 상서로운 구름이 천존고

를 덮었다. 왕은 두려워하여 이를 조사해 보게 했더니 현금과 만파식적 두 보물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왕이 “내가 복이 없어 국선을 잃고 또 현금과 만파식적까지 잃게 되었는가?” 하고 현금과 만파식적을 찾는 사람에게는 1년 조세로써 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5월 15일에 부례랑의 양친이 왕경 백률사의 관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여러 날 저녁 기도를 올렸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현금과 만파식적 두 보물이 있고, 부례랑과 안상 두 사람도 불상 뒤에 와 있었다. 효소왕이 이를 크게 기뻐하여 백률사에 과거적인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큰 혜택을 내렸다. 나아가 부례랑을 봉하여 대각간을 삼고, 그의 아버지 대현 사찬은 태대각간으로, 그의 어머니 용보부인은 사랑부 경정궁주로 삼았다. 6월 12일에 혜성이 동방에 나타나고, 17일에는 또 서방에도 나타났다. 일관이 말하기를 현금과 신적에게 봉작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해서 만파식적을 책봉하여 만만파파식적으로 하니 혜성이 그제야 사라졌다.

설화적 내용이라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만파식적이 효소왕대에도 여전히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효소왕 즉위 초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하게 전개되었으며, 왕위도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정국은 신문왕의 왕비이자 효소왕의 모후인 신목태후가 섭정하였다고 추측된다.

경영의 모반과 정국

효소왕대의 정치는 섭정인 신목태후와 상대등인 김진복·김문영·김개원, 집사부 중사인 원선·당원·김순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사항으로 695년(효소왕 4)의 서시와 남시의 개설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김개원이 상대등에 취임하면서 시행된 것이다. 신라 왕경에 시장이 처음 개설된 것은 통일 전인 490년(소지왕 12)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의 물화가 왕경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물화의 유통이 활성화되자 지증왕대에는 동시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두었다. 이어서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자 서시전과 남시전이 두어졌다. 이들 각각의 시전에는 감, 대사, 서생, 사 등의 관원을 두어 일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시의 증설은 경제적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서·남 세 곳에 시장을 두었던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699년(효소왕 8) 2월에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고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다. 7



그림 5. 경주 백률사

월에는 동해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더니 5일 만에 회복하였다. 9월에는 동해의 물이 서로 맞부딪쳐서 소리가 서울까지 들리고, 병기고 안에서 북과 뿔피리가 저절로 소리를 내었다. 이어 이듬해 5월에는 이찬 경영(慶永)이 모반을 꾀하다 죽임을 당하고 중시 김순원이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하늘, 바다, 병기고에서 일련의 이변이 일어난 다음 해에 경영의 난이 일어난 것이다. 경영이 이찬이란 관등을 가진 것으로 보아 그는 당시의 유력한 진골귀족임을 알 수 있고, 진골귀족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이 같은 반란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경영의 난은 그가 복주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집사부 중시 김순원이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왕정의 기밀사무를 관장한 중시의 파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영의 난에 대해서는 왕당파 세력이 일으킨 반란으로 이해하거나, 신문왕의 왕자들 또는 왕자를 옹립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던 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전자는 집사부 중시 김순원이 연좌된 사실을 주목하는 반면, 후자는 『오대산사적(五臺山事蹟)』을 근거로 삼고 있다.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경영이 복주되었음을 상기하면 전자처럼 왕당파의 반란이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 후자는 『오대산사적』의 사료적 신빙성이 문제다. 나이가 신문왕과 출궁된 선비(先妃) 김흠돌의 딸 사이에 아들이 없었다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도 유의된다. 따라서 경영은 왕당파라기보다는 반왕파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효소왕과 성덕왕의 관계를 이복형제로 보아 성덕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효소왕과 관련된 세력을 제거하고자 난을 일으켰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성덕왕이 효소왕의 친동생이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부정하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추정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692년 7월 2일에 신문왕이 죽자 신목태후와 효소왕은 종묘 성령 선원가람에 받들어 모시고 삼층석탑을 세웠다. 그 뒤 700년 6월 1일에 신목태후가 죽고, 702년 7월 27일에는 효소왕이 승하하였다. 이에 성덕왕은 706년(성덕왕 5)에 신문왕, 신목태후, 효소왕을 위해 불사리 4알, 순금 미타상 1구, 『무구정광다라니경』 1권을 석탑에 안치하여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 효소왕과 성덕왕이 상호 대립한 면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경영의 난이 발생한 직후 신목태후가 죽고 효소왕까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이 난은 신목태후의 섭정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목태후가 사망한 뒤에는 효소왕이 친정하였을 것이지만, 효소왕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그 기간은 2년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700년(효소왕 9) 5월에 경영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중시 순원이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경영의 난이 실패한 다음 달에 효소왕의 배후세력이며 섭정으로 추정되는 신목태후가 사망하고, 2년 뒤에는 효소왕마저 16세로 죽고 말았다. 『속일본기』에서는 효소왕이 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소년왕 효소왕이 재위하던 시기는 정국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영호)

참고

문헌

-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김수태, 1996, 『신라 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김영하, 2007,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박해현, 2003, 『신라 중대 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신형식, 1990, 『통일신라사연구』, 삼지원.
 이기동, 1984,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하일식, 2006, 『신라 집권관료제 연구』, 해안.
 한준수, 2012, 『신라 중대 율령정치사연구』, 서경문화사.

제 2 편

왕권의 강화와 문화의 융성

제1장
왕권 강화와
북방 개척

제2장
불국사와 석굴암의
세계

제3장
국제질서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제1장

왕권 강화와 북방 개척

1. 성덕왕의 즉위와 정국 동향
2. 패강진의 개척과 지배
3. 동북면 축성과 국경의 확정

1. 성덕왕의 즉위와 정국 동향

성덕왕의 즉위 과정

신라 제33대 성덕왕대(702~737)는 유례없이 번영을 구가한 시대였다. 또 성덕왕대는 동북아 주변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어 만파식적으로 상징되는 평화를 누리기도 하였다. 성덕왕은 40년 가까이 재위하면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런데 성덕왕은 국민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중대 유일의 국왕이기도 하였다.

성덕왕은 제32대 효소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왕위계승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휘諱는 흥광興光이며, 원래 이름은 용기隆基로, 당 현종의 이름과 같아 선천 중에 고치었다.(『당서』에는 김지성이라 하였다.)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 효소왕의 동모제同母弟이다. 효소왕이 죽은 후 아들이 없자, 국인國人들이 세웠다.(『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 성덕왕 즉위년)

성덕왕은 형인 효소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본래 이름은 용기였으나 뒤에 흥광興光으로 고쳤다고 한다. 성덕왕의 아버지는 신문왕이고 효소왕과는 형제 사이이다. 효소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국인이 그를 세웠다고 한다. 즉 성덕왕은 태자 책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왕자가 아닌 왕의 동생 자격으로서 왕위에 올랐다.

신라 중대의 특징적 현상 가운데 하나로 장자상속長子相續을 들 수 있다. 장자상속을 위해 국왕은 재위 당시 태자를 책봉하였는데, 아들이 없을 경우 동생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태자 책봉은 왕위계승에서 진골귀족의 간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성덕왕은 태자 책봉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성덕왕의 즉위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삼국유사』 탐상편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와 「명주오대산溟州五臺山」보길도태자전기寶叱徒太子傳記」조에는 성덕왕의 즉위와 관련해 조금 다른 기록이 전하고 있

다. 정신태자(淨神太子) 보질도(寶叱徒)와 효명태자(孝明太子)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대산에 숨었다가 국민의 추대를 받아 효명태자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그가 성덕왕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은 성덕왕의 즉위 과정을 언급하고 있으나, 『삼국사기』와 일치하지 않아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기사는 성덕왕의 즉위 과정에 귀족세력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료임은 분명하다.

성덕왕을 추대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적어도 성덕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김원태(金元泰)의 역할이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704년(성덕왕 3)에 국왕은 승부령(乘府令) 소판(蘇判)인 김원태의 딸과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딸을 왕비로 들일 무렵에는 승부령이었으나, 아마도 김원태가 병부령으로서 승부령을 겸하였기 때문에 딸을 왕비로 들일 수 있었으리라 추측되고 있다. 특히 병부령이 군사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책임을 감안할 때, 그가 성덕왕의 즉위에 군사적 지원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성덕왕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상대등 개원(愷元)의 역할도 주목해 볼 만하다. 개원은 태종무열왕의 막내 아들이므로 성덕왕에게는 종조부(從祖父)가 된다. 개원은 통일전쟁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신문왕 때에도 신목왕후(神睦王后)를 맞아 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원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695년(효소왕 4) 상대등에 보임된 이래 704년(성덕왕 5)까지 귀족세력의 대표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효소왕대부터 성덕왕 때 초반까지 개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컸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결국 성덕왕은 개원과 김원태 등 그를 지지하는 귀족세력의 도움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왕위를 계승한 이후 한 동안 개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뒤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성덕왕은 왕권 강화를 추진함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즉위 이후 그의 노력은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지지 기반 확충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성정왕후의 출궁과 소덕왕후의 입궁

성덕왕에게는 전후 2명의 왕비가 있었다. 성덕왕은 즉위한 지 3년이 지나 김원태의 딸과 혼인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성정왕후(成貞王后)라 불렀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처음 왕비를 배소부인(陪昭夫人)이라 하였고 시호는 엄정(嚴貞)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원태는 685년(신문왕 5) 서원소경이 설치되었을 때 아찬으로 장관인 사신(仕臣)에 임명되었고, 19년이 지난 704년(성덕왕 3)에는 승부령 소판으로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였다.

성덕왕은 성정왕후와의 사이에 아들 중경(重慶)을 얻어 태자로 책봉하였다. 혼인한 지 10년만인 715년(성덕왕 14) 12월의 일이었다. 성덕왕이 어린 아들을 태자로 책봉한 것은 지배체제의 안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경을 태자로 책봉한지 불과 석달 뒤에는 성정왕후가 출궁되었다. 왕비의 출궁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왕비 출궁 1년 남짓 지나 태자 중경마저 사망하고 말았다.

성정왕후가 출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해지고 있다. 대체로 성덕왕은 태자를 둘러싼 외척세력의 성장을 염려해 왕비를 출궁시켰는데, 성정왕후가 출궁해서 살 집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이혼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다. 또 성정왕후의 출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견해를 가운데 김순원(金順元) 세력과 연결지어 설명한 견해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성정왕후가 출궁한 이후 김순원의 딸이 성덕왕의 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덕왕은 성정왕후와 헤어진 이후 약 4년이 지나 김순원의 딸을 새로운 왕비로 맞아들였다. 720년(성덕왕 19) 3월의 일이다. 성덕왕이 김순원의 딸을 후비로 맞아 들인 것은 그를 중심으로 하는 진골귀족 세력의 협조로 성정왕후를 출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그의 딸인 소덕왕후(昭德王后)와 혼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덕왕후의 아버지인 김순원은 698년(효소왕 7) 대아찬으로 중시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2년 뒤인 700년(효소왕 9) 경영의 난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하지만 706년(성덕왕 5)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황복사 금동사리합기(皇福寺金銅舍利函記)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적어도 706년(성덕왕 5) 무렵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으로 건재하였음을 암시한다.

황복사 금동사리합기의 명문을 살펴 보면, 신문왕이 돌아가자 왕비인 신목태후와 그의 아들인 효소왕이 선왕을 위해 삼층석탑을 만들었고, 이후 성덕왕이 706년에 이르러 2차로 사리합명과 그곳에 적힌 내장물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적어도 이때에 이르러서는 김순원과 성덕왕은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김순원은 경영의 난에 연좌되어 700년(효소왕 9) 파면되었다. 그런데 성덕왕이 즉위하면서 소외되어 있던 김순원을 등용함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였던 것이다. 즉 성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순원을 정치적으로 포섭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덕왕이 김순원의 딸을 후비로 맞아들인 이유도 그와 같은 정치적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성덕왕은 소덕왕후와의 사이에서 승경(承慶)과 헌영(憲英) 두 왕자를 두었다. 승경은 724년(성덕왕 23) 정월 태자로 책봉되었으며 성덕왕 사후 효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성덕왕이 나이 어린 승경을 태자로 책봉한 것은 왕위계승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짐작된다. 결국 성덕왕은 어린 아들을 태자로 책봉함으로써 왕권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그해 12월 소덕왕후가 사망하고 말았다. 성덕왕은 재혼한 지 4년 만에 후비를 잃었다. 소덕왕후가 죽은 다음해 4월에 중시 선종이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찬 윤중이 중시가 되었다. 선종이 김순원 세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덕왕이 중시를 윤중으로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덕왕은 비록 김순원의 정치적 협조를 받고 그녀의 딸을 왕비로 맞아 들였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덕왕후가 사망한 다음 성덕왕은 혼인하지 않았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왕비 없이 홀로 생활하였다. 더 이상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외척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왕권의 신장을 꾀하고자 하였다.

딸이 성덕왕의 왕비가 되었고 또한 외손자인 승경이 태자가 됨으로써 김순원은 외척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음에 틀림없다. 성덕왕이 죽고 아들 효성왕이 즉위하자, 739년(효성왕 3) 3월 김순원은 또 다시 자신의 딸 혜명을 왕비로 들였다. 효성왕은 이모와 혼인한 셈이니, 전형적 족내혼이다. 김순원은 효성왕의 외조부에서 이제 장인이 됨으로써 성덕왕대 후반에 이어 효성왕대에도 외척세력으로서 확실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민심의 수습과 왕권 강화책

성덕왕이 즉위 초기 왕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을 법하다. 국민으로

상징되는 귀족세력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또 8세기 초 신라를 둘러싼 주변 정세도 심상치 않았다. 대당전쟁 이후 당과의 교섭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고, 북방에는 발해가 버티고 있었다. 바다 건너 일본도 점차 국가의식이 고취되면서 신라에 대한 경쟁의식을 키워 가고 있었다.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덕왕은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즉위하던 해 9월에 주군(州郡)의 조세를 1년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 뒤 705년 10월에는 나라 동쪽 주군에 기근이 들자 이듬해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휼했다. 그리고 그 해 가을 곡식이 여물지 않아 굶어 죽는 자가 많이 생기자 707년 정월부터 7월말까지 7개월 동안 한 사람에게 속粟 3승 씩을 지급하였다. 모두 30만 500석이었다. 방대한 양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조부와 부왕이 남긴 유산 덕분이기도 하였다. 국가재정은 특히 부왕 신문왕 때의 녹읍 혁파와 같은 혁신적 조치에 힘입어 충실해졌을 것이다.

성덕왕은 자영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722년(성덕왕 21) 8월에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당의 균전제를 본따서 호(戶)를 대상으로 농토를 지급하는 획기적 조치였다. 이때의 정전 지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이 조치가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자영농민을 보호·육성하려는 조정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임은 틀림없다.

한편 성덕왕은 711년(성덕왕 10) 백관잡(百官箴)을 지어서 군신들에게 제시하였다. 기록에 그 내용이 전하고 있지 않으나, 신하로서 받들어야 할 계명을 적은 것임은 분명하다. 즉위 이후 왕권을 제약하였을 진골귀족에 대한 경고가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유교윤리의 확산을 통해 진골귀족이 국왕에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관료이기를 염원한 것이다. 이처럼 왕은 관료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직접 민정 시찰에 나서 주군을 순시했다.

성덕왕은 711년 10월에는 나라 남쪽의 주군을 순시했고, 712년 4월에는 온수(溫水)에 행행(幸幸)했으며, 718년 2월에는 나라 서쪽의 주군을 순행하였다. 또 왕은 수시로 죄인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모습은 성덕왕의 덕치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성덕왕은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적극 노력하였다. 703년(성덕왕 2) 1월에 견당사를 처음 파견한 이후 재위 36년 동안 46회나 이루어졌다. 특히 재위 초기에는 매년 보내다시피 하였다. 뒤에는 사행에 유학생을 딸려 보내 당의 국학에서 유학을 배우도록 조치했고, 교대로 숙위를 파견하는 등 신라인의 중국 출입이 갑자기 잦아지게 되었다.

성덕왕은 714년(성덕왕 13) 2월 종래의 상문사(詳文司)를 통문박사(通文博士)로 고쳐 외교문서를 전담하도록 조치했다. 통문박사는 국왕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문서·서표의 일을 관장하는 관직이었다. 통문박사에서 '통문'이란 '글을 널리 통한다.'는 의미인데, 그 속에는 '왕의 뜻이 담긴 글이 사방에 널리 퍼지게 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통문박사는 국왕의 의지에 따라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성덕왕이 추구하고자 했던 왕권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성덕왕이 이와 같은 친당정책을 통해 기대한 것은 단순히 외교 강화에 그치지 않았다. 왕의 궁극적 목표는 유학과 율령을 비롯한 제반 성당(盛唐) 문물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하려는 데 있었다. 성덕왕은 717년 2월 의박사와 산박사 1명씩을 두었고, 718년에는 누각전을 설치하여 박사 6명으로 하여금 물시계를 제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721년에는 내성 기구 속에 소내학생을 두어 장차 문한계통에서 종사할 요원 양상에 박차를 가했다. 737년 성덕왕을 조문하기 위해 신라에 온 당 사신이 신라를 '군자의 나라'라 한 것은 실제 모습의 반영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 성덕왕은 유교적 의례에 입각하여 각종 예제를 제정하였다. 713년 2월 전사서(典祀署)를 설치하였는데, 왕실제사와 3산·5악과 같은 명산대천의제사를 통괄하였다. 3산·5악에 대한 제사와 관리를 새롭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지배체제를 혁신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덕왕이 전사서를 새로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성덕왕의 왕권 강화 노력은 불교에 대한 관심에서도 나타난다. 흥광대왕(興光大王)이란 불교식 왕명을 가진 중대 유일의 왕이었던 성덕왕은 화엄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룡(神龍) 원년(705) 을사 3월 초 나홀에 비로소 진여원(眞如院)을 개창하였다. 이 때 성덕왕은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산에 이르러 전당(殿堂)을 세우고, 또 흙으로 문수보살의 소상(塑像)을 만들어 당에 모셨다. 그리고 이름 있는 중 영변(靈弁) 등 5인으로 하여금 화엄경을 오래 돌려가면서 읽게 하였다. 이어 화엄사(華嚴社)를 결하여 오랫동안 공비(供費)로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이 산에서 가까운 주현으로부터 창조(倉組) 100석과 정유(淨油) 한 섬을 바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진여원에서 서쪽으로 6,000보쯤 되는 의니점(矣尼帖) 고이현(古伊峴) 밖에 이르기까지의 시지(柴地) 15결과 밤나무 6결, 좌위(坐位) 2결을 내어서 장사(莊舍)를 세웠다. (『삼국유사』 권3 탐상4 대산오만진신)

성덕왕이 진여원(眞如院)을 개창하며 화엄결사를 하게 한 것은 신라 중대 왕실의 정신적 후원자였던 의상계 불교의 활동을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의상은 676년(문무왕 16)에 조정의 뜻에 따라 부석사를 창건하고 그곳에 주석하였으며, 681년(문무왕 21)에는 조정에 건의하여 왕성을 축조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 있다.

성덕왕은 바로 이와 같은 국왕의 조언자 역할을 화엄계 불교가 다시 해 주기를 염원했는지 모른다. 강력한 왕권을 염원하던 성덕왕이 태종무열왕 때부터 신문왕 때에 이르기까지 신라 중대 왕권과 일정한 행보를 같이 한 의상계 화엄사상의 역할을 기대했을 법하다. 따라서 진여원을 개창한 것은 왕권 강화를 염두에 둔 의상계 화엄세력에 대한 사상적 차원의 배려였다고 하겠다.

『삼국유사』 권2, 기이 성덕왕조에 의하면 왕은 대기근이 있었던 다음해인 707년 증조부인 태종무열왕의 명복을 빌고 겸하여 재앙을 물리치며 국가의 안태를 기원할 목적으로 봉덕사(奉德寺)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 봉덕사는 경덕왕대에 가서 황룡사·사천왕사·감은사·봉성사와 더불어 그 수영(修營)을 담당하는 성전(成典) 조직을 갖는 소위 성전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았다.

이와 같이 성덕왕은 즉위 이래 왕권 강화 작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위하자마자 관작의 승급과 1년 조세의 면제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였고, 활발하

게 성당문화를 수입하여 율령 체제를 정비함은 물론 유교정치 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다. 그 외에 왕비의 교체를 통하여서도 왕권 안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성덕왕의 왕권 강화 노력은 인재등용에서도 드러난다.

인재등용과 후반기 정국운영

719년(성덕왕 18)에 작성된 감산사 미륵상과 아미타상의 두 명문은 나마^{奈麻} 총^聰에 의해 각각 찬술되었다. 명문을 보면 김지성^{金志誠}은 중아찬의 관등을 가지고 있었고 집사시랑·상사봉어·견당사로 활동하였다. 즉 김지성은 6두품 행정 관료로서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지성은 성덕왕의 대당관계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책부원귀』에 보면 “중종 신통 1년(705) 신라왕 김지성이 사신을 파견해 조회하러 왔다.”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성덕왕의 이름이 융기였으나, 현종의 이름과 같아 홍광으로 개명



그림 1. 경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좌) 및 석조아미타불입상(우)

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의 김지성은 성덕왕의 이름이 아니라 사신으로 입당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활동한 시기로 미루어 감산사를 건립한 김지성과 동일인물로 간주된다.

신라 중대의 집사부는 대표적 왕권 직속관부였다. 따라서 국내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대외 관련 행정업무도 담당하였다. 집사시랑 김지성이 당에 사신으로 다녀온 배경은 아미타상 명문에 “현명한 자질을 갖추어 왕명을 대신하였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성덕왕이 집사시랑을 역임한 김지성을 통해 6두품 세력을 널리 등용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아미타상의 명문을 작성한 이가 바로 설총이라는 점도 설득력을 높여준다. 아마도 이들은 성덕왕이 추진한 율령정책 시행에 적극 참여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도 활동하였을 것이다.

한편 성덕왕은 김유신계의 인물들을 등용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712년(성덕왕 11) 8월에는 김유신의 처를 부인에 봉하고 있는데 이는 김유신이 죽은 뒤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일이다. 그리고 왕자 승경을 태자로 책봉한 다음 해인 725년(성덕왕 24) 3월에는 김유신의 손자인 윤중^{允中}을 정치의 핵심 요직에 등용하였다.

(김유신의) 적손 윤중^{允中}이 성덕대왕을 섬기며 대아찬이 되어 여러 번 은고^{恩顧}를 받았는데, 왕의 친속들이 대단히 질투하였다. 이 때는 중추 보름이라 왕이 월성^{月城}의 둔덕 위에 올라 조망하며 시종관과 더불어 술자리를 베풀며 놀더니 윤중을 부르게 하였다. 간^諫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지금 종실 척리^{戚里}에 어찌 호인이 없겠습니까. 유독 소원한 신하를 부르니 어찌 이른바 친한 이를 친히 한다는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지금 과인이 경들과 함께 평안 무사한 것은 윤중 조부의 덕이다.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

김유신의 적손인 윤중은 성덕왕 당시 비교적 정치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성덕왕은 왕실 친족들의 반대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중을 가까

이 하고 있다. “평안무사한 것은 윤중 조부의 덕”이라 하며 유신계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성덕왕은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태자를 둘러싼 외척세력의 성장을 염려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유신계를 회유함으로써 외척인 김순원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려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성덕왕은 통치 후반기에 이르러 김유신계와의 결속을 통해 왕권을 더욱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성군의 자질을 갖추고 있던 성덕왕은 732년(성덕왕 31)에는 사공^{思恭}·정종^{貞宗}·사인^{思仁} 등을 각각 장군으로 삼아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718년(성덕왕 17)에 중시에 임명되어 720년(성덕왕 19) 천변지이^{天變地異}로 퇴임한 사공이 728년(성덕왕 27)에는 상대등에 임명되었고, 732년(성덕왕 31) 12월에는 장군직을 겸임하였다. 그리고 역시 장군직에 있던 정종은 효성왕이 즉위한 737년 3월 상대등직을 계승하였다. 사인도 728년(성덕왕 27) 장군직에 있으면서 군사력을 통괄하고 있다.

특히 사인은 통일전쟁에서 크게 활약하고 658년(태종무열왕 5)에서 662년(문무왕 2)까지 중시를 역임한 문왕^{文王}의 손자였다. 문왕은 무열왕의 셋째 아들이고, 중대 왕권 강화에 힘쓴 왕들과 협력하면서 세력 기반을 쌓았던 가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요컨대 성덕왕은 군사력을 지닌 인물들을 포섭함으로써, 통치 후반기에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771년(혜공왕 7) 12월에 완성을 본 성덕대왕 신종의 명문 서문에서 한림랑^{翰林郎} 급찬^{級飡} 김필해^{金弼海}는 성덕왕의 공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상략) 총량한 이들을 등용하여 풍속을 어루만지셨으며, 예악을 숭상하여 풍교가 불 만 하였다. (중략) 40여 년간 나라에 임하셔서 정치에 힘쓰니 한 번도 간과^{干戈}(전쟁)로 백성들을 놀라고 시끄럽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만리로부터 복속하여 귀화하니, 오직 임금의 풍화를 흠모함이 있을 뿐이요.(하략)” 성덕왕은 종에다 치적을 새겨 만세에 전할 만큼 특별한 공덕을 남긴 대왕이었던 것이다.

2. 패강진의 개척과 지배

한산주 관내 축성사업

668년 고구려의 멸망은 신라가 본격적으로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대당전쟁 과정에서 고구려 영토 대부분을 상실한 신라는 대당전쟁의 종결과 더불어 고구려 고토의 회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선 문무왕은 당과의 격전에서 전세가 신라 쪽으로 거의 기울자 대당전쟁의 격전지였던 예성강 일대에 대한 지배정책을 추진하였다. 문무왕은 패강 이남에 주군을 설치하고, 이 지역민의 신분을 신라의 공민으로 격상시켜 주었다.

그러나 문무왕대는 신라의 행정력이 예성강 일대에 일시적으로 미쳤을 뿐이었고, 신문왕이 전국을 9주로 재편할 때에도 이 지역은 한산주의 광역권 속에 편입시켰을 따름이었다. 통일 이후 지방제도의 정비 방향은 복속지의 유민들을 회유·포섭하는 간접지배 방식이었을 것이다.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가던 중대 왕실은 이 지역에 군현제를 시행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통일국가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성덕왕은 북방 개척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국민의 추대를 받아 즉위한 성덕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전제적 왕권을 확립하는 한편, 국력을 바탕으로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일통삼한^{一統三韓}’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삼한은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7세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칭한다. 특히 삼국 정립기에 중국 측에서 ‘삼한’이라 통칭한 것은 세 나라를 문화적, 인종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국가군으로 인식한 것이다. 중국쪽에서는 삼국민은 혈연, 습속, 언어 등이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오랜 접촉의 과정에서 삼국민 스스로도 이민족인 말갈, 왜와는 다른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겼다. 삼한이 이처럼 비슷하다는 인식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삼국통일의 원훈인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지금 삼한^{三韓}이 일가^{一家}가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으니, 비록 태평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역

시 소강(小康)은 이루어졌습니다.” 고 말했다. 이 말은 김유신의 유언처럼 되었지만,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백제·고구려와 함께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76년 백제 영토는 영유하였으나, 고구려 영토는 상당부분을 상실하였다. 사실상 신라는 국력의 한계로 고구려 영토로는 더 이상 북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성덕왕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른바 북방 개척은 ‘일통삼한’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었다. 특히 평양을 포함한 패강 일대는 고구려의 고토 회복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지녔다. 즉 성덕왕은 ‘일통삼한’ 의지의 실현과 더불어 패강 일대의 평야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신라 번영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패강 일대로의 진출에 앞서 왕권을 강화해 가던 성덕왕은 한산주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갔다. 『삼국사기』 열전 김대문조에 의하면 704년(성덕왕 3) 한산주 도독을 지낸 김대문이 『한산기』를 지었다고 전한다. 김대문이 지은 『한산기』는 국가 차원에서 전개한 편찬 사업의 일부로 한산주의 풍속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특히 율령체제의 시행과도 관련해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성덕왕의 집권력 강화 노력은 북진정책으로 이어졌다. 김대문의 『한산기』는 백제와 고구려의 고지였던 한산주에 대한 제반 기록으로, 한산주의 영유권을 한층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또 평야지대라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주목하고 농업 생산력의 제고를 통한 국가재정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었다.

성덕왕은 통치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새로운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718년(성덕왕 17) 2월에는 서쪽 주군을 순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한산주 관내에 여러 성을 쌓았다. 이와 같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성덕왕은 영토 확장과 실질적 지배력 강화를 병행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도성을 비롯한 소경(小京), 주(州)의 거점에 축성을 단행하여 지방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이런 선상에서 본다면 718년(성덕왕 17)에 실시된 예성강 일대의 축성은 지방 통치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예성

강 일대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특히 고구려의 옛 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고구려 고토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무엇보다 패강 이남 경영을 위한 거점 확보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성강 이북, 즉 패강 이남 지역은 한산주 광역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당전쟁에서 패한 당은 676년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겼지만 그 침략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나당전쟁이 끝날 때까지 옛 백제 지역 문제로 당과 대립하고 있던 신라는 예성강 이북 지역을 제대로 영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성강 일대 축성 사업은 지방 통치조직의 강화와 함께 패강 일대 경영을 위한 거점 확보 차원이기도 했다.

군현제 시행과 직접 지배

경덕왕 때는 신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 경덕왕은 즉위 이래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안정은 물론이고 집권 후반기에는 절정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신라는 경덕왕이 재위하는 22년 동안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였다. 경덕왕은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서북면 일대 영토 경영에 적극 나섰다.

성덕왕의 북방정책을 계승한 경덕왕은 예성강 이북 일대에 처음으로 군현제를 실시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748년(경덕왕 7)과 762년(경덕왕 21)에는 예성강 이북 패강 이남 지역에 14군현과 6성을 각각 축조하고 태수를 파견하였다. 경덕왕이 설치한 14군현과 6성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알 수 없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군현의 명칭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762년(경덕왕 21) 축조한 6성 지역을 오늘날 황해도 곡산-서흥-봉산-해주-재령-수안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 일대에 축성 사업을 단행하고 동시에 지방관인 태수를 파견한 것은 멸약산맥 일대까지 군현제적 지배체제가 관철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흔히 경덕왕대 예성강 일대 축성을 발해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해하였다. 즉 대동강 이북이 발해 영토라는 입장에서 신라가 발해와의 접경지대에 성을 쌓았던 것은 발해를 의식한 자기 보전책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일제

관학자들이 대동강 이북을 발해 영토라고 도식적으로 처리한 데에서 근거하였다.

그러나 『신당서』에 인용된 가담(賈耽)의 『도리기(道里記)』에 보면 압록강 박작구(泊釣口) 및 장령부의 남쪽 경계에서 당과 발해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리고 발해의 최대 강역을 기록한 『신당서』에 의하면 평양에 발해의 지방제도가 시행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발해가 평안도 일대를 영유한 흔적은 고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748년(경덕왕 7)과 762년(경덕왕 21)의 축성이 발해에 대한 대비책이었다는 견해는 신라와 발해가 대립 관계에 있었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764년 당나라 사신 한조채(韓朝彩)가 발해로부터 신라로 입국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아마도 당나라 사신이 발해를 거쳐 신라에 입국할 때 양국 간 상설 교통로인 신라도(新羅道)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해 책성부에서 신라의 정천군까지 신라도가 개통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양국 간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경덕왕의 축성 사업을 신라와 발해가 대립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경덕왕이 예성강 이북 일대에 군현을 설치하고 태수를 파견한 것은 이 일대까지 직접지배를 실행하려 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예성강 이북 일대 군현 증치는 신라 하대에도 진행되었다. 『삼국사기』 한산주 취성군(取城郡)조에 의하면 “동군(同郡)은 그 예하에 3영현인 토산현, 당옥현, 송현현과 함께 헌덕왕 때 설치된 것”이라고 하여 취성군 예하에 3개의 영현이 설치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로써 『삼국사기』에 보이는 한산주 관내 27군 46현이 모두 완비되었다. 취성군의 설치의 멸악산맥 이동지역까지 신라의 행정력이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패강 일대의 진출과 군사 지역화

735년(성덕왕 34) 하정사로 당에 파견되었던 김의충이 돌아오는 편에 당이 패강 이남의 영토에 대해 신라 영유로 인정한다는 칙서를 가지고 왔다. 이는 발해 정벌을 위한 당의 청병요구에 협력한 결과로서 신라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였다. 그러나 당이 패강 이남의 영토를 승인한 것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견제할 목적에서였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아방강역고』에서 “개원 24년 당 현종이 패강 이

남을 신라에게 조칙으로 하사하였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 당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발해 견제가 관심사였던 당으로서는 신라가 평양 일대까지 진출하더라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덕왕은 발해를 견제하기보다는 패강 일대 영토의 개척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성덕왕은 패강 이남 영토의 승인에 대한 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 개발 의지를 예고하고 있다.

여름 6월 사신을 당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면서 표문을 부쳐 감사하여 아뢰기를 “삼가 은혜로운 조칙을 받아 패강 이남의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신은 바닷가에 살면서 성조에 교화를 받았으니, 붉은 정성을 마음으로 삼았으나 바칠 만한 공로가 없고 충절을 일삼아도 칭찬받을 만한 노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폐하는 우로와 같은 은혜를 내리고 일월과 같은 조서를 내어 신에게 영토를 내려주고 고을을 넓혀 주어 마침내 개간할 시기를 갖고 농상(農桑)할 곳을 얻게 하였습니다. 신은 조칙의 뜻을 받들어 깊은 영화와 충애를 입게 되었으니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문드러지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35년)

성덕왕은 현종에게 보내는 답사에서 영역 확장의 의미와 더불어 적극적 개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성덕왕이 예고한 새로운 영토의 개척은 평양 일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패강 이남을 승인받은 그 다음 해에 성덕왕이 평양지역에 대한 지세 검찰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736년(성덕왕 35) 성덕왕은 이찬 윤충·사인·영술을 보내어 평양 일대의 지세를 검찰하게 하였다. 당은 676년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철수한 뒤에도 명목상 패강 일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당시 평양을 비롯한 옛 고구려 영토는 고구려 유민을 비롯한 여타 이민족이 혼재하는 일종의 무주지(無主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736년(성덕왕 35) 평양지세 검찰은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평양 일대까지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세 검찰에 총신인 윤충·사인 등을 파견한 것은 패강 지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준다.

변경지대를 개척할 때에는 전초기지로서의 임무를 띠는 ‘진궐’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평양 일대는 황폐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척에 앞서 이 지역을 군사지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패강진은 바로 개척지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설치된 것이다.

흔히 패강진의 위치를 패강 이남에 한정시키고 있다. 패강진이 평산에 위치하며 예성강 이북에서 패강 이남을 관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삼국사기』 지리지 한산주조에 누락된 고구려 옛 지명 중 12군현 지역으로 패강진을 비정하고 봉산에 본영이 있어 이를 관할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한산주 북부지역은 패강진 설치 이후 패강진 관할 아래에 편입되었다고 하였다. 종래의 견해는 발해의 평양 영토설이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평양 일대에 진출한 것은 신라였다. 이것은 김유신의 손자인 김암金巖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 열전에 의하면 김암은 해공왕 대력년간(766~779)에 당에서 귀국해 패강진 두상 대감을 역임하였다. 김암이 패강진 두상대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해로부터 황충이 패강의 경계에 날아 들었기에 도술로 물리쳤다고 한다. 김암의 도술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황충이 서해로부터 황사 먼지와 더불어 가장 먼저 상륙하는 곳은 평양 해안(패강구) 일대라고 한다.

조선시대 학자인 윤두수의 『평양지』에도 황충이 창궐하는 관서 지역 중에 평양이 가장 피해가 큰 곳으로 유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패강진 두상대감을 역임한 김암과 황충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패강진이 평양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패강진은 국경지대에 설치된 전초기지이므로 다분히 군사적인 성격을 띤다. 군대조직은 국토방위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강제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신라 조정으로서의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고 영구적인 영토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호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민호의 정착에는 대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한 사민정책이 이용되었다. 패강진의 사민정책은 782년(선덕왕 3)에 실시되었다. 선덕왕은 직접 한산주를 순행하고 패강진으로 민호를 옮겼다. 패강진으로의 사민정책은 노동력의 충당과 행정구획의

정비라는 차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패강진은 단순한 방어적 기능보다는 신라의 영토가 확대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신라 중대 왕실은 서북면 일대 영토 개척을 통해 옛 고구려 영토와 주민에 대한 직접 지배를 실시함으로써 ‘일통삼한’이라는 동족의식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둬고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수취원의 확보로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역의 확대와 국가 재원의 확충

신라 중대 왕권은 서북방 영토에 대한 개척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였다. 특히 예성강 일대를 장악한 신라는 이 지역에 새로운 군현을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확장과 더불어 수취원의 확보라는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더욱이 예성강 일대의 재원은 왕권의 경제적 기반 확충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예성강 일대는 평야 지역이었고 수로를 통한 물산의 이동이 용이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다. 수로를 통해 왕도인 경주까지 물적 재화를 수송하는 기간 시설도 마련되었을 것이다. 특히 사회가 안정되면서 개성 지역은 물산의 집산지인 동시에 편리한 교통로를 갖춘 입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 활동이 발전하였다. 신라는 개성을 기점으로 대당무역을 통하여 중국의 성당문화를 수입할 수 있었다.

8세기 중엽 개성(송악군) 지역을 중심으로 대당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은 고려시대 김관의金寬毅가 쓴 『편년통록編年通錄』에 수록된 왕건의 선계 작제건作帝建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당의 숙종이 753년 황해를 건너 예성강 일대에 이르러 진의辰義와 동침하여 작제건을 낳았는데, 작제건이 서해를 통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말해 준다. 당의 숙종이 753년 황해를 건너 개성 일대에 이르렀다는 것은 8세기 중엽 개성 일대의 상황을 알려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때 왕건의 선계가 상업 활동에 종사했음은 예성강 일대가 해상 활동의 중심지로 역할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8세기 중엽은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에까지 강하게 미치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해상 활동은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왕건의 선계가 개성 일대에서 뚜렷한 해상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8세기 말 이후에야 가능했을 것이다.

해상 활동이 국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막대한 부와 권력이 결국 국고로 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덕왕대는 14군현과 6성 축조로 군현 제적 지배체제가 확립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지역 내의 조세 수취가 중앙정부 재정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757년(경덕왕 16) 조부_{調府}의 관리가 증원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예성강 일대에서 수취한 조租, 조調를 중앙으로 수송하는 작업과 관련해 교통로도 상당히 정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개척은 왕권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의도와 더불어 농업사회의 기반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집권세력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패강진 경영은 하대에 들어 소농민이 몰락하는 사회 경제적 모순 속에서 왕권의 경제적 기반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하겠다.

신라 중대의 서북방 개척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예성강 일대를 군현제적 지배체제 하에 편입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둘째는 예성강 일대에서 수취원을 새로이 확보함에 따라 민생 안정은 물론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라의 서북방 영토 개척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북진 개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3. 동북면 축성과 국경의 확정

동북면 일대 말갈의 동향

삼국통일 이래 신라는 동북면 일대에서 정천군(덕원)까지 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강 일대와 달리 동북면 일대에서는 신라의 영토 개척이 용이하지 못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동북면 일대에는 신라인이 이적시_{夷狄視}하던 말갈 세력이 존재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성을 쌓아 이들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말갈_{靺鞨}은 통구스족 계통의 일족으로 숙신, 읍루, 물길 등의 명칭으로 불리다가 수·당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 정사에 말갈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까닭에 말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당대 만주지역에 산재하던 말갈 7부만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말갈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 여러 가지 주장들은 말갈의 어원이 강이나 삼림, 그리고 족장 및 종족명에서 와전·기원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말갈은 스키타이계의 돌궐과 근친성을 갖는 종족으로 보기도 하고, 물길과도 일정하게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삼국사기』·『삼국유사』 등 우리 측 고대사 관련 사서에는 중국 정사보다 앞서 말갈이 기록되고 있다. 한반도 내에 활동한 말갈의 종족 계통에 대해서는 크게 두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종족계통과 관련해 시대적·지역적 활동의 불합리성을 들어 위말갈, 예계말갈, 고구려시대 피지배 주민의 범칭 등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수·당 이전의 말갈이나 한반도에 남하하였던 말갈 모두를 중국 정사에 나오는 말갈과 같은 계통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우리 측 고대사 관련 사서에 나오는 말갈은 한국사의 전개 과정, 즉 한민족의 형성 및 그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말갈이 백제,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신라의 북변에 간헐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신라인들에게 말갈은 오래 전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인들은 일찍이 말갈을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적국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삼국시대부터 말갈은 하슬라(강릉) 일대에 빈번히 출몰하고 있다. 신라는 말갈의 침입에 대한 방어책으로 468년(자비왕 11) 하슬라인을 동원해 니하에 축성을 단행하였다. 『삼국유사』 발해말 갈조에 『삼국사』를 인용하여 “신라인이 이르기를 북쪽에는 말갈이 있고 남쪽에는 왜인이 있고 서로는 백제가 있다. 또 말갈 지역이 하슬라주와 접한다.”라고 하였다.

태종무열왕 5년에는 말갈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에서 소경의 사신을 주의 도독으로 교체하여 군사적 대비를 하였다. 또 국방상의 요충지인 실직에 북진을 설치

하여 이들의 침입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신라인들에게 말갈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음은 대당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675년(문무왕 15) 아달성의 백성들이 마를 심으러 나간 사이에 말갈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와 아달성을 노략질하였다. 공격에 앞서 말갈의 추장은 첩자를 파견해 정보를 수집한 다음 기습적으로 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성안의 늙은이·어린이가 낭패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하자 성주인 소나가 적국인 말갈의 침입에 대항에 싸웠으나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일전쟁에서 당군과 싸워 승리한 신라도 말갈의 게릴라 전법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신라인들에게 말갈은 왜(倭)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문무왕을 이어 즉위한 신문왕(681~691)은 각 관제정비를 통한 왕권 강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685년(신문왕 5)에는 9주 5소경제가 완성되어 병합된 지역의 주민과 영토 경영에 주력하였고, 또한 통일전쟁 동안에 급속히 팽창한 군사력을 재편성하면서는 말갈에 대한 회유와 배려도 마련하였다.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 따르면 말갈국민도 백제·고구려인과 마찬가지로 중앙군인 9서당 중 흑금서당에 편성되고 있다. 흑금서당의 주체에 대해서는 종래 당나라 장군 이근행을 따라와 신라군과 충돌하였던 말갈군 중에서 포로 또는 잔류된 자들로 편성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신문왕대 9서당 편제 당시 신라는 고구려·백제 유민과 말갈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피복속민인 말갈에 대해 ‘말갈국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포로·잔류된 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흑금서당의 주체는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통일전쟁을 수행한 말갈족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하여 신라의 북변을 위협하던 말갈이 전부 신라에 내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말갈은 속성상 부락을 단위로 하는 소규모 집단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에 편제된 말갈세력도 있으나, 독자적 단위로 생활하던 집단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통일전쟁 이후 상당수의 말갈족은 여전히 동북면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따라서 통일 후 중대 왕권은 동북방 경영에서 말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말갈의 속성과 전술을 알고 있던 신라는 축성을 실시해 이들의 침입을 저

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해가 건국되기 전까지 동해안 일대에 말갈족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였음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국선 부레랑의 일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수 4년 임진 늦은 봄에 부레랑이 무리를 이끌고 금란에 출유하여 북명의 경계 끝에 이르렀다가 적적(狄賊)에게 붙잡혀 갔다. 문객이 모두 어쩔 줄 모르고 돌아왔으나, 안상이 홀로 추적하였다. (중략) 부레랑이 말하기를 “내가 잡혀가서 적국(敵國)의 대도구나(大都仇羅)의 집에 짐승치는 목자(牧者)가 되어 대조나니아(大鳥羅尼野)에서 방목을 하였다. (하략)” (『삼국유사』 권3 탐상4 백률사)

천수 4년은 당나라 측천무후의 연호로 693년(효소왕 2)에 해당한다. 이 때에 국선 부레랑이 북명의 경계에서 적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설화라는 점에서 연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라 국선이 납치되었다는 설화를 남길 만큼 신라 왕조에 적대적인 세력이 동북 변경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고구려 멸망 이후 동해안 지역에는 수약주와 하서주가 설치된다. 그러나 동해 북부 고구려의 옛 영토에 대한 직접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라 화랑인 부레랑이 적국에 끌려가 목자가 될 정도로 이 지역 치안은 불안한 상태였다.

『삼국유사』에는 다만 적적, 적국이라 하였지, 구체적인 종족명이나 국명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레랑이 짐승치는 목자가 되어 대조나니아(大鳥羅尼野)에서 방목을 하였다.”라고 한 구절은 적국이 어떤 종족이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신라인들은 이들을 유목을 주업으로 하는 이질적 속성을 가진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래의 연구자들은 부레랑을 납치한 적국을 발해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발해가 건국한 시기는 698년이다. 이 시기는 아직 발해가 건국되기 전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라인들이 적국으로 인식했던 종족은 말갈족이다. 말갈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종족적 특성을 가진다.

말갈족의 존재는 신라인에게 여전히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말갈에 대

한 신라인의 인식은 동북면을 무대로 하는 장인설화(長人說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신당서』 신라전에 나오는 장인설화는 아마도 말갈에 대해 품고 있던 신라인의 공포감이 만들어낸 환영의 소산으로 생각된다. 신라 하대 발해가 쇠퇴하자 신라 국경 부근에 여러 말갈 부족이 다시 출몰하였다.

886년(헌강왕 12) 봄에 말갈의 두 부족인 보로국과 흑수국인이 신라의 북진에서 직접 접촉을 피하고 대신 문자를 기록한 나무 조각을 가지고 통교를 신청하였다. 이 말갈 부족들은 신라 동북경인 함경도 남부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단으로 보고 있다. 신라는 이들에 대해 ‘적국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라인에게 말갈은 항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동북면 일대에 흩어져 살던 말갈은 신라의 북변을 침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중대 왕권은 통일 이후 번영과 국력의 비약적 성장 속에서도 말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 중대 왕권 하에서 이루어진 동북면 일대 축성 사업은 주로 말갈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덕왕대 장성 축조와 관문성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신라 중대 왕권은 동북면 일대에 축성을 단행하였다. 특히 동북면 일대 축성은 외적의 방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지역이 북방 경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고대사 관련 자료에는 외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축성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으로 외적의 실체를 추정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효소왕대는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시대였다. 신문왕대 이래 안정된 사회적 기반 속에서 효소왕은 서시(西市)와 남시(南市)를 설치했는데, 시장의 설치는 경제적 번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의 시제(市制)를 도입함으로써 체제 정비를 시도한 조치였다. 율령체제의 기반을 조성한 효소왕은 삭정군에 축성을 단행하였다. 이때의 축성은 외적의 방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朔州)조에 의하면 “삭정군은 본래 고구려의 비열홀이다.

(중략) 효소왕대 성을 쌓으니 주위가 1,180보이다.”라고 하였다. 즉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문무왕 8)에 신라는 이 지역에 비열홀주를 설치하였다. 대당전쟁 와중에 문무왕은 고구려 옛 영토를 획득하고 주를 설치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직접지배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681년(문무왕 21)에는 삭주의 최북단에 위치한 정천군까지 확보하였다. 따라서 효소왕은 이미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지역인 삭정군에 축성을 단행한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삭정군은 삭주(춘천) 관하에 속하는 변경 지역으로 오늘날 안변에 비정된다. 즉 효소왕이 축성한 삭정군은 신라 최고 북단인 정천군 이남에 위치한 지역이다. 따라서 효소왕이 삭정군에 성을 쌓은 것은 새로운 영토의 편입이 아니다. 외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성한 것이다. 변경지대의 축성은 외적 방어가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종래 연구자들은 이때 신라의 경계 대상에 대해 발해로 이해하였다.

주지하듯이 발해는 698년 동만주 일대를 근거로 건국한 국가였다. 건국 초기 발해의 영토 확장 방향은 주로 만주의 동북방 일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이즈음 발해의 중심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해당하는 함경도 일대까지 발해가 영유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함경도 일대까지 발해가 영유하였음은 남경 남해부의 존재가 확인되는 8세기 중엽에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효소왕대 축성이 발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

효소왕이 삭정군에 축성한 대상은 연결하고 있던 말갈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한반도 동북면 일대에 흩어져 있던 말갈은 삭정군 뿐만 아니라 하슬라(강릉) 일대에도 출몰하였기 때문이다. 효소왕대에 활동한 국선 부레랑이 납치된 곳이 바로 하슬라 북쪽, 오늘날 고성 일대로 비정된다. 적국과의 대치 속에서 성덕왕은 하슬라 북경에 장성을 축조하였다.

성덕왕은 721년 7월에 하슬라도(何瑟羅道) 장정 2천을 징발하여 북경에 장성을 쌓았던 것이다. 장성이란 국경의 요새지에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는 성을 말한다. 그런데 농번기인 7월에 축성을 단행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아 그만큼 위급한 상황임을 암시한다. 반면에 하슬라도 장정 2천을 징발한 것으로 장성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성이 국경에 쌓는 성이란 사실에서 일반적으로 장성의 위치를 정천군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흥의 용흥강과 정평의 금진강 사이의 분수산맥을 이용해 쌓은 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하슬라도 장정을 동원해 쌓은 북경 장성의 위치는 하슬라도 관내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 같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경덕왕 16년 하슬라주는 명주로 이름이 바뀐다. 명주 관할지역은 4개의 영현과 9개의 속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소인 하슬라(강릉)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군은 수성군, 고성군, 금양군이고, 6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곡성군, 야성군, 유린군, 울진군, 내성군, 삼척군이다. 그리고 서쪽으로 최북단 삭주와는 철령을 경계로 하고 있다. 즉 철령 이남이 명주 관내에 속한다.

하슬라는 주 관내의 치소가 있던 중심 지역에 해당한다. 하슬라의 장정을 징발해서 쌓은 장성의 위치는 적어도 하슬라 관내에 있어야 한다. 만약 최북단의 삭주 관내인 정천군 일대에 축성하고자 했다면 정천군이 속한 삭주 관내의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정천군과 하슬라는 각각 다른 주의 관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슬라 장정을 동원해서 삭주 관내에 축성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북경 장성의 위치는 하슬라주의 최북단인 금양군과 삭주의 경계에 위치한 철령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기왕의 선행 연구들은 성덕왕이 북경에 장성을 축조한 것은 발해와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였다. 동북면 일대에 존재하던 말갈과 발해를 동일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발해가 이 지역을 영유하기까지 말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721년(성덕왕 20) 7월 하슬라 장정을 동원해 쌓은 장성의 위치는 아마도 부레랑이 붙잡혀 간 북명 경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덕왕은 하슬라 장정을 동원해 장성을 쌓은 이듬해인 722년 8월 왕도인 경주에서 동남쪽으로 20km쯤 떨어진 모벌군(毛伐郡)에 이른바 관문성을 쌓았다. 울산만 방면으로부터 접근할지도 모르는 일본군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701년 대보율령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존적 국가의식이 고양된 결과 신라를 자기들의 번국(蕃國)=종속국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였다. 성덕왕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오히려 고압적인 외교 자세로 대응하면서 외적의 침략에 방



그림 2. 경주 신대리성 성벽

어하는 태세를 강화하였다.

『삼국유사』 효성왕조(실은 성덕왕조에 기입해야 할 사실임)에 의하면 이 관문성 축성에 동원된 인부가 3만 9,262명이었다고 하는데, 관문성 명문석에 의하면 이때 동원된 인력은 수도를 포함한 양주(양산) 관할 8개 군현에서 차출된 사람들이었다.

관문성은 일본을 방어하는 울타리이고, 일본의 도적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축조된 것이다. 또 731년(성덕왕 30) 4월에는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와 우리 동쪽 변경을 습격했다. 왕이 장수에게 명하여 병사를 내어서 이를 크게 깨뜨렸다.”와 같이 적고 있다. 이 기록은 해상에서의 양국 교전을 말해 준다.

요컨대 8세기 전반까지 신라의 동북방 개척은 용이하지 못하였다. 삭주 관내 삭정군과 명주 관내 하슬라 일대까지 말갈이 출몰하는 상황이었다. 효소왕대 국선 부레랑이 명주 북쪽 경계에서 말갈에게 납치되자 축성을 통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681년(문무왕 21)에 확보한 정천군은 사실상 이 시기 신라 영유권의 범위 밖에 있었다.

한편 발해 제3대 문왕이 남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북면 일대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었다. 즉 이 지역에 살던 말갈이 발해 세력 안에 편제되면서 저들의 세력은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양양 이북 지역이 발해의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고증하였다. 편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당의 측천무후(681~704) 말년으로 비정하였다. 일본에 건너오는 말갈의 독자적 활동도 8세기 중엽 이래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정천군의 회복과 탄항 관문

성덕왕은 736년 이찬 윤충, 사인, 영술 등으로 하여금 평양·우두 2주의 지세를 검찰하고 조처하였다. 이것은 성덕왕이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승인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패강 일대는 물론 정천군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사전 정치작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동북면 최북단에 위치한 이 정천군을 신라가 회복한 것은 경덕왕이었다.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조에는 “문무왕 21년(고구려 영토였던) 천정군을 획득하였고, 경덕왕대에 정천군으로 개명하고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았다.”고 전한다. 이 내용만 보면 681년(문무왕 21) 정천군을 확보한 이래 경덕왕이 탄항관문을 설치하기까지 신라의 영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삭정군과 하슬라 일대의 축성, 하슬라 북변 말갈 출현 사실 등은 통일 이래 신라의 동북면 일대 경계가 상당히 유동적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시 말해 신라는 정천군 일대에서 하슬라 일대까지 일시적 진퇴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약용은 양양 이북이 발해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덕왕은 비로소 신라의 최북단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경덕왕은 정천군을 회복하고 영현에 대한 개명 작업을 단행하였다. 정천군 관내 3개의 영현을 개명한 정확한 시점은 여타 군현과 마찬가지로 757년(경덕왕 16)으로 추정된다. 즉 경덕왕은 군현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여 지방 유력층의 참여를 통해 지역 정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체제 정비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천군도 757년(경덕왕 16) 즈음 지방 말단에까지 행정력이 이르게 되었다. 736년(성덕왕 35)에 우두주 일대 지세를 검찰한 이후 약 20여 년 후인 757년(경덕왕 16)에 마침내 정천군까지 영역화할 수 있었다.

경덕왕은 정천군 북단에 탄항관문을 쌓았다. 관문(關門)이란 국경에 쌓는 성인데, 이 국경은 영토의 최북단이며 국가의 명령체계가 미치는 지역이다. 삭주 최북단인 정천군 내에 위치한 탄항관문은 신라 동북 경계에 쌓은 국경 관문이다. 국경이란 상대국과의 경계를 내포한다. 이때 신라와 접경한 국가는 발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천군 내에 관성을 처음 쌓은 것은 675년(문무왕 15)이었다. 『삼국사기』 문무왕 15년조에 보면 “(이달) 29일에는 당 장군 이근행이 앞서 20만의 큰 군대를 거느리고 매소성에 와서 주둔하였으므로, 아군이 또한 이를 격주하여 전마(戰馬) 3만 3백 80필을 획득하고, 기타 병기의 노획도 이와 상등하였다. 당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었다. 안북하를 따라 관성(關城)을 설치하고 또 철관성을 쌓았다.”라는 기사가 있고, 『삼국유사』 문호왕법민조에도 “안북하를 따라 관성을 쌓았다.”라는 동일한 기사가 전하고 있다.

『신당서』 신라전 장인 기사에 보면 당시 관문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관문은 철개(鐵蓋)로 표현된 견고한 문을 설치하였고, 관문을 수비하는 수천의 노사(弩士)가 항상 거주하고 있었다. 675년(문무왕 15)에 세운 관문은 시기적으로 보아 말갈에 대비하기 위해 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문은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세운 방어물 구조였는데, 여기에는 이를 수비하는 수천의 노사(弩士)가 상주하고 있었다. 노사는 노당의 병사로 비정된다. 이 노당은 노라는 무기를 갖춘 특수부대로 일찍이 당 고종에게 알려질 정도로 뛰어난 부대였다. 문무왕은 군사적 방어시설로서의 관문을 쌓았던 것이다.

문무왕이 세운 관문을 토대로 경덕왕은 탄항관문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덕왕이 쌓은 탄항관문은 군사적 방어 시설보다는 발해와의 공식 창구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정천군은 발해에서 신라로 오는 상설교통로인 신라도의 최종 기착지였다. 764년 당나라 칙사 한조채가 발해에서 신라로 입국하였는데, 이때 그가 신라도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발해에서 신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가 있었다. 먼저 발해 왕성으로부터 압록강구로 내려가서 신라 서북지역의 장구진을 거쳐 당은포에 상륙한 뒤 신라 왕성까지 700리에 이르는 육로로 사행하는 교통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 경로는 신라 경주까지 들어가기에 너무나 멀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발

해의 국내성으로부터 평안도 지역을 경유하여 경주에 이르는 길인데, 이 길 역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의 교통로로 이용되지 않았다.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최단 거리의 교통로는 신라도였다.

물론 신라와 발해 사이에 개설된 교통로와 같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양국의 관계를 우호적이었거나 빈번한 교류의 증거로 삼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신라와 발해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계속 적대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발해가 대외 교통로의 하나인 신라도를 개설한 사실은 신라와의 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발해의 대외 교통로 중에 신라도의 존재가 확인된다.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상설 교통로인 신라도가 남경 남해부를 경유하였음을 말해 준다. 발해의 책성부에서 출발하여 남경 남해부를 거쳐 신라의 정천군까지 모두 39개의 역이 존재하였다. 최종적으로 탄항관문에 이르러 입국 수속을 통과한 사람만이 신라 경내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 당나라 사신 한조채도 바로 탄항관문에서 입국수속 절차를 통과한 다음 경주에 들어 올 수 있었을 것이다.

마필을 공급하는 역과 관문의 관계는 모벌군 관문의 경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신라에 파견되는 일본사신은 동해를 건너 굴혈역을 거쳐 모벌군 관문을 통과하는 루트를 통해 왕도인 경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발해국의 사신이나 모피류 등의 상품을 운반하는 발해 상인이 신라에 입국할 때에도 39개의 역을 거쳐 탄항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왕도인 경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790년(원성왕 6)과 812년(헌덕왕 4) 북국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에도 신라 사신은 국경관문인 탄항관문을 출발하여 발해의 경내로 들어갔고, 책성부까지는 39개의 역을 통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9세기에 발해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말갈이 다시 독자적 활동을 재개하였다. 9세기 무렵 정천군과 삭정군 지역에 주로 말갈이 출몰하고 있다. 이것은 신라의 최북단인 정천군 내에 축조한 탄항관문이 더 이상 국경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신라 하대 왕권의 동요와 지방세력의 대두 속에서 동북면 일대는 사실상 다시 말갈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조이욱)

참고

문헌

박해현, 2003,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방동인, 1997, 『한국의 국경획정연구』, 일조각.

신종원, 1987, 「신라오대산사적과 성덕왕의 즉위배경」,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신형식, 1990, 『통일신라사연구』, 삼지원.

이기동, 1998, 「신라 성덕왕대의 정치와 사회 - '군자국'의 내부사정」, 『역사학보』 160.

이영호, 2011, 「통일신라시대의 왕과 왕비」, 『신라사학보』 22.

조이욱, 1990, 「신라성덕왕대 대당 외교정책연구」, 『이화사학연구』 19.

조이욱, 2001,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제2장

불국사와 석굴암의 세계

1. 중대 불교와 경덕왕
2. 불국사·석불사의 창건과 그 의미

1. 중대 불교와 경덕왕

국왕의 신불과 불사

신라 사회에서 국왕은 국가의 통치권을 대표하였고, 특히 전제정치가 행해지던 중대의 왕권은 더욱 강력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신라 중대가 전제왕권의 시대라고 해도 왕의 권한은 세속의 통치권에 한정된 것이지 종교의 영역에까지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왕실이 주도해 불교를 공인한 이래 국왕이 곧 불교의 수장으로서 석가왕실釋迦王室이 환생한 것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왕과 왕후의 호칭을 불교식으로 바꾸고 정교일치政敎一致의 형태를 보였다. 신라 중고기의 왕실에서 전륜성왕사상轉輪聖王思想을 그 정치 이념으로 표방했던 것도 이 무렵의 정교일치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중고기 말인 643년(선덕여왕 12) 국왕은 자장慈藏을 대국통大國統으로 삼고 승니僧尼의 모든 규범과 교단의 정비를 그에게 맡겨 주관하게 하였다. 종래 신라의 승관에는 국통國統, 대도유나大都唯那, 대서성大書省, 소서성小書省, 주통州統, 군통郡統 등이 있었는데, 자장에게 수여된 대국통은 특별한 승직이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이전의 불교계보다 훨씬 불교계의 독자적인 운영이 강화되었고, 정교 분리의 경향이 진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경청할 만하다. 사실 중대의 정치사상에는 중고기에 비해 유교적인 영향이 많아지는 것도 정교분리의 경향과 상호연관이 있다.

신라는 통일 이후부터 국사國師를 책봉했다. 신문왕은 즉위한 한 후 부왕 문무왕이 국사로 책봉하라고 한 경흥을 국로國老에 책봉해 삼랑사三郎寺에 머물게 했다. 이처럼 신라에는 통일 이후부터 승정僧政을 대표하는 국통國統과 통치권을 대표하는 국왕 위에 상징적 존재로서 국사가 책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효소왕(692~702)은 밀교 승려 혜통惠通을 국사로 삼았는데, 그는 왕의 병을 낫게 한 법력法力이 있었다고 한다.

경덕왕(742~765)은 실제사實際寺의 영여迎如를 국사에 봉했다. 영여는 덕과 행이 함께 높았는데, 경덕왕은 그를 대궐로 청해 재를 모시고 공양을 드렸다. 왕은 사

자를 시켜 스님을 절로 배웅했는데, 그는 절의 문에 들어서자 곧 숨어버려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왕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를 국사에 추봉(追封)했는데, 그 후에는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경덕왕은 충담(忠談)을 왕사로 책봉하려 했지만 곧이 사양하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신라 하대에는 더 많은 국사 책봉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사는 영여의 예에서 보듯 승정이나 국정에 직접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승정을 대표하는 국통과 통치권을 대표하는 국왕 위의 상징적 존재로서 국사는 통치권과 민중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왕은 국사가 아닌 여러 고승을 존경하거나 가까이 만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예는 일찍이 중고기 이래로 있어 왔고, 중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무열왕은 원효(元曉)의 그릇을 알아보고 그의 홀로 된 공주인 요석(瑤石)과의 인연을 주선함으로써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주겠는가? 나는 하늘을 반칠 기둥을 찍으려 한다.” 원효가 이런 노래를 거리에서 부르고 다녀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태종은 ‘스님께서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한다고 판단하고 궁중의 관리를 시켜 원효를 요석궁으로 맞아들여 요석공주와 잠자리를 같이하게 함으로써 남다른 관계로 발전했던 것이다.

문무왕은 지의(智義), 명랑(明朗), 경흥(景興), 의상(義相) 등 여러 고승을 가까이 했다. 문무왕은 평소에 지의법사에게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숭봉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종 직전 태자에게 경흥법사를 국사로 삼을 것을 유언으로 당부했다. 이는 왕이 경흥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670년(문무왕 10)의 당나라의 침공은 큰 위기였다. 당의 침략 소식을 접한 신라 조정에서는 명랑에게 방어책을 자문했고, 그의 건의에 따라 사천왕사를 세우고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을 행해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다고 한다. 명랑은 당시 신라 사회에 고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길에 용궁으로 초청을 받고 황금 천량을 보시 받아서 용궁으로부터 땅 밑으로 와서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나왔고, 금강사(金剛寺) 낙성법회 때에는 향을 피우고 정성껏 기도함으로써 그 은근한 초청의 뜻이 멀리 있는 해공에게까지 전달되기도 했다.



그림 1. 하늘에서 본 경주 사천왕사지

이처럼 명랑은 법력 높은 고승으로 인식되고 있었기에 군신이 함께 당에 대한 방어책을 논의할 때 사천왕사를 창건하고 도량(道場)을 개설하지는 그의 제의가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여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정신적인 위안과 안정을 구하는 데 명랑의 도움은 컸다고 하겠다. 674년(문무왕 14) 대서성에 임명된 의안법사(義安法師)는 명랑의 형이었고, 국교대덕(國敎大德)은 명랑의 만형이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여러 성을 쌓고 궁궐을 장엄하고 화려하게 단장했다. 특히 681년(문무왕 21) 경성(京城)을 새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도성(都城)을 새롭게 축성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의상은 왕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간했다고 한다.

(문무왕은) 서울에 성곽을 쌓고자 해서 이미 관원을 갖추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때에 의상법사가 이 소식을 듣고 글을 보내어 아뢰었다. “왕의 정교가 밝으면 비록 풀밭에 선을 그어서 성이라고 하여도 백성이 감히 넘지 못

하고 재앙을 씻어 복이 될 것이며, 정교가 밝지 못하면 비록 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역사를 중지하였다.
(『삼국유사』 권2 기이편 문호왕법민)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와 같은 내용은 『삼국사기』 문무왕 21년조에도 보인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왕이 경성을 일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해 의상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 반면에 『삼국유사』의 기록은 의상이 스스로 왕에게 글을 올려서 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문무왕이 의상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인지, 의상이 스스로 국왕에게 글을 올려 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을 수고롭게 해 성을 쌓는 일보다는 좋은 정치를 펼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상의 건의를 왕이 수용하여 곧 공사를 중지하게 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문무왕의 의상을 어느 정도 공경했는지, 또 의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의상이 부석사에서 수많은 제자에게 『화엄경』을 강의하면서 두루 교화함을 본 국왕이 그를 공경하여 토지와 노비를 시납(施納)하려 했던 적이 있다. 그 국왕이 어느 국왕이였는지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676년(문무왕 16)에 부석사가 창건되었던 사실에 유의하면 문무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의상은 국왕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의 불법은 평등하여 고하(高下)가 함께 균등하고 귀천(貴賤)이 같은道理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반경』에는 여덟 가지 부정한 재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장(田莊)이 필요하고, 어찌 노복을 거느리겠습니까? 빈도(貧道)는 법계(法界)로써 집을 삼고 바닷대로 농사지어 익기를 기다립니다. 법신(法身)의 혜명(慧命)이 이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권4 의해편 의상전교)

당나라 무외삼장(無畏三藏)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665년(문무왕 5) 귀국해서 활동한 혜통(惠通)은 밀교의 교풍을 떨친 고승이다. 그는 특히 치병(治病)에 능하여, 당나라

에서는 고종황제 공주의 병을 고쳤고 귀국해서는 신문왕의 등창병과 효소왕 왕녀의 병을 낫게 했다. 혜통은 주문(呪文)을 외워 신문왕의 등창을 치료한 후 신문왕에게 전생의 잘못으로 인한 신충의 원망을 풀도록 사원의 건립을 권했고, 신문왕은 이를 받아들여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를 세웠다.

신문왕이 돌아가자 효소왕이 즉위하여 왕릉을 조성하고 장례 길을 닦았는데, 정공(鄭恭)의 집 버드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서 유사(有司)가 그것을 베려고 했다. 이에 정공은 자신의 머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베지 못한다고 버티다가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당한 일이 있었다. 그 버드나무는 정공을 원망하던 독룡이 변신한 것이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정공과 교분이 두터웠던 혜통까지 해치려 했는데, 그의 신통력을 당하기 어려워 그대로 두었다. 갑자기 왕녀에게 병이 있어서 혜통으로 하여금 치료케 함에 병이 나았다. 이에 혜통이 효소왕에게 정공은 독룡의 해를 입어 애매하게 나라의 형을 받았다고 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누우쳐 정공의 처자에게 죄를 면해 주고 혜통을 국사로 삼았다. 이 사화는 국가의 병사로도 혜통의 신통력을 당할 수 없었다는 것과 함께 정공이 애매하게 나라의 형을 받았다는 혜통의 건의를 효소왕이 수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덕왕이 만난 고승들

경덕왕은 당대에 활동한 여러 고승을 만났다. 곧 진표(眞表), 충담(忠談), 월명(月明), 태현(太賢), 표훈(表訓), 원표(元表), 이순(李純), 영여(迎如) 등이 그들이다.

진표는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부지런히 수행하여 미륵보살로부터 계법(戒法)을 받고 금산사(金山寺)를 중창하여 점찰교법(占察敎法)으로 교화했던 법상종(法相宗)의 고승이었다.

유력(遊歷)하던 진표는 753년(경덕왕 12) 2월 15일에 아슬라주(阿瑟羅州)(강릉)에 이르렀다. 이때 섬 사이를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 그를 물속으로 맞아들이므로, 불법을 강설하고 계를 주었다. 경덕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조租 7만 7천석을 내렸으며 왕후와 외척들도 모두 계품(戒品)을 받고 명주 500단과 황금 50량을 보시했다.

진표는 이것을 모두 받아서 여러 절에 나누어 보시하여 널리 불사佛事를 일으켰다. (『삼국유사』 권4 의해편 진표전간)

경덕왕이 진표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보살계를 받았다는 이 기록은 주목해야 마땅하다. 경덕왕은 당시 참회교법을 두루 펴고 있던 법상종의 진표를 공경하여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불제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왕과 왕후와 외척 등이 많은 보시를 베풀어 진표의 불사를 도왔던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진표를 후백제의 부흥을 꾀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발표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753년(경덕왕 12) 여름에 가뭄이 심해 대궐의 우물이 마를 정도였다. 이에 국왕은 법상종의 고승 태현太賢을 내전內殿으로 초청해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설해 비를 빌게 했다. 낮에 경을 강의할 때에 이르러 태현이 향로를 받쳐들고 있으니, 잠깐 사이에 우물물이 솟아 7장丈 가량이나 되었다고 한다. 태현은 50여종의 저서를 남긴 유식학승唯識學僧으로 유명했고, 당나라 도봉道峰은 태현을 500년만에 출현한 성인이라고 할 정도였다. 경덕왕은 이듬해 여름에는 대덕 법해法海를 황룡사로 청해서 『화엄경』을 강설하게 하고 친히 가서 향을 피웠다. 그리고 동해의 물을 기울이는 법해의 법력에 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절했고, 이를 계기로 법해를 더욱 믿고 공경했다고 한다. 이 사화에서 경덕왕 자신이 황룡사로 가서 향을 피우고 법해에게 절하고 더욱 공경하게 되었다는 대목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덕왕은 덕과 행이 높았던 실제사의 영여迎如를 대궐로 초청해서 공양하고 국사로 추봉하기도 했다. 경덕왕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인연 있는 고승을 초청하여 재를 베풀거나 자문을 구하는 예가 있었다. 경덕왕은 월명과 충담 등을 궁중으로 맞아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760년(경덕왕 19) 4월 2일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10일간이나 사라지지 않았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인연이 있는 승려를 청해 산화공덕散花功德을 닦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원전朝元殿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왕이 청양루靑陽樓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승려를 기다렸다. 그때 발두독의 남쪽 길을 가고 있던 월명月明을 모셔다가 발원문을 짓도록 부탁했다. 이에 월명은 도술가를 지어서 불렀더니 조금 후에 괴변이 사라졌다. 그래서 왕은 품다品茶와 수정염주水精念珠를 주었는데, 문득 동자

가 나타나 차와 염주를 받아 나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뒤를 쫓게 했더니 동자는 내원內院의 탑 속으로 들어가 숨고 차와 염주는 남쪽 벽의 벽화 미륵상 앞에 있었다. 국왕은 더욱 월명을 공경하여 다시 명주 1백 필을 주어 큰 정성을 표했다. 월명은 사천왕사의 승려로 피리를 잘 불고 향가를 짓기도 했던 고승이다. 그의 향가 재망매가祭亡妹歌는 도술가兜率歌와 함께 유명하다.

경덕왕은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표훈表訓에게 부탁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다음의 설화가 그것이다.

왕이 하루는 표훈대덕에게, “내가 복이 없어 사자嗣子를 두지 못했으니, 바라건대 대덕께서 상제에게 청하여 두게 해주시오.”라고 했다. 표훈이 천제天帝에게 올라가 고하고 돌아와 아뢰었다. “상제上帝가 말하기를, 딸을 구한다면 좋으나 아들은 마땅치 않다고 하더이다.” 왕이 “딸을 바꾸어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표훈이 내려오려 할 때에 천제에게 가 그같이 청하니, 천제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표훈이 내려오려 할 때에 천제가 다시 불러 “하늘과 사람 사이는 함부로 문란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스님이 왕래하기를 이웃 마을 같이 하여 천기天機를 누설하니, 금후로는 다시 다니지 말라”고 했다. 표훈이 와서 천제의 말로써 효유曉諭했으나, 왕은 “나라가 비록 위태롭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잇게 한다면 만족하겠다.”고 했다. 이에 만월왕후滿月王后가 태자를 낳으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다. 태자는 8세에 이르러 왕이 돌아가심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가 혜공대왕惠恭大王이다. 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태후가 섭정하니,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해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나서 막을 수 없었으니 표훈의 말이 맞았다. 왕은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돌날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항상 부녀처럼 놀아서, 비단주머니 차기를 즐기고 도류道流와 함께 희롱했다. 그러므로 나라에 대란大亂이 있어, 마침내 선덕왕宣德王과 김양상金良相에게 죽임을 당했다. (『삼국유사』 권2 기이편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중대 전제왕권의 하나의 특징적 현상이었고, 이 설화에는 자기의 직계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경덕왕의 전제주의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천제에게 청해 경덕왕이 아들을 얻도록 해준 표훈의 노력은 경덕왕의 전제주의를 도와준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설화의 전체적 구조로 볼 때, 굳이 아들을 얻어 왕위를 물려주려고 고집하는 경덕왕에게, 표훈은 천제의 권위를 빌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효유(曉諭)했음에도 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훈 이후에는 신라에 성인(聖人)이 나지 않았다고 한 평가와 해공왕 때 대공(大恭)의 난이 일어나고 96각간(角干)이 서로 싸워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던 사실을 두고 표훈의 말에 나라가 위태롭다고 한 뜻이 이것이었다고 지적한 것을 주목할 때 그렇다.

이처럼 중대 왕실에서는 덕이 높은 고승을 국사에 책봉했고, 국왕은 여러 고승을 만나 법문을 청해 듣기도 하고 정치적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고승들로부터 정치적 도움을 받기도 하고 고승들의 간언(諫言)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도 했던 것이다.

왕권과 사원

여러 형태의 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찰의 창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은 건물과 불상과 탑과 범종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라의 국왕들은 왕실 조상의 추복(追福)을 위해 사원을 건립하였다. 그 대표적인 절이 성전사원(成典寺院)들이다.

신라 중대에는 왕경을 중심으로 건립되었던 성전사원 이외에도 부석사(浮石寺), 보림사(寶林寺), 단속사(斷俗寺), 금산사(金山寺), 화엄사(華嚴寺) 등의 사원이 지방에 건립되었고, 토함산에는 불국사와 석불사가 창건되었다. 이 사원들 중에는 건립 당시 왕실의 도움을 얻었거나 창건을 주도한 고승이 국왕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사원들의 기능 중에는 전제왕권을 옹호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 타당성 여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상은 676년(문무왕 16)에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했다.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에서 다 같이 밝히고 있듯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서 창건한 것이었다. 물론 부석사의 창건 연기설화를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는 『송고승전』의 의상전에서는 조정의 명을 받들어서 이 절을 창건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의상이 '봉조지(奉朝旨)' 혹은 '봉왕지(奉王旨)'하여 부석사를 창건했다는 국내의 기록은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봉조지' 혹은 '봉왕지' 등의 용어에 필요 이상으로 주목하여, 부석사의 창건이 마치 국가의 정치적 목적, 특히 전제왕권의 강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 양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석사가 창건된 676년(문무왕 16)은 당나라와의 오랜 전쟁도 끝나 평온을 찾은 때다. 따라서 이때의 '봉조지'는 절을 지어도 좋다는 국가의 승인을 얻었다는 정도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변방에 태어난 것을 스스로 탄식하던 자장은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638년(인평 5)에 왕명을 받아 문인 승실(僧實) 등 10명과 더불어 당나라로 갔다. 이 기록 중의 수척(受勅)이 국왕의 허락 정도로 이해되듯이, '봉조지'의 경우도 비슷한 의미로 이해함이 좋을 것이다. 의상의 부석사 창건에 조정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은 이 절이 신라 화엄종의 중심도량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설사



그림 2. 영주 부석사

조정의 뜻에 주목하더라도, 이를 전제왕권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문무왕이 불교에 대한 이해와 신심이 깊었던 사실에 유의하면, 불교의 교화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다.

‘봉조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창건 이후 부석사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부석사를 창건해서 대승의 교법을 포교하더니 많은 영험이 나타났다고 했다. 또 『송고승전』에서도 의상은 부석사를 법륜을 굴릴 만한 곳으로 생각하여 『화엄경』을 강의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다. 사실 의상은 부석사를 중심으로 화엄교학을 강설했고, 많은 제자들을 교육했다. 궁벽한 태백산에서의 그의 교화는 신라 사회에 널리 소문이 퍼져 국왕이 그를 더욱 공경하게 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입에까지 그의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였다.

성덕왕은 705년(성덕왕 4) 오대산에 진여원眞如院을 개창했다. 대왕은 친히 백료百寮를 거느리고 이 산에 이르러 전당을 세우고, 아울러 문수보살의 소상을 만들어 당堂 안에 모셨다. 영변靈卍 등 선지식 5명으로 하여금 『화엄경』을 오래 전독轉讀하게 하려고 화엄사華嚴社를 조직하여 장년공비長年供費로 매년 춘추에 이곳에서 가까운 주현州縣으로부터 창조倉租 100석과 정유淨油 1석을 공급하는 것을 상규常規로 삼았다. 그리고 진여원에서 서쪽으로 6천보를 가서 모니점牟尼帖과 고이현古伊峴 밖에 이르기까지 시지柴地 15결, 읍지粟地 6결, 좌위坐位 2결을 주어 장사莊舍를 세웠다.

성덕왕은 즉위 전에는 효명태자孝明太子로 형 보천寶川과 함께 오대산에 은둔하여 수행했는데, 나라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성덕왕은 즉위 후에 일찍이 자신이 수행했던 오대산 중대에 진여원眞如院을 고쳐 세우고 화엄사華嚴社를 조직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대산에 남아 50년 이상을 부지런히 수행하던 보천은 입적할 무렵에 훗날 산 속에서 행할 국가를 도울 행사를 기록해서 남기기도 했다. 오대에 각각 결사結社를 조직해 일정한 복전승福田僧을 상주시켜 밤낮으로 독경讀經과 예참禮懺을 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 기록에는 복전이 향화香火를 받들면 국왕이 오래 살고 인민이 편안하며 문무가 화평하고 백곡이 풍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체 37명의 복전이 재에 쓰는 비용은 하서부도내河西府道內 8주州의 세로 충당할 것이며, 이 일

을 대대로 국왕이 잊지 않고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과연 보천이 남긴 기록대로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대산의 화엄불교와 신라 왕실과는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었음은 사실인 것 같다.

8세기 중반 토함산에 창건된 불국사와 석굴암, 즉 석굴암은 신라 중대에 건립된 여러 사원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절을 창건한 김대성金大城이 왕실의 측근 세력이었음과 대성이 죽은 뒤에 국가에서 이를 완성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석굴사와 불국사의 창건 의도나 구체적인 설계까지도 경덕왕의 전제정치를 옹호하고 미화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석굴암과 불국사의 건립에는 전제왕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성이 현·전세의 부모를 위해 세운 불국사와 석굴암을 그가 죽은 후에 국가에서 완성했다는 점이다. 시중侍中을 사임한 특정한 귀족의 원당願堂을 국가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러한 불사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따라서 왜적의 침입을 저지케 하려는 감은사感恩寺의 정신처럼 동해구東海口-토함산으로 이어지는 왜구들의 침입로인 바로 토함산 일대에 이 두 원찰을 세움으로써 전제왕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역력하였다. (『삼국유사』 권5 효선편 대성효이세부모)

석굴암과 불국사의 창건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토함산 일대가 왜구의 침입로라고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여기서 말하는 전제왕권의 수호의지란 결국 호국의 의지로 귀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존불과 십대제자, 그리고 보살상과 사천왕상 등이 조각되어 있는 석굴암의 구조에 주목하고, 이 불보살상들을 국왕과 신료에 비유해 석굴암은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조화와 통일의 세계에 대한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석굴암이 전제정치를 옹호하고 이를 미화하려는 목적으로 창건되었다고 주장하

는 견해에서는 신라 중대에 이르러 국왕은 절대자가 되었고, 이 절대자에 대한 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조화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상에 대한 사상적 표현으로 종교적·신비적 요소를 띠고 표현된 예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석굴암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석굴암의 구조와 경덕왕의 전제정치를 다음과 같이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했다.

신라의 전제정치가 막바지에 이른 시기, 그렇기 때문에 전제정치를 옹호하고 이를 미화하려는 노력이 크게 두드러진 시기가 곧 경덕왕 때였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경덕왕이 석굴암을 창건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석굴암은 인조의 석굴이며 그 중앙에는 석가여래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둘레의 벽에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을 비롯한 여러 보살상과 나한상이 조각되어 있고, 입구에는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실에는 인왕상과 팔부신중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하는 조화와 통일의 세계이다. 만일 석가여래상을 국왕에 비유한다고 하면, 보살상이나 나한상은 각기 그 격과 임무를 달리하는 신료가 될 것이고, 입구나 전실의 사천왕상·팔부신중은 악귀의 침입으로부터 국왕을 보호하는 무신들이 될 것이다. 물론 경덕왕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더라도 그가 전제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조화와 통일의 세계에 대한 이상에 집착하고 있었고, 이 집착이 석굴암의 구조를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믿는다. (이기백, 1979, 『고대 정치사상』, 한국사상대계 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 견해에는 석굴암의 구조나 조각에 대한 불교사상적 이해나 미술사적 해석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종교적 신앙심이나 예술적 심미안은 무시된 채 오직 정치적 의도와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석굴암의 예술과 사상의 주제는 정각正覺이다. 본존불 석가모니는 정각을 이룩하여 광명을 발하고 있는, 수많은 마의 유혹과 방해를 다 물리쳐 항복받은 승리자의 감격적이고 당당한 모습의 상징이다.

불국사는 원래 화엄불국사華嚴佛國寺였고, 이는 화엄의 연화장세계蓮花藏世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다. 사바세계 차안此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피안彼岸의 불국세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건설된 것이었다. 그런데 불국사의 가람 배치를 왕권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주장이 그 예다.

경덕왕의 전제왕권은 한화정책漢化政策과 같은 제도의 개혁이 시도되기 전에 이미 불교와의 관련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중앙 지향적인 불국사는 동쪽의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일곽과 서쪽의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일곽의 두 가람을 병치하여 왕실과 귀족간의 균형된 조화의 미를 나타내 줌으로써 강력한 왕권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신형식, 1990, 『통일신라사연구』, 삼지원)

이 견해에 의하면 대웅전은 왕실을, 그리고 극락전은 귀족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불국사는 왕실과 귀족 간의 균형의 미를 나타내 줌으로써 강력한 왕권의 위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불국사 가람배치를 정치적으로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다분히 작위적인 것일 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장흥의 보림사寶林寺는 원표元表에 의해 759년(경덕왕 18)에 창건되었다. 그런데 원표는 법력으로써 정사에 도움을 주었기에 국왕은 특별히 교시를 내려 불궁佛宮을 시설하고 장생표長生標의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이처럼 보림사의 창건에 왕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원표가 경덕왕의 정사에 법력으로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굳이 전제정치의 옹호라고 못박아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표는 경덕왕의 한화정책과 관련된 전제왕권의 재확립에 도움을 주었고 보림사도 경덕왕의 전제정치와 일정한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경덕왕의 충신이었던 이순李純은 50세가 되던 748년(경덕왕 17)에 출가하여 지리산에 단속사斷俗寺를 세우고 살았다. 그는 이 절에서 왕의 진영을 봉안하고 복을 빌었다. 여러 차례 불러도 나가지 않던 이순은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궁문宮門으로 나아가 왕이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간했고, 왕도 음악을 중시했다.

진표眞表는 경덕왕과 왕후로부터 받은 많은 보시를 여러 절에 나누어 주어 널리 불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경덕왕이 진표에게 많은 보시를 준 것은 진표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였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지만,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 왕실에서는 부석사, 진여원, 보림사, 불국사 등의 창건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창건된 사원의 경우 어느 정도 왕실과의 관계를 유지했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원들의 기능이 전제왕권의 지원에 있고 가람배치까지 특수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불교의 정치사상과 그 인식

불교가 이상으로 하는 정치사상은 전륜성왕사상轉輪聖王思想이다. 이 사상은 전륜성왕이 정법正法으로 세상을 통치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이상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중고기의 신라 왕실에서부터 중시한 전륜성왕사상은 중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황복사사리함기皇福寺舍利函記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황복사 탑은 효소왕과 신문왕비가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692년에 건립한 것이었다. 그 후 성덕왕이 신문왕과 왕비, 그리고 신목태후神睦太后와 효소왕을 위해 불사리 4과와 순금아미타상 1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탑에 봉안했다. 당시의 사리함에는 다음과 같은 발원을 기록해 놓았다.

이 복전福田으로 위로는 신문대왕과 신목태후 효조대왕의 대대 성묘聖廟가 열반산涅槃山에 눕고 보리수菩提樹에 앉는 데 보탬이 되기를 비읍니다. 지금의 용기대왕隆基大王은 수명이 강산江山과 같이 오래고 지위는 건천乾川과 같이 크며 천자天子 구축하고 칠보七寶의 상서로움이 나타나기를 비읍니다. 왕후는 몸이 달의 정령과 같고 수명이 겁수劫數와 같기를 비읍니다. 내외 친족들은 옥나무처럼 장대하고 보물 가지처럼 무성하게 열매 맺기를 비읍니다. 또 범왕梵王 제석帝釋 사천왕四天王은 위덕威德이 더욱 밝아지고 기력이 자재로와져 천하가 태평하고 항상 법륜을 굴러 삼도三塗의 중생이 어려

움을 벗어나고 육도六道 중생이 즐거움을 받으며 법계法界의 중생들이 모두 불도를 이루기를 비읍니다.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함기』)

이 사리함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용기대왕, 즉 성덕왕이 수명장수하고, 천자 구축하며, 칠보의 상서로움이 구축하기를 기원한 사실이다. 칠보와 천자의 구축, 그리고 장수 등은 전륜성왕이 갖추고 있는 위덕이다.

전륜성왕에 대해서는 『전륜성왕수행경』, 『세기경』 등 여러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이 경전들에 의하면, 전륜성왕은 32상을 갖추고 칠보를 지니고 있으며, 사신덕四神德을 성취하고 사병四兵을 거느리고 사천하四天下를 다스리며 1천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한다. 칠보는 금륜보金輪寶, 백상보白象寶, 감마보紺馬寶, 신주보神珠寶, 옥녀보玉女寶, 거사보居士寶, 주병보主兵寶를 가리킨다. 이는 결국 이상적 정법정치正法政治의 실현과 효율적 국가 경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로 이해된다. 즉 금륜보는 정법에 의거한 정치외교를, 백상보와 감마보는 교통통신을, 신주보는 정법의 실현에 필요한 여러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과학 기술이나 건설을, 옥녀보는 비서진을, 거사보는 재정과 후생복지를, 주병보는 국방과 치안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다고 한다. 그리고 사신덕은 오래 살아서 일찍 죽지 않으며 건강하여 병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며 재산이 충분한 것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덕왕에게 칠보와 천자와 장수 등이 구축되



그림 3.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사리함(좌)과 사리기(우)

기를 기원한 것은 곧 그가 전륜성왕과 같은 이상적 군주가 되기를 희망한 것으로 이해된다.

불교의 여러 경전 중에서도 『인왕경』과 『금광명경』은 불교의 호국사상과 정치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법화경』과 함께 흔히 호국삼부경으로 알려 지고 있는 이 경전들은 신라 왕실에 영향을 주었다. 성덕왕은 태종대왕을 위해 봉덕 사奉德寺를 세우고 7일 동안 인왕도량仁王道場을 개설하고 대사大赦했다고 한다. 인왕 도량은 『인왕경』을 토대로 한 법회의식이다. 또 백 명의 고승을 모시고 개최하는 백 고좌회百高座會도 이 경의 가르침에 의해 생겨난 법회다. 779년(혜공왕 15) 3월 경도 京都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백여 명이었으며 태백성太白星이 달 을 범함에 왕이 백좌법회를 설했다. 백고좌회는 일찍이 613년(진평왕 30)에 황룡사 에 최초로 개설된 후 자주 행해지던 법회였지만 중대에는 개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이때에 개최된 것이다.

국토가 어지러울 때, 파괴와 대화재와 외적의 침입이 있어 나라가 파괴되 려 할 때, 그 때에는 이 경을 들으라. 백 명의 법사를 청하여 그들이 고좌 에 앉아 사자후하는 그 앞에서 법사에게 공양하라. 그리고 대왕들은 하 루에 두 번 이 경을 강독하라. 그대들 국토에 있는 백부百部の 귀신들이 이 경을 듣고 그대들의 국토를 지켜줄 것이다. (『인왕경』)

이상은 『인왕경』 호국품의 대체적 내용이다.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던 혜공왕 때에 백고좌회를 개설했던 것은 『인왕경』의 호국사상에 의해 나라를 수호하려는 의 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원효는 『금광명경소』 8권을 저술했는데, 이 무렵에는 『4권금광명경』과 『합부 금광명경』이 신라에 전해져 있었다. 그리고 당나라 의정義淨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 경』은 번역 직후인 704년(성덕왕 3) 3월에 당에서 귀국한 사신 김사양金思讓이 가져다 왕에게 바쳤다. 승려가 아닌 사신이 호국경전 중의 하나인 『금광명최승왕경』을 가 져다 국왕에게 바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침략해 오는 당나라 군사의 격퇴를 기

원하며 건립했던 사천왕사는 『금광명경』의 사천왕품에 사상적 근거가 있다. 경덕왕 은 753년 여름에 가뭄이 심하자 태현을 초청해서 『금광명경』을 강의하게 했다.

중대에는 이 경에 대한 학승들의 연구가 활발했다. 원효, 경흥景興, 승장勝莊, 도륜道倫, 태현太賢 등이 이 경의 주석서를 남겼는데, 특히 경흥의 저서는 4종이나 되 었다. 원효는 소 및 의기 등 두 종의 주석서를 저술했지만 현재 전하지 않는다. 『금광 명경』 중의 정론품正論品에는 국왕의 정치와 교화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품 에서는 먼저 왕이 악을 따른다면 화를 초래해 국가가 망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국왕 이 악을 막아야 한다고 설한다. 원효는 이 부분의 주석에서 『애왕경愛王經』을 인용해 왕의 과실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그것을 경계하였다.

대왕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실에 열 가지가 있다. 만약 왕이 이와 같은 과실을 저지른다면, 큰 창고가 있고 많은 보좌관이 있으며 많은 군사가 있 다고 하더라도 우러러 귀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① 종성種姓이 높지 않고,
- ② 자유 자재함을 얻지 못하거나,
- ③ 그 성품이 포악하거나,
- ④ 지독한 분노를 발하거나,
- ⑤ 생각함에 사치스럽고 지혜가 적거나,
- ⑥ 사되고 망령된 말을 받아들이거나,
- ⑦ 의지 없이 행하며 위의를 닦지 않거나,
- ⑧ 착한 법을 돌아보지 않거나,
- ⑨ 차별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 ⑩ 한쪽으로 치우쳐 전행을 휘두르며 방일放逸한 것

이상은 원효가 그의 저서 『금광명경소』에 인용했던 『애왕경』의 내용이다. 이 처럼 원효가 그의 저서에 『애왕경』을 인용했던 것은 국왕에 관해 설하고 있는 내용 에 주목한 탓일 것이다.

한편 원효는 『범망경』을 중시했다. 이 경에는 국왕이나 전륜성왕도 십중계^{十重戒}를 범하면 그 왕위를 잃게 된다고 했다. 원효가 이 부분을 해석해 왕위를 잃는다고 한 것은 재가위^{在家位}의 잃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즉 국왕도 정도에 의한 정치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 왕위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왕이 만약 과실을 범한다면 큰 창고가 있고 많은 보좌관이 있으며 수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존경하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애왕경』의 교훈이나 “국왕도 십중계를 범하면 왕위를 잃는다.”고 한 『범망경』의 가르침이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8세기 중반의 경덕왕은 보살계를 받았고 많은 고승을 만났으며 여러 불사를 일으켰던 신심 깊은 왕이었다. 그리고 경덕왕은 원표·이순·충담 등의 고승으로부터 정치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경덕왕은 건원^{乾元} 2년(759, 경덕왕 18) 경에 원표대덕을 만나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원표는 천보년간^{天寶年間}(742~755)에 입당하여 서역까지 순례했고, 『팔십화엄경』을 지고 곽동산^{霍童山}을 찾아 천관보살^{天冠菩薩}에게 예배하고, 귀국해서는 장흥 가지산에 보림사^{寶林寺}를 창건했던 고승이다. 그는 법력으로 경덕왕에게 정치적 도움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가 중국에서 회창연간^{會昌年間}(841~846)의 화불^{火佛}을 경험했고 서역까지 구법 여행을 다녀왔던 것으로 볼 때 국제 체험담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763년(경덕왕 22) 8월 어느 날 단속사의 승려 이순^{李純}이 왕이 음악을 즐긴다는 말을 듣고 궁문^{宮門}으로 찾아와서 간했다.

신이 듣자옴에 옛날에 하夏の 걸왕^{桀王}과 은殷의 주왕^{紂王}은 주색에 빠져 음탕한 음악을 그치지 않으므로, 인하여 정사가 잘못되고 드디어는 국가가 망했다고 합니다. 앞 사람의 실패를 보고 뒷사람은 마땅히 경계할 것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개과자신^{改過自新}하여 영원히 국가의 수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경덕왕 22년)

대나마^{大奈麻} 이순^{李純}은 원래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다. 그는 어느 날 홀연히

세상을 피해 지리산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불리도 나오지 않고 출가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살았다. 경덕왕은 이순의 간언을 수용하여 즐기던 음악을 정지했을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이나 오묘한 도리와 치세의 방법에 대해서 들었다고 한다.

765년(경덕왕 24) 3월 3일에 귀정문^{歸正門}의 누^樓 위에 나가서 측근에게 위의^{威儀} 있는 승려 한 분을 모셔오도록 일렀다. 이에 왕은 충담을 누상으로 맞이하여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를 지어 주도록 청했다. 이에 충담은 노래를 지어 바쳤다. 다음의 안민가^{安民歌}가 그것이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 하나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구물대며 사는 물생^{物生}
이를 먹여 다스린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 아니 유지됨을 알 것이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라.
(『삼국유사』 권2 기이편 경덕왕·충담사 표훈대덕)

월명의 안민가에서는 동양의 전통적 정치사상이 강조되고 있다. 공자는 일찍이 정사의 근본에 대해 군신부자^{君臣父子}가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나라 경공^{景公}이 공자에게 정사를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임금이 임금 노릇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하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고, 아들이 아들 노릇함입니다.”

공이 말하였다. “홀륭하도다. 참으로 만일 임금의 임금 노릇 아니하며, 신하가 신하 노릇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아니하며, 자식이 자식 노릇 아니하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얻어서 이를 먹겠느냐?”(『논어』 12 안연편)

공자가 밝히고 있는 정사의 근본과 안민가에서 “군^君답게 신^臣답게 민^民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는 내용은 서로 통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월명이 안민가에서 강조한 내용과 이순^{李純}이 경덕왕에게 간한 말 중에는 불교의 교리나 정치사상과는 상관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당시의 고승이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불국사·석불사의 창건과 그 의미

창건과 연기설화

불국사의 창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기록으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불국사사적』佛國寺事蹟,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등이 있다. 『사적』 및 『고금창기』에 의하면, 불국사는 신라 불교가 공인되던 해인 528년(법흥왕 15)에 창건되고, 경덕왕 때에 김대성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751년(경덕왕 10)에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사적』 및 『고금창기』는 그 사료적 가치에 의문이 있는데, 특히 경덕왕대 이전의 기록에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뒷날에 윤색한 흔적이 보인다. 『사적』은 1046년에 일연^{一然}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삼국유사』를 토대로 후세 사람이 윤색한 것을 일연이 쓴 양 꾸민 것이다. 1046년은 일연(1206~1289)이 태어나기 150년이나 전이고, 『삼국유사』 기록과 『사적』의 내용이 서로 틀리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704년(영조 16) 활암^{活庵}이 쓴 『고금창기』는 착오가 많으며 옛기록을 고의적으로 고쳐 쓴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이후의 기록은 주목되는 것이 많지만, 역시 경덕왕이

전에 대한 기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법흥왕대에 불국사가 창건되었다는 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경덕왕대의 재상 김대성이 751년에 불국사를 창건하기 시작했고 774년에 세상을 떠나자 국가에서 이를 맡아서 완성시켰다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사중기’의 기록이 사실인 것 같다. 우선 이 기록은 불국사나 석굴암에 전하는 석조 유물의 미술사적 연대외도 부합한다. 8세기 중엽 이전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 최치원의 ‘화엄불국사아미타불화상찬’에 의하면 비구가 보시를 설함에 단월인 김승상^{金丞相}이 따르기를 기약하고 절을 세웠다고 한다. 김승상은 재상 김대성을 가리킨 듯한데, 결국 『삼국유사』에 전하는 창건 설화와 비슷한 문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대성은 774년(혜공왕 10) 12월에 죽었다. 불국사 창건을 시작한 지 2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 뒤 국가가 이를 완성했다고 하지만 완성의 정확한 시기를 모른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경 불국사에는 39년만에 완성되었다는 설이 있었다. 이종상^{李鍾祥}(1799~?)의 시 ‘등불국범영루’登佛國泛影樓 가운데에 “스님은 39년에 완성했다 하네.”라는 구절이 보이기 때문이다. 김대성이 죽은 해인 774년(혜공왕 10)을 전후한 시기는 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선덕왕이 재위하던 6년간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불국사가 39년만인 790년(원성왕 6)에 완공되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대부분이 김대성에 의해 이루어져 있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삼국유사』 가운데 ‘대성효이세부모조’는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 연기 설화를 전해 주고 있다. 거기에 인용된 『향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마가 평평해 성과 같았다. 그래서 대성이라고 이름했다. 집이 궁색하여 생활할 수 없어 부자 복안^{福安}의 집에 품팔이를 하고, 그 집에서 준 약간의 밭으로 의식의 자료가 삼았다.

어느날 점개 스님이 육륜회를 흥륜사에서 열고자 하여 복안의 집에 와서 시주를 권했다. 복안이 베 50필을 시주함에 점개가 축원했다. “신도께서 보시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수호하소서. 하나의 보시로 만 배를 얻

고 안락하게 장수하소서.” 대성이 이를 듣고 뛰어 들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문 밖에서 스님이 축원하는 것을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컨대 우리가 전생에 선한 일을 못했기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인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는다면 내세에는 더욱 가난할 것이니,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법회에 보시하여 훗날의 과보를 도모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머니도 좋다고 하여 그 밭을 점개에게 보시했다.

얼마 뒤 대성이 죽었는데 그 날 밤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집에 하늘의 외침이 있어, “모량리 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고 했다. 집안 사람들이 놀라 사람을 시켜 찾아보도록 하였더니, 대성이 과연 죽었는데 외침이 있던 때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왼손을 쥐고 펴지 않다가 7일 만에 폼뒀다. ‘대성’이라고 새긴 금패쪽이 있어 또 대성이라고 이름했다.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봉양하였다.

이미 장성하자 사냥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 곰 한 마리를 잡고 산 아래 마을에서 잤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시비를 했다. “네가 어찌서 나를 죽였느냐? 내가 도리어 너를 잡아먹겠다.” 대성이 두려워 용서를 빌었다. 귀신이 말했다. “나를 위하여 절을 세울 수 있겠느냐?” 대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서하고 꿈을 깨니 땀이 흘러 자리를 적셨다. 이로부터 사냥을 금하고 곰을 위해 그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를 세웠다.

이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비로운 원력이 더욱 깊어 갔다. 그리하여 현세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石佛寺)를 창건해 신림(神林), 표훈 두 성사를 청해 각각 거주케 하였다. 불상을 성대히 설치해 기르신 은혜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적에도 듣기 드문 일이니, 어찌 착한 보시의 영험을 믿지 않겠는가?

장차 석불을 조각코자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실의 뚜껑돌을 만들다가 갑자기 돌이 세 쪽으로 갈라졌다. 통분하면서 선잠을 잤는데 밤중에 천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갔다. 대성이 막 일어나 급히 남쪽 고개로 달려

가 향나무를 태워 천신을 공양했다. 이로써 그곳을 향령(香嶺)이라고 하였다. 불국사의 구름다리(雲梯)와 석탑은 나무와 돌에 조각한 그 기교가 경주의 어느 절보다도 낫다.

김대성은 재상 김문량의 아들로 태어났고, 곰 사냥이 인연되어 불교에 귀의한 뒤 날로 비원이 깊어졌을 뿐 아니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불사, 즉 석굴암을 창건했다. 이것이 이 설화의 역사적 내용이다. 그리고 이 설화에서는 김대성의 전생담이 강조되기도 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불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생에 닦은 보시 공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적 사실에 보시 공덕, 환생, 효행 등의 설화가 복합적으로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답고 정교한 건축과 조각들,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찬탄과 경이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이로써 곧 창건주 김대성의 위대성이 강조되었고 따라서 그가 설화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김대성과 그 주변

김대성(?~774)은 8세기 중반 시절을 살았다. 통일을 이룩한 지 백 년, 사회는 안정되어 있었고 문화 또한 꽃피던 좋은 시절이었다. 그의 아버지 문량은 706년(성덕왕 5)부터 711년(성덕왕 10)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중시(中侍)를 역임했던 대표적 진골귀족이었다. 김대성 또한 중시를 지냈다. 745년(경덕왕 4) 5월부터 750년 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이었다. 그는 시중직을 사임한 이듬해인 751년에 불국사와 석불사의 창건을 시작했다.

불국사의 조영은 참으로 어려운 불사였다. 24년의 긴 세월이 걸려서도 완성되지 못했던 일이며, 세 조각으로 갈라져 버린 석굴암 천장돌을 천신이 강림해 만들어 놓고 갔다는, 그래서 향을 피워 천신에 감사했다는 향령 설화 등은 불사에 쏟은 김대성의 정성과 노력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짐작케 해준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여러 조건이 다 함께 성숙하고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던 불사였다. 국가적 배려와 경제적 뒷받침은 말할 것도



그림 4. 경주 석굴암

없고, 종교적 신심과 원력, 예술적 영감과 창조적 역정 그리고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와 수많은 사람들의 구슬땀 등이 모여서 만들어 낸 걸작품이 곧 불국사와 석굴암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성은 시중직을 역임함으로써 우선 불국사의 조영에 필요한 정치, 경제적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김대성이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죽자 국가가 이를 완성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 불사가 국가적 관심 속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진골귀족인 재상가의 경제력은 대단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녹이 끊어지지 않았고 3천 명 정도의 노비를 거느렸으며, 계절 따라 다른 별장을 가졌고 대표적 귀족 가문은 금입택(金入宅)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성은 단순한 재상은 아니었다. 가슴 가득 원력과 효심을 품은 불제자였고, 화엄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지성인이었다. 특히 황복사의 표훈을 찾아가 화엄의 세 가지 삼매에 대해 배웠던 일은 그의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 정도를 짐작케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균여(均如)(923~973)의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에는 대성과 관련된 다음의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표훈 대덕이 황복사에 있을 때, 대정각간(大正角干)이 표훈 대덕의 방에 나가 아뢰기를 “청컨대 세 가지 근본 삼매(三本定)를 배우고자 합니다.”고 했다. 이에 표훈 대덕은 대중을 방 밖으로 나가도록 명했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운륜(雲綸) 스님만은 문을 나가 창가에 서서 었들었다. 그때 표훈 대덕이 말씀하기를, “‘한때에 부처님께서’라고 한 것은 불화엄정(佛華嚴定)의 경문(經文)이고,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라고 한 것은 해인정(海印定)의 경문이며, ‘사자좌에 앉으셔서’라고 한 것은 사자분신정(獅子奮迅定)의 경문입니다.”라고 했다.

대정은 대성의 다른 표기이다. 대정이 745년(경덕왕 4)에 중시직을 처음 맡았을 때의 관등은 이찬이었는데 표훈을 만났던 때는 각간이라고 했으니, 중시직을 사임한 뒤인 듯하다. 두 사람의 삼매에 대한 문답으로 대성의 화엄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표훈의 영향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대성의 화엄에 관한 이해가 불국사의 조영에 많은 뒷받침이 되었을 것도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그리고 김대성이 조각과 건축 등에 뛰어난 재능과 안목을 갖춘 대예술가이며 영감과 창조의 대천재였음은 현존하는 건축과 조각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24년의 세월을 소모하고도 서둘러 자신이 완성시키고자 하지 않았던 집념과 끈기는 천년 세월을 지나고도 빛나고 있는 것이다.

김대성의 신앙심이 아무리 독실하고 정치, 경제적 배경이 막대했으며 예술가로서의 안목과 재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혼자만의 힘으로 불국사의 조영을 이룰 수 없다. 당대 명장들의 수많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대역사였기 때문이다. 8세기 중엽 신라인의 솜씨와 기술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 무렵에는 만불산(萬佛山)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장인이 있었고, 30만근의 분황사 약사 동상을 만든 강고(强古)와 봉덕사종을 주조한 박한미(朴韓味) 등이 있었다. 봉덕사종의 4배나 되는 황룡사종을 만든 것도, 지리산에 화엄사가 창건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특히 만불산은 높이 한 발 정도의 인공산에 1만의 불상과 1천 여 승상을 조각한 것으로, 이를 선물 받았던 당나라의 대종이 “신라의 기교는 천조(天造)”라고까지 감탄할 정도의 뛰어난 작품이었다. 이처럼 8세기 중반 신라의 기술과 예술적 수준은 높았고, 이것이 곧 불국사가



그림 5. 경주 불국사

창건될 수 있었던 문화적 토대이기도 했다.

김대성은 신도였다. 이는 불국사의 창건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한계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의 자문에 응하면서 그를 도운 고승이 있었을 것이다. 불국사와 석불사에 처음으로 청해 모신 승려는 김대성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향전』에는 신림과 표훈 두 성사를 청했다고 했고, '사중기'에는 유가 대덕^{瑜伽大德}이었다고 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다. 그러나 표훈과 신림이 불국사의 창건과 인연이 있었음은 사실인 것 같다. 이들의 부도가 이 절에 있었고 또 다른 기록에서도 이들이 불국사와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훈은 의상^{義相}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 아니라 홍륜사 금당에 모셔졌던 십성^{十聖} 가운데 한 분이었다. 그는 경덕왕대 대표적인 화엄학자였고, 국왕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던 영향력 있는 고승이었다. 그는 황복사에서 화엄을 강의했고, 찾아온 김대성에게도 화엄의 3종 삼매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사실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처럼 표훈은 대성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해서 불국사에 주석했음이 분명한 것 같다.

신림 또한 불국사에서 베풀어진 법회를 주관하고 화엄 교학을 강의한 일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신림은 의상의 손제자로 부석^{浮石}의 적손이었다. 그는 8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에 활동했다. 그가 부석사에서 법회를 이끌고 있을 때 천여 명의 대중이 운집했고, 그의 문하에서 법용^{法融}, 순응^{順應} 등 많은 화엄 학승이 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림도 당시의 대표적인 화엄학자였다. 신림이 표훈과 마찬가지로 김대성의 불국사 창건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임도 짐작되는 일이다. 유가 대덕도 불국사와 어떤 형태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 자료가 없다. 유가 대덕을 유가 종의 대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사상적 배경

이 세상 사바세계는 근심도 많고 고통도 많다. 그러기에 이 풍진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한다. 무명의 미친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고, 난파당한 중생들은 물결 따라 부침^{浮沈}한다. 이 세상은 예토^{穢土}, 욕심으로 오염된 땅. 그러기에 근심 걱정 없는 나라,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는 우리들을 손짓해 부른다. 약속의 땅, 그곳은 정토^{淨土}다. 깨끗한 땅이다. 거친 파도 넘어서 있는 저쪽 언덕, 피안^{彼岸}의 땅이다. 표훈^{表訓} 스님은 말했다. “사바세계는 연화장 세계^{蓮華藏世界}를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난파당한 사람들에게는 피안의 등대가 희망이듯이 사바세계의 부침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국토 연화장 세계가 등대이기에 표훈 스님은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불국사, 그것은 혼한 절 이름이 아니다. 이 거친 사바세계에 우뚝 선 불국 세계의 상징이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배려에서 건설한 부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는 높은 석축 기단 위에 건설되었다. 불국을 떠받들어 지탱하는 석단은 상하 2층으로 되었는데 하층은 거대한 자연석을, 상층은 원래 크고 작은 냇돌을 쌓아서 안정감을 주었다. 이로써 부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구축되고 높이 솟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다. 석단은 아래의 사바세계와 위의 불국 정토로 구분했다. 석단 아래는 연못이 있어 사바세계 차안^{此岸}과 불국 세계 피안^{彼岸}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연못 속에는 불국 세계의 휘황한 누각과 탑이 아롱져 꿈결인 양 손짓하고 있었다.

불교에는 여러 부처님이 등장하듯, 그 부처님이 사는 나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서방의 극락 세계가 있고, 먼 훗날 미륵불이 출현할 용화 세계도 있다. 그런가 하면 비로자나불의 공덕으로 장엄한 나라 연화장 세계가 있고, 석가모니불이 교화한 영산 회상도 있다. 약사여래의 유리광 세계와 보생여래의 환희 세계 또한 불국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불국이 표현되고 있음은 중생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성이 건설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나라는 화엄의 불국 세계였다. 신라 때의 원래 이름은 화엄불국사華嚴佛國寺였는데, 이는 최치원崔致遠의 ‘화엄불국사아미타불화상찬’으로 알 수 있다. 최치원은 절 이름 ‘화엄불국’에 깊은 뜻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東海東山有佳寺	동해 동산에 아름다운 절 있어
華嚴佛國爲名號	화엄 불국이라 이름하였네.
主人宗袞親修置	주인종곤이 친히 세우니
標題四語有深義	절 이름 네 마디에 깊은 뜻 있네.
華嚴寓目瞻蓮藏	화엄을 주시하며 연화장을 우러르고
佛國馳心係安養	불국에 달리는 마음 안양에 관심두네.
欲使魔山平毒嶂	마산의 독한 기운 소멸하고자
終令苦海無驚浪	끝내 고해의 거친 파도 잠잠케 했네.

‘화엄불국’이란 화엄의 불국토란 의미다. 화엄의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세계이고 온갖 꽃으로 장엄된 세계이다. 화엄의 불국토는 국토해國土海와 세계해世界海로 구분 설명된다. 붓다 깨달음의 세계, 해인삼매海印三昧로 깨달아 얻은 비로자나불의 세계,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질적 세계가 국토해다. 침묵하는 비로자나불을 대신해 보현보살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했다. 이것이 곧 화엄삼매華嚴三昧에 의해 설해지는 세계해이며 곧 연화장 세계이다. 석굴암이 국토해의 상징적 표현이라면 불국사는 세계해의 표출이다.

석불사와 불국사는 기본설계에 유기적 관계가 있었고, 화엄불국의 상징적 표

현이다. 석불사는 토함산정에 위치하고 굴로 되어 있으며 동쪽을 향해 있다. 『화엄경』은 돈교頓敎와 점교漸敎를 함께 설하고 있다. 돈교는 붓다의 깨달음 그 자체인 내증內證을, 점교漸敎는 보살이 단계적 수행을 통해 점차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화엄경』 중의 초회初會는 돈교다. 돈의頓義는 여일초출선조고산如日初出先照高山으로 설명된다. 붓다의 수하성도樹下成道는 해가 솟아 높은 산에 먼저 비치는 것과 같이 비유된다. 불이 내증의 해인삼매 중에 있음은 굴속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정상의 석불사를 향해가는 것은 향상거向上去다. 만약 산기슭의 불국사를 향해 간다면, 그것은 향하거向下去가 된다. 곧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인 셈이다. 석불사의 본존 석가모니불은 마魔의 유혹과 방해를 항복받고 시성정각始成正覺하여 광명을 발하는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의 표출이다.

불국사가 화엄의 연화장 세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임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불국사의 가람 배치에는 연화장 세계와 더불어 석가불의 영산불국靈山佛國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비로전, 무설전 등은 비로자나불의 침묵을 상징하는 화엄적 표현이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법화경』에 토대한 석가불의 사바세계 불국을, 그리고 안양문과 극락전은 『아미타경』에 근거한 극락세계 정토를 각각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가여래는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로 장식된 다보탑이 솟아 있고 그 탑 속에서 말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묘법연화경』으로 설법하시니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다.”라고. 이처럼 다보여래의 탑도 『법화경』을 들으려고 땅에서 솟아나 찬탄했던 것이다. 그리고 곧 사바세계는 청정한 불국토로 변했고, 석가모니불께서는 시방 세계에 있는 분신의 모든 부처님을 청하고, 그 앉을 자리를 위해서 8방의 국토를 청정케 하시었다.

이는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이다. 불국사의 석가탑은 석가여래를, 이 탑 주위의 8방 금강좌八方金剛座는 부처님의 분신이 앉았던 자리를, 다보탑은 다보여래를



그림 6. 경주 불국사 다보탑(좌)과 석가탑(우)

각각 상징하는 것이었다. 서쪽에 자리한 극락전은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의 극락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극락전이 있는 구역은 대웅전이 위치한 곳에 비해 낮은 곳으로 설정하였다. 아미타 불국은 일승一乘과 삼승三乘이 같지 않다. 삼승에 의하면 서방 정토이지만 일승에 의하면 세계해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화엄 불국사 가운데에 아미타 불국을 함께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불국은 우리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그곳은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의 나라다. 갖가지 공덕의 꽃으로 장엄된 불국 세계를 건설한 뜻은 이 세상을 공덕의 꽃으로 가꾸고 꾸미려는 원력의 표현이다.

화엄불국은 온갖 꽃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나라다. 그 온갖 꽃을 잡화雜花라고도 했다. 꽃은 행덕行德의 상징이다. 온갖 원행과 온갖 공덕이 모여서 꽃으로 피어난다. 잡화 가운데에는 이름 모를 꽃도 있듯이, 크고 작은 공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비로자나불의 공덕으로 장엄된 나라, 그 화엄불국으로 향해 가는 길은 두 곳으로 나 있다. 백운白雲, 청운靑雲의 두 다리를 건너고 33계단



그림 7. 『입당구법순례행기』 ©전쟁기념관

을 차례로 밟고 올라 대웅전 앞의 자하문으로 향해 가는 길과 연화蓮花, 칠보七寶의 두 다리를 건너고 연꽃이 새겨진 계단을 차례로 밟고 올라 안양문安養門을 통과해 극락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것이다.

그 다리와 계단들은 보살의 수행 계위를 상징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살의 수행은 52단계를 거쳐서 불과인 묘각妙覺에 이른다.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십지十地 등의 50계위와 등각等覺, 묘각이 그것이다. 부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은 공덕의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며, 공덕의 한 계단 한 계단은 공덕의 꽃을 스스로 피워 가는 보살의 행이기도 하다.

지금 불국사에는 자하문으로 통하는 청운교, 백운교 그리고 안양문으로 향해서 난 연화교와 칠보교도 다 막혀 있다. 그런데 관람권 한 장이면 쉽게 불국사의 허리를 뚫고 난 길로 다보탑이 솟아 있는 불국 세계에 이른다. 수행의 계단을 차례로 밟히려 오르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친 불국사는 또 하나의 시끄러운 사바세계일 뿐이고, 무설전에서 울리는 침묵의 법음法音을 듣기 어렵다. 불국에 이르는 문은

공덕을 쌓는 수행에 의해서만 열린다.

불국사 창건 설화에는 두세 가지 공덕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보시布施와 비원悲願과 효행이 그것이다. 창건 설화에 나오는 전생의 대성은 몹시도 가난했다. 그러나 고용살이로 얻었던 밭을 육률회六輪會에 보시함으로써 재상가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하나를 보시해서 만 배를 얻을 것이라고 했던 점개漸開의 축원은 어린 대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었다.

차안으로부터 피안의 세계로 건네 주는 6종의 다리가 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바라밀六波羅蜜이 그 다리이다. 보시는 6바라밀 가운데 하나다. 보시에는 재시財施와 법시法施와 무위시無畏施가 있다. 대성과 그 어머니는 재시를 했지만, 그것이 육률회라는 법회에 쓰여짐으로써 법시를 도운 것이기도 했다. 자기의 재물을 선뜻 내놓아 회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어려운 일을 어린 대성은 실천에 옮겼고 그 공덕으로 재상가에 태어날 수 있었다고 설화는 강조하고 있다. 보시는 중요하다. 남에게 베풀어 주는 일에는 재물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리고 빛나는 눈으로 기쁨을 주는 일을 안시眼施라고 한다. 또 얼굴로도 보시할 수 있고 따뜻한 말씨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훈훈히 녹일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일도 이 세상을 곱게 장식하는 한 떨기 꽃이 된다.

대성은 곰 사냥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했고 더욱 비원이 깊어져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게 되었다고 한다.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자비심으로 세운 서원을 비원이라고 한다. 아미타불의 48원, 약사여래의 12대원 그리고 우리들의 사홍서원 등이 비원이다. 사홍서원을 피갑被甲이라 번역하기도 하는데, 보살의 사홍서원은 마치 갑옷을 입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중생을 건지고 불도를 이룩하려는 굳건한 원은 튼튼한 갑옷을 입은 것과도 같은 것이다. 원효元曉는 “원심願心에 동요가 없는 것을 안주安住라고 한다.”고 한 바 있다. 원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 희망의 손짓이고 깃발이다. 비원은 선심善心이다.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건네 주는 배와 뗏목이다. 불국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 성취된 나라다. 불국사는 대성의 원력에 의해 이룩된 것이다.

대성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불사를 일으켰다고 한다. 곧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금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또 『향전鄉傳』에서는 “수많은 불보살을 설치하여 양육한 수고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이세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적에도 듣기 드문 일이다. 어찌 착한 보시의 영험을 믿지 않겠는가?”고 평했다.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라는 제목을 붙여 ‘효선편孝善篇’에 편입했던 일연의 의도도 대성의 부모에 대한 보은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성은 강조되었는데, 복전福田 가운데의 은전恩田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노력은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하듯 훌륭한 공덕이 된다는 것이다.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데, 주로 불도를 닦거나 불사를 이룩하는 것이 곧 훌륭한 일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생각한 효도인 듯하다.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했다는 것이 곧 이 경우다.

(故 김상현)

참고

문헌

김상현, 1991, 『신라화엄사상연구』, 민족사.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신형식, 1990, 『통일신라사연구』, 삼지원.

이기백, 1979, 『고대 정치사상』, 한국사상대계 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3장

국제질서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

1. 발해의 건국과 남북국시대
2. 당 중심의 국제질서와 신라
3. 일본과의 외교와 교역

1. 발해의 건국과 남북국시대

7세기 말의 국제정세와 발해의 건국

나당전쟁 이후 당 고종은 한반도 지배 야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678년 재차 한 반도에 대한 대규모 원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예상되는 신라의 강력한 저항과 이 시기 당의 서부 지역을 압박한 토번^{吐蕃} 정벌이 더 시급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 뒤 동정^{東征} 논의는 다시 제기되지 못했고 당의 지배 영역은 요동으로 한정되었다.

678년 9월 당은 앞서 토번과 벌인 대비천전투에서 상실한 안서 4진을 회복하려고 18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다시금 출병시켰다. 하지만 청해 부근에서 또다시 토번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이후 당은 토번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부득이 수세적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토번에 발목이 잡혀 신라에게도 패하고, 드디어 세계 지배 야욕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당전쟁의 여파는 고비사막 북쪽까지 전파되었다. 680년대에는 돌궐이 재차 부흥해 유목세계를 통일했다. 돌궐은 고비사막 이북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며 당을 압박하였다. 당시의 돌궐은 서로는 천산산맥에 이르고 동으로는 흥안령을 넘어 서북부 만주 지역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돌궐은 장성 일대에서 당과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그 주력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었다. 돌궐이 흡수말갈에 지방관인 토둔^{土屯}을 둔 것은 8세기 초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 돌궐의 세력이 동부 만주지역까지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676년 이후 동만주 일대는 당·돌궐 중 그 어느 쪽도 세력을 뻗치지 못하는 국제적인 역관계 속에서 일종의 힘의 공백지대였다. 당의 세계 전략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던 696년 요서의 영주^{營州}(지금의 조양)에서도 거란인 이진충^{李盡忠}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은 결국 발해 건국의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대조영^{大祚榮} 집단이 옮겨 살던 영주지역은 대능하 상류로 비교적 건조한 지대였다. 이 지역은 5세기 이래 중국의 동북 관문이요, 동북아시아 여러 종족들의 교역 중심지였다. 7세기 이후 당 제국에 흡수된 종족들로 구성된 기미주^{靑州}(국경 밖에

사는 이민족이나 이민족 국가를 간접 통치하던 곳)가 이 지역에 다수 설치되었으며, 고구려 멸망 후 많은 고구려인과 말갈족이 이 지역에 옮겨와 생활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통제를 받았던 거란족과 말갈족도 영주 부근으로 이주되어 당의 기미주에 예속되었다. 그런데 696년에 이르러 거란족 추장 이진충과 손만영이 영주도독 조문해를 죽이고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무렵 돌궐이 고비사막 남쪽에서 재차 부흥하여 동남으로 세력을 뻗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은 이진충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697년 3월 거란족은 하북의 영평 부근에서 왕효결이 이끄는 당의 군대를 무찔렀고, 기세를 몰아 유주(지금의 북경)까지 공격했다. 이 반란은 당이 돌궐의 힘을 빌려 1년 만에 겨우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진충의 반란은 당시 영주 부근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주 일대에 거주하던 걸걸중상(乞乞仲象)과 그의 아들 대조영도 이때 말갈족 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당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혼란의 와중에 영주를 탈출한 뒤, 요하를 건너 요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에 당의 측천무후(685~704)는 걸걸중상을 진국공(震國公)에,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에 책봉해 일시적으로 화유책을 썼지만, 결국 거란족 출신의 장군인 이해고(李楷固)를 시켜 그들을 공격했다. 이해고가 이끄는 당의 군대는 걸사비우를 죽이는 등 처음에는 큰 전공을 올렸다. 여세를 몰아 이해고 군대는 걸걸중상을 계승한 대조영 집단을 추격하다 천문령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때 마침 해족(奚族)이 요서까지 진출해 통로가 막히자, 당군은 더 이상 추격군을 보낼 수 없었다.

당군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 대조영은 걸사비우가 이끌던 말갈족을 포섭하고, 지금의 길림성 돈화시에 있는 산성자 산성으로 옮겨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곳이 바로 발해의 초기 건국지인 동모산(東牟山)이다. 대조영은 698년에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이라 자처했다. 이 무렵 발해의 영역은 동모산을 중심으로 한 돈화 일대였는데, 이를 훗날 구국이라 불렀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여 년이 지난 698년 건국되었다. 당의 동북 관문인 영주 일대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당에 반기를 들고 동만주 일대

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이로써 7세기 후반 이래 동북아시아 지역은 당나라를 축으로 하여 발해·신라·일본 등이 공존하는 국제관계의 틀이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당의 일원적 지배체제에서 주변 여러 국가가 공존하는 다원적 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역사상 발해의 건국은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시대로 전환을 보기에 이르렀다.

발해와 신라의 첫 교섭

발해는 건국 이래 당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기에 이웃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대조영은 서쪽의 돌궐과 남쪽의 신라에 각각 사신을 보내 당을 견제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하였다. 7세기 후반 돌궐은 당나라에 대항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발해 건국에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협력하였다. 발해는 건국 후 제일 먼저 돌궐에 사신을 파견해 자국의 안정은 물론 당에 대한 공동 전선을 모색하였다. 711년 돌궐의 목철이 당과 화친을 맺은 뒤로 점차 세력이 와해되자, 대조영은 당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발해 고왕은 돌궐에 이어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었다. 발해가 신라와 처음 교섭한 것은 왕실을 개창한 지 2년째가 되던 700년(고왕 2)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대조영이 신라로부터 관동 17등 중 제5위인 대야찬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9세기 최치원(崔致遠)이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북국인 발해가 신라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당이 허가하지 않음에 감사하는 표)에 수록되어 있다.

발해의 연원은 구려가 망하기 전엔 본시 사마귀떼 정도의 부락이었고 말갈의 족속이 강해지자 그 무리 중에 속말이란 소변(小蕃) 있어 항상 고구려를 따라 옮겨 살았다. 그 수령 걸사비우와 대조영이 무후 때 영주로부터 죄를 짓고 도망하여 황구를 점령하여 비로소 진국이라 일컬었다. (중략)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고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추장(酋長) 대조영에게 신라의 제5품인 대야찬을 주었다. (『동문선』 권33 「사불허북국거상표」)

이 기사에 의하면 최치원은 당 조정에서 있었던 신라와 발해의 윗자리 다툼 과정에서 당 소종^{昭宗}이 발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을 사례하면서 건국기 발해와 신라의 관계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최치원의 위의 글은 『삼국사기』나 중국의 정사 등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발해 건국기의 남북국 관계를 전해주는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

최치원은 발해가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전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도 이 기록을 그대로 믿고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고 있다. “말갈의 추장 대조영이 사신을 보내 내부하였다. 그대에 거란은 돌궐에 의지했고 당병은 길에 끊어져 (이들을) 토벌하지 못했다. 이에 대조영은 말갈의 걸사비우 무리를 병합하여,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이라 하였다. 그리고 대조영은 이웃의 도움에 의지하고자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내부하였기에 (신라에서는 그에게) 제5품 대아찬의 관작을 주었다.”

안정복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측 기록에는 700년에 당의 측천무후가 이해고로 하여금 거란 잔당을 치게 하여 이들을 모두 평정하였다고 전한다. 따라서 안정복의 이러한 판단은 당의 거란 잔당 토벌이 자국에 미칠 것을 염려한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도움을 청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요컨대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건국을 신라로부터 인정받으려 했던 사실과, 신라가 발해 사신을 통해 건국자 대조영에게 제5품 대아찬의 관작을 주었다는 사실만 전해 오고 있다. 신라의 관품체제에서 5품인 대아찬은 진골 신분층에 해당하는 상당한 고위직이다. 그러나 관등 수여는 신속^{臣屬}의 의미를 일정 부분 지닌다. 따라서 신라는 대조영에 대해 일단 왕족 대우는 했어도 신하처럼 취급하였다. 이는 신라가 발해를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였음을 말해 준다. ‘번’^蕃, ‘읍’^邑과 같은 표현도 신라가 발해를 번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 시기는 신라가 대당전쟁 이래 당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발해 사신의 도움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신라의 입장에서 발해의 건국은 오히려 방과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면도 있었다.

발해는 신라로부터 5품 대아찬의 벼슬을 받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외교적

실리를 찾고자 하였다. 즉 당과 신라의 접근이 현실화되지 않음으로써 발해는 새 왕조 건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발해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자 당은 705년 사신 장행급을 보내어 화친을 요청했다. 713년 당은 대조영을 발해군왕^{渤海郡王} 흘한주도독^{忽汗州都督}으로,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를 계루군왕^{桂婁郡王}으로 책봉했다.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속에 발해가 편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남북국의 첫 교섭은 양국이 서로 당과의 관계에서 의존이 아닌 자주적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발해 인식과 변천

신라 중대는 진정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삼국 항쟁기의 극심한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윽고 하나로 융합되고 정치 문화를 크게 융성하게 한 시대였다. 동시에 북방에서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해가 건국한 이래 점차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다민족 국가인 발해에 대한 신라의 인식은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 표에는 “(상략) 그들이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고 와서 인접하기를 청하므로 그 추장^{酋長} 대조영에게 비로소 제5품 대아찬의 관작을 주었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발해의 주민구성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신라인들이 발해의 건국자에 대해 ‘추장 대조영’으로 표현한 것은 고구려 계승국가로 인식하기보다는 말갈족이 세운 부락 정도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인의 인식 속에 고구려는 ‘삼한일가^{三韓一家}’ 아래에 통합된 동족이었다. 더구나 발해가 건국 초기 스스로 고구려 계승 국가임을 표방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발해는 건국 초기 주변 말갈에 대한 병합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따라서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완전한 기반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건국 직후임을 감안할 때, 신라가 발해를 말갈과 동일한 종족으로 인식한 것은 이와 같은 발해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발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처음 표방한 것은 727년(무왕 인안 9)이다. 무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상략) 외람되게 대국을 맡아 여러 번을 함부로 총괄하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여의 유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고구려와의 계승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속한 현대 국가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중국학자들은 단순히 당시 발해국의 영역이 옛 고구려국의 영토를 일부 포함하는 현황, 즉 지역상의 그것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본 학자들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외교를 위한 임시적 용어로 발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한편 우리 학계에서는 발해인이 실제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우리 학계의 견해대로 발해 무왕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발해 무왕은 대내적으로 확대된 영토와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계승성과 정통성을 표방하면서 나라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발해왕실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의 강국이었던 고구려 계승국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발해 제3대 문왕(739~793)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천명하였다.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고려국왕 대흥무’라고 하였고, 일본도 발해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왕’이라고 하여 고구려 계승국임을 인정하였다. 발해가 일본과의 교섭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것은 강대국 고구려를 계승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발해는 일본과의 공식 외교에서 고구려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것은 신라의 발해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739년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절과 신라학어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만남은 신라가 발해에 대해 어느 정도 동류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봄 정월 무자 초하루 천황이 태극전太極殿에서 신년축하 조회를 받았다. 발해군의 사신과 신라학어 등이 행렬에 함께 서 있었다. (중략) 갑오 발해군의 부사 윤희장군 기진몽 등에게 관위를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속일본기』 권13, 천평 12)

739년 발해사 기진몽 등 일행이 일본에 도착했는데, 성무천황이 신년조회를 받을 때에 발해군의 사신과 신라학어新羅學語 등이 행렬에 함께 서 있었다고 전한다. 여기서 신라학어란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해 신라에서 일본에 파견된 유학생을 말한다.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절과 첫 만남을 가진 신라는 발해에 대해 상호 비슷한 언어와 생활 습속을 목도하면서 발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신라가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인식하였음은 발해에 대한 호칭의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764년 일본의 다자이후大宰府에서 신라 집사부에 보낸 첩에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 고려국高麗國으로부터 본국에 돌아왔으니 다자이후는 마땅히 문서로써 받들어 알고 곧 알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다자이후에서 신라 집사부에 보내는 공식 문서에서 일본은 발해를 ‘고려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이는 신라 역시 발해를 고려국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8세기 전반 신라는 발해를 말갈과 동일시하여 말갈, 발해말갈, 적국 등으로 호칭하였다. 그런데 발해가 적극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함과 궤를 같이 하여 말갈이라는 호칭 대신에 발해, 고려국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신라가 말갈 국가로 인식할 때에는 말갈발해, 말갈이라고 칭한 반면 고구려 계승국으로 인식하면서 말갈이라는 용어 대신에 발해, 고려국 등으로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도를 통해 본 남북 교섭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과 신라학어의 만남을 통해서 발해와 신라는 상호 동류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747년 당의 수도 장안에서 발해 사절과 신라 사절이 만남으로써 양국 간에는 미약하나마 잠재되었던 동족의식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특히 제3대 문왕(737~793)은 신라와의 상설 교통로인 신라도의 개통을 통해 직접 신라와의 교섭을 모색하여서 주목을 끈다.

발해의 대외 교통로 중에 신라도는 그 중심 거점이 남경 남해부南京南海府이며 이 길에 39개의 역이 있었다. 즉 당시의 신라도는 신라의 국경도시인 정천군과 발해의 책성을 연결하는 교통로였다. 신라도는 신라로 통하는 대표적 통로 중에서 서방로(상경-국내성-한반도)나 해상 항로가 아닌 동해안 육상로를 의미한다. 이 길은 주로

동경(훈춘)에서 청진-경성-북청-함흥을 거쳐 덕원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해 경주에 이른다.

신라도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문왕대 전기에 해당하는 721~757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760년대로 보는 견해이다. 전자의 경우는 721년(성덕왕 20) 북경에 쌓은 장성을 계기로 신라도가 개통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발해가 신라 국경선 가까이 진출하였으나, 신라가 장성을 쌓아 이를 방비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757년(경덕왕 16) 탄향관문을 쌓은 것을 계기로 양국교섭이 전개되었다고 이해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발해가 남하정책을 추진한 결과 남경 남해부가 설치된 시점을 760년대로 보면서 적어도 신라도의 개통은 남경 설치와 비슷한 시점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신라 경덕왕이 정천군을 확보하고 탄향관문을 설치한 시기가 한화정책을 추진하는 757년임을 감안할 때, 양국은 상호 비슷한 시기에 정천군과 책성 사이에 39개의 역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발해 제3대 문왕은 국가 기반의 확립을 거쳐 중앙집권 국가체제를 완비한 군주였다. 특히 중앙·지방제도를 완비하고 3차에 걸친 천도를 통해 해동성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한편 문왕은 일본 및 당과의 교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발해와 신라 상호 간의 동족의식과 통상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특히 안사의 난 이래 당의 국력이 쇠락함에 따라 신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것이다. 당시 신라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발해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군자의 나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었다. 발해 문왕은 신라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한편 신라 경덕왕은 전제적 왕권을 확립한 이래 국가적 위상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경덕왕은 당과의 외교교섭에서도 자립화를 모색하였다. 경덕왕은 대당 외교에 있어 성덕왕대와는 달리 조공사의 파견을 극도로 자제하였고, 숙위의 파견도 없었다. 더구나 경덕왕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고자세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759년 발해를 끌어들이어 신라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즉 일본은 발해를 일본 측에 접근시켜 신라를 견제하고 두 나라의 동족의식 복원을 저지

시키려 시도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라와 발해는 각기 자국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친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2. 당 중심의 국제질서와 신라

나당 국교 재개와 당의 신라 접근

나당전쟁은 신라가 676년(문무왕 16) 설인귀군과의 기벌포 앞에서 벌인 해전을 승리로 이끔에 따라 종결되었다. 길고도 험란했던 나당전쟁은 670년(문무왕 10)부터 676년(문무왕 16)까지 7년에 걸쳤고 신라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당은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겼다. 676년 2월의 일이다. 당의 동북지역 최전방 방어를 담당하던 안동도호부가 평양에서 요동으로 이동한 것은 당의 동방정책이 사실상 후퇴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천하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쏟아 부은 당의 동북아 전략은 나당전쟁의 패배로 완전히 파탄을 맞고 말았다. 이로써 긴 재편 과정에 들어섰던 7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남북국의 성립과 더불어 마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당간의 무력 충돌은 양국 국교 단절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668년(문무왕 8)이후 703년(성덕왕 2)까지 35년간은 당과 사실상 국교 단절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대립 속에서도 당측이 좀 더 능동적으로 신라와의 접촉을 기도하였다. 당은 발해의 등장을 비롯해 수도를 위협하는 동북방(돌궐, 거란, 말갈)과 서방·남방(토번, 토욕혼, 위궤) 등 해외 민족들의 침략에 대한 방비가 긴급했기 때문이다.

나당간의 장기간 대립이 지난 후, 상호간 냉정을 찾으면서 신라의 신문왕이 즉위할 때, 당도 고종을 이어 중종(684)이 즉위하면서 양국간에 국교 재개의 기운이 일어나게 되었다. 681년에 문무왕이 죽고 신문왕이 즉위하자 당 고종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신문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문무왕의 관작을 그대로 이어받게 했다. 당

의 이러한 행동은 단절되었던 나당관계를 복구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신라는 신문왕대 들어와 오랜 전쟁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피폐해진 국내의 제반 사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전후 복구와 체제 정비를 서두르던 신문왕은 당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당의 국교 재개 노력에 대해 신라의 반응은 비교적 냉담했다. 특히 683년 12월 당 고종이 죽고 중종이 즉위하였으나 신문왕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주된 이유는 신문왕 책봉사가 태종무열왕의 묘호를 개칭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의 묘호(廟號) 변경 요구에 대해 신라 조정은 무열왕의 묘호가 당 태종의 그것과 서로 저촉되는지 몰랐고 또 김유신과 더불어 삼한을 통합한 위업을 온 나라 백성들이 경모하였다고 강하게 변명함으로써 당의 양해를 얻었다. 태종무열왕은 중대시기를 열었으며 동시에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던 신라 중흥의 군주이다. 그러한 무열왕의 묘호를 바꾸라는 당의 요구를 신문왕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신문왕은 686년(신문왕 6) 2월 사신을 보내 『예기』와 문장에 관한 서적을 청하고 신라승 원측(圓測)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당의 측천무후는 담당 관서에 명해 길흉요례를 베끼고 『문관사립』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가려 뽑아 50권으로 엮어 신라에 보내 주었다. 측천무후는 고종 사후 중종과 예종을 연이어 폐위하고, 690년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중국 사상 전무후무한 여황제가 된 측천무후는 국내외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던 정국 속에서 신라에 대해 적극적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692년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즉위하자 측천무후는 사신을 보내 신문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효소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당의 이러한 조치에도 효소왕은 답사를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측천무후는 재차 신라에 국교 재개를 시도하였는데, 김인문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김인문은 694년 4월 당에서 죽었다. 이에 측천무후는 김인문의 유해를 신라에 송환해 주었다. 당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외교 공세에 699년(효소왕 8) 2월에 사신을 보내 당에 방물을 바쳤다. 효소왕대 사신이 정삭(正朔)을 받아온 것을 계기로 형식상 종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양국교섭은 2년 후 성덕왕이 즉위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성덕왕대의 번영과 대당 외교

성덕왕(702~737)대는 천년왕국 신라가 극성기를 구가한 태평의 시대로 간주된다. 태종무열왕계의 전제적 왕권은 성덕왕대에 이르러 안정되고, 그 기반 위에 만파식적으로 상징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안정과 번영을 바탕으로 성덕왕은 재위 36년간 46회의 사신을 파견할 정도로 대당 외교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었다.

성덕왕은 신문왕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702년 7월 효소왕이 아들 없이 죽자 국인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성덕왕이 즉위할 무렵 신라가 처한 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삼국통일을 성취함에 따라 백성들은 오랜만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누렸다. 삼국통일로 말미암아 신라의 국가적 역량도 급속히 강대해졌다. 성덕왕이 즉위하기 4년 전인 698년 발해가 건국되면서 당은 신라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드러냈다. 당 현종은 변방 유목민족들의 침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라와의 협력을 통해 발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성덕왕대는 '외교의 시대'로 불리울 정도로 당과의 외교가 활발하였다. 성덕왕은 즉위 후 당과의 관계를 한층 호전시킬 필요를 느껴 사신의 파견 회수를 크게 늘렸다. 모두 46회의 건당사를 파견한 성덕왕대는 나당외교사에서 괄목할 만한 시기에 해당한다.

성덕왕은 714년 2월에 종래의 상문사를 통문박사로 고쳐 외교문서 작성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외교 업무가 한층 분업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양국관계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하정사와 숙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하정사는 신년을 축하하는 사절로서 성덕왕 13년에 처음 파견되었다. 통일전쟁 이래 중단되었던 숙위도 다시 파견했다. 대당 외교사에 나타나는 숙위는 당과 신라 사이에서 고안된 외교적 존재로서 신라 사회의 변천과 함께 표현된 종합적 외교 형태였다.

신라와 당의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활성화되었다. 통일 이래 신라 사회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산업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삼국통일로 각지의 물자가 원활하게 유통됨에 따라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신라의 국가 성장에 힘입어 기술 수준도 향상되었던 것이다. 특히 통일 이래 내성의 역할이 강화됨과 더불어 궁중 수공업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생산품은 대부분 국왕의 사여물과 대외교역품에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성덕왕

때 대당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당교역도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조공의 형식을 빌어 전개되었다.

패강 이남 영토 승인의 의미

732년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발해의 공격에 대책을 마련하던 당 조정은 신라에 대해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즉 당은 신라를 끌어들여 발해를 공동으로 견제하려 했다.

이 시기 발해의 대무예는 흑수말갈의 동향에 예민하게 대응하였다. 대무예의 이러한 대외 강경 자세는 형제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당을 끌어들이므로 신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대될 위기를 초래했다. 발해는 732년(무왕 인안 14) 9월 장문휴(張文休) 등을 해상으로 보내어 등주와 내현을 공격하였으며, 육로로는 요서지방의 마도산까지 진출하였다. 등주를 공격한 장문휴는 등주자사 위준을 죽이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다.

이에 당은 장군 개복순과 발해에서 망명한 대문예를 유주로 보내 군대를 모아 발해를 공격케 하는 한편, 당에 와 있던 신라사 김사란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치도록 요청했다. 당시 당의 힘만으로는 발해를 완벽히 제압할 수 없었으므로 신라를 끌어들이는 이이제이(夷以制夷)의 방법으로 제어하려 했다. 당·발해 사이의 분쟁은 거란·돌궐과 당의 대립에 연동했고, 여기에 신라가 개입함으로써 실제로 광범위한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몰고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733년 7월 당이 성덕왕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영해군사(寧海軍使)’라는 직함을 더해주면서 발해를 남쪽 방면에서 공격하도록 요청해 오자 신라는 이에 응하기로 했다. 『삼국유사』 권2 기이 효성왕조에 의하면 당시 신라에 온 당의 청병 사절단 규모는 무려 604명이나 되었다. 김유신의 손자로 왕의 총신(寵臣)이었던 윤중·윤문 형제를 비롯한 네 명의 장군이 지휘한 신라군은 서해안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그런데 신라는 큰 추위와 눈을 만나 병사들이 반 이상이나 얼어 죽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되돌렸다고 당에 보고했다. 이듬해인 734년 2월 신라의 숙위 왕자 김충신(金忠信)이 발해를 재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상표를 냈다. 7월에 당이 신라에 대해 발

해 공격을 허락하는 칙서를 내렸다. 그러나 신라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

실제로는 신라가 발해와의 싸움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 같지는 않다. 당시 신라는 당과 친선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해의 남하를 저지하는 수준에서 두 나라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관망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의 이러한 정책은 유효했다. 신라는 당의 이이제이정책을 역이용함으로써 735년 3월 견당사 김의충이 귀국하던 즈음에 당에서 패강 이남의 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당과 발해의 국제분쟁에 신라가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는 당에 대한 우의와 친선의 표시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는 신라가 국력의 성장에 힘입어 패강 일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 비록 발해에 대한 협공(揆攻) 자체는 실패로 끝났으나, 당은 신라의 성의와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735년 패강 이남의 영토에 대한 신라의 영유권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다. 당이 패강 이남 영토를 승인한 것은 당이 동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패강 이남의 공식적 승인은 성덕왕의 커다란 외교적 성과였다. 이를 계기로 신라는 북방영토의 개척을 본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컨대 신라는 성덕왕대에 이르러 대당 외교를 통해 대외적 안전은 물론, 북방영토에 대한 본격적 개척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성덕왕은 당과 줄곧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성당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신라 고유의 독자성을 갖고 이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당에 비친 신라, 군자국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동쪽에 군자국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산해경(山海經)』 해외동경편(海外東經)에 의하면 “군자국은 그 북쪽에 있다. 의관을 차려 입고 칼을 차며, 짐승을 기르고 큰 호랑이 두 마리를 옆에 거느린다. 그곳 사람들은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라 하였다. 공자가 “세상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군자가 있는 구이(九夷)로 가겠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관념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오행사상과 연관되어 더욱 발전하였다.

그런데 당대 중국인들은 자신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물을 적극적으로

로 받아들인 신라를 종종 군자국으로 지칭했다. 737년에 성덕왕이 죽고 효성왕이 즉위하자 당은 좌찬선대부 형숙(邢肅)을 신라에 보내 성덕왕을 조문하고 효성왕을 책봉하였다. 738년 2월에 형숙이 효성왕의 책봉사가 되어 장차 신라로 떠날 즈음 현종은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불리며 자못 『시경』과 『서경』을 잘 알아 중국과 유사하다. 그대는 유교에 독실하므로 사신으로 삼는 것이니 마땅히 경의를 강론하여 대국에서 유교가 성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당 현종이 신라를 군자국으로 인식한 사실은 그 후에도 나타난다. 755년에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켜 장안으로 쳐들어오자 현종은 축지방(지금의 사천성)으로 피난했다. 경덕왕은 그 소식을 듣고 사천 지방까지 사신을 보내 현종을 배알했다. 이때 현종이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시를 지어 경덕왕에게 보냈다. 현종은 그 시에서 신라를 “명분과 의리를 지키고, 의관을 갖추어 예절을 받들 줄 알며, 충성과 신의가 있어 유학을 높일 줄 아는 나라”로 평하였다. 현종의 시구는 『산해경』 등에서 말한 군자국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현종 이후에도 당은 신라를 군자국으로 인식하였다. 768년에 창부낭중 겸 어사중승 귀승경(歸崇敬)이 가지고 온 대종의 해공왕 책봉조서와 왕태비 책봉조서에서 역시 신라를 군자의 나라라고 하였다. 또 786년에 건당사 김원전이 가지고 온 덕종의 조서에서는 신라를 “유교의 유풍을 받아 예법이 잘 시행되는 나라”라 하였다. 이처럼 8세기 중엽 당나라 사람들에 의하여 구체화된 신라를 군자국으로 보는 인식은 그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현종대 이후 당이 신라를 군자국으로 인식한 데는 긴밀한 나당관계를 통한 상호 왕래와 교류가 바탕이 되었다. 특히 성덕왕은 재위 36년 동안 46회의 건당사를 파견하였는데, 빈번한 건당사 파견을 통한 성덕왕의 적극적 대당 외교는 당 왕실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물론 현종대의 신라 군자국 이미지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그 이전 진덕왕 원년에 입당한 건당사 김춘추를 매개로 한 나당 군사동맹의 체결, 당의 의관제 채용, 독자적 연호 폐지와 당 연호의 수용 등은 군자국 이미지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친밀한 나당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성덕왕대의 정력적인 대당 외교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마침내 중전의 막연한 상상 속 나라였

던 군자국이 신라로 현실화된 것이다.

중국인의 신라에 대한 군자국 인식은 당이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를 내왕한 당 사신의 면면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8세기 이후 당은 20여 차례에 걸쳐 신라에 사절을 보냈다. 그런데 신라에 온 당 사절은 발해 혹은 일본에 보낸 사절과 달리 당시에 널리 알려진 엘리트 학자였고 유능한 관료들이었다. 특히 경학에 밝고 문학에 재능있는 학자 관료가 많았다. 효성왕 책봉사로 신라에 온 형숙은 현종으로부터 뛰어난 유학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자 관료였다. 당 현종이 형숙을 신라에 보내면서 한 말처럼,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서 학술이 뛰어난 문화국이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국에 파견하는 사절은 상대국의 국세(國勢)와 문화수준에 따라 품격과 지위를 달리한다. 당이 군자국으로 인식하고 있던 신라에 보낸 사절 역시 그것에 걸맞은 사람을 선발하여 보냈을 것이다. 앞서 형숙, 귀승경과 같이 유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뛰어난 학자 관료들이 바로 적격자였다. 8세기 신라에 온 당 사절은 당이 엄선했던 군자국 신라에 파견한 인물들이었다. 신라 역시 자국을 군자의 나라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인들에게 군자국은 중국이라는 명성에 버금가는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당의 수도인 장안은 국제도시로서 각국의 외교사신이 상주하고 있었다. 당의 주변 각국 외국사신에 대한 영접 등급은 당과의 친소관계, 당에 대한 공로의 유무, 국가의 강약 등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다. 신라는 진덕왕대 이래 당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동반 제1열로 대식국보다 상위에 배열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신라의 위상은 후대에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897년에 하정사(賀正使)로 왔던 발해 왕자 대봉예(大封芮)가 당 조정에 대해 발해의 국세를 들어 신라보다 상위 나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당이 이전의 관례를 들어 그의 요구를 거절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는 8·9세기 당 중심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사의 난과 남북국 협력 모색

760년대 중반 동북아 정세는 안사의 난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안사의 난이란 755년 평로·범양·하동의 절도사를 겸임한 안록산이 장안에서 권세를 누리던 양국충을 제

거한다는 구실로 거병한 뒤 763년 사조의가 이회선에게 살해됨으로써 종식된 9년간에 걸친 내란을 말한다. 안사의 난으로 당 조정은 국내적으로 율령체제가 전면적으로 붕괴됨과 동시에 각 지방 번진세력이 발호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하였다. 당은 안사의 난 이후 번진세력이 할거함에 따라 동방 진출의 전진기지였던 안동도호부를 폐지하였다. 안동도호부의 폐지로 당의 요동 지배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안사의 난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쳐 국제관계가 재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안사의 난은 신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덕왕은 즉위 초 당에 사신을 보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당 현종은 찬선대부 위요(魏曜)를 보내 전왕인 효성왕에 대한 조의와 함께 경덕왕의 책립을 시행케 할 정도로 신라에 대한 우의와 배려를 보여주었다. 755년(경덕왕 14)에 안록산의 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당의 혼란으로 현종이 축 지역으로 피신가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신라 조정에서는 당 내부의 사정을 직접 탐색하고 자국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신라는 안록산의 난에 대해 그 여파와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는 764년 7월에 대나마 김재백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조정에서 당시 신라가 군사를 동원해 엄히 경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자 김재백이 “당에서 소요가 발생하고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점에서 알 수 있다.

또 신라에서는 발해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신라는 경덕왕 때에 이르러 발해와 국경을 접한 정천군에 탄향관문을 쌓았다. 이 관문은 757년(경덕왕 16)부터 축성이 시작되었는데 유사시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평상시에는 발해와의 교통에 전진기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해에서도 신라의 움직임과 비슷한 시기인 760년대에 신라도가 개설된다. 신라도의 설치와 신라와의 교섭을 전제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무렵 신라와 발해의 교섭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발해에서도 안록산의 난 이후 전개된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신라와의 교섭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760년대 시점에서 발해의 책성부에서 신라의 정천군에 이르는 지역까지 개설된 39개의 역은 두 나라 간 교통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역로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다.

안사의 난이 진압된 직후인 764년 당은 칙사 한조채를 신라에 보냈다. 그는 당의 내상시(內常侍)로서 발해왕의 책봉 사절로서 파견된 특사였다. 그러나 한조채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라에 들어왔다. 당사 한조채가 발해를 거쳐 신라에 입국한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안사의 난 이후 동아시아 동정을 살펴보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당이 강국으로 성장한 발해로부터 현실적 도움을 얻기 위해 기왕의 우방인 신라와 발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후자의 경우 당사 한조채의 신라 입국은 일본의 신라 침략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즉 이미 당 조정에서는 신라 침략의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 조정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사 한조채가 애써 발해를 경유해 신라로 들어간 배경은 신라와 발해, 당의 삼각관계를 일본 측에 과시함으로써 일본조정을 압박하고자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안록산의 난을 계기로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당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었다. 경덕왕은 당의 정세에 힘입어 좀 더 자주적·능동적 차원에서 대외교섭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덕왕 집권 후반기에는 당과의 관계는 형식화되는 반면에 동북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발해와의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3. 일본과의 외교와 교역

후방의 안전 모색

663년 백촌강 패전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극히 불안정했다. 일본은 나당연합군의 내침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대규모의 방위망을 구축하였다. 내침할 경우 상정되는 주요 통과 지점인 대마(對馬), 일기(壹岐), 축자(筑紫) 등에 664년 변방 방위군과 봉화대를 배

치하고, 축자에는 다자이후(大宰府, 일본 구주에 위치한 외교, 국방을 맡은 관청)를 방위하기 위해 백제유민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수성(水城)을 만들었다. 665년에는 관문해협(關門海峽)의 길목에 장문성(長門城), 북구주(北九州)에 대야성(大野城)을 비롯한 여러 산성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이래 나당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형국이 되었다.

신라가 일본에 사신을 보낸 것은 뒷문을 단속함으로써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는 동시에 백제 멸망 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태도에 불만과 불신이 크게 작용하였다. 신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최소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일본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을 것이다. 특히 신라로서는 대당전쟁 중 당군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후방의 안전을 위해 대일외교는 필연적이었다. 신라는 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고 외교관계를 재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왜인들을 돌려 보내는 등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이때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진 당과의 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신라로서는 후방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신라 조정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도 신속히 반응하였다. 일본의 신속한 태도는 당시 일본 열도가 나당전쟁의 여파로 언제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즉 백제는 이미 멸망했고 고구려마저도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등 동북아 정세가 일본 조정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 내지로의 당의 침략을 막고 새롭게 국가체제를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한편 670년부터 시작된 신라와 당 사이의 군사적 대립 하에서 당군은 671년 정월에 이수진(李守眞) 등을 일본에 보내었고, 백제 잔존세력도 6월에 일본 조정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해 11월에는 또 다시 당에서 곽무중(郭務棕) 등 2000여 인이란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은 당과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필요가 없었다. 672년 곽무중 일행이 귀국한 이래로 일본과 당의 공적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그 결과 일본은 차선책으로 신라와의 외교관계에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7세기 후반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 학문승의 신라

파견이다. 신라사의 일본 방문이나 일본 사신의 신라 파견 및 귀국 시에 일본의 학문승을 대동했다. 신라의 경우는 신문왕대(681~691)와 효소왕대(692~698)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천무조(673~685)와 지토조(687~697) 무렵으로 일본 학문승의 왕래가 빈번했다. 이런 일본 학문승의 존재는 바로 일본이 신라를 7세기 후반 동북아에서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율령에 의거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형성해 가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 일본조정은 신라에 학문승을 파견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치제도뿐 아니라 제반 학문까지도 수용했다. 이 무렵 일본은 신라와의 외교관계를 통해 불교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다.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왜적, 왜구의 침입을 경계해 왔다. 따라서 신라로서는 당시 일본이 중앙집권적 국가로 도약하기를 바랐다. 즉 그들이 군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변모해 갔다면 오히려 신라의 영향력 강화와 대외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7세기 후반에는 비록 약간의 갈등이 노정되기도 했지만 신라와 일본의 화친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무렵 신라의 주된 대일외교 형식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구두 형식이었다. 당시의 양국관계는 중국의 경우와 달리 일정한 서식 없이 전통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식 그대로 양국의 사정이나 필요 여하에 따라 왕래를 하였다. 7세기 후반 시점에서 일본은 아직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화가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신라에 대해 조공관계를 요구하거나 신라에 대해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순정 · 사공의 대일외교

성덕왕대 초기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여전히 우호적이었다. 일본의 율령 제정 이후 705년과 709년에 신라사를 맞이 위한 최초의 대대적 환영식을 거행한 일, 일본의 견신라사가 학문승 의법(義法) 등과 함께 귀국한 사실, 709년 3월에 내일한 신라사 김신복(金信福) 일행에 대한 영접에 당시 일본 최고 실력자 등원불비(藤原不比等)가 직접 참여한 사실, 그의 뒤를 이어 우대신이 된 장옥왕(長屋王)이 그의 사저에서 신라사를 맞이한 사실 등은 두 나라의 관계가 친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외교의 주체는 국왕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때론 정치적 실세 귀족도 외교를 주관하는 이른바 외교의 다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신라의 경우 견일본사의 대부분이 진골귀족 출신이고 외교 주도 세력은 신라 왕권 내의 상대 등과 같은 재상의 반열에 있는 최고위 귀족이 그 배후에 있었다. 이미 647년(진덕여왕 원년)에 김춘추가 상신^{上臣}의 신분으로 대외외교를 추진한 바 있다.

성덕왕 집권 초기 일본과의 외교를 주도했던 대표적 인물로는 김순정^{金順貞}(?~725)을 들 수 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김순정은 725년에 사망하였으나 당시 '상제^{上宰}'의 벼슬에 오를 정도로 유력한 귀족이었다. '상제'란 상급 재상의 의미로 당시의 정치적 실권자를 말한다. 『속일본기』 신구 3년(726) 7월조에는 이찬 김순정의 사망을 애도하는 새서^{璽書}를 귀국하는 신라사 김주훈에게 보내고, 그가 일본에 있어 대단히 소중한 인물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부물^{賻物}을 내리고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김순정에 대한 기록이 경덕왕 즉위조에 의하면, “경덕왕의 비妃는 이찬 순정^{順貞}의 딸이다.”라는 구절 외에는 없다. 일본에서 신라의 권력자로 알려진 김순정이 성덕왕의 아들인 경덕왕에게 딸을 시집보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성덕왕 때의 유력자임을 알 수 있다. 『속일본기』 보귀 5년(774) 3월조의 신라사 김삼현의 발언 중에서도 김순정이 대일외교를 주도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신라국 사신 예부경^{禮部卿} 김삼현^{金三玄} 이하 235인이 다자이후에 도착하였다. 하내수 기조신광순^{河內守紀朝臣廣純}, 대외기내장기천전성^{大外記內藏忌村全成} 등을 보내어 내조한 까닭을 물었다. 삼현은 ‘우리나라 왕의 교를 받들어 옛날의 우호를 닦고 서로의 사신방문을 청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신물과 재당대사 등원하청의 글을 가지고 내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대저 옛날의 우호를 닦고 서로의 사신방문을 청하는 일은 대등한 이웃이야 하며 직공을 바치는 나라로서는 옳지 않다. 또 공조를 국신^{國信}이라고 고쳐 칭한 것도 옛 것을 바꾸고 상례를 고친 것이니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상제 김순정이 (집정하고) 있을 때에는 (사신의) 배와 노가 서로 이어졌으며 항상 직공을 닦았다. 이제

그 손자인 웅^熊이 지위를 계승하여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는) 가문의 명성을 좇아서 (일본 조정을) 봉공^{供奉}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옛날의 우호를 다시 닦고 사신의 방문을 요청하려는 것이다.”(하략) (『속일본기』 권33, 보귀 5)

신라사 김삼현의 발언 중에 본국의 상제 김순정의 때에 항상 배와 노가 서로 이어져 직공하는 일을 충실히 했고, 지금은 그의 손자인 김웅이 정권을 계승하고 일본에 봉공^{供奉}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성덕왕 때 실권자 김순정이 당시 신라의 대일외교 추진자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반일세력인 사공이 중시직에서 물러나고 문림^{文林}이 시중이 된 720년(성덕왕 19)부터 김순정이 사거한 725년(성덕왕 24)까지 상제 김순정이 정권을 장악한 기간으로 보고 있다.

김웅은 성덕왕대에 친일본적 외교정책을 추진한 김순정의 손자이다. 즉 김웅은 일본과의 외교를 매우 중시한 가문의 출신으로서 성덕왕대 중반 이후 소원해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앞장섰다. 신라의 경우 율령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예들로 보아 상대등, 시중을 비롯한 재상급들이 외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일본의 경우도 8세기 중엽 이후는 대보령에 의해 태정관의 장관인 좌대신이 외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속일본기』에는 반일적 외교자세를 취한 사람으로 신라 효성왕과 대부 사공^{思恭} 등을 들고 있다. 즉 752년(천평 승보 4)의 신라사에 대한 외교문서에서 “전왕 승경과 대부 사공 등이 언행이 태만하여 크게 향상된 예를 잃었다.(前王承慶大夫思恭等 言行怠慢 闕失恒禮)”라 하며 비난하였다. 일본 측의 비난은 효성왕과 대부 사공이 대일강경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김사공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718년 1월부터 720년 7월까지 중시를 역임하였다. 이후 8년 간의 공백 기간을 거쳐 728년(성덕왕 27)에 이찬의 관등으로 상대등이 되었으며, 732년(성덕왕 31) 12월에는 정종^{貞宗}·윤충^{允忠}·사인^{思仁} 등과 함께 장군이 되어 성덕왕을 보좌한 인물이다. 『속일본기』에서 그를 효성왕 때의 대부라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효성왕대에도 원로귀족으로서 왕권을 보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일본 규슈 다자이후유적

『속일본기』에는 사공과 효성왕을 반일본적 외교정책을 추진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덕왕대에 반일본적인 경향이 이미 보이고 있다. 즉 사공이 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성덕왕대이며 일본과의 외교가 악화되는 것도 성덕왕대이기 때문이다. 722년 모벌군에 관문을 쌓은 것과 731년 일본국 병선의 격퇴, 734년 신라사 김상정의 ‘왕성국’ 자칭, 736년 일본의 견신라사에 대한 신라 측의 냉대 등은 모두 성덕왕 때에 일어난 일이다. 김순정 사후 725년 이후 사공은 이러한 반일적 외교를 수행한 대표적 인물이었다고 보인다.

성덕왕대에는 신라의 외교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두 가지 방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는 당과의 외교관계를 최우선으로 보아 이를 강화하려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대일외교를 유지하려는 방향이다. 전자는 성덕왕과 상대등 사공이, 후자는 상제 김순정이 중심이었다고 보고 있다.

신라왕자 김태렴의 방일과 교역

752년 윤3월 22일 신라 왕자 김태렴이 일행 700여 명을 동반하고 7척의 배로 일본을 방

문하였다. 김태렴은 조를 바치고 “우리나라는 일본 조정과 예부터 끊임없이 배를 보내 친교를 계속해 왔다.”라는 말을 전했다. 천황은 조서를 내려 신라가 신공황후 이후 일본의 번영으로서 예를 취해 왔음을 말하고 효성왕과 사공시대에 신라가 일본에 예를 결하였음을 비난하였다. 6월 22일 김태렴 일행은 대안사와 동대사에 가서 부처에게 예배를 드리고 가지고 온 『법화경』, 『두타경』을 바쳤다. 김태렴 일행은 동년 7월 귀국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752년 1월 일본은 신라에 사신을 파견했다. 그리고 그해 윤3월 신라는 왕자 김태렴을 비롯한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였다. 성무천황의 동대사 대불조성 사업을 이어받은 광인^{光仁} 천황은 752년 4월에 거행할 예정인 대대적인 동대사 대불개안 의식을 준비하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신라 사절의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경덕왕도 광인천황의 초청에 응해 대불 완성을 축하하는 사신단을 보냈다.

신라가 왕자 김태렴 등 사신단을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하나는 신라가 당시 한반도 북부에서 국경을 맞댄 발해와 대립한 상황에서 일본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국 보전책의 일환으로서 대량의 문물을 가지고 일본이 원하는 번국의 예를 갖춰 입조했다는 견해이다. 이밖에도 동대사의 대불개안을 축하하는 사절이라고 보는 견해, 무역의 목적이 강하였음을 지적하는 견해, 일본에 영합하는 공조사 파견이란 정치적 목적과 함께 교역활동의 목적도 수반되었다는 견해, 대안사·동대사 참배와 교역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편법이라는 견해들이 있다.

당시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사신의 왕래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하곤 했다. 일본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따금씩 왕래하는 신라 사신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사실은 752년의 교역 상황을 짐작케 하는 일본 쇼소인 소장 첩포기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내의 염물^{念物}이라는 문구 속에서 엿볼 수 있다.

「매신라물해」는 일본 귀족이나 귀족의 대리인이 신라물을 사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제출한 문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 「매신라물해」는 무역하기 전에 구입 예정 품목과 가격을 적어 담당관청에 제출한 것이다. 「매신라물해」에는 이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이

보이는데, 5위 이상의 귀족이나 귀족의 가령(家令, 즉 대리인들이었다. 8세기에 5위 이상의 관인은 약 100명 정도였는데, 신라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남아 있는 「매신라물해」는 752년 제출한 문서 중의 일부이다. 그러나 다양한 신라 무역품의 품목이 등장하므로 당시 일본 귀족들이 구입하기를 원하였던 신라의 물품은 향료, 약재, 안료, 염료, 금속, 기물 집기, 불교용구, 화장품, 섬유제품, 잣, 가죽 등 100여 종 200점 가량이었다. 이 물품들 중에서 향료와 약재, 염료 등은 대부분 신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었다.

위에 열거한 향료는 중국 남부와 서부,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등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약재도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서역, 인도 등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염료 중에서 소방은 타이와 미얀마 등에서 생산된다. 이 상품들은 신라 상인이 당에서 구입한 것을 다시 일본에 수출한 것이다. 신라가 중계무역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물품 중에서 금속, 기물 집기, 숙포, 가죽 제품, 꿀 등은 대부분 신라에서 생산되었다. 황금이나 사발, 양탄자, 인삼, 잣 등은 신라의 특산품으로 유명하였다.

신라사 김태렴 일행의 일본 방문은 외교와 교역을 병행한 유례없는 공적 관계이다. 동대사의 대불조영을 통해 호국불교를 지향하려는 성무천황에게 있어 신라 불교와 그에 관련된 물자의 조달은 긴요한 요소였다. 신라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함과 동시에 경덕왕 자신의 권위는 물론 높은 수준의 신라 문화를 일본 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했다. 따라서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동일문화권에 속한 신라와 일본이 비록 외교적으로 갈등관계를 노정하고 있었음에도 두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개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일본 쇼쇼인 소장 모전

일본의 신라침공 계획과 신라의 대응

신라사 김태렴 일행의 귀국 후 신라와 일본의 대립의식은 날로 증가했다. 8세기 들어 일본은 천황 중심의 율령 이념이 더욱 심화되면서 신라에 대한 반발심, 열등감, 국가적 경쟁심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75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이 발해를 통해 알게 된 당의 혼란을 틈타 신라에 대한 침략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일본 조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758년 발해로부터 귀국한 소야조신전수(小野朝臣田守)는 당에서 일어난 안사의 난에 대한 소식을 일본 조정에 보고하였다. 안록산의 난이 전해지자 일본 조정은 다자이후에 칙을 내려 “안록산은 교활한 놈이다. 하늘을 어기고 역모를 일으켰으나 일이 반드시 불리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서쪽으로 도모할 수 없어서 도리어 해동을 칠 것이다.”라고 하여 위기의식에서 방비 태세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대륙의 정세 변화와 관련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발해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이처럼 발해와 일본 간에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759년부터 등원중미려(藤原仲麻呂)의 주도 하에 신라 침공계획을 추진했다. 759년 6월에는 다자이후에 ‘행군식’, 즉 동원계획을 입안시켰으며, 8월에는 대재수(大宰帥) 삼품 선친왕을 향추묘(香椎廟)에 보내 신라를 칠 것을 보고하였다. 9월에는 구주지방에 거주하는 신라계 도래인에게 본국에의 귀환을 허가한다는 포고가 나왔으며 각도에 명하여 배 500척을 건조하게 하였다. 10월에는 다시 발해로부터 보국대장군 고남신이 파견되어 다음해 3월에 귀국했다.

일본의 신라 정토계획은 762년 겨울까지 계속되는데 그중인 760년 9월에 신라가 외교관 김정권 등을 파견하였다. 신라는 구주지방에서 귀국한 신라계 도래인들로부터 일본 측의 침략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일본의 내정을 살펴보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양국 간에는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교섭이 있었을 듯하나 신라 정토계획을 중지시킬 정도까지는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듯하다.

761년 정월 일본은 신라 정토계획을 위해 미농(美農)·무장(武藏) 두 지역의 소년 20인씩에게 신라어를 배우게 하였으며, 11월에는 동해·남해·서해 삼도의 절도사가 임명되었다. 762년 10월에는 발해로부터 자수대부 왕신복 등 23인이 파견된다. 762년 11월 일본은 다시 향추묘에 제사를 지냈다. 일본은 대신라외교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처럼 신공황후를 제신으로 하는 향추묘에 제사를 지냈다.

763년 2월 신라는 급찬 김체신 이하 211인을 일본에 보냈다. 이때의 신라사는 조를 바치러 왔다고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외교형식에 맞춰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다. 신라사가 파견된 것은 신라 정토계획의 추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당시 신라 정토계획은 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었다. 등원중마려의 세력 약화에 따라 점차 호지부지 되어가고 있었다. 763년 8월 신라 정토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일본의 신라 정토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의 추진과 중지의 배경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일본 학계의 통설은 758년 발해에 파견된 소야전수의 정보로부터 안록산의 난으로 당이 신라를 후원해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발해와 제휴해서 신라를 정벌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즉 안사의 난을 계기로 발해와 신라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발해는 일본의 신라 정토계획에 대해 적극 또는 간접적으로 협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신라 정토계획이 중지된 요인에 대해서 일본 학계는 정토의 입안자 등원중마려의 실각이라는 국내적 정치정세의 변화 때문이나 일본과 제휴했던 발해가 대당관계의 호전으로 일본과의 외교방침을 전환함에 따라 일본 독자로 신라 정토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등원중마려 정권이 그의 정치적 전제화를 위해 국내의 비판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설, 신라 정토계획을 주도했던 것이 일본이 아니라 발해였다는 견해, 일본이 주도했지만 발해가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식상으로는 동조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

요컨대 등원중마려가 일본 내에서 신라에 대한 침략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일본 지배층의 신라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 반신라 감정 등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당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신라의 국제적 위상이 일본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본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와 일본의 갈등과 다자이후 교역

8세기에 들어 일본은 천황제 율령국가를 표방하면서 중화사상을 모방해 일본과 신라 간에 새로운 질서를 규정하였다. 즉 일본은 종주국, 신라는 부庸국이라는 상하의

차등적 질서를 규정하였다. 701년 대보율령 편찬에 이어, 716년 양로율령 편찬을 계기로 일본 지배층은 신라를 조공국, 번국으로 보려는 인식이 고착화되었다.

그런데 8세기 중엽 이래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국은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교류는 활발하였다. 즉 일본은 신라에 대한 경쟁의식 속에서도 신라물자만은 받아들이고 있다. 740년(천평 12) 장문국에 도착한 일본의 견신라 사절에 대한 조치를 묻는 대장군 대야조신동인에게 이들이 신라에서 가져온 선상의 물자는 편의에 따라 현지에 보관하라는 칙서를 내렸다. 이는 신라로부터 가져온 물자가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738년 이래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형식을 무시하는 대신, 다자이후에서 교역하는 쪽을 택하였다. 다자이후에 입국한 외국사신이라면 일단 체제는 보증받아 입경하지 못하더라도 무역은 할 수 있었다. 이른바 ‘다자이후 교역’이란 국가의 통제 하에 다자이후에서 감독·관리하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신라의 대일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본 조정은 768년 10월에 신라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다자이후의 면繻을 조정의 중신들에게 하사한다.

좌우대신 등원조신영수·길비조신진비에게 대재면大宰綿 각 2만둔, 대납언화大納言諱 백벽왕과 궁삭어정조신청인弓削御淨朝臣清人에게 각 1만둔, 중 2위 문실진인정삼文室眞人淸三에게 6천둔, 중무경中務卿 중3위 문실진인대시文室眞人大市와 식부경式部卿 중3위 석상조신택사石上朝臣宅嗣에게 4천둔, 정4위하 이복부여왕伊福部女王에게 1천둔을 내린다. 신라교관물을 사게 하였다. (『속일본기』 권29, 신호경은 2년 10월)

다자이후의 면을 받은 인물들은 최고 관부인 태정관을 구성하는 공경들과 8성의 장관 그리고 황족들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다자이후의 면은 총액 8만 5천둔이다. 769년 신라사 김초정 등 일행이 다자이후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일부 특권층은 관리를 파견하여 다자이후에서 신라 교관물을 구입했을 것이다. 일본의 『연희식』 대장성 조항에는 외국 사신이 내조하여 교역에 응하는 자와 관

런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신라 사절단은 입경할 필요 없이 다자이후에 머물면서 교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자이후는 701년 대보율령에 규정으로 설치된 이래 외교교섭 사무를 담당 하던 관청인데, 그에는 당, 신라와의 교역을 위해 교관용의 재원이 비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외국사절이 입경할 필요없이 다자이후에 머물러 있다가 방환되더라도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현존하는 문서에서 확인된 품목만도 120여 종에 달하는 신라의 교역물은 당시 나라(奈良) 귀족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호품이었고, 많은 관인층들의 소유욕을 유발시키는 사치품이었다. 일본 귀족층의 신라 교관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신라와의 대규모 교역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8세기 이래 신라의 대일외교에서 기본 자세는 무역을 통한 이익 추구에 있었다. 따라서 신라로서는 다자이후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평성경(平城京)까지 가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의례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았다. 신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형식에 응하지 않고도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774년 3월 일본에 간 급찬 김삼현 이하 235명의 신라사 역시 내조의 이유를 신라의 부물과 견당사 등원하청의 서간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사절의 임무와 규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별도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승선한 선박에는 다량의 신라 교역물이 탑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신라사는 입경하지 않고 다자이후에서 연회를 받고 귀국하였다. 신라사가 입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이후 면을 확보한 중앙 귀족들이 가인을 통해 내착지인 다자이후에서 교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속일본기』 천평 보자 3년(759) 9월조에는 신라로부터 민간인의 이주가 끊이지 않음을 전하고 있고, 보귀 5년(774) 5월조에도 신라로부터의 표류민 내착을 기록하고 있다. 사적으로 간 사람들 혹은 표착민 중에는 교역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착하여 통역 등으로 교역을 중개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정치적 성격의 사절 왕래는 점차 희박해지고 신라사의 일본 왕경에의 입경도 중지된 상태였다. 국가에 의해 공인 내지 묵인된 대신라 교역으로 다자이후 주변에는 관민이

포함된 상인층과 상권이 형성되고 있었다. 또 764년 이후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는 집사성과 다자이후 간의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8세기 다자이후를 매개로 한 관리 교역체제는 9세기 이래 민간 주도의 다자이후 교역으로 표면화되었다.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는 공식적 교섭은 779년 끝난다. 그 이유로는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발해와 당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른 동아시아의 긴장 완화로 신라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므로 일본이 원하는 그들 중심의 국제관계 수립은 어려웠다. 신라를 상대로 천황제 율령국가의 중화이념을 실현하려고 한 일본의 의도는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8세기 중엽부터 신라의 민간상인들이 활약을 함으로써 공적 교역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조이옥)

참고

문헌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 - 견당사연구』, 일조각.

박남수, 2011,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연민수, 2003, 『고대 한일교류사』, 해안.

연민수 · 이기동 · 왕사오푸 등, 2011,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이성시 지음 · 김창석 옮김,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 신라 · 발해와 정창원 보물』, 청년사.

조이옥, 2001, 『통일신라의 북방진출연구』, 서경문화사.

조이옥, 2013, 『8세기 신라와 일본의 대재부 교역』, 『신라사학보』 29.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 남북국의 형성과 발전』, 신서원.

제 3 편

지배체제의 변화

제1장
지배세력의 갈등과
한화정책 추진

제2장
진골귀족의 반발과
개혁의 좌절

제1장

지배세력의 갈등과 한화정책 추진

1. 왕비의 교체와 친위세력의 강화
2. 근시기구의 확충과 유교이념의 강화
3. 한화정책의 추진
4. 귀족세력의 대응과 왕권의 약화

1. 왕비의 교체와 친위세력의 강화

성덕왕은 발해와 당^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친당정책을 전개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의 요청에 따라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격하였다. 기상 조건의 악화로 인해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신라와 당의 관계는 나당전쟁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대발해, 대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특히 발해와는 전투까지 겪었으므로 군사적 긴장은 더욱 커졌다. 이때 발해는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고자 신라의 배후세력인 일본과 우호관계를 형성하며 압박을 가하였다.

이 무렵 신라는 성덕왕대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며 대일관계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대당전쟁 당시 주변과의 안정적 외교가 절실하였던 신라는 일본의 요구를 반영한 외교 형태를 유지한 바 있는데, 바깥 환경이 변하자 대일관계의 틀도 바꾸려 한 것이다. 신라가 스스로 왕성국^{王城國}이라 칭하며 일본을 번국으로 대우하려 하자,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생겼다. 이때 신라 내부에서 대일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김순정이 죽은 뒤여서 상황은 악화되어 갔다. 결국 경제적 교역은 지속되었으나 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일본 규슈의 다자이후를 통한 교역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성덕왕이 죽고 효성왕이 즉위한 뒤 신라 내부의 정치적 안정은 흔들리고 귀족세력 간 대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후궁의 아버지인 파진찬 영종이 모반을 일으킬 정도로 귀족사회의 내분은 심각했다. 결국 효성왕이 742년(효성왕 6) 재위 6년 만에 후사없이 죽고 동생 현영^{憲英}이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경덕왕이다. 그는 즉위 초반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왕권을 안정시켜야만 했으며, 악화되던 대내외적 상황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바로 경덕왕대는 정치 사회적 변화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외척세력의 비대화와 분열

효성왕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른 경덕왕은 왕권의 강화가 최우선적 과제였다. 효성왕대

에 드러난 귀족사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악화되던 대외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배체제의 안정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효과적일 수 없었다. 효성왕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친동생이자 태자였던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일견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효성왕은 재위기간이 6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그 때문인지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성덕왕대 이래의 정치적 안정이 깨어지고 귀족세력간 대립과 마찰이 표면화되었다. 740년(효성왕 4)에 후궁의 아버지였던 파진찬(波珍飡) 영종(永宗)이 모반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모반은 반역을 의미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쉽게 벌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은 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효성왕 때의 기록에 따르면 “영종의 딸이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왕(효성왕)이 매우 사랑하여 은총이 날로 더하자 왕비가 질투하여 죽인(族人)과 모의해서 죽이려 하였다. 영종이 왕비 종당(宗黨)을 원망하여 모반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사건의 발생 원인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왕실의 외척이 하나의 통일된 정치 집단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외척세력 안에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 세력을 형성했음을 나타낸다. 반란의 주동자였던 영종은 파진찬의 관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신라의 17관등 가운데 제4관등에 해당하며 진골귀족만이 오를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후궁은 왕비와 비교해 사실상 신분적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모반의 원인은 신분적 갈등이 아니라 왕비와 후궁의 지지세력 사이의 권력투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왕비와 종당(宗黨)이다. 기본적으로 신라는 왕실도 1부1처였는데, 왕비와 후궁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후대인 조선시대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에는 내명부(內命婦)가 있어 왕실내 비(妃)와 빈(嬪)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위계질서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었다. 이 무렵의 신라 역시 그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위계질서는 정치세력과 무관치 않았다. 조선시대 비빈 간, 또는 후궁 간 질서와 반목이 있었고, 거기에 외척 또는 정치세력이 관련되어 사화(士禍)나 환국(換局)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 시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영종의 딸이 효성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왕비와 그 종당이 모의를 했다는 것은 시대만 다를 뿐 판박이다. 아마도 이러한 극한 정치적 대립이 초래된 배경에는 외척세력 간 갈등이 직접적 원인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귀족세력 내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성덕왕대부터 외척으로서 영향력이 컸던 김순원 세력은 효성왕대에도 남비(納妃)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졌다. 김순원 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쪽 귀족세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기감은 증폭되었다.

사실 김순원은 전왕인 성덕왕의 두 번째 왕비인 소덕왕후의 아버지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 자신의 딸 소덕왕후가 낳은 외손자인 효성왕에게 또 다른 딸을 출가시킴으로써 2대에 걸쳐 왕실의 외척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인 이자겸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아마도 영종의 딸이 제거된 것은 김순원과 같은 기존의 외척세력에 맞서려다 실패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김순원을 중심으로 한 외척의 힘은 막강했다. 그들은 중대 왕실의 옹호자인 동시에 권력자이기도 했다. 중대에 김씨 족내혼이 관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왕이 이모와 혼인하는 상황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었다.

왕제에서 태자로

중대에 들어서 무열계 왕실의 배타적 집권체제에 불만을 가진 귀족세력은 효성왕대 영종의 모반을 계기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려 하였지만 그 의도가 물거품이 되었다. 여기에는 김순원 가문을 중심으로 한 외척세력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강화된 왕권을 통해 한층 안정된 외척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효성왕은 후비로 혜명왕후(김순원의 딸)를 입궁시킨 2개월 뒤인 739년(효성왕 3) 5월 자신의 동생인 현영을 태자로 삼았다. 사실 국왕이 아직 젊고 왕비도 새로 들인 마당에 동생을 태자로 책봉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태자로 책봉되는 과정에는 외척 김순원 세력의 역할이 있었다.

당시 현영은 태자 시절 이미 혼인한 상태였는데 상대는 삼모부인(또는 사랑부인)으로서 김순정의 딸이었다. 김순정은 성덕왕 때 대일외교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었다. 이 시기 효성왕이 현영을 태자로 책봉한 것은 귀족세력들로부터 중대 왕실을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김순원 세력은 왕실의 후계 구도까지 개입함으로써 정치적 미래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시키려 한 것이다. 딸을 왕비로 들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당(唐)으로부터 공식적 책봉을 받지 않았으므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740년(효성왕 4) 3월 당으로부터 사신이 와서 왕비를 공식 책봉함으로써 외척인 김순원 세력은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귀족세력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다. 740년(효성왕 4) 7월에 “다홍색 옷(緋衣)을 입은 여자가 예교(隸橋) 아래서 나와 조정을 비난하면서 효신(孝信) 공의 문 앞을 지나가더니 홀연히 없어졌다.”라 한데서 그러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효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련 기록이 별도로 전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 정국을 주도한 세력 중 일부이거나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던 귀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효성왕 후반기에 불만을 가진 반왕과 귀족세력의 움직임이 표면화된 것으로 불안정한 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혜명왕후의 입궁과 책봉시까지의 기간에 김순원 세력은 무열계 이외의 귀족세력들로부터 왕실과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태자책봉이라는 정치적 조치를 이끌어냈다. 결국 정국은 김순원·김순정 가문 등 외척세력의 의도대로 운영되었고, 2년 뒤 효성왕이 후사 없이 죽자 태자 현영(경덕왕)이 즉위하게 된 것이다. 즉 그의 즉위에는 형식상 왕위계승자라는 지위 이면에 외척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관련되어 있었다.

삼모부인의 출궁과 만월부인의 입궁 - 김순정 가문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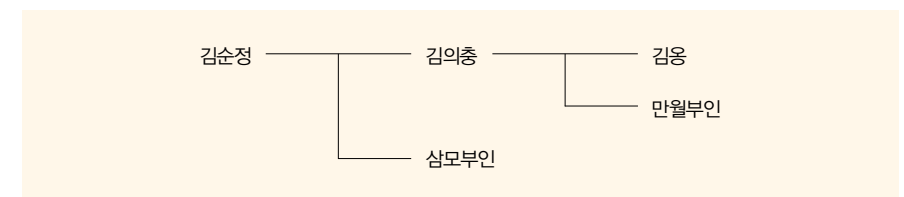
경덕왕은 즉위 후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갔다. 가장 중요한 인적 기반의 재편이 필요했다. 주요한 자리는 효성왕대부터 지위를 강화한 외척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만의 새로운 친위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외척세력은 그가 즉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통치에 안정적 지지 기반으로 삼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외척세력이 경덕왕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그를 절대시하며 받든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외척이 건제의 대상이 된 것

은 중대 전제왕권의 정국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대의 전제정치는 강력한 관료제에 입각한 율령정치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그 밑바탕은 극히 소수의 귀족세력이 외척으로서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외척은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대하며 또 하나의 권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덕왕은 전왕인 효성왕대에 왕의 측근으로서 활약했거나 골품제 하에서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차별받던 6두품 세력을 적극 등용하면서 친왕과 세력의 형성에 힘썼다. 먼저 외척세력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743년(경덕왕 2) 4월 서불한 김의충(金義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새로운 왕비가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던 왕비, 즉 삼모부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가 된다.

『삼국유사』 왕력편에 따르면 경덕왕은 “처음 비는 삼모부인으로 궁중에서 폐출되었고 후사가 없다. 후비는 만월부인으로 시호는 경수왕후이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책 기이편에는 “(경덕왕이) 후사가 없어 왕비를 폐하고 사랑부인에 봉했다. 후비 만월부인의 시호는 경수태후이니 의충 각간의 딸이다.”라 되어 있다. 경덕왕은 첫째 왕비인 삼모부인에게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자, 그녀를 출궁시키고 새 부인을 맞이한 것이다. 왕비를 폐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지만 왕실의 후계 구도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 모순된 과정은 아니었다. 이미 선왕인 신문왕과 성덕왕대 왕비의 출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표 1. 김순정 가계도



하지만, 왕비가 출궁된 시점을 생각해 보면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743년(경덕왕 2) 4월 새 왕비가 입궁하였으므로 삼모부인의 출궁은 그 이전에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일반 백성이 아닌 왕실의 혼례라면 준비와 진행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

되었을 것이므로 전 왕비의 출궁은 몇 달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742년(경덕왕 원년) 내에 모든 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삼모부인이 출궁되면서 그녀의 가문이 반발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삼모부인은 새로이 입궁하는 만월부인과는 고모와 조카의 3촌 관계 혈족이다. 즉 출궁된 왕비와 입궁하는 왕비가 한 가문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문왕과 성덕왕 때 왕비의 출궁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왕비의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외척인 김순정 가문의 적극 협력 하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출궁된 삼모부인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 같은 집안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노선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하대를 거치며 귀족 가문이 분지화_{分枝化}되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 예로는 선덕왕_{宣德王} 사후 김정신_{金敬信}과 왕위계승을 벌이다 실패한 김주원_{金周元} 가문을 들 수 있다. 그의 장남인 종기는 시중을 역임하며 주류세력으로 남아 활동한 반면, 차남인 헌창은 부친의 왕위계승 실패에 불만을 품고 난(822)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삼모부인과 가문의 일부가 반왕파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김순정 가문의 정치적 움직임은 김웅_{金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751년(경덕왕 10) 4월에 중시_{中侍}가 되었다가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건재했다. 성덕대왕신종(속칭 에밀레종)에 새겨진 글을 보면 김웅은 종의 제작에 있어 최고 책임자로서 중앙 5개 관부의 장관직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 병부령, 전중령, 사어부령, 수성부령, 감사천왕사부령 등인데, 더하여 상재상_{上宰相}이라는 의미를 지닌 상상_{上相}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어 그 위세를 가늠케 한다.

더욱이 그가 이러한 직책을 맡은 시기가 760년(경덕왕 19) 이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때는 경덕왕의 한화정책이 시행된 이후로서 전제정치가 정점을 지나던 무렵인데, 그는 실권자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 전제왕권의 적극적 옹호자였다. 『속일본기』 광인천황 5년(774) 3월에 “본국 상재_{上宰} 김순정 때에 배가 계속 찾아오며 항상 직공을 닦았는데, 지금 그의 손_孫인 김웅이 뒤를 이어 집권하며 봉공

하였다.”라 한 부분에서 그가 삼모부인과 혈연관계임을 알 수 있다. 손_孫을 자손의 의미로 보아 아들로 파악한다면 그는 삼모부인과 남매지간이며, 손자로 본다면 고모와 조카 관계가 된다. 이러한 혈연관계를 토대로 할 때 삼모부인이 출궁되던 때에 그가 반왕적 세력이 되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삼모부인의 출궁은 경덕왕과 김웅을 비롯한 외척세력의 정치적 협력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김순정 가문은 친왕세력으로서 중대 전제왕권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 일관되게 활동하고 있었다. 더불어 외척세력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되었다. 748년(경덕왕 7) 8월에 태후인 혜명왕후의 거처를 영명신궁으로 옮기게 하였다. 새로이 궁실을 조성하여 옮겼다는 점에서 왕실의 어른을 대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왕실의 상징적 인물이 머무는 거처를 새롭게 했다는 것은 중대 전제왕권의 권위를 정립함으로써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경덕왕의 또 다른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친위세력의 재편

경덕왕은 후사가 없자 즉위 직후부터 왕비의 교체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효성왕대에 불만이 커진 반왕파 귀족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왕비의 교체에는 태자 시절부터 관계를 유지했던 측근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 같다. 효성왕 때 정치 상황에서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삼국유사』 피은편 신충패관조에 “효성왕이 태자로 있을 때 어진 선비 신충_{信忠}과 더불어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며 일찍이 말하기를 ‘훗날 만일 그대를 잇는다면 저 잣나무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니 신충이 일어나 절을 하였다. 몇 달 후에 효성왕이 왕위에 올라 공신_{功臣}들에게 상을 주면서 신충을 잇고 등급에 넣지 않았다. 신충은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이니 나무가 갑자기 말랐다. 왕이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하니 그 노래를 가져다 바쳤다. 왕은 크게 놀라 말하기를 ‘정무가 복잡하고 바빠서 골육을 거의 잊을 뻔했다.’ 하고는 신충을 불러 벼슬을 주니 잣나무가 다시 소생하였다. (중략) 이로 말미암아 왕의 총애가 양조_{兩朝}에 두터웠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신충은 효성왕이 즉위하기 전부터 측근으로 활약했음이 보인다. 효성왕이 즉위 후 그를 잠시 잊었다

가 다시 등용했다는 일화이며, 효성왕과 경덕왕대에 걸쳐 국왕의 측근으로서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사료에서 왕이 잠시 잊었다고 했는데 효성왕대 정국을 고려한다면 효성왕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반대세력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바로 등용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중대의 전제정치 속에서 세력이 커진 반왕과 세력을 견제하려던 조치였다고 추측된다. 하지만, 그는 739년(효성왕 3)에 중시였던 의충이 죽자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교체된 기록이 없으므로 그는 경덕왕 즉위 초반까지 재임하였고, 후반기에는 최고 관직인 상대등을 역임하면서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신충은 효성왕은 물론 경덕왕의 최측근으로서 활약했다고 하겠다. 경덕왕의 궁극적 목표가 한화정책을 통한 전제정치의 구축이었고 신충이 이를 책임지고 추진했다는 상황이 그를 증명해 준다. 그는 효성왕과 경덕왕 대부터 친왕과 귀족의 핵심으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삼모부인의 출궁과 만월부인의 입궁이라는 큰 사건이 김순정 가문의 협력과 이들의 정치적 조언 속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살펴지는 인물이 이순李純이다. 설총薛聰이나 강수强首가 6두품 계층의 인물로 중대 전제왕권의 성립기에 학문이나 외교분야에서 국왕 측근으로 활약했던 것처럼 이순 역시 국왕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 경덕왕 22년 8월조에 “대나마 이순은 왕의 충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않고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왕(경덕왕)을 위해 단속사斷俗寺를 세웠다. 뒤에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곧 궁문에 가서 간하며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옛날 하나라의 걸왕이나 은나라의 주왕이 주색에 빠져 황음일락荒淫日樂을 그치지 않다가 이로 인해 정사政事가 기울어져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대왕은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하십시오.’라 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정지하고 곧 그를 방으로 불러들여 불교의 오묘한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을 며칠 동안 듣다가 그쳤다.”고 한다.

그는 경덕왕의 총애를 받다가 은퇴한 후에도 왕에게 간언하고 있다. 그가 언

제 출가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삼국유사』 피은편 신충패관조의 기록에 따르면 “천보 7년(748) 무자에 50세가 되자 조연소사槽淵小寺를 고쳐 지어 큰 절을 만들고 단속사라 하였으며 자신도 삭발한 후 법명을 공평장로孔宏長老라 했다. 이순은 절에 거주한지 2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정리하면 이순은 천보 7년(748)인 경덕왕 7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출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경덕왕 즉위 시부터 7년간 벼슬하며 왕의 최측근으로서 활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신충과 더불어 경덕왕 재위 전반기 정국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말해 준다. 그의 마지막 관등이 대나마(10관등)였다는 점에서 5두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6두품 세력의 활동 범주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이순은 이 무렵 활동했던 6두품 세력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만월부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그녀의 아버지인 김의충도 주목된다. 물론 그녀가 입궁할 당시 의충은 이미 739년(효성왕 3)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성덕왕대 대당 외교에서 활약했다는 점에서 중심세력으로 상징될 수 있다. 전 왕비인 삼모부인의 아버지 김순정이 대일외교에서 중심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왕비의 교체가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속일본기』 광인천황 5년(774) 3월조를 보면 “상재上宰 김순정 때에 왕래가 서로 잦았고 당시 직공職貢을 닦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김순정은 725년 6월 30일에 죽었으므로 자신의 딸이 왕비로 입궁할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그렇지만 가문의 영향력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삼모부인의 출궁과 만월부인의 입궁은 대외교류의 면에서도 상징성이 큰 사건이었다. 대당 외교가 다시 신라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개될 정국에 중요한 계기였으며,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예고했다. 신라의 지방제도와 중앙관제가 중국식으로 개편되는 한화정책의 추진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신충과 같은 즉위 전의 측근세력, 이순과 같은 6두품세력, 김의충으로 상징되는 대당 외교 중심세력 등은 경덕왕의 재위 초반 측근으로서 새로운 친위세력으로 외척을 배제하고 집권기반을 강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맡았다.

2. 근시기구의 확충과 유교이념의 강화

집사부의 개편과 외척세력 견제

경덕왕은 김순정 가문의 협조 속에서 삼모부인의 출궁과 만월부인의 입궁을 마무리하고, 신충과 이순 등의 활약 등을 통해 즉위 초반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었다. 자신의 구상대로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그는 왕비 교체 다음 해인 744년(경덕왕 3) 정월에 중시中侍를 새로 임명하였다. 739년(효성왕 3) 중시에 임명된 신충이 5년 만에 교체된 것이다. 이는 왕비 교체라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그에게 휴식과 동시에 새로운 임무를 맡기기 위해 충전의 시간을 준 것 같다.

중대에서 집사부는 왕정의 기밀사무를 담당한 주요 관부였다. 그러한 관부의 책임자가 경덕왕 즉위 이후 처음으로 교체된 것이다. 이는 경덕왕의 왕권행사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임으로 유정惟正이 임명되었지만 1년 반 뒤에 사직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짧았지만 친위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유정은 경덕왕 사후 왕위를 물려받은 혜공왕의 첫 왕비 신보왕후新寶王后의 아버지이다. 이는 유정이 경덕왕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였는지 보여 주는 것이며, 전제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이었음을 알려 준다.

745년(경덕왕 4) 정월 사인思仁을 상대등에 임명했다. 그는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한 조언을 하였다. 한화정책 시행 전인 756년(경덕왕 15) 2월 시정時政의 득실을 극론하는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왕이 가납嘉納했다고 했으므로 그가 전제정치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서 활동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757년(경덕왕 16) 정월 그가 사임하자 후임으로 역시 친왕적 인물인 염상廉相이 임명되고, 동년 12월에 한화정책이 시행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그의 비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이 드러난다.

747년(경덕왕 6) 정월 중시를 시중侍中으로 개칭하였다. 형식상 한 관직의 명칭변경으로 보이지만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전제적 색채가 강한 당나라의 관제인 시중을 도입함으로써 신라 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중시의

정치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왕권 역시 황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이려 했던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중시만 개칭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집사부에는 장관인 중시, 차관인 전대등典大等, 실무자로서 대사大舍, 사지舍知, 사史 등이 배속되어 5관등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삼국사기』 직관지를 살펴보면 장관인 중시가 시중, 차관인 전대등이 시랑侍郎으로 개칭되었다. 일부이지만 중국 당唐의 관직 명칭을 차용한 것이다. 단순히 본다면 2개 관직의 개칭으로 국한되나, 후반기 한화정책으로 인해 중앙관부와 관직이 모두 개칭된 사례를 참고한다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적어도 중앙관부의 개편의지를 암시한 것으로 한화정책의 실질적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 관부가 집사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집사부는 651년(진덕여왕 5)에 “품주稟主를 고쳐서 집사부로 만들고, 파진찬 죽지를 임명하여 집사 중시로 삼아 기밀사무機密事務를 관장케 하였다.”고 한 기사에서 보듯이 국가의 중요 기밀을 맡는 직이었다.

집사부는 처음 품주의 가신적 성격이었는데 뒷날 이에 더하여 국가의 기밀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왕의 핵심 근시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다른 관부의 책임자가 모두 영수 또는 경卿을 칭하는 것과 달리 시중을 칭했다는 점도 그러한 모습을 반영한다. 집사부는 중대 전제정치의 전위적 존재로서 귀족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과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사부의 변화는 그 규모가 작더라도 파급 효과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왕자를 향한 집념—근시기구의 정비

경덕왕은 집사부의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전제정치의 완성을 기도했다. 동시에 후계에 대한 염원도 이어갔다. 그것은 삼모부인의 출궁과 만월부인의 입궁에서 확인된 바이지만 그 소망은 관부의 정비와 설치에서도 드러났다. 시중의 교체 직후 745년(경덕왕 4) 7월 동궁東宮을 수리했다. 동궁이라는 곳은 왕실의 후계자가 거처하는 곳인데, 아직 왕자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궁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가 경덕왕의 후사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752년(경덕왕 11) 8월에 동궁아관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시기에도 왕자는 출생하지 않았다. 사료 상에는 경덕왕에

게 공주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으나, 동궁을 수리하거나 동궁아관을 설치했을 당시 왕자의 출생을 기대할 만한 일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경덕왕이 왕자의 출생 이전에 그러한 조치들을 시행한 요인은 왕의 즉위 과정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덕왕은 자신의 태자 책봉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사실상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왕위계승에 관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궁관아를 설치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왕자가 여전히 태어나지 않자 경덕왕은 그 열망을 불교에 의지하여 달성하고자 했다. 불국사에 머물던 표훈대사에게 부탁을 했다. 표훈은 중대 전제왕권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화엄종을 개창한 의상대사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삼국유사』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에 관련 이야기가 전한다. “왕은 표훈대덕에게 명했다. ‘내가 복이 없어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바라건대 대덕은 상제上帝에게 청하여 아들을 두게 해주오.’ 표훈이 명을 받고 상제에게 고하자, 상제는 ‘딸은 구한다면 될 수 있지만 아들은 될 수 없다.’ 하였다. 이를 전하자 왕이 다시 말하기를 ‘딸을 아들로 만들어 주시오.’ 하니, 표훈이 다시 상제에게 청했다. 상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리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오.’ 했다. (중략) 왕은 ‘나라가 비록 위태롭다 하더라도 아들을 얻어서 대를 잇게 된다면 만족하겠다.’ 하였고, 이리하여 만월왕후가 태자를 낳으니 왕은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경덕왕이 얼마나 후사를 염원했는지 알 수 있다. 내용이 설화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위태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자를 원했다는 것은 전제왕권의 지속을 향한 후계구도 정립이 1차적 관심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자만 태어난다면 국가의 운영은 측근세력의 결집과 근시기구의 운용을 통해 가능하리라 본 것 같다. 그래서인지 경덕왕대 관제 개편은 완화정책 시행 이전에 한정해서 본다면 내정기구 등 근시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748년(경덕왕 7) 8월 “정찰眞察 1인을 두어 백관의 풍속을 바로 잡았다.”고 한다. 이 당시 감찰기구로는 사정부司正府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정찰의 설치에 감찰임무에 더하여 부수적인 기능들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외척세력 견제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750년(경덕왕 9) 2월에는 어룡성御龍省에 봉어奉御 2인을 두었다. 어룡성은 표

현에서 알 수 있듯이 왕권과 밀접한 내정관부이다. 중대 전제왕권의 제도적 특징은 군사면에서 시위부가 중핵적 기능을 수행했으며 근시기구로는 다양한 내정관부가 존재한 데 있다.

내정관부는 크게 내성, 어룡성, 동궁의 세 계통으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주요관부인 어룡성에 변화가 수반된 것이다. 어룡성은 국왕의 행행行幸, 즉 대궐 밖 행차를 직접 관장하는 곳으로 왕권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었다. 이러한 관부의 증원은 중앙 각 행정관부를 통제하면서 전제왕권의 원활한 운영을 꾀했던 모습으로 이해해도 좋다.

왕실의 의도는 중앙관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중앙행정관부가 44개인 데 반하여 내정관부는 115개에 이른 사실에서 정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한다. 특히 어룡성은 3개 내정관부 중 관원이 239명에 이를 정도로 제일 많았다. 이는 행정관부에 비해 내정관부가 지나치게 비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경덕왕 때 정치 상황이 비정상적인 면이 강했음을 반영한다.

이렇게 비대한 내정관부 중심의 근시기구 강화는 후계구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자신이 비정상적 태자책봉을 거치며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겪었던 경덕왕으로서 그러한 상황의 재현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관료조직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근시기구의 강화를 의도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758년(경덕왕 7) 만월부인이 입궁한 지 15년 만에 왕자가 태어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원했다. 즉 동궁 수리, 동궁아관 설치, 어룡성 봉어 증원 등은 후계구도를 안정시키고 국왕의 권위를 확립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덕왕대 근시기구 정비 과정의 본 모습이며 왕자의 출생을 통해 전제왕권 기초를 지속시켜 가고자 했던 것이다. 후계자를 얻고자 하는 데 대한 강한 집착은 중대 전제왕권의 특징적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국학의 정비와 효행의 표창

경덕왕은 근시기구의 정비와 확충을 통한 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통치이념의 측면에서도 근본적 조치를 취했다. 중시를 개칭하던 해에 국학國學에 제업박사諸業博士와 조교助教를 설치하였다. 외형상의 표현에서 풍기듯 국가의 주요 교육기관에 관료가 증

원된 것이다. 당연히 관료의 양성에 질적, 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중대 전제왕권 강화책의 일환이었다.

여기서 먼저 국학의 관료 증원에 앞서 국학 자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 국학은 당의 국자감을 모델로 하여 설립된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국학은 682년(신문왕 2) 6월에 “국학을 세우고 경 1인을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 직관지 국학조를 보면 “...박사, 조교가 약간 있고, 대사^{大舍}는 2인으로 651년(진덕여왕 5)에 두었으며...”라 하여 진덕왕 때에 이미 조직이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두 기록을 대비시켜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만 신라의 관부정비 과정을 보면 이해되는 면이 있다. 어떤 조직이 처음 설치될 때 실무관원이 먼저 배치되고 최종적으로 조직의 책임자가 두어지면서 완비되는 경향을 띤다. 이를 국학에 적용시켜 보면 진덕왕대에 실무관원이 두어지고 신문왕 때에 책임자가 두어짐으로써 최종 완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학은 진덕왕대부터 신문왕대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국학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교육 대상과 내용에 있었다. 교육 대상은 15세부터 30세까지로서 그 가운데 신진관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6두품 계층이 대상자였다. 그것은 당시의 정치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중대 전제왕권의 출범과 더불어 진골귀족을 억압하면서 귀족의 관료화를 꾀했는데 이로 인해 귀족세력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때 능력은 있으나 골품제의 제약을 받아 기회를 얻지 못하던 두품 계층이 주목받았고 특히 학문과 외교 면에서 능력이 검증된 바 있는 6두품이 왕실을 지탱해 줄 새로운 관료군으로 대두한 것이다. 실제로 국학의 설립과 정착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설총이나 강수 모두 6두품 출신이었던 점도 설득력을 높여 준다.

중대 국학의 설치 및 정비는 왕실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유교정치이념의 확립과 관료층 형성을 위한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귀족세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에 대한 예속을 강화하려던 취지였다. 교육 내용도 『논어』와 『효경』을 필수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교의 도덕률인

충과 효를 중시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중대 전제 군주가 충효윤리의 사회적 확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대의 국학은 왕권의 강화와 연결된 관료세력의 기반이었다. 경덕왕은 이러한 설치 배경과 기능을 지닌 곳에 관료를 충원한 것이므로, 단순한 인원 확충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행위였다. 귀족세력의 관료화 및 친왕적 관료군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부왕인 성덕왕이 「백관잡^{百官臈}」을 반포하여 충^忠을 강조하면서 유교이념을 강조했듯이, 경덕왕 역시 다르지 않았다. 754년(경덕왕 3) 5월에 「성덕왕비^{聖德王碑}」를 건립한 것은 그러한 맥락이다. 성덕왕대 극성기를 이룩한 전제왕권이 후대에도 지속되기를 염원한 심정이 추모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국학에 대한 정비와 확충을 통해 상층 지배 질서에서 강조된 유교이념은 대민지배 측면에서도 유효하게 기능했다. 성덕왕대부터 경덕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는 기근이 이어졌다. 사실 7~8세기 무렵의 한·중·일 동아시아 전체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했다. 일본의 경우 규슈^{九州} 인구의 1/3이 죽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일본재이지^{日本災異志}』에 따르면 701~790년 사이에만 치사율과 이환율이 높은 전염병의 발생 횟수가 39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에 웅천주(충남 공주)에 살았던 향덕의 효행기록이 『삼국사기』 본기 및 열전, 『삼국유사』 효선편에 전한다. 그는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할 수 없었는데 부모가 병에 걸리자 할고공친^{割股供親}, 즉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여 낫게 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토지와 곡식 등을 하사하고 그 효행을 정려^{旌闡}하게 했다고 한다. 효행의 구체적 내용과 표창은 사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향덕의 효행이 주목되는 것은 경덕왕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으로 이후 하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근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배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향덕이 할고공친한 것과 관련해서 경덕왕대 유교이념이 확산되고 거기에서 효가 많이 주목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6두품 계층을 통해 유지되던 유교가 경덕왕대에 이르러 신분 혹은 지역면에서 확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효가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윤리 덕목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향덕과 같은

지방 백성들을 표창함으로써 유교이념을 한층 확산시키고 이를 전제왕권의 안정에 이용한 것이다. 경덕왕대 효^孝 덕목의 강조는 『효경』의 수용과 관련이 있다.

743년(경덕왕 2) 3월에 “당 현종^{玄宗}이 찬선대부 위요^{魏曜}를 보내, (중략) 『어주 효경』 1부를 왕에게 선물하였다.”고 한다. 이는 양국간 외교에서 친선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신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책 한 권을 넘어 유교의 핵심이념 중 하나인 효 사상의 보급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효경』에는 천자^{天子}-제후^{諸侯}-사대부^{士大夫}-사^士-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신분제에 따른 효의 내용과 방법 등이 서술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효는 사친^{事親}에서 시작하여 사군^{事君} 및 입신^{立身}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곧 사친과 사군은 근원적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성덕왕이 「백관잡」의 반포를 통해 충^忠사상을 강조했듯이, 경덕왕은 『효경』을 통해 효를 강조함으로써 유교정치이념의 완성을 의도했다. 효경을 국학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제업박사와 조교를 증원한 것은 유교이념을 확산하려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국학의 정비, 효경의 도입, 효행의 표창 등은 충효이념의 완성인 동시에 유교윤리의 국가이념 정립과 지방 확산까지 도모한 것으로 이후 전개되는 한화정책의 시행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닿아 있었다. 율령에 근거한 법제적 지배와 더불어 윤리적 규제를 통해서도 전제왕권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다.

3. 한화정책의 추진

대외정세의 변동과 민의 생활 악화

경덕왕이 한화정책을 통해 추진하려던 전제정치는 중대 무열계 왕실의 일관된 염원이었다. 신문왕대에 강력한 전제왕권을 확립하고, 성덕왕대 전성기를 누렸음에도 왕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렇기에 왕권의 강화와 이의 지속을 위해서는 제도적 면에서 틀이 갖추어져야 했다. 신문왕대의 체제 정비는 귀족세력의 억압을 통해 강력한 전제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귀족세력의 반발도 컸

으므로 지속에는 무리가 뒤따랐다. 더불어 삼국통일 직후라는 시대상황 때문에 옛 고구려와 백제의 땅에도 신라의 지배력이 침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성덕왕대의 체제 정비는 신문왕대와 같은 귀족세력에 대한 억압보다는 유교적 이념의 강조와 확산을 통한 전제왕권의 강화를 의도했기에 상대적으로 세련된 면을 보였다. 하지만, 전제왕권의 강화에 따른 귀족세력의 반발은 피할 수 없었기에 이 역시 미완의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경덕왕의 한화정책은 전 왕대의 정책을 이념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한계를 탈피해야만 했다. 또 삼국통일이 완성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대한 지배방식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경덕왕은 체제 정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군현제의 개편과 획일화된 관료제의 확립이었다.

경덕왕이 추진하던 한화정책은 당시 대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먼저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발해의 동향이 주목을 끈다. 발해는 정복군주인 무왕(719~737)이 즉위하면서 대외적 무력 팽창을 도모하였다. 이는 주변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성덕왕은 군사적으로 대비하였다. 경기도 개성 지역은 물론, 한산주 관내에 여러 성을 쌓았다. 그리고 강릉 지역인 하슬라에는 장정 2천명을 징발해 장성^{長城}을 축조했다. 이 지역들은 신라와 발해의 접경지대이다. 이 지역에 장성을 축조했다는 것은 발해의 군사적 위협이 작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발해가 장문^{張文休}를 보내 산동반도에 위치한 당의 등주^{登州}를 공격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등주가 발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당의 본토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해의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발해가 5경 15부 62주라는 체계적 지방제도를 편성한 사실은 그러한 국력을 토대로 했다.

발해의 성장에 대해 신라는 축성과 같은 군사적 방비와 함께 대당 외교의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갔다. 신라는 통일 이후 소원해진 대당관계를 개선하면서 대동강 이남의 영역 확보와 발해 견제를 목적으로 당과 외교적 협력을 시도하였다. 당 역시 발해를 견제하고자 협력하였다. 양국의 협력은 군사적 움직임으로 가시화되었다. 733년(성덕왕 32) 당의 요청에 따라 신라는 발해 남쪽 국경을 공격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실패하였다. 이를 계기로 발해와 신라는 적대관계에 돌입하였다. 발해는 성덕왕

대 후반기 이후 신라와 군사적 충돌로 인해 군사적 위협이 되기에 충분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신라 침공 움직임은 살펴볼 수 있다. 경덕왕은 재위 중 2차례 방문한 일본사신에 대해 방만하고 무례하다는 이유를 들어 접견치 않았다. 이는 신라와 일본 양국 간에 누적되어 왔던 감정이 격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성덕왕대에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대당 외교를 강화했을 때, 발해는 일본과 긴밀히 연계하며 오히려 신라를 견제하였다. 신라의 외교정책에 대해 일본은 자신들의 불만을 군사적 행동으로 옮겼다. 731년(성덕왕 30) 일본은 300여 척의 군함으로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가 이를 격퇴하였지만 군사적 긴장은 커져 갔다.

그런데 신라의 대당 외교 강화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파급력이 컸다. 성덕왕 때부터 전개된 대당 외교가 경덕왕 때까지 지속되자 일본은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발해와 긴밀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신라의 대당 외교 강화에 대응하여 친밀해진 발해와 일본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협력하기 시작했다. 『속일본기』에 양국은 총 48회의 사신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덕왕 때에 국한해서 보면 발해는 4회, 일본은 5회 파견하였다. 발해는 무관을, 일본은 문관을 파견했다. 이를 보면 교류 초기부터 발해가 군사적 목적에서 대일외교를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경덕왕대에 들어 신라 협공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742년(경덕왕 원년) 신라에 파견되었다가 거부 당한 소야전수(小野田守)가 발해에 파견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하지만 일본의 신라 침공계획은 일시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순인(淳仁) 천황 3년(759)에 규슈의 다자이후(大宰府)에 명하여 신라 정벌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으며 병선 500여 척의 건조를 추진토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761년(경덕왕 5)에는 미노(美濃)·무사시(武藏) 두 지역의 소년들에게 신라 침공을 목적으로 신라말을 배우게 했으며, 3년 이내 신라 정벌이라는 시한을 정하는 등 일본의 신라정토계획은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신라가 체제 정비를 추진한 한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의 혼란한 사회상황을 들 수 있다. 당시 안록산의 난이 일어

나 현종(玄宗)이 수도 장안(長安)을 떠나 사천성으로 피난해 있었다. 이때 경덕왕은 현종을 위로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사신 파견의 이유는 당 현종의 위로였지만, 사신이 귀국하며 가져온 소식은 신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당은 황제가 통치하는 전제정치였지만 양국충 등 외척의 발호로 인해 지배층이 분열되어 난이 일어난 것이다. 경덕왕으로서는 당의 정치 상황이 신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특히 외교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일본으로 하여금 자칫 극단적 선택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안록산의 난 때문에 정치 사회적 혼란에 빠진 당이 유사시 신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신라에게 당은 정치적·문화적 욕구의 충족 대상이면서 동시에 발해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처이기도 하였다. 당의 정치적 혼란은 발해에 대한 정세 확인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신라는 군사적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당의 혼란은 신라의 체제 정비에 있어 대외적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내부적으로 수취의 근본이 되는 민의 생활 역시 악화되고 있었다. 8세기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는 공통적으로 기근이 크게 발생하고 전염병이 만연하였다. 신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앞서 살펴본 향덕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알려 준다. 향덕이 효행을 행한 것은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일반 백성의 생활이 곤궁하고 피폐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기근은 향덕이 살던 웅천주에 국한되지 않았다. 오늘날 강원도 강릉인 명주(溟州) 지역 역시 기근이 심했다. 『삼국유사』 의해편 관동풍악발연수석기조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잘 보인다. “(경덕왕대) 명주 지방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굶주렸다. (중략) 갑자기 고성 바닷가에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저절로 나와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먹을 것을 장만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굶주렸다고 할 만큼 지방민의 피폐한 경제적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생이 악화될 만큼 경제적 현실이 어려웠다. 754년(경덕왕 13)과 755년(경덕왕 14)에 연이어 가뭄과 기근 기록이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백성의 피폐한 경제적 현실에서 국가의 수취가 제대로 수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생이 안정되어야 수취가 가능하고 지배체제가 유지되는데 그 토대가 약화되

고 있는 것이다. 설령 수취가 되더라도 백성의 경제적 고통만 더해졌을 것이다. 곧 향덕이나 명주 지방민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수취 역시 대책이 필요했음을 보여 준다. 국가에서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수취 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이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다. 수취 구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군현을 개편함으로써 모순을 조금이나마 시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제왕권을 강화하려는 경덕왕의 의지에 더하여 당시의 대내외 정세는 한화정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화정책의 제1단계-지방군현 명칭의 개정

경덕왕은 757년(경덕왕 16) 12월 지방 군현의 명칭을 개편하였다. 개혁의 첫 출발점이었던 중시의 시중 개칭에 비하면 한층 강도가 높은 것이다. 685년(신문왕 5) 이후의 변동 상황을 9주 5소경 117군 293현으로 정비하였다. 사실 개명(改名)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명 자체는 그러하지만 각 지역 세력의 연고 의식을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지방통제의 실질적 강화였다. 일시에 전국의 모든 군현의 명칭이 바뀌었다.

신라는 삼국통일로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편입한 후 685년(신문왕 5)에 전국을 9주로 새로이 나누었는데, 신라, 고구려, 백제영역이 각각 3개 주로 편제되었다. 그 이후 변화가 없다가 경덕왕대에 들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이는 중국 당의 제도를 모범으로 한 한화정책이었다. 9주의 명칭은 한층 우아하고 세련되게 정비되었다. 사벌주(沙伐州)는 상주(尙州), 삼랑주(歙良州)는 양주(良州), 청주(靑州)는 강주(康州), 한산주(漢山州)는 한주(漢州), 수약주(首若州)는 삭주(朔州), 하서주(河西州)는 명주(溟州), 웅천주(熊川州)는 웅주(熊州), 완산주(完山州)는 완주(完州), 무진주(武珍州)는 무주(武州)로 각기 개칭되었다. 더하여 주 예하의 군과 현 또한 이름이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각 고을의 건치연혁(建置沿革)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나타난다. 건치연혁은 고을의 지명 유래와 변천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경덕왕 개금명(改今名)”이라는 표현이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이는 경덕왕대에 개명된 지명이 『삼국사기』가 편찬된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유지

되었음을 말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명 가운데 상당수가 경덕왕대의 개명된 결과이다. 경덕왕대의 군현 개명은 천이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만큼 파급력은 컸다. 물론 각 지역의 통치 거점인 치소(治所)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개명된 이름이 이처럼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음개(音改)로서 기존의 명칭을 좀 더 좋은 발음으로 조정한 것이다. 달구화현(達句火縣)이 대구현(大丘縣), 칠파화현(柒巴火縣)이 진보현(眞寶縣)으로 개명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다소 거친듯한 발음의 옛 군현 명칭을 부드럽게 바꾼 것이다.

둘째는 의개(義改)로서 옛 지명의 뜻을 한역(漢譯)한 것이다. 적촌현(赤村縣)이 단읍현(丹邑縣)으로 개명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붉은 마을’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한층 정제된 표현을 추구한 것이다.

셋째는 생개(省改)로서 옛 군현의 명칭이 3~4자인 경우 2자로 통일한 것이다. 삼년산군(三年山郡)이 삼년군(三年郡), 팔거리현(八居里縣)이 팔리현(八里縣)으로 개칭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군현 본래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축약을 한 형태이다.

넷째는 미개(美改)로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을 아름다운 의미로 조정한 것이다. 가해현(加害縣)이 가선현(嘉善縣)으로 개칭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가 더해진다.’가 의미인데 ‘아름다움이 많다.’는 정반대의 의미로 고친 것이다. 아마 군현이 위치한 지형에 따라 수해(水害) 등의 재해가 심한 시절 그것이 군현 명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가 다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촌락문서』에서도 찾아진다. 문서에 기록된 4개 촌락 가운데 사해점촌(沙害漸村)이 있는데 해석하면 ‘모래의 피해가 점점 더한다.’는 뜻이 된다. 강이나 계곡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주기적으로 홍수 등 재난 시 피해를 입자 촌락의 이름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편으로 경덕왕의 개명 이전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어 문서의 작성연대와 관련해 흥미롭다.

다섯째는 지개(地改)로서 지형이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다. 모화군(毛火郡)이 임관군(臨關郡), 한다사군(韓多沙郡)이 하동군(河東郡)으로 개칭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모화군은 모벌군성이 있던 곳으로 일본의 침입으로부터 왕경을 지키는 관문이 위치했다. 즉 관문을 맡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개칭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다

사군은 모래가 많다는 의미인데, 강(섬진강)의 동쪽에 위치한 지리를 감안하여 하동군으로 고친 것이다.

여섯째는 직개(職改)로서 직능(職能)과 관련된 개명이다. 통일신라의 지방군단인 10정 주둔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사조직이 주둔한 지역에 '군세고 날쨌'의 의미를 지닌 무(武), 효(驍), 웅(雄) 등의 글자를 사용하였다. 음리화정의 주둔지인 음리화현(音里火縣)이 청효현(靑驍縣)으로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전국의 군현이 모두 한식(漢式)으로 아화(雅化)되었다. 우아한 표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 목적은 중대 전제왕권의 유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외형상 균형잡힌 군현체계를 의도한 것이다. 중국 당의 군현을 기본 틀로 하였음은 물론이다.

한화정책의 제2단계-중앙관제의 개혁

지방군현의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덕왕은 한화정책의 완결을 위해 중앙관제를 개혁하고자 했다. 군현 개편 2년 뒤인 759년(경덕왕 18) 중앙관부의 명칭을 지방 군현의 개명처럼 우아한 한자식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다분히 획일화된 관료제도의 개편을 의도한 조치였다. 본래 신라의 중앙관부는 관직체계상 4단계로서 「영(令)-경(卿)-대사(大舍)-사(史)」의 편제였다. 신문왕대에 모든 관부에 사지(舍知)가 설치됨으로써 「영(令)-경(卿)-대사(大舍)-사지(舍知)-사(史)」의 5단계 편제가 되었다. 중국 당의 6부가 「상서(尙書)-시랑(侍郞)-낭중(郞中)-원외랑(員外郞)-주사(主事)」의 조직이었던 점을 참고해 중앙관부를 개편한 것이다. 경덕왕대에는 핵심관부인 집사부의 경우 대사, 사지, 사를 각각 낭중, 원외랑, 낭으로 고쳤다. 이는 당제의 도입을 분명히 보여 준다. 사실 관제개혁은 경덕왕 당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대 전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추진된 정책이었고, 태종무열왕 이후 전개된 전제정치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나타났다. 이는 신라 국왕의 시호가 삼국통일기에 들면서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등 한식으로 표현된 것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한다.

경덕왕대의 관제개혁은 중대 이전의 귀족연합적 정치체제에서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 바꾸고자 한 시도이다. 곧 관제개혁은 중국식 관직명으로 개정함

으로써 중대 왕권의 전제화를 의도한 정책 변화였다. 단순히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개편이 아니라 중앙집권화와 전제왕권 강화가 내재된 정책이었다. 이는 무열왕계대 비무열왕계라는 당시의 대립적 구도를 타파하려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관제를 한식으로 개편한 배경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전제왕권의 강화가 근본적 요인이지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다. 이 시기에 발해나 일본 역시 중앙관제를 한식으로 변경하거나, 당의 관제를 모방해 중앙관제를 개편하였다. 발해의 경우, 충(忠), 인(仁), 의(義), 지(智), 예(禮), 신(信) 등 6개 관부에 상당히 정제된 중국식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중국식 관제정비를 통해 국가의 면모를 과시하는 것이 시대적 특징이기도 했다. 각국의 집권세력은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관제개혁을 활용하였다. 신라의 관제개혁에도 역시 대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앙의 관제는 이전보다 세련되게 정비되었다. 물론 관직체계의 근본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개명만으로도 혁신 의지는 드러났다.

관제개혁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6전(六典) 체계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관부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병부(兵部), 조부(調府), 창부(倉部), 예부(禮部) 등은 이미 정제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한 관부가 개혁대상이었으며 일시에 모두 개편되었다. 3글자로 통일하여 일체감을 주거나, 기존에 3글자인 경우는 우아한 한자 어휘를 채택하여 한층 정비된 느낌을 주고자 시도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을 담당하는 승부(乘部)는 사어부(司馭部), 선박을 담당하는 선부(船府)는 이제부(利齊府), 사신을 영접하는 영객부(領客府)는 사빈부(司賓府), 관료의 운송을 담당하는 위화부(位和府)는 사위부(司位府), 관청의 수리를 담당하는 예작부(例作府)는 수례부(修例府) 등으로 교체했다. 한식(漢式)으로 미화함으로써 그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려 했던 것이다.

일부 관부에서는 격(格)의 변동이 있었다. 개편된 관부로는 내사정전(內司正典)에서 건평성(建平省), 소년감전(少年監典)에서 균천성(鈞天省), 예궁전(祿宮典)에서 진각성(珍閣省), 세택(洗宅)에서 중사성(中事省) 등이 있다. 중앙의 일반 관료는 사정부가 담당하고, 지방관은 외사정이 맡았으므로, 건평성은 내성 이하의 관원들에 대한 감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균천성의 '균천'은 균천광악(鈞天廣樂)에서 유래한 말로, 구천(九天)의 중앙을 지칭했다. 따라서 균천은 궁중을 일컫는 말이므로, 균천성은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곳이라

하겠다. 진각성은 궁중의 보물을 관리하던 곳으로 여겨지는데 만파식적, 천사옥대 등 국보급 유물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사성은 국왕이나 태자의 시종과 조고詔誥를 관장했다는 점에서 중핵적 기관이라 하겠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중앙관제의 개혁은 고유한 명칭을 한식으로 정비함과 더불어 왕실과 밀접한 일부 내정관부의 승격을 통해 왕권을 전제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삼국통일 이후 줄곧 추진되어 온 전제정치가 중앙관부의 개혁을 계기로 일단락된 것이다. 내용 못지않게 외형에 있어서도 전제왕권에 걸맞은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경덕왕대 한화정책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대 전제왕권의 궁극적 목표가 군현의 개편과 중앙관제 개혁으로 완결되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반왕적 귀족세력과 마찰은 단순하지 않았다. 왕실과 귀족이 모두 승자가 될 수는 없었다. 한 쪽이 떠오르면 한 쪽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시소(see-saw)와 같았다. 강력한 왕권의 확립과 정책의 시행은 체제 정비에 있어 안정감을 주었지만, 운영 주체인 왕실과 귀족의 역학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해졌다. 개혁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귀족세력의 반발력은 비례하여 커졌다.

4. 귀족세력의 대응과 왕권의 약화

녹읍의 부활-귀족세력의 정치적 재기

경덕왕은 757년(경덕왕 16)과 759년(경덕왕 18) 지방군현과 중앙관제를 개혁함으로써 중대 전제왕권의 숙원이던 한화정책을 마무리 지었다. 염원하던 전제주의적 정책의 실현은 중대 왕실의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 경덕왕 역시 반왕적 귀족세력에 대한 억압을 지속하며 전제왕권을 지향했으나 반세기 넘도록 억압을 받았던 그들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신문왕은 전제주의적 정책을 펼치며 귀족세력의 경제 기반이자 결정적 토대인 녹읍을 폐지한 바 있다. 귀족

세력의 도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핵심기반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고, 중대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제외하면 왕권의 절대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경덕왕대에 들어 귀족세력의 반발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삼국사기』 경덕왕 16년(757) 3월조를 보면 “다시 녹읍을 사여하였다(復賜祿邑).”라는 기사가 나온다. 귀족세력은 자신들의 토대가 되는 녹읍을 부활시킨 것이다. 689년(신문왕 9) 녹읍이 폐지된 후 약 70년 만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폐지 이전을 전기녹읍이라 하며, 부활 이후를 후기녹읍이라 칭한다. 녹읍은 본래 신라가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기 전에 고대국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편입된 여러 지역의 지배세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에게 연고지의 지배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된 제도였다. 특히 토지는 물론 그에 속한 수조권과 노동력까지 지배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이를 보유한 귀족세력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따라서 녹읍이라는 제도는 속성상 전제왕권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부활된 녹읍이 폐지 이전의 그것과 성격이 똑같았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귀족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 전제왕권에 대한 반왕적 귀족세력의 정치적 승리와 다름없었다. 그만큼 녹읍 부활의 의미는 상징성이 컸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생긴다. 녹읍 부활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군현개편과 관제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양자는 성격상 상반된 것이다. 전제정치 마지막 개혁이 시도되던 때에 귀족세력의 정치적 의지가 관철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경덕왕대 군현개편과 관제개혁의 본 모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덕왕은 최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귀족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반발력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다.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상호 긴장감을 유발하던 시기였으므로 지배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제 정비는 당연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경덕왕은 녹읍을 부활시킨 이듬해 귀족세력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758년(경덕왕 17) 2월 “교서를 내려 내외관(内外官)으로 휴가를 청하여 만

60일에 이르는 자는 해관解官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본래 해관은 당 율령의 「선거령選舉令」·「고과령考課令」 등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관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서 관료 자격은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 당의 경우 관료의 근무일수가 1년에 200일이었으며, 휴가나 질병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100일에 이르면 해관되었다. 일본의 경우 당과 조금 다르지만 해관제도가 운영되었고 휴가는 120일이 한도였다. 그에 비해 신라는 휴가 한도가 60일로 축소된 것이다. 이는 나라마다 관료의 정원이나 재정상태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덕왕의 귀족세력 통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해관제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것은 우선 관료의 기강 확립이다. 당시 관료는 친왕세력을 제외하면 반왕적이므로 이들을 합리적 명분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이 해관 조치가 귀족세력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경덕왕의 전제화 의지를 나타내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재위 후반기 들어 나타난 권력 이완 현상이 개선되지는 못했다. 경덕왕대 녹읍부활이 왕권의 정치력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귀족세력의 부상浮上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반감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녹읍부활은 귀족세력의 토대가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 보여 준다. 신문왕 이후 지속된 귀족세력 억압책이 강화될수록 그들의 대응은 커져 갔고, 마침내 중대 사회가 서서히 기울어지던 이 시기에 자신들의 뜻을 달성한 것이다. 중대 전제왕권이 시행한 관료전과 세조歲租가 폐지됨으로써 녹읍을 중심으로 한 귀족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회귀함을 의미했다. 이러한 정국의 변화는 경덕왕과 측근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김웅의 정치적 활약-전제왕권 지속을 향한 안간힘

경덕왕은 관제개혁이 이루어진 다음해인 760년(경덕왕 19) 4월 시중을 염상에서 김웅으로 교체하였다. 염상은 경덕왕의 측근으로서 한화정책의 적극적 추진자였다. 당시 정치 현실상 한화정책이 상대등보다는 집사부 시중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으므로 그의 정치적 성향은 친왕적이며 친당적親唐의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후임 시중으로 김웅이 임명(760년 4월)됨으로써 개혁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다. 김웅이 만월부인과

남매지간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적 관료를 통해 체제 정비를 단행한 이후, 외척세력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하고자 한 것이다. 실질적 지배력을 공고히 한 조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태자책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웅이 시중이 된 후 3개월 뒤 왕자 건운乾運이 태자에 책봉되었다(760년 7월). 태자책봉 제도는 왕위계승을 시행함에 있어 귀족세력의 간섭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었으므로 왕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 건운의 태자책봉은 김웅의 정치적 업적 가운데 하나였고, 그가 전제왕권의 핵심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한다.

경덕왕이 전제왕권의 위엄을 과시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삼국유사』 탐상편 황룡사중·분황사약사·봉덕사중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 35대 경덕대왕 천보天寶 13년 갑오에 황룡사중을 주조했다. 길이는 1장丈 3촌寸, 두께는 9촌寸, 무게는 49만 7,581근이다. 시주는 효정孝貞 이간과 삼모부인이며 (중략)”이라고 되어 있다. 삼모부인이 황룡사 중의 주조에 막대한 양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이 보이는데, 그 시기가 754년(경덕왕 13)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경덕왕은 이 해 5월 「성덕왕비」를 세운 바 있다. 비의 건립은 단순히 부왕의 업적을 형식적으로 기리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제왕권의 극성기를 이룩한 성덕왕의 정책을 적극 계승하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한 때에 삼모부인과 그 지지세력이 막대한 시주를 하며 정치적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황룡사라는 절이 지니는 정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종교적 열의나 신앙심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삼국유사』 의해편 현유가해화엄조를 살펴보면 황룡사와 김순정 가문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로서 호국신앙의 중심 도량道場이었다. 이곳에 경덕왕이 친히 행차하고 화엄경을 강론케 했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특히 주조한 중의 규모가 놀랍다. 현재 경주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성덕대왕신종」의 주조에 들어간 구리의 양이 12만 근인데, 황룡사중은 그 4배인 49만 근을 초과했다. 대략 짐작해도 상당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사佛事이다.

김웅의 시중 임명은 대일관계를 고려한 측면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대일 외교에 적극적이던 김순정 가문의 김웅을 내세워 일본의 강경한 태도를 최대한 완화시키

려 했던 것이다. 그 때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라와 일본간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변화는 김웅을 비롯한 친왕과 귀족세력에게 더욱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덕왕과 외척세력의 전제정치 강화에 귀족세력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762년(경덕왕 22) 8월에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웅이 동시에 몰려났다. 이러한 퇴임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웅의 후임으로 훗날 선덕왕宣德王이 된 김양상金良相이 임명되었다는 점과 그가 임명되기 전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점이 이를 암시한다. 다만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여 하대를 개창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등장이 하대의 실질적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그의 성격이 반왕파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공왕이 김지정의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시해당하자, 그가 즉위함으로써 정치적 성격이 반왕파로 규정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해공왕 즉위 후에도 김웅은 모후인 만월부인의 섭정을 뒷받침하며 전제왕권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성년이 된 해공왕이 친정親政하면서 영향력은 지속되지 못했고, 이후 중대 전제왕권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즉 중대 전제왕권의 특징인 김씨 족내혼이 유지되면서 왕권을 확고히 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배타적 혼인관계의 추구는 소수 외척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외척의 전횡과 정치적 지지기반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김순정 가문과 김웅의 활약은 중대 전제왕권의 정치적 한계를 보여 준 것이고 김양상의 등장은 그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하대 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했다. 사실상 정권 교체의 모습이라 하겠다.

이순과 신충의 은거-쇠락해 가는 전제왕권

이순과 신충은 경덕왕의 측근으로서 즉위 초반 정치적 활약을 한 바 있다. 특히 신충은 한화정책이 시행되던 때에 상대등으로서 정치의 전면에 있었다. 경덕왕이 전제정치를 전개함에 있어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경덕왕 후반기에 들면서 전제왕권에 반발한 귀족세력의 움직임이 표면화됨과

동시에 경덕왕의 정치적 피로도 또한 증가한 것 같다. 끝까지 한화정책을 완결 지으려는 의도와 왕자를 낳아 후계를 확고히 하려 한 집념이 달성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찾아온 정치적 공허감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측근으로서 이순과 신충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삼국유사』 피은편 신충 패관조에 “경덕왕 22년 계묘에 신충이 두 친구와 서로 약속하고 벼슬을 버리고 남악(지리산)에 들어갔는데, 두 번이나 불려도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왕을 위해 단속사斷俗寺를 세우고 거처하며 종신토록 산속에 살면서 대왕의 복을 받들기를 원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왕의 진영眞影을 모시니 금당 뒷벽의 것이 그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신충은 두 친구와 약속한 뒤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 중이 된 후 단속사에 머물렀다. 관련 내용이 『삼국사기』에도 전한다. 경덕왕 22년조를 보면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웅이 면직免職되었다. 대나마 이순이 왕의 총신이었는데 홀연히 하루 아침에 세상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여러차례 불려도 나오자 않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왕



그림 1. 산청 단속사지

을 위해 단속사를 세우고 이곳에 거하였다.”고 한다.

신충과 관련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은 『삼국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 표현이 보인다. 면免, 즉 면직이라 하여 신충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원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 변화에 따라 은퇴를 하게 된 상황을 말한다. 신충과 김웅은 한화정책의 시행 이후 반왕적 귀족세력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신충은 은퇴한 후 지리산의 단속사로 들어가 칩거한 것이다.

단속사의 창건은 이순이 746년(경덕왕 7)에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했던 신충이 했던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주목되어야 할 것은 경덕왕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했던 그들이 말년에 그곳에 거하며 전제왕권의 앞날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리 없었다. 단속사에 거하며 경덕왕의 복을 빌며 나오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그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석양 무렵 산속의 사찰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두 측근의 모습에서 기울어가는 중대 전제왕권의 현실을 느낄 수 있다.

당시의 불안정한 정국은 천문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경덕왕의 한화정책이 추진되던 758년(경덕왕 17)에 16개의 벼락이 떨어지고, 759년(경덕왕 18)에는 혜성이 출현하였다. 이는 불길한 징조였다. 고대사회에서 천재지변은 대체로 국왕이 사망하거나 모반이 일어나는 등 파국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덕왕의 한화정책은 태종무열왕 이후의 전제적 정치성향이 집약되어 완성된 것이며, 신라 사회의 기본적 틀로서 작용했던 골품제도를 율령 본래의 취지하에서 어떻게든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존재했던 골품제와 반왕적 귀족세력의 반발 때문에 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경덕왕 재위 말기의 정치적 상황은 충담사忠談師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삼국유사』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를 보면 경덕왕이 승려인 충담사에게 안민가安民歌를 짓도록 했다. 내용을 보면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어머니, 백성은 아이로 비유하고 있는데, 후구後句에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하면 나라는 태평하리이다.”라고 했다. 이를 받은 경덕왕 자신은 마음이 흡족했겠지만 마냥 만족할 수 없는 때였다.

안민가 자체의 내용은 유교의 정명사상으로 경덕왕 때에 일관되게 추구한 충효의 확산과 맥을 같이 하지만 그 시기가 말년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볼 필요도 있다. 안민가의 저술 시점은 765년(경덕왕 24) 3월 3일이다. 이로부터 3개월 후 경덕왕은 승하하였는데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부탁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린 임금이 즉위하더라도 외척이나 귀족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 것이다. 경덕왕대는 끊임없이 외척세력과 대립하면서도 모반 사건 한 번 없이 지나갔지만, 이는 나이 어린 혜공왕이 즉위하면서 나타날 정국과 무관치 않았다. 효성왕 때의 정치적 상황이 경덕왕 자신이 즉위한 후 전개할 정치적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시대 역시 그러했다. 혜공왕대의 6차례에 이르는 친왕파와 반왕파의 충돌은 예정된 결과였다고 하겠다.

(한준수)

참고

문헌

김수태, 1996, 『신라중대 정치사 연구』, 일조각.

김영하, 2007,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이기백, 1974,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 일조각.

이영호, 2014, 『신라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제2장

진골귀족의 반발과 개혁의 좌절

1. 중대의 난제들과 경덕왕의 대응
2. 해공왕대의 정변
3. 만월부인의 섭정과 김웅
4. 개혁 정책의 실패와 파국

1. 중대의 난제들과 경덕왕의 대응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본기에서 국인國人들이 신라사를 상중하 3대로 구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신라 말기의 사람들은 해공왕의 피살로 인한 태종무열왕계 왕통 단절을 중대가 종말을 고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780년의 정변은 시대구분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일대사건이었다.

그렇다면 해공왕대 6차례 반란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그 가운데 96각간의 싸움으로 상징되는 전국적 내란은 무엇을 의미하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국왕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말인가? 중대 신라 왕실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 성찰이 필요하다.

654년 김춘추가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했다. 당시 신라는 국가보위 전쟁을 반세기 동안 치르고 있었다. 고구려·백제와의 전쟁은 자연재해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만성화된 상태였다.

신라는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42년 신라의 서부전선 총사령부인 합천의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국가는 존망의 위기에 이르렀다. 백제가 낙동강 서쪽을 상당 부분 점령해 신라의 왕경을 노리는 형세였다.

647년 진골귀족들은 선덕왕의 무능을 빌미로 폐위를 결정했고, 여기에 여왕이 불복하면서 내란이 일어났다. 여왕의 조카인 김춘추와 인척관계에 있던 김유신이 왕경과 지척인 경산 주둔 하주 사단을 왕경으로 돌렸다. 당시 김춘추는 왜국에 가 있는 상태였다. 김유신은 백제군을 방어하기 위해 훈련된 군대를 왕경에 있는 진골귀족들을 진압하는 데 사용하였다. 무열왕은 국가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당나라에 안보외교를 지속했고, 이윽고 660년 당군이 백제 멸망전쟁에 개입하면서 국가보위 전쟁은 통일전쟁으로 대전환을 맞이했다.

무열왕과 그 아들 문무왕은 당을 끌어들여 660년과 668년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0년 동맹국이었던 당과 전쟁을 했다. 676년 당군은 물러갔지만, 당은 아직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 신라를 언제 재침할지 몰랐다.

대당전쟁 이후 당과의 전쟁재발에 대한 우려와 긴장이 신라 사회를 강하게 지배했다. 세계 최강국과 휴전상태인 신라는 생존의 열쇠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다. 신문왕대의 내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과 급진적 군비 증강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군비 증강을 뒷받침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진골귀족들이 가진 특권인 녹읍을 폐지하고 전국토의 생산지대를 국유화했다.

태종무열왕의 아들과 손자인 문무왕·신문왕대에 이러한 대규모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개조가 가능했던 원동력 가운데 다른 하나는 태종무열왕 직계 후손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태종무열왕에게는 정실에서 난 아들 7형제와 딸 2명이 있었다.

가야계의 결혼

김춘추는 어린 시절 김유신과 친하게 지냈다. 유신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그곳에서 유신의 누이를 보았다. 둘은 눈이 맞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배 속에 왕가의 아이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야합이었다. 왕실 조상신 앞에서 결혼 의례를 하기 전에 출산을 한다면 그 아이는 사생아가 된다.

김유신은 여동생을 태워 죽이겠다고 온 나라 안에 소문을 냈다.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올랐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백성들도 진골귀족들도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왕은 고민 끝에 이례적으로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결혼을 허락했다. 여기에는 장차 선덕여왕이 될 덕만 공주의 역할도 있었다. 이 해프닝은 김유신 가문이 가야계라서 왕실의 통혼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흥왕의 아들 동륜태자의 직계 진평왕과 백반갈문왕, 국반갈문왕과 그 자식들만이 성골로 불리었다. 그들은 순수한 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친 근친혼을 했다. 동륜태자는 고모인 만호부인과 결혼을 했고, 진평왕도 삼촌으로 추측되는 복승갈문왕의 딸과 결혼을 했고, 선덕왕은 삼촌인 백반과 결혼을 했다. 거듭된 근친혼은 열성 인자를 누적시켰고, 동륜태자의 가계는 자체 소멸하고 말았다. 김춘추 자신도 근친혼의 산물이었다. 아버지 용춘은 4촌인 진평왕의 딸 천명부인과 결혼을 해서 그를 낳았다.

가야계인 김유신의 누이 문희는 근친혼으로 약해진 왕실의 유전자에 신선한 피를 공급했다. 새로운 자궁을 만나자 근친혼으로 생기를 잃은 왕실의 자손 생산력이 폭증했다. 김춘추는 총 10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낳았다. 626년 적실인 문희가 첫 아들 법민^{法敏}(문무왕)을 낳았고, 이어 인문^{仁文}, 문왕^{文王}, 노차^{老且}, 인태^{仁泰}, 지경^{智鏡}, 개원^{愷元} 등 7명의 아들을 출산했다. 그녀는 춘추의 딸 5명 가운데 2명을 낳았다.

그녀가 낳은 두 명의 딸은 생애가 평탄치 않았다. 하나는 노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다른 하나는 김흠운과 결혼을 했다. 김흠운은 655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적진에 뛰어 들어 장렬하게 전사했다.

김춘추는 첩과 후궁도 두고 있었다. 이들은 개지문^{皆知文}, 거득령공^{車得令公}, 마득^{馬得} 등 아들과 3명 정도의 딸을 낳았다. 아들들은 김춘추에게 최대의 자산이 되었다. 그들은 신라의 통일전쟁 수행에 동원되었고, 모두 제 몫을 했다.

김춘추의 아들들

장남 법민은 661년 아버지를 이어 문무왕(661~681)으로 즉위했다. 왕은 외모가 영특하게 생겼으며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진덕왕 때 당나라에 가 있기도 했으며, 아버지가 즉위하자 파진찬으로 병부령^{兵部令}이 된 뒤 곧 태자로 봉해졌다. 재위기간 동안 백제 부흥군의 진압, 고구려 정벌, 당나라 군대의 축출 등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차남인 김인문(629~694)은 651년(진덕여왕 5) 23세로 당나라에 숙위로 파견되었고, 그곳에 머물면서 신라·당 간의 현안 문제, 특히 백제 고구려 정벌에 관한 중개 임무를 맡았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가 당과 전쟁을 하자 당에 체류한 그는 당의 유용한 재산이 되었다. 당나라 황제는 신라를 굴복시키고 그를 괴뢰왕으로 옹립하기를 원했다. 나당전쟁이 휴전된 676년 이후 그는 신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고, 당에서 임종을 맞이했다.

3남인 김문왕은 648년 진덕여왕대 당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숙위했다. 655년 귀국하여 이찬^{伊飡}이 되었다. 658년 집사부 중시^{中侍}에 임명되어 아버지를 보좌했다. 661년 백제 부흥군 소탕을 위해 사비성 부근 전투에 참가했다. 4남인 노차^{老且}는 아

버지 무열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인 655년 파진찬(海濱)에 임명된 것 외에는 기록이 없다.

5남인 인태는 655년 각간이 되었다. 667년 당나라 장군 유인원(劉仁願)의 부장(副將)으로 출전하여 웅진(熊津)(공주)전투를 진무하였다. 이듬해 비열도총관(卑列道總管)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장군 이적(李勣)을 따라 당나라에 다녀왔다.

6남인 지경은 655년에 이찬이 되었고, 667년 당 고종의 명령을 받고 요동에 가서 고구려군과 싸웠다.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문무왕을 보좌하는 집사부 중시에 올랐고, 동직에 재직하면서 신라의 수도 사단인 대당(大幢) 총관이 되어 평양성전투에 참가했다. 당나라와 전쟁이 시작된 670년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가고 왕경에 지진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사부 중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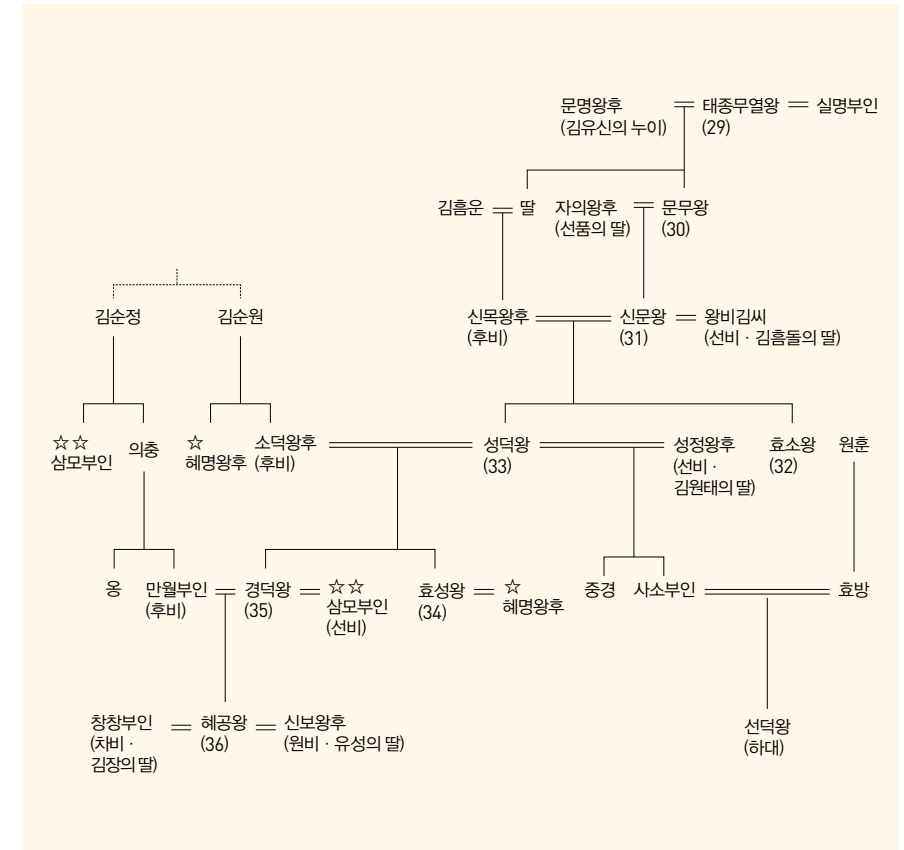
7남으로 막내 개원(開元)도 통일전쟁에 참전하였다. 667년 그는 당 황제의 명령으로 요동으로 가서 고구려군과 싸웠고, 이듬해인 668년 대당 총관이 되어 평양성전투에 참전하였다. 그의 큰형 아들인 신문왕은 김흠돌의 딸과 이혼한 후 683년 5월 7일 재혼할 때 왕비로 간택된 김흠운(金欽運)의 딸을 맞이 하였다. 김흠운의 딸은 개원의 생질이였다.

김흠운의 부인은 김춘추의 딸로 개원의 여자 형제였다. 신문왕에게 개원은 막내 삼촌이며, 성덕왕에게 그는 할아버지의 막내 동생이다. 695년 개원은 화백의 의장 상대등에 임명되었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군림했다. 손자뻘인 효소왕 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효소왕이 죽고 그 동생 성덕왕을 추대했다.

첩의 몸에서 태어난 3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문헌에 등장하는 사람은 거득령(車得令)이다. 그는 형인 문무왕을 보좌하였다. 일반인 복장을 하고 전국을 잠행했다. 백성들의 부역과 조세가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찰하기 위해 하슬라주(강릉 일대), 우두주(춘천 일대), 북원경(원주), 한주(서울 일대), 서원경(청주), 완산주(전주 일대), 무진주(광주 일대)를 다녔다. 지방의 상황이 모두 국왕에게 보고되었고, 국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음지에서 큰 역할을 했다.

김춘추의 아들 7형제는 통일전쟁기 무열계 왕권의 기둥들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후 김춘추의 아들 형제들이 벌인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표 1. 무열왕 직계 존비속 계보도



전에는 이렇게 전한다. “건관(建官)에서 (국왕의) 친속(親屬)을 상(上)으로 삼는데 그 족이 제1골(骨)·제2골이라 하여 스스로 구별한다. 형제의 딸, 고모와 이모, 종자매 모두 처로 삼는다. 왕족은 제1골로서 처 역시 그 족으로 삼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면 1골이다. 2골의 여를 처로 취하지 않으며, 취한다고 해도 첩(妾)이 되었다. (하지만) 재상·시중·사농경·태부령 등 17관등에 제2골도 오를 수 있었다.”

이 기록은 해공왕대 당시 신라 왕실의 결혼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1급 기록이다. 2골도 넓게 보면 국왕의 친속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 친속 가운데 국왕의 직계 혈족은 1골이며 그들 사이에만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골귀족 가운데 김춘추의 직계 후손들이 제1골이 되었고, 그들 사이에만 혼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외의 진골귀족이 2골이었으며, 그들은 김춘추 직계후손들의 통혼권에 들지 못했다.

진골의 딸이라고 해도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효성왕(737~742) 4년 파진찬 영종이란 인물이 모반하였다가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딸이 후궁으로 입궁하여 국왕의 절대적 총애를 받자, 당시 실력자였던 김순원의 딸인 혜명왕비의 질시를 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 반란의 주된 명분이었다. 영종은 진골귀족 밖에 오를 수 없는 제4관등 파진찬이었으며, 그의 딸이 후궁이었다는 것은 진골이라도 왕실의 통혼권 밖에 존재하는 2골이 있었음을 확실히 말해 주는 사례이다.

김춘추 직계후손들 사이에 통혼권이 생겼고 효성왕대가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 왕실의 일부일처제와 표리를 이루고 있었다. 중대 국왕은 1명의 왕비 이외에 정처가 없었다. 국왕은 1인의 제1골 출신 정처만 거느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처가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국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했다. 정확히 말해 다른 1골의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했다. 성덕왕, 경덕왕이 모두 이혼 경력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진골이라고 하더라도 근친왕족이 아니면 국왕과 정식으로 혼인할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국왕 중심의 근친왕족이 1골이라면 그에서 제외된 진골은 곧 2골로 불리었다. 이처럼 마지막 성골인 진덕여왕이 사망하고 진골왕인 김춘추가 등극한 이후

어느 순간부터 진골 내부에서 분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성덕왕, 경덕왕대를 지나면서 그 준비속이 특권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들이 해공왕 때에 1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김춘추 직계 후손들의 형제의 딸, 고모, 이모, 종자매 등 사이에 극심한 근친혼이 있었던 것 같다. 왕실과 2중 결혼을 통해 혈연으로 맺어졌던 김유신 가문조차 통혼권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덕왕대에 김유신의 손자는 이미 핵심권력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들은 특권의 확산을 막고 이를 영속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만의 통혼권을 따로 설정하였고, 하나의 새로운 계층을 형성했다. 앞서 있었던 성골과 같은 호칭을 갖지는 못했지만 여타의 진골귀족과는 뚜렷이 구분되었다.

하지만 2골도 장관직과 함께 17관등 전부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진골의 주류는 그들이었다. 해공왕 때에 특권화된 1골이 고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져 여기서 소외당한 다수 진골들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것이 해공왕 때 정변의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회경제적 측면

통일 직후 신문왕은 새롭게 정비된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체계를 떠받친 것은 두품 계층의 성장이나 능력을 우선시하는 관료체제가 아니었다. 대동회의를 대신한 것은 소수의 특권 진골귀족들이었다. 특히 김춘추와 아들 손자들이 재상직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두품 신분층의 관직 진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듯하며, 권력은 이들의 손에 집중되어 갔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으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한 것은 중대 왕권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중대 왕권이 소외된 진골귀족과 이하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그들의 품에 안겨준 경제적 부였다. 진골귀족들의 대민지배에서 기반이었던 녹읍은 혁파되었지만 그들에게 그에 버금가는 녹봉이 주어졌다.

하지만, 성덕왕대 이후 지속된 자연재해·흉년·기근이 재정 건전성을 잠먹어 들어갔다. 성덕왕대는 실은 중대의 절정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삼국사

기』에 기록된 천재지변 관련 기사의 통계를 보면, 전체 43종 584회의 기록 가운데 240회의 기록이 8-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시기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이다.

왕의 치세에 따라 순서로 나열하면 성덕왕 42회, 경덕왕 28회, 혜공왕 28회 순으로 중대 후반기에 집중되어있다. 농업생산과 생존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기근과 질병, 홍수, 가뭄, 눈, 서리, 우박, 곤충의 피해를 보면 8세기 전반 성덕왕대부터 급증해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초반에 절정에 도달했다. 이러한 빈도의 천재지변은 신라 사회의 생산구조를 허물어뜨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이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극복하려는 중대 왕실의 의지는 있었다. 창고를 열어 사람들을 구휼하고, 기상 현상의 예측을 위해 누각박사나 천문박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또 의학생을 양성하거나 의박사를 늘리고, 국가 위기 때마다 의술에 뛰어난 사람을 특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응은 주술과 종교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었다. 병을 고쳐주는 신통력을 가졌다는 약사불이 8세기 말에서 9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잘 말 해주고 있다.

특히 경덕왕대에는 중앙과 지방에 걸쳐 수많은 불교 관련 공사가 이루어졌다. 황룡사의 거중, 봉덕사중, 불국사와 석굴암과 더불어 분황사에 30만 근 이상의 거대한 약사불을 국가가 주도해서 조성했다. 그동안 이런 불사들은 화려한 중대 문화의 만개로 이해되었지만, 백성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주술적·종교적 치유책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경덕왕은 녹읍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녹봉이 안정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억눌렸던 진골귀족들의 저항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었다. 756년 상대등 김사인이 재이(災異)를 이유로 시정의 잘잘못을 극론했고, 이것을 경덕왕은 겸허히 받아들였다. 당시 신라는 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국 재정에 문제가 생겼고, 진골귀족들의 반발을 예상한 경덕왕은 녹읍을 부활시켰다. 혁파된 지 68년 만이었다.

녹읍제는 진골귀족에게 지역 지배를 허용하는 단점이 있지만, 진골귀족이 조세 수취를 위해 일정 지역의 재생산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서 국가재정의 고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했다. 애초 신라가 진골귀족들의 공동지배 위에 건설된 것도 고대사회의 생산 자체가 불안정하고 자연재해에 크게 취약했기 때문이다.

중대 왕실은 새로이 정복한 고구려와 백제 영토에 대한 세수(稅收) 증대를 토대로 기존의 '진골 공동체 국가'를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8세기 중반 이후 그칠 줄 모르는 자연재해와 고대사회의 본질적 한계에 부딪혔다.

경덕왕의 대응

한화정책

경덕왕은 아들을 원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전처 삼모부인과 이혼을 하고 만월부인을 맞이하여 혜공왕을 낳았다. “가을 7월 23일에 왕자가 태어났다.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고, 절 16곳에 벼락이 떨어졌다.”『삼국사기』 권9, 경덕왕 17년조에 혜공왕의 탄생을 전하는 이 기록은 혜공왕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혜공왕대에 완성한 「성덕대왕신종」의 명문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의 우리 성군께서는 행실이 조상에 부합하고 그 뜻이 지극한 도리에 부합되어 빼어난 상서로움이 과거보다 기이하며 아름다운 덕은 현재의 으뜸이다. 온 거리의 용이 궁궐의 계단에 음덕의 비를 뿌리고 온 하늘의 천둥이 대궐에 울렸다. 쌀이 열매달린 숲이 변방에 축축 늘어지고 연기가 아닌 색이 서울에 환히 빛났다. 이러한 상서는 곧 태어나신 날과 정사에 임한 때에 응답한 것이다.”라고 한다. 혜공왕이 태어난 그 시점에 상스러운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확실한 것은 혜공왕이 태어난 그때 천둥과 번개가 쳤다는 점이다.

혜공왕 건운(乾運)이 태어나기 1년 전인 757년 경덕왕은 3월에 녹읍을 부활시켰고, 12월에 구주(九州)를 비롯하여 군현의 명칭을 한식(漢式)으로 개칭하여 지방제도를 일신했다. 한식 개칭을 경덕왕의 전제주의적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것은 진골귀족의 대민지배를 가능케 한 녹읍의 부활에 대한 해석과 논리적으로 배치된다. 구주와 군현 명칭의 개칭은 진골귀족들이 지방에 광대하게 흩어진

녹읍을 다시 지배하게 되면서 지방의 통치와 운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년 후인 759년 경덕왕은 백관百官의 관호官號를 개칭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경덕왕 때에 개칭된 관부官府의 수는 51을 셀 수 있다. 신라의 고유한 관호를 한식으로 변형한 한화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경덕왕대에 이르는 중대의 일관된 정책이었으며, 그것은 경덕왕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한화정책은 곧 과거 진골귀족의 연합을 부정하고 왕권 전제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골귀족들의 위세는 당당했으며, 국왕과 신분적 동등성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국왕에 대한 동등의식은 중고기 이래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대표자로서의 국왕을 원했다. 중대의 역대 군주들은 그들의 회의체 화백을 잘 조정하려고 했을 뿐, 그것을 무시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언급한 바와 같이 진골귀족들 내부에서도 국왕과의 혈연관계 친소에 따라 신분 구분이 있었으며, 경덕왕 주변에는 김춘추의 직계비속인 근친왕족(1골)들이 적지 않았다. 국왕 앞에서의 위세는 2골인 방계 진골귀족들보다 높았을 것이다. 국왕에게 근친왕족들은 그를 견제하는 대상인 동시에 그의 왕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을 것이다.

관호개칭은 경덕왕이 뭔가 변혁을 시도한 흔적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 목적도 경제력과 힘을 잃어가는 국왕의 지배력을 일신하려는 어떠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화정책은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경덕왕은 즉위 초반부터 한학漢學을 수련하는 학생들을 키워 내는 작업을 급진시키고 있었다. 먼저 747년(경덕왕 6)에 자신의 권력 중추기구인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中侍를 시중으로 개칭함으로써 한화정책 집행을 예고했고, 이어 국학國學의 여러 학업과정에 박사博士와 조교助敎를 두었다. 기존에 있던 국학의 시스템을 한층 체계화시키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는 한화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좀 더 많이 조직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다.

동아시아를 흔든 안록산의 반란

하지만,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동아시아세계를 크게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삼국사기』 권9, 경덕왕 14년(755)조를 보면 “망덕사의 탑이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당에서 일어난 안록산의 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안록산은 755년(천보 14) 11월 9일 하북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해 12월 12일 낙양을 점령했으며, 이듬해 정월 낙양에서 스스로 연국燕國 황제라 칭했다. 756년 6월 8일 관중의 입구인 동관東關이 함락되면서 현종은 장안을 버리고 축(사천)으로 달아났다. 이에 경덕왕은 현종이 피신해 있던 사천지방까지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2년 후 당의 정세는 호전되기 시작했다. 757년 안록산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 안경서가 아버지 안록산을 죽이고 황제를 칭하자, 이 틈을 이용해 당 숙종이 반격 태세를 가다듬어 그 해 9월에 장안을, 10월에는 낙양을 탈환했다. 12월에는 안록산의 동업자 사사명까지 당 조정에 투항했다.

그러다가 상황은 반전되었다. 758년 6월에 사사명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이듬해 정월 그는 위주魏州에서 연왕燕王을 칭했다. 759년 3월 사사명은 무슨 암시를 받았는지 안록산의 아들 안경서를 자신의 군영으로 불러들여 죽이고 세력을 강화했다.

759년 말과 760년 초 한수漢水 계곡과 양자강 중류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반란이 일어나 760년 말까지 양자강 하류지역으로까지 퍼져갔다. 이러한 혼란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했으며, 적군과 아군의 구별조차 어려워졌다. 당시 당의 무정부 상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당의 혼란은 일본과 발해가 신라를 협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록산의 반란은 발해에 다녀온 오노노다모리小野田守에 의해 일본에 상세히 보고되었다. 그 때가 758년 12월이었다. 오노노다모리와 함께 일본에 온 발해사신 양승경楊承慶 일행은 일본의 실력자 후지와라 나카마로藤原仲麻呂의 저택에서 베풀어진 연회에 참석해, 당이 신라를 지원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신라 정벌을 모의했다고 여겨진다. 나카마로는 753년 경덕왕의 일본사신 추방사건과 같은 신라와의 외교분쟁을 빌미로 소위 신라정토계획新羅征討計劃을 세워 실천해 나갔다.

『속일본기』 권19, 천평승보 8년(756년) 7월 갑진 조를 보면 “이토성怡土城을 처

음으로 쌓았다.”라고 하고 있다. 756년 일본 조정이 북 큐슈에 쌓은 이토성은 정확히 말해 후쿠오카시와 이토시마시의 경계에 있는 타카스야마(高祖山) 중턱 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주선사(主船司)라는 관청과 용광로와 무기제조공장 등이 있었던 이토성은 대규모의 병참기지였다.

『속일본기』 권22, 순인천황 3년(759) 6월에서 9월에 다음의 기록이 보인다. “다자이후(大宰府)로 하여금 행군식(行軍式)을 만들게 하였는데 장차 신라를 치려는 것이다.”, “대제사 삼품 선친왕을 향추묘에 보내어 신라를 치려는 상황을 아뢰었다.”, “배 500척을 만들게 했는데……3년 안에 마치도록 했으며,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 『속일본기』 권23, 순인천황 6년(762) 11월 경인 조를 보면 “참의 중3 위 무부경(武部卿) 후지와라 나카마로(藤原仲麻呂)는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켰다.”라 하고 있다.

발해와 일본이 신라를 협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고 신라 조정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했다. 『삼국사기』 권9, 경덕왕 21년(762) 5월 조를 보면 “오곡, 휴암, 한성, 장새, 지성, 덕곡의 6성을 쌓고 각각 태수를 두었다.”라고 하여 신라는 북방을 요새화하고 있다. 발해의 침공에 대비해 예성강 이북에 위치한 주요 거점에 성을 수축하였는데, 이는 군현의 편성과 지방관 파견 및 군진의 설치 등 영역화의 추진 및 방어체제 구축 작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 경덕왕은 발해와 인접한 접경지대에 관문을 설치하였다.

물론 일본과 해안을 접한 남쪽에도 신라군의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의 침공에 대비해 해상 경계도 강화하였다. 『속일본기』 권25, 순인천황 8년(764) 7월 갑인(甲寅) 조를 보면, 일본 측은 신라사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근래에 너희 나라(신라)에서 투화해온 백성들이 ‘본국(신라)에서는 군대를 내어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국이 쳐들어와 죄를 물을까 해서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의 허실이 어떠한가?” 신라가 해안 경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투한 신라 사람들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던 백성들이 징발되었을 것이고, 요새를 구축하는데 동원되었을 것이다.

762년 5월에 안사의 난은 고비를 지나 종결로 치달았다. 9월에 회흘(回紇)과 복고

회(僕狐懷恩)의 유목군대가 당군에 참여하자, 사조의의 반란군은 결정적으로 전투에서 밀리고, 낙양을 포기했다. 11월에 사조의는 도망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763년 1월 이후에는 모든 군사를 잃고 해(奚)·거란으로 도망가다가 추격에 몰리자 자살하였다.

사조의의 몰락으로 안사의 난은 끝났지만 근본적 문제들은 그대로 남았다. 전란의 불길은 완전히 잦아든 것도 아니었다. 763년 11월 토번(吐蕃)(티벳)의 군대가 침공해왔다. 토번의 기마병은 실크로드의 요충지이며 또한 당나라의 부마국(駙馬國)이었던 청해호반(青海湖畔)의 토욕혼(吐谷渾)을 재탈환하고는 중원 땅으로 방향을 돌려, 763년 11월 당나라의 도읍지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장안성(長安城)에 입성하였다. 티벳의 수도 라싸 포탈라궁 오른쪽 광장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란·달레노공기공기(思蘭·達禮路恭紀功碑)」 남면(南面)을 보면 토번의 동정원수(東征元帥) 딱자루공(馬重英) 장군은 토번의 왕 티송데첸에게 통신용 비둘기(傳書鳩)를 띄워 다음과 같은 승전보를 보냈다고 한다.

“아군(토번)의 공격에 당나라의 군신이 모두 도주했기에 장안성에 들어와 금성공주(金城公主)의 조카인 광무왕(廣武王) 이승평(李承宏)을 황제 자리에 오르게 하고 문무백관도 새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창고를 열어 많은 보물들과 각종 기술자들을 폐하에게 헌납하고자 본국으로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적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들은 장안성에서 철수하여 중간에 병력의 일부를 남겨 놓고 본대는 양주(涼州), 감주(甘州), 숙주(肅州)를 점령하고 현재는 사주(沙州)(敦煌)로 향하는 중입니다.”

당나라의 새로운 황제까지 웅립한 토번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장안을 점령하고 개선한 딱자루공 장군에게 티송데첸 왕은 후한 포상을 내리고 전공비(戰功碑)까지 세워서 그의 이름을 천추에 남기게 하였다. 당나라 황제는 장안을 토번군에게 넘겨주고 동쪽의 협주(峽州)쪽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이제 막 극심한 내란을 봉합하려던 당제국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켰다.

이듬해인 764년 가을 토번군이 다시 당을 침략했다. 이때 토번군은 중국 영토 깊숙이 들어왔으나 크게 선전하지는 못했다. 765년에도 토번은 여러 유목부족들을 모아 동맹을 맺고 당 침공을 단행했다. 그 후 10년 동안 토번은 매년 가을 당제국의 변방을 공격했다. 토번의 위협은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려던 당 조정의 노력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안록산과 사사명의 부하들은 완전히 토벌되지 않고 건재하였다. 당은 서쪽의 토번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연안에 있던 안사의 부하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 없었다. 당 조정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또 그들도 당 조정에 형식적으로 복종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이 기간 동안 신라와 인접한 황해연안에 위치한 독립적 번진蕃鎭들이 자리를 잡아갔다.

경덕왕은 신라의 병제개혁에 착수한다. 『삼국사기』 권40 무관조에 “경덕왕대에 이르러 웅천주정에 (장군將軍) 3인을 가지加置하였다.”라고 하여 경덕왕대에 웅주 주둔 군부의 확장을 말해주는 흔적이 보인다. 웅주는 중국에서 신라에 들어올 때 상륙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이었다. 앞서 660년 당나라의 전함들이 백제를 침공할 때 이 금강 하구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양주良州 상성군商城郡 조를 보면 경덕왕은 왕경 주위에 있는 6개의 정停(군부대)을 왕경 방위를 의미하는 칭호를 가진 6기정畿停으로 개명했다.

“동기정東畿停은 본래 모지정毛只停인데 경덕왕이 개명했으며…남기정南畿停은 본래 도품해정道品分停인데 경덕왕이 개명했으며…중기정中畿停은 본래 근내정根乃停인데 경덕왕이 개명했으며…서기정西畿停은 본래 두량미지정豆良彌知停인데 경덕왕이 개명했으며…북기정北畿停은 본래 우곡정雨谷停인데 경덕왕이 개명했으며…막야정莫耶停은 본래 관야량지정官阿良支停(北阿良이라고도 한다.)인데 경덕왕이 개명했으며…”

왕경 주위의 6개 정停이 왕기王畿의 방위명을 갖는 6기정으로 개명된 사실은 군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우선 정停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라의 경우 군사주둔지 혹은 군사조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개명이란 곧 군제 개혁과 직결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징발되었고, 요새를 구축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무거운 세금과 강제노역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투화하는 자들도 속출했다. 『속일

본기』 권22, 순인천왕 3년(759) 9월 정묘丁卯조를 보면 “근년에 신라에서 귀화하는 배들이 끊이지 않는데 부역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멀리 무덤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와……”라고 한다. 경덕왕이 사망할 당시 신라 백성들은 결코 편안하지 못했다. 일본과 발해의 갑작스러운 신라 협공 우려는 경덕왕에게 군대징발과 부역징발을 단행하게 했고, 비상시국은 신라의 기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가져왔음이 확실하다.

녹읍 부활

거듭된 자연재해와 기근은 신라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했고, 이어진 국제정세의 변화는 신라의 기존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상황이 어려워져 관리들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757년(경덕왕 16) 3월의 녹읍 부활은 통일이전시대 시스템으로의 회귀였다.

그 직후 한화정책이 단행되었다. 관호개혁에 앞서 실시된 녹읍혁파와 관련하여 당시는 전제주의가 빛을 잃어간 시기로서 개혁은 귀족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추진되었고, 애초부터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결실을 맺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한다. 경덕왕의 관호개혁이 전제주의를 촉진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한계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관리들에게 녹봉 대신에 지급한 녹읍의 사여도 원활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삼국사기』를 보면 758년(경덕왕 17) 2월 왕이 다음과 같이 교서를 내려 말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서 휴가를 청한 것이 만 60일이 된 사람은 관직에서 물러남을 들어주라!” 이 기록은 당시 휴가를 청한 관리들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들에게 녹읍지급에 차질이 생겨 휴가를 청하는 관리들이 속출했을 수도 있다. 당시 국왕은 휴가를 청한 관리들의 사표를 수리해 주었다.

760년 4월 김웅金龜이 집사부執事部 중시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비담의 난을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한 김춘추와 김유신이 651년(진덕왕 5) 집사부에 왕정의 기밀사무를 맡게 했다. 그 장관인 시중은 병렬적으로 활거한 중앙의 제 1급 행정관서인 여러 부部·부府를 사실상 유기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이 집사부를 통해 국

왕에게 일원적으로 귀속하게 하려 했다.

김웅이 시중직에 임명된 3달 후인 7월에 건운이 태자에 책봉되었다. 24개월 된 아이가 태자로 책봉된 예는 신라사에 보기 힘든 사례이다. 국왕의 집사부를 책임진 김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다. 나중에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김웅은 건운의 외숙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763년 8월 시중인 김웅은 상대등인 신충과 함께 관직에서 물러났다. 시중과 상대등 일괄 사퇴는 직전 7월에 왕경 건물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힐 정도의 위력을 지닌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삼국사기』는 당시 경덕왕이 과거 총애한 신하로서 승려가 된 이순李純이 왕이 풍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궁궐 문 앞에 찾아와 “허물을 고치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하소서.”라고 탄원했다고 한다.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경덕왕의 도피 행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 김웅의 관직 사퇴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765년 경덕왕은 죽기 직전에 「안민가安民歌」를 짓게 했다. 『삼국유사』를 보자. 765년(경덕왕 24) 3월 3일, 왕은 귀정문 누각樓閣 위에 나아가 좌우 신하들에게 말했다. “누가 길거리에서 위 의威儀 있는 스님 한 분을 데려올 수 있느냐? 마침 위의 있고 깨끗한 고승 한 분이 길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다. 좌우 신하들이 이 스님을 왕에게 데리고 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위의 있는 스님이 아니다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다시 스님 한 분이 있는데 승의를 입고 앵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는데 왕이 보고 기뻐하여 누각 위로 영접하였다. 통 속을 보니 다구茶具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소승은 충담이라 하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소승은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께 드리는데, 지금도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그 차를 한잔 주겠는가? 스님이 이내 차를 다려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였으며,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겼다. 왕은 다시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스님이 기파랑耆婆郎을 찬미해 지은 사뇌가詞腦歌가 그 뜻이 무척 고상하다고 하니 그 말이 과연 옳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안민가」를 지어주시오. 충담사는 이내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왕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왕사王師로 봉하자 충담은 두 번 절하고 곧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최근의 한 「안민가」 해석은 이러하다.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며 백성은 어린애라고 하실 때, 백성이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탄식 소리를 불러일으키는 못 백성,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나라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임금답고 신하답고 백성다울 수 있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안민가를 통해 백성들이 태평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속일본기』에서 신라인들 가운데 일본으로 투화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 기록은 이 해석의 「안민가」 구절 가운데 하나와 정확히 부합된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의 동맹국인 당나라가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동 상태에 빠지자 일본과 발해는 신라를 협공하려 했다. 경덕왕은 백성들을 동원해 발해와의 접경지대를 요새화했고, 일본의 침공에 대비해 해상 경계도 강화했다. 한화정책을 실시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765년 6월 경덕왕은 그의 어린 아들을 염려하면서 세상을 떴다.

「안민가」 창작 당시 신라민들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경덕왕의 기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혜공왕대에 신라는 대란에 휩싸인다.

2. 혜공왕대의 정변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혜공왕조는 천재지변으로 점철되어 있다. 766년(혜공왕 2) 정월에 “해가 두 개 나타났다.”라든지, “2월 강주에서 땅이 꺼져 못이 되었다.”라든지, “겨울 10월에 하늘에서 북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있다. 그 해 12월에 혜성도 출현했다. 『신당서』 권32 천문지를 보자. “대력 원년(766, 혜공왕 2) 12월 기해에 혜성이 포과瓠瓜 별자리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1척여尺餘가 되었다. 20일이 지나서 사라졌다.”

766년(혜공왕 2)에 12월 출현한 혜성이 20일 동안 하늘에 떠있었다.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혜성이 지구에 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신라에서 목격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혜성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왕경의 대궐에서부터 시작하여 두메 산골의 노인[村老]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다.

혜성은 세계 모든 곳에서 목격되는 천체이기 때문에 중국의 기록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혜성이 하나의 천체임을 알았고, 그 모양에 따라 패(隗), 장성(長星), 아(雅), 치우기(蚩尤旗) 등으로 구별하여 불렀다.

767년(혜공왕 3) 6월에 지진이 일어났고, 같은 해 천구성(天狗星)이 떨어졌다. 『삼국유사』 권2, 기이2에는 “(대력) 2년(767) 정미에 천구성이 동루(東樓) 남쪽에 떨어졌는데, 머리는 향아리처럼 생겼고, 꼬리는 3척 가량이나 되었으며, 빛은 활활 타는 불과 같았고, 천지가 또한 진동하였다.” 라고 하였다.

천구성은 운석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위의 기록에는 그것이 빛을 내며 날아가는 모습만 그려져 있다.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그것은 화구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때때로 혼동하는 혜성과 달리 유성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데 가장 밝은 유성을 화구라고 한다. 가장 밝은 화구는 달이나 태양보다 밝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머리는 눈물방울 모양이며, 질주하는 빛과 흩어진 불꽃들을 동반한다. 낮에 화구가 떨어진 뒤에는 종종 검은 연기꼬리를 볼 수 있다.

이 천구성은 『삼국사기』 권9, 혜공왕 3년 가을 7월 조에 보이는 왕궁에 떨어진 운석일 수도 있다. “별 3개가 궁궐 뜰에 떨어져 서로 맞부딪쳤는데, 그 빛이 불꽃처럼 치솟았다.”라고 하였다. 물론 유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빛만 내고 사라진다. 만일 흐르는 빛줄기를 따라 달려가 하늘에서 갓 떨어진 돌덩이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유성이 아니라 운석이다.

767년 9월에 장안에서 유주 방향으로 떨어진 거대한 화구가 있어 위의 천구성·운석 기록과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 『신당서』 권22, 천문지를 보면 “대력 2년(767) 9월 을유 대낮에 성(星)이 있어 일투기(一鬥器) 같았다. 색은 황(黃)이고, 꼬리가 있었는데 길이가 6장여(六丈餘)였다. 남방(南方)에서 나와 동북으로 가라앉았다. 동북은 유주쪽이다(幽州分也).” 그것은 대낮이었는데도 너무나 밝게 보였다. 장안에서 보았을 때 유주

(현 북경 부근)는 거의 신라 방향이다. 『신당서』 기록을 통해서 『삼국사기』·『삼국유사』의 혜공왕대 성변 기록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고대인들은 현재의 우리보다 하늘과 훨씬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 모종을 하는 시기, 가뭄과 홍수가 닥치는 시기를 하늘을 보고 알았다. 밤이면 별밖에 볼 수 없는 신라인들에게 하늘은 친숙한 것이었다. 신라인들에게 거듭된 성변은 무언가 임박한 불행이나 재앙의 전조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

『신당서』 천문지를 보면 혜공왕 이전에도 천변은 여러 차례 있었다.

경릉 원년(707 : 성덕왕 6) 10월 임오, 혜성이 서방에 있었다. 11월 갑인에 서 가서 보이지 않았다.

경릉 2년(708 : 성덕왕 7) 7월 정유, 성패(星)가 위(胃) 자리에 있었다.

경릉 3년(709 : 성덕왕 8) 8월 임진, 성패(星) 자궁(紫宮) 자리에 있었다.

연화 원년(712 : 성덕왕 11) 6월, 혜성이 있어 현원(軒輊) 자리에서 태미(太微) 자리를 지나, 대각(大角)에 이르러 사라졌다.

개원 18년(730 : 성덕왕 29) 6월 갑자, 혜성이 오거(五車) 자리에 있었다. 계유에 성패(星)가 필(畢)과 묘(昴) 자리에 있었다.

개원 26년(738 : 효성왕 2) 3월 병자에 성패(星) 자궁원(紫宮垣)에 있다가, 북두괴(北門魁)를 지나, 10여일 있다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건원 3년(760 : 경덕왕 19) 4월 정사에 혜성이 동방에 나타났다. 루(魯), 위간(胃間)에 있었다. 백색(色白)이고, 길이는 4척이었다. 동방으로 질행(疾行)하여, 묘(昴), 필(畢), 자휴(觜), 참(參), 동정(東井), 여귀(輿鬼), 유(柳), 현원(軒輊)을 지나 우집법(右執法) 서쪽에 이르렀다. 모두 50여일(五旬餘) 동안 떠 있다가 보이지 않았다. 윤월(閏月) 신유(辛酉)에 혜성이 서방에 보여, 길이는 수장(數丈)에 이르렀다. 5월에 이르러서 사라졌다.

성덕왕대에 5차례 혜성이 지구를 찾은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시대를 반영하는 듯 『삼국사기』는 성덕왕대의 혜성 출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물론 효성왕 2년 3월에 혜성이 출현했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이로부터 2년 후에 효성왕이 총애하던 후궁의 아버지인 파진찬 영종이 반란을 꾀하다가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760년(경덕왕 19)에도 핼리혜성이 76년만에 어김없이 찾아 왔다. 대형급 혜성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일도 없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혜성의 출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혜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던 시대인 17세기 폴란드에 루비에닝즈키라는 귀족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415회에 달하는 혜성의 출현과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순서별로 배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거의 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그는 인간의 역사에서 혜성과 재앙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사람들이 혜성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너무나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성변星變과 상관없이 병란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생긴다. 하지만 여기서 성변이 병란이나 불행한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출현하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가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분의 기미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변이 거듭 일어난다면 사회적 불안심리가 고조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야심가들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시대가 불안하다면 더욱 그러하다. 일반인들도 조정의 현실적 위기를 직감하는 경우가 많다.

768년(혜공왕 4) 봄 신라 왕경에 당나라 사신이 도착했다. 사절단장인 창부랑 중倉部郎中 겸 어사중승御史中丞 귀승경은 부절과 책봉조를 지참하고 있었다. 그는 혜공왕을 신라왕으로, 왕의 생모로 섭정攝政이었던 만월부인을 대비大妃로 책봉했다. 그리고 그해 7월 신라에서 일어난 대란을 목격한다. 『신당서』 신라전에 그들이 목격하고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았다. “마침 그 재상宰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는데 3년 만에 비로소 안정되었다.”

『신당서』는 신라의 재상들이 서로 싸워 내란이 3년 간 지속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대공의 반란이 신라의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고 장기간 지속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혜공왕의 즉위에는 귀족들 사이에 반대하는 어느 정도의 물의가 있는 듯한 점이 주목을 끈다.”라는 견해가 있다. 나아가 대공의 반란을 “혜공왕과 그 일파를 축출하려는 운동이었다.” 하고 “혜공왕의 초년을 지배하고 있던 경덕왕에 의하여 표징되는 정치적 성격, 곧 중대적 성격의 부정을 의미한다.”고 풀이하였다. 이 지적대로 중대가 전제왕권이었는지 또 이런 중대적인 것에 반대하여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참혹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이 신라인들의 마음을 그늘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곳이 아니라 신라 왕경 내에서 100년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닌가.

『삼국사기』 권9, 혜공왕 4년 7월조를 보자. “일길찬 대공이 아우 아찬 대렴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는데,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궁을 에워쌌으나 왕의 군사가 이를 쳐서 평정하고 9족을 목 베어 죽였다.”

대공 등은 군사를 일으켜 33일간 왕궁을 포위하고 있었다. 반란에 호응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혜공왕이 왕궁 안에 있는 군사들로 대공의 반란군을 진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외곽에서 국왕 지원세력들이 군사를 모아 반란군을 진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 권2 기이2에서 반란의 참상을 전하고 있는 기록을 보자. “같은 해(768) 7월 3일에 각간 대공의 적도賊徒가 일어나고 서울과 5도 주군의 도합 96각간이 서로 싸워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각간 대공의 집이 멸망하니 그 집의 재산과 보물, 비단 등을 왕궁으로 옮겼다. 신성의 장창長槍이 불에 타므로 사량·모량 등의 마을 안에 있던 역적들의 보물과 곡식을 왕궁으로 실어 들였다. 병란은 3달 만에 끝났다. 상을 받은 사람도 많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라고 하였다.

“왕경과 5도 주군의 도합 96각간이 서로 싸웠다.”는 것으로 보건대 이 반란이 왕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33일간 왕궁이 포위된 상황에서 국가의 재원을 대규모로 보관한 신성의 장창이 불탄 것을 보면 반란의 진행 와중에 반란군에 의한 약탈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일

부 민가도 무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의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병란은 석 달만에 그쳤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반란이 진압된 후에도 혼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혜공왕 즉위 후)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미처 막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 권2, 기이2의 표현은 참고가 된다.

“사랑과 모랑 마을의 역적들의 곡식과 보물을 왕궁으로 옮겼다.”란 표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먼저 사랑부와 모랑부의 일부 유력자를 포함하여 그들 아래에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공의 반란군에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삼국사기』에서 왕궁을 33일간 포위할 정도였으니 그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란은 왕궁이 제압했다고 한다. 궁궐에 포위된 왕궁 수비대가 반란군을 제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누군가에 의해 외부에서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보고 싶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반란 1달 전에 천변이 있었다. 『삼국사기』 권9, 혜공왕 4년(768) 6월 조를 보면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는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았다.”라고 하고 있다. 운석은 때로 충격 음파나 나지막하게 굉음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아무런 보조 장치 없이 귀로 듣는 또 다른 천체의 유일한 소리다.

3. 만월부인의 섭정과 김웅

대공의 반란이 종료된 이후에 더한 살인과 약탈이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을 받은 자도 많았고 죽은 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의 표현은 이와 어느 정도 부합된다.

771년(혜공왕 7)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鐘이 완성되었다.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고 중대 왕실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려는 목적으로 원래 경덕왕대에 계획되었던

것이였다. 완성 후 처음에는 왕경의 봉덕사奉德寺에 있었다. 중에는 830자의 명문이 있다. 찬자撰者는 조산대부朝散大夫 겸 태자조의랑太子朝議郎 한림랑翰林郎 김필오金弼奧이며, 서序는 한림대서생翰林臺書生 대나마大奈麻 김부환金符皖이, 그리고 명銘은 대조待詔 대나마大奈麻 요단姚湍이 썼다.

현존 최대의 동종으로 신라를 대표하고 있다. 이 명문은 종명鍾銘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문장면에서도 매우 뛰어나다. 여기서는 주종鑄鍾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직을 통해 당시 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의 실제 운영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들 가운데 김웅과 김양상金良相은 주목된다. 김웅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고, 김양상은 뒷날 혜공왕을 이어 왕위에 올라 선덕왕宣德王이 되었다. 이 명문은 당시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명문에는 혜공왕의 섭정인 만월부인이 성덕왕과 경덕왕·혜공왕에 이어 등장한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태후께서는 은혜로움이 땅처럼 평평하여 백성들을 어질게 교화하시고 마음은 하늘처럼 맑아서 부자(경덕왕과 혜공왕)의 효성을 장려하셨다. 이는 아침에는 왕의 외숙[元舅]의 어짐과 저녁에는 충신의 보필을 받아 말을 가리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행동에 허물이 있으리오. 이에 유언을 돌아보고 드디어 옛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만월부인은 김의충의 딸로서 경덕왕의 후처이다. 김의충은 739년(효성왕 3)에 사망하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753년(경덕왕 2)에 입궁하여 아들을 15년 동안 낳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친정가의 세력을 짐작케 한다. 남편 사망 후 섭정이 된 그녀는 왕의 외삼촌인 ‘원구’와 국정을 관장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녀가 아침마다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원구’가 주목된다. 곁에는 친정 오라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태후의 오라비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원구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학계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성덕대왕신종명」에는 주종사업에 참여한 신라들의 신료들이 서열 순으로 열거되어 있다. 최고 책임자로 보이는 김웅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대각간으로

서 상상^{上相}이었다. 상제^{上宰}와 상상을 상급재상^{上級宰相}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는 같은 성격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군사권의 담당자인 병부령으로서 봉덕사성전의 검교사인 동시에 전중령, 사어부령, 수성부령, 감사천왕사부령, 검교진지대왕사사를 겸했다. 조정과 군문을 통틀어 최고의 실력자로 군림했다. 학계에서 집착하고 있는 대로 그가 섭정태후의 ‘원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웅의 가계와 그의 배경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속일본기』 권33, 보구 5년(774) 3월조에 “본국상제^{本國上宰} 김순정^{金順貞}의 때에 배가 계속 찾아오며 항상 직공^{職貢}을 바쳤는데 지금 그 손^孫인 김웅^{金兪}이 위치를 이어 집정^{執政}하여 공봉^{共奉}하였다.” 김웅은 774년 3월까지 신라의 집정자로 존재했음이 확실하며, 직후 그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혜공왕대에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상제^{上宰}였던 김순정의 손이었다. 선덕왕대 상제인 김주원이 상대등으로 2제^{二宰}인 김경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상제는 상대등보다 상위의 관직으로 보인다. 또 김순정은 선덕왕대 강릉태수를 역임한 순정공^{純貞公}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강릉이 무열왕계의 영지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곳에 태수로 임명된 김순정은 무열왕의 직계였을 것이다.

상제인 김순정은 대일교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일본과의 무역은 신라의 집정자들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주었다. 1골들 사이에 근친혼이 행하던 그 시기에 김순정은 왕실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딸인 삼모부인^{三毛夫人}은 경덕왕의 정비^{正妃}였다. 그녀는 황룡사의 최대 시주자였다. 『삼국유사』 권3, 탑상^四 황룡사조를 보자.

경덕왕 천보 13년(754) 갑오에 황룡사의 종^鐘을 주조했다. 높이 1장^丈 3촌^寸, 두께 9촌, 무게 49만 7,581근이었다. 시주^{施主}는 효정^{孝貞} 이간^{伊干}과 삼모부인^{三毛夫人}, 장인은 이상택^{上宅} 하진^{下典}이었다.

사료에 기록된 ‘높이 1장 3촌’이 그 시기의 척도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라면 이는 약 4미터가 되어, 만약 현재까지 남아 있다면 한국 중 가운데 최대의 종이 된

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경덕왕이 만들려고 한 성덕대왕신종은 12만근이었다. 무게로 따진다면 성덕대왕신종은 황룡사종의 1/4에도 못 미친다.

신라 최대의 호국사찰인 황룡사 범종 제작의 재정적 후원자가 김순정의 딸인 삼모부인이었다. 『삼국유사』는 “선비인 삼모부인은 후사가 없어 출궁 당했다.”라고 하여 아이를 낳지 못해 출궁 당했다고 적고 있다.

김웅은 김순정의 손자였고, 혜공왕의 원구가 확실하다면 그는 김의충의 아들이다.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처럼 김순정-김의충-김웅의 가계가 그려진다. 김웅과 태후는 남매였을 가능성이 크다. 태후의 전폭적 지지가 없었다면 김웅의 최상위 관직 승차와 겸직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태후의 섭정 직후 김웅은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대공의 반란 이후에는 태후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혜공왕 때 반란 진압과 역모로 걸린 귀족들의 처결에 김웅이 간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섭정인 태후가 오라비와 국사를 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김웅은 태후와 혜공왕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볼 수 있다.

「성덕대왕신종명」에 김웅을 이어 2인자로 김양상이 보인다. 각간 김양상은 감찰기관인 속정대의 장으로서 봉덕사성전의 검교사와 수성부령, 검교감은사사를 겸하고 있다. 『삼국유사』 왕력을 보면 김양상의 어머니 사소부인^{四召夫人}이 성덕왕의 딸로 명기되어 있다. 그의 집안은 왕실과 통혼권을 가진 1골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효방^{金孝芳}은 성덕왕의 사위였고, 어머니 사소부인은 경덕왕의 누이이자 혜공왕에게는 고모였다. 김양상은 혜공왕의 고종사촌이었다. 그는 외삼촌 경덕왕 아래에서 시중을 역임한 바 있으며, 774년(혜공왕 10)에 상대등에 취임했다. 그는 김웅이 집정하고 있던 774년 이전에는 혜공왕 정권을 유지해 갔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확실하며, 혜공왕이 피살되는 김지정의 반란 직전까지도 그러했다고 할 수도 있다. 혜공왕 때에 일어난 일련의 반란을 모두 당시 왕을 업고 실권을 장악했던 김웅과 김양상이 자기들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물리쳤다고 보는 견해는 경정할 만하다. 물론 그들의 그러한 강경책이 전적으로 실효를 거두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개혁 정책의 실패와 파국

『삼국사기』 권9 혜공왕 6년(770) 5월조를 보면 혜성이 출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5월 11월에 혜성이 오거^{五車} 자리 북쪽에 나타났다가, 6월 12일에야 없어졌다.” 이 기록에 의하면 1달 동안 칼처럼 신라 왕경의 하늘에 떠 있었다. 혜성의 규모와 진행 방향 그 꼬리의 색깔에 대해서는 『신당서』 권22, 천문지에 상세히 나와 있다.

“(대력) 5년(770) 4월 기미에 혜성이 오거자리에 나타났다. 망^芒이 빛을 내서 밝고 꼬리가 요동쳤다. 그 길이는 3장^{三丈}이었다. 5월 기묘에 혜성이 북방에 보였는데, 색이 백^白이었다. 계미에 동쪽으로 가서 8곡^{八穀} 근처에 중성^{中星}했다. 6월 계묘에 삼공^{三公}에 접근했고, 기미에 사라졌다. 점을 치니 색백자^{色白者}는 태백^{太白}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하얀 꼬리를 가진 이 혜성은 밝은 빛을 내는 3장에 달하는 긴 꼬리를 가졌다. 그 꼬리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북쪽에 나타났다가 동쪽으로 이동했다. 성변이 일어나고 이어진 가혹한 반란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변 직후 병란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혜공왕 때에 최초로 일어난 대공의 반란은 이 점에서 향후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혜성이 나타난 직후 반란이 일어났다. 『삼국사기』 권9 혜공왕 6년(770) 8월조를 보면 “대아찬 김용^{金融}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목 베여 죽임을 당했다.”라 하고 있다.

2년 후에 혜성이 또 나타났다. 물론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없다. 하지만 혜성은 중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관측되었다. 『신당서』 권32, 천문지에는 “대력 7년(772: 혜공왕 8) 12월 병인에, 장성^{長星}이 참하^{參下} 자리에 있어, 그것이 길게 하늘에 펼쳐져 있었다.”고 나온다.

772년(혜공왕 8) 12월에 장성이 참자리 아래에 나타났다. 위의 기록을 보면 이 혜성이 하늘에 오래 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속일본기』 권32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보구^{寶龜} 3년(772) 12월 기사에 “혜성이 남방에 보였다. 굴승^{屈繩} 100명으로 양매궁^{楊梅宮}에서 설재^{設齋}하였다.” 혜성이 남방에 나타나자, 광인천황^{光仁天皇}(770~781)은 승려 1백명을 동원하여 양매궁에서 재를 개설하게

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혜성을 물리치기 위한 의식이다. 통치자란 백성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혜성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1년 9개월 후에 신라조정에 중대한 인사가 있었다. 774년(혜공왕 10) 김양상이 귀족회의 의장 상대등^{上大夫}에 취임했던 것이다. 그가 바로 혜공왕을 이어 즉위한 선덕왕^{宣德王}이다.

『성덕대왕신종명』을 보면 김양상은 771년(혜공왕 7) 당시 사정기관의 장관 숙정대령^{肅正臺令}이었다. 그가 숙정대령과 상대등을 겸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숙정대는 꼭 감시기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앙관서에 대한 사정^{司正} 기관이었다. 혼란기에 사정기구의 힘은 평시보다 강했을 것이며, 그 장관이 신라 최고위 관직인 상대등에 오르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경덕왕대인 748년에 “처음으로 정찰^{正察} 1인을 두어 관리들의 잘못을 살펴 바로잡게 했다.”고 한다. 앞서부터 사정기구가 설치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의 역할도 증대되어 간 듯하다.

어떻든 혼란기의 정국을 이끌어 가는 데 혜공왕이 고종사촌형인 김양상에게 상당히 의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김양상이 상대등에 취임한 후에도 정치는 안정되지 못했다. 『삼국사기』 권9, 혜공왕 11년(775)조를 보자.

775년 6월 “이찬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8월 “이찬 염상이 (전) 시중 정문과 함께 반역을 꾀하다가 목 베여 죽음을 당했다.”

앞서 770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한 김용은 대아찬으로 진골귀족이 확실하다. 그리고 김은거·염상·정문은 모두 경덕왕대와 혜공왕대에 시중을 역임한 정계의 거물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공의 반란과 그 이후에 일어난 난들의 성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공은 군대를 일으켜 궁궐을 포위하고 국가의 재정보관소인 남산신성의 창고를 약탈하고 방화했다. 반란의 기간도 장기간이었고,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상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림 1. 경주 미추왕릉

하지만 그 직후 연이은 반란은 대공의 반란과 규모와 형태가 달랐다. 김은거·염상·정문은 군대를 일으켜 왕에게 대항한 뚜렷한 흔적은 없다. 정계의 거물이었던 자들이 반란·반역 혐의로 연이어 처형되었던 것이다.

“각간 대공의 적도(賊徒)가 일어나고 서울과 5도 주군의 도합 96각간이 서로 싸워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를 보면 대공의 반란에서 귀족내부에 쟁투가 도사리고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 『신당서』에서도 대공의 난을 재상(宰相)들이 서로 권력을 두고 다투었던 3년 동안의 전국적 대란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3건의 반란은 대공의 반란의 여진(餘震)이 아닐까. 앞서 있었던 귀족들 내부 쟁투가 이후의 반란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라면 상호 밀고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하늘에서 천변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신라의 고위층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모함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확실한 것은 감찰기구의 수장인 김양상이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고, 당시 재상급 인사의 연이은 체포와 처형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김용의 경우도 사전에 혐의를 받고 발각되어 처형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권2, 기이1 미추왕과 죽엽군 조는 주목된다. “제37대 혜공왕 대력 14년(779) 기미 4월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김유신공의 무덤에 나타났다. …중략…(장군과 마흔명의 사람들이 미추왕의 능숙에 들어갔다)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말은 이러했다. … 지난 경술년(770 : 혜공왕 6)에 신(김유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 없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군신들이 저의 공열을 생각해주시 않는 것입니다. … 혜공왕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대신 김경신을 보내어 사과하고…”

경술년(770)에 김유신의 자손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여기서 김유신의 자손은 반란죄로 처형당한 김용이거나 그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기록은 설화이지만 김유신의 자손이 770년 반란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죽은 사실에 대한 당대인의 의식 일면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김유신 후손의 처형은 당대인들이 무고한 처벌이 아닐까 의구심을 느꼈을 수도 있으며, 세월이 8~9년 지나면서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혜공왕이 김유신의 소리가 들렸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대신을 능에 보내어 사과했던 것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밀고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왕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더 큰 대란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밀고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 사람들 사이에 위기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으며, 그들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연이은 반란이 지속된 직후 한화정책이 복고되었다. 776년(혜공왕 12) 정월에 동왕은 교서를 내려 경덕왕대에 개칭되었던 한식(漢式) 명칭을 모두 그 이전의 것으로 회복시켰다. 경덕왕 때의 변화 시도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조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을 중대 전제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혜공왕대 관호복고는 단순한 경덕왕의 정책에 대한 부정만이 아니었고 중대적인 것에 대한 부정을 표시하는 사건이었으며, 하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반 전제왕권파인 김양상 등이 정권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대해 해공왕의 부왕인 경덕왕의 정책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견해도 있다. 신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발해나 일본도 당제화^{唐制} 정책이 취해졌음을 살필 수 있다. 그래서 전제왕권 확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다. 발해는 지명에 있어 고구려시대의 주^州 이름을 그대로 이어 받아 처음 두 글자로 된 명칭을 사용하다가 중국식인 한 글자로 된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그 시기의 하한은 759년 쯤 된다고 한다. 일본은 나라시대인 758년 8월에 당시의 실권자 후지와라 나카마로^{藤原仲麻呂}가 관명을 당식^{唐式}으로 개명하였으나, 반란을 일으켜 패사^{敗死}한 직후인 764년 9월 복고하였다고 한다. 발해와 일본이 각각 당제화 정책을 추진한 759년 무렵과 758년 8월이 신라가 당제화 정책을 실시한 757·759년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시대적 유행과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관호개혁 자체도 종래와 같이 중대 왕권의 전제주의적 경향의 표현이었다기 보다는 다소 형식적인 명칭의 정비였으며, 확대된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하대에 가서도 수없이 많은 관직명의 한화가 있었다. 때문에 한화를 중대만의 전제화 정책이라고 일반화하기에도 논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776년 해공왕대의 관호복고도 형식의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호복고가 중대 전제왕권 부정을 표시하며, 하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해공왕 정권 내부에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후지와라 나카마로의 관명 개명도 764년 그의 몰락과 함께 복고되었다. 774년 일본기록에서 신라의 집정자로 나왔던 김웅이 이후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때 김웅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양상이 주목된다. 774년 상대등에 취임했던 김양상은 반 전제왕권파였다고 단정은 할 수 없다. 그는 김웅과 함께 태후 만월부인이 주도한 「성덕대왕신종명」 주조에 부책임자였으며, 책임자였던 김웅의 아래에 있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종명을 고려한다면 그는 만월부인·해공왕·김웅과 함께 한 왕당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나물왕의 10세손으로서 성덕왕의 외손자였던 그의 존재는 1골의 범위 내에 비김춘추계의 유력 진골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해공왕

때 당시 특권화된 1골이 고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여기에서 소외당한 다수 진골들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것이 내란에 끊임없는 원소를 제공하였다.

진골귀족 대부분은 2골이었고, 그들의 반감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춘추 직계 비속의 독점이 곤란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김양상은 혈연적으로 태종무열왕의 후손인 성덕왕의 외손자였지만 부계 쪽으로는 무열왕계와 닿아 있지 않았다. 왕실과 혈연관계가 있어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2골들과도 공통점이 있는 처지였다. 그는 진골귀족 대다수의 왕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상대등에 취임했다.

해공왕의 피살과 중대의 종언

776년 해공왕은 감은사에 거동하여 동해 바다에 망제^{望祭}를 지냈다. 이는 도교적 색채를 가진 주술적 행사였을 수도 있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를 보면 “도류^{道流}와 함께 놀았다.”고 하여 해공왕이 도사들과 함께 친분을 가진 흔적이 보인다.

염원과 숭배의 대상이나 그 의식의 색채는 중요하지 않다. 지배자들이란 자신들의 통치를 돕고 안위를 보장한다면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의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이용하면 그뿐이었다. 불교와 도교는 교의상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이미 중국의 후한대부터 불교는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유교나 도교와 섞이면서, 점점 그 교의의 진위나 시비가 구분되지 않았다.

왕이 망제를 지내기 위해 감은사로 순행하는 광경을 많은 왕경인들이 보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듬해인 777년(해공왕 13) 3월에 왕경에 지진이 일어났고 4월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 직후였다. 상대등 김양상은 왕에게 글을 올려 시국의 정치를 극론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천재지변을 빌어 해공왕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김양상의 부상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당시 김웅이 어떠한 상태이거나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웅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극론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양상의 등장과 함께 김정신^{金敬信}이 기

록에 나타난다.

779년(혜공왕 14)이었다. 김유신이 자신의 무덤 위에 회오리 바람의 형태로 나타나 자손의 억울한 죽음을 말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자 혜공왕이 김유신의 묘에 대신 김정신을 보내 사과를 했고, 김유신이 세운 사찰에 토지를 바쳐 그의 명복을 비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고 『삼국유사』는 기록하고 있다.

김양상의 충고대로 혜공왕이 실천을 했다고 해도 자연은 그를 봐주지 않았다. 1년 후인 779년(혜공왕 15) 3월에 또 왕경에 지진이 발생해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100명이 나왔고, 금성^{太白}이 달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더 큰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자 혜공왕은 백고좌회를 열었다. 혜공왕은 연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혜공왕은 석가모니에게 의지하기로 결정했다. 백좌법회를 열었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애와 더불어 어쩌면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부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혜공왕은 전국에서 고승 백 명을 초청하여 백좌법회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의 백좌법회는 무열왕계에게 최후의 수단이었다. 백좌법회가 있다는 소문이 왕경에 퍼졌고, 곧 전국의 고승들이 왕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백좌법회란 많은 승려를 모아놓고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불경을 읽는 법회이다. 백고좌회^{百高座會}라고도 하고 또는 인왕법회^{仁王法會} 혹은 인왕도량^{仁王道場}이라고도 한다. 이는 국왕이 반드시 시주가 되어 국가의 안태를 기원한다. 인왕도량은 설법되는 불경이 『인왕경』임을 지칭하는 말이다. 『인왕반야경』 호국품에서는 갖가지 재난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왕이 이 경을 하루에 두 번씩 외워야 한다고 쓰여 있다. 『인왕경』을 보면 이 법회를 열 때에는 반드시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을 100개씩 모시는 한편, 100명의 법사를 청하여 강경하도록 하되, 그 100명의 법사들이 각각 높은 사자좌에 앉도록 하고, 그 앞에 100개의 등불을 밝히고 100가지 향불을 피우며, 100가지 색깔의 꽃을 뿌려 삼보를 공양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백좌법회의 장면은 다음과 같이 상상된다.

“왕경의 어느 사찰에서는 100가지의 향내가 진동하고 인왕경 외는 소리가 낭

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3보의 공양이 행해지고 있었다. 100명의 승려들이 사자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100개의 등불이 밝혀져 있고 100가지 색깔의 꽃이 뿌려져 있었다. 마치 천상의 소리인 듯 범종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그와 함께 사원의 모든 악기가 일제히 소리를 냈으며, 화려한 휘장이 높이 쳐진 가운데 염불소리가 파도처럼 끓일 줄 모르고 울려 퍼졌다.”

이 백고좌회가 켜는 듯한 더위에 시원한 바람처럼 고난 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을까. C. G. 융(Jung)의 지적대로 의례는 그것이 실제적 작용을 해낸다는 점에서 마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대의 상태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마법적인 것이다. 마법적인 의례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새로 공을 들인 대상이 심리적인 것과 관련되어 작용하는 어떤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백좌법회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이듬해인 780년(혜공왕 16) 정월부터 누런 안개가 끼었고, 2월에 흙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왕궁을 포위했고, 이윽고 궁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궁궐을 장악했다. 반란군이 궁을 점령하고 있는 2달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궁궐이 위치한 월성에서 왕궁호위대와 반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거나 내부자가 문을 열어주었거나 김지정과 그의 병사들이 파성추를 동원해 성문을 깨고 난입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반란 직전에 김양상과 그의 사람들이 왕경의 치안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김지정이 수많은 난병을 모아 왕경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도 이를 저지 못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또 반란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김양상 등은 궁궐에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란군이 몰려오기 직전에 빠져나갔거나 포위된 성벽을 넘어 탈출했을 수는 있다. 김양상이 김정신과 함께 외부에서 군대를 모아 반란진압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삼국사기』는 혜공왕과 그 비가 김지정의 난병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하고, 『삼국유사』를 보면 김지정의 난병을 격파하고 궁궐을 수복한 김양상과 김정신이 혜공왕과 그 비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상반된 두 기록 사이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아무리 부도덕하고 실정한 왕일지라도 그를 살해한 자는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난병이든 그들을 진압하려고 한 관군의 수장이든 왕과 비의 처리를 놓고 고심은 피할 수 없다. 대란의 결과 혜공왕과 그 비는 사망했다. 피살되었을 수도 있지만 충격을 받고 사망했을 수도 있다.

반란군 수중에서 보낸 60일이란 긴 기간을 무시할 수도 없다. 확실한 것은 반란을 일으킨 김지정은 왕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을 수복한 김양상의 입장에서도 그러했을 수도 있다. 왕을 다시 복위시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 김양상의 입장에서 부담이다. 반란과 2달 후의 진압은 96명의 각간으로 상징되는 진골 세력의 합종연횡이 벌어진 하나의 징후로 생각되며, 반란에 동조하든 그렇지 않든 진골귀족들은 혜공왕의 복위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780년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김경신과 함께 군대를 끌고 와서 김지정의 반란군을 진압했을 때 혜공왕과 그 왕비는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영교)

참고

문헌

김수태, 1996, 『신라중대정치사연구』, 일조각.

박해현, 2003, 『신라중대 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신형식, 1990, 『통일신라사연구』, 삼지원.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영호, 2014, 『신라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05

색인

신라의 왕권 강화와 발전

ㄱ

가담賁耽	136
감산사甘山寺	131
감은사感恩寺	089, 090, 091, 092, 100, 129, 163, 281
강수强首	063, 064, 095, 226, 232
개원愷元	022, 023, 062, 086, 087, 124, 136, 253, 254, 269
결결중상乞乞仲象	188
검모장制牟岑	044, 045, 046
결부제結負制	072
경덕왕景德王	015, 016, 017, 097, 098, 101, 103, 135, 136, 140, 146, 148, 149, 153, 154, 157, 158, 159, 160, 163, 164, 165, 166, 169, 170, 171, 172, 175, 177, 194, 200, 202, 203, 206, 209, 210, 219,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6, 258, 259, 260, 261, 262, 264, 265, 266, 267, 269, 270, 271, 273, 274, 275, 279, 280
경영慶永	040, 118, 119, 125, 126, 135, 140, 142

경위京位	028, 029, 064, 065, 066, 067, 068, 069, 111
경흥懷興	041, 042, 087, 153, 154, 169
계필하력契苾何力	050
고려국왕高麗國王	192
관료제官僚制	016,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72, 073, 075, 223, 235, 240
관문성關門城	146, 147
관호개혁官號改革	017, 098, 265, 280
9서당九誓幢	036, 037, 088, 089, 104, 105, 106, 109, 142
9주 5소경九州 五小京	013, 016, 100, 103, 109, 111, 112, 142, 238
국로國老	041, 087, 088, 153
국사國師	087, 153, 154
국원소경國原小京	104
국인國人	014, 123, 124, 126, 133, 197, 251
국통國統	153, 154
국학國學	013, 057, 064, 095, 096, 100, 128, 231, 232, 233, 234, 260
군관軍官	084, 085, 102, 105, 108, 109
군자국君子國	199, 200, 201
귀송경歸崇敬	200, 201, 255, 270
근시기구近侍機構	229, 230, 231
기림사祇林寺	092
기벌포伐伐浦	055, 195
김개원金愷元	117
김경신金敬信	017, 094, 224, 274, 279, 281, 282, 283, 284
김군관金軍官	062, 078, 084, 085, 086, 095
김대문金大問	134
김대성金大城	015, 163, 172, 173, 175, 176, 177, 178, 179, 180, 185
김문량金文亮	015, 174, 175
김사인金思仁	258
김삼현金三玄	206, 207, 214
김상정金相貞	208
김순원金順元	117, 118, 125, 126, 221, 256
김순정金順貞	206, 207, 208, 219, 221, 224, 227, 274, 275
김신복金信福	205

김암金巖	138
김양상金良相	017, 159, 246, 273, 275,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김웅金傭	017, 224, 225, 244, 245, 246, 247, 248, 265, 266, 273, 274, 275, 280, 281
김원태金元泰	124, 125
김유신金庾信	013, 015,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8, 050, 051, 059, 060, 061, 062, 064, 076, 087, 089, 091, 093, 094, 099, 114, 131, 133, 134, 138, 196, 198, 251, 252, 253, 257, 265, 279, 282
김융金融	276, 277, 279
김의충金義忠	015, 136, 199, 223, 227, 273, 275
김인문金仁問	022, 026, 031, 059, 063, 196, 253
김정권金貞卷	211
김주원金周元	094, 274
김지성金志誠	123, 130, 131
김지정金志貞	017, 246, 275, 283, 284
김체신金體信	212
김춘추金春秋	011, 021, 093, 114, 200, 206, 251, 252, 253, 254, 256, 257, 260, 265
김충신金忠信	015, 198
김태렴金泰廉	208, 209
김흠돌金欽突	012, 077, 078, 083, 084, 085, 086, 088, 089, 093, 095, 100, 105, 110, 118, 254
김흠운金欽運	024, 086, 087, 253, 254

ㄴ

남원소경南原小京	027, 104
노당弩幢	106, 109, 149
녹금서당綠衿誓幢	105
녹읍祿邑	013, 016, 100, 101, 114, 115, 242, 243, 244, 252, 257, 258, 259, 260, 265

니하泥河	141
------	-----

ㄷ

다자이후(大宰府)	193, 204, 211, 213, 214, 215, 219, 236, 262
단속사斷俗寺	160, 165, 170, 171, 226, 227, 247, 248
달구벌達句伐	013, 110, 111, 113, 114, 115
대공大恭	160, 270, 271, 272, 275, 276, 277, 278
대등大等	098, 100, 274
대무예大武藝	191, 198
대봉예大封芮	201
대왕암大王巖	089
대조영大祚榮	188, 189, 190, 191
대흠무大欽茂	192
도독都督	052, 054, 101, 102, 103, 104, 141
도리기道里記	136
동경東京	194
동궁東宮	111, 229, 230, 231
동모산東牟山	188

ㄹ

만보당萬步幢	106, 109
만월부인滿月夫人	223, 224, 226, 227, 228, 229, 231, 244, 246, 259, 270, 273, 280
말갈靺鞨	014, 015, 105, 116, 133,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89, 190, 191, 193, 195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	209, 210
명랑明朗	154, 155
모벌군毛伐郡	146, 208
무열왕계武烈王系	011, 012, 013, 049, 078, 087, 093, 110, 241, 274, 281, 282
무왕武王	037, 038, 041, 191, 192, 198, 235
무진주無珍州	101, 103, 108, 109, 238, 254
『문관사림文館詞林』	096, 196

문두루비법文頭婁秘法	154
문무관료전文武官僚田	100
문무왕文武王	008, 010, 011, 012, 013, 017, 021, 022, 023, 025, 026, 027, 028, 032, 033, 034, 035, 036, 041, 042, 043,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9, 070, 071, 072, 073, 074, 075, 076, 077, 078,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1, 092, 093, 094, 096, 097, 101, 104, 105, 108, 109, 111, 129, 132, 133, 142, 145, 147, 148, 149, 153, 154, 155, 156, 160, 161, 162, 195, 240, 251, 253, 254, 255
문왕文王	022, 062, 132, 147, 192, 193, 194, 253

ㅂ

발해渤海	014, 015, 055, 056, 127, 135, 136, 137, 138, 143, 144, 145, 146, 148, 149, 150,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7, 198, 199, 201, 202, 203, 209, 211, 212, 215, 219, 235, 236, 237, 241, 261, 262, 265, 267, 280
발해군왕渤海郡王	191
발해말갈渤海靺鞨	014, 193
백관잡감百官箴	127, 233, 234
백금서당白衿誓幢	036, 089, 105
백률사栢栗寺	117, 143
백좌법회百座法會	168, 282, 283
법당군단法幢軍團	106, 109
법민法敏	022, 253
벽금서당碧衿誓幢	088, 089, 105
병부령兵部令	017, 022, 076, 078, 084, 098, 100, 105, 124, 224, 253, 274
보덕국報德國	027, 038, 039, 040, 046, 088, 105, 106

보덕왕報德王	047, 088
보림사寶林寺	160, 165, 166, 170
보장왕寶藏王	043, 051
봉덕사奉德寺	100, 129, 168, 273
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	017, 273, 274, 275
봉성사奉聖寺	100, 129
부례랑夫禮郎	116, 117, 143, 145, 146, 147
부석사浮石寺	074, 075, 129, 156, 160, 161, 162, 166, 179
부여웅扶餘隆	036, 052
북구주北九州	204
북소경北小京	104
북원소경北原小京	027, 104
불국사佛國寺	015, 160, 163, 165, 166,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230, 258
비금서당緋衿誓幢	105, 109
비담毗曇	011, 064, 265

ㅅ

사공思恭	132, 207, 208
사대등仕大等	104
사량부인沙梁夫人	221, 223
사벌주沙伐州	101, 103, 108, 109, 112, 238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	189, 191
사사명史思明	261, 264
사인思仁	132, 137, 148, 207, 228
사자금당師子衿幢	106, 109
사정부司正部	057, 098, 230, 241
사천왕사四天王寺	100, 111, 129, 154, 155, 159, 169
『산해경山海經』	199, 200
삼광三光	033, 051, 086, 087
『삼국사기三國史記』	011, 013, 017, 024, 028, 063, 081, 083, 086, 094, 100, 108, 111, 113, 118, 123, 124, 134, 135, 136, 138, 141, 142, 144, 145, 146, 148, 149, 156, 160, 190, 206, 207, 220, 226, 229, 232, 233, 238, 247, 248, 251,

『삼국사기三國史記』	257, 259, 260, 261, 262,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6, 277, 283, 284
『삼국유사三國遺事』	011, 017, 024, 036, 037, 089, 111, 123, 124, 129, 141, 143, 144, 147, 149, 156, 159, 160, 162, 172, 173, 198, 223, 225, 226, 227, 230, 233, 237, 245, 247, 248, 266, 268, 269, 271, 272, 274, 275, 278, 279, 281, 282, 283, 284
삼모부인三毛夫人	221,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45, 259, 274, 275
삼무당三武幢	105
삼한三韓	004, 090, 133, 196
삼량주掃良州	101, 103, 108, 109, 238
상대등上大等	022, 023, 024, 025, 026, 061, 062, 085, 086, 098, 099, 100, 105, 117, 124, 132, 206, 207, 226, 228, 244, 246, 254, 255, 258, 266, 274, 275, 277, 280, 281, 284
상문사祥文司	128, 197
상재上宰	206, 274
서원소경西原小京	104, 125
석굴암石窟庵	015, 163, 164, 173, 175, 176, 180, 184, 258
석불사石佛寺	015, 160, 163, 174, 175, 178, 180, 181, 185
선덕왕宣德王	064, 138, 159, 173, 224, 246, 251, 252, 273, 277
선화공주善花公主	037
실인귀薛仁貴	034, 051, 054, 055, 063, 076
실총薛聰	064, 095, 096, 131, 226, 232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017, 224, 245, 259, 272, 275
성덕왕聖德王	014, 015, 016, 058, 118,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45, 146, 147, 148, 162, 166, 167, 168, 175,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6, 207, 208, 219, 221, 224, 233, 234, 235, 236, 245, 254,

성덕왕聖德王	256, 257, 258, 269, 272, 273, 275, 280, 281
성전사원成典寺院	013, 129, 160
성정왕후成貞王后	124, 125
세택洗宅	241
소경小京	026, 027, 028, 029, 104, 111, 134, 141
소덕왕후昭德王后	125, 126, 221
소부리주所夫里州	054, 101
『속일본기續日本紀』	119, 136, 192, 206, 207, 208, 209, 213, 214, 224, 227, 236, 261, 262, 264, 267, 274, 276
수창군壽昌郡	113
순정順貞	206
승경承慶	126, 131, 207
시위부侍衛府	104, 105, 231
시중侍中	015, 163, 207, 224, 228, 229, 244, 245, 255, 256, 260, 265, 266, 275, 277
「신라국기新羅國記」	255
신라도	136, 149, 150, 193, 194, 202
신라삼보新羅三寶	013, 092, 093, 096
「신라장적新羅帳籍」	100, 104
신라학어新羅學語	192, 193
신림神琳	174, 178, 179
신목왕후神睦王后	124
신목태후神睦太后	117, 118, 119, 125, 166
신문왕神文王	008, 012, 013, 014, 016, 017, 021, 023, 024, 027, 036, 041, 042, 047, 057, 077, 078,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100, 101, 104, 105, 106,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7, 118, 123, 124, 125, 127, 129, 133, 142, 153, 157, 166, 195, 196, 197, 223, 224, 232, 238, 240, 242, 243, 244, 254, 255, 257
신삼천당新三千幢	106, 108
신충信忠	225, 226, 227, 228, 246, 247, 248, 266

신충봉성사信忠奉聖寺	157
10정十停	106, 107, 108

ㅇ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052, 055, 135, 137, 195, 202
안록산安祿山	200, 201, 202, 203, 211, 212, 236, 237, 261, 264
안민가安民歌	171, 172, 248, 249, 266, 267
안사의 난安史亂	194, 201, 202, 203, 211, 212, 262, 263
안승安勝	038, 039, 043, 044, 045, 046, 047, 088

연개소문淵蓋蘇文	042, 050, 051
연정토淵淨土	042, 043, 051
예작부例作府	097, 098, 112, 241
예작전例作典	112
오대산五帶山	124, 162, 163
오묘제五廟制	013, 094
오악五嶽	074
5주서五州誓	106, 108
완산주完山州	101, 103, 108, 109, 238, 254

왕궁리유적王宮里遺蹟	038, 039
왕성국王城國	208, 219
왜적倭賊	205
외사정外司正	101, 103, 241
외위外位	028, 064, 065, 066, 067, 068, 069, 111
우수주牛首州	109
운제당雲梯幢	106
웅천주熊川州	101, 103, 108, 109, 233, 237, 238

6가정六歲停	264
6전	098, 241
원술元述	032, 033, 034, 035
원표元表	157, 165, 170
원효元曉	042, 064, 154, 168, 169, 170, 184
월성月城	064, 283
율령律令	056, 077, 128, 205, 207, 234
음리화정音里火停	107, 240
의상義湘	072, 074, 075, 111, 129, 154, 155, 156, 160, 161, 162, 178,

의상義湘	179
이근행李謹行	034, 055
이방부理方府	056
이세적李世勣	051
이순李純	157, 165, 170, 171, 172, 226, 227, 228, 246, 247, 248, 266
이진충李盡忠	188
『인왕경仁王經』	168, 282
일통삼한一統三韓	133, 134, 139

ㄷ

자금서당紫衿誓幢	105
자장慈藏	074, 075, 153, 161
작제건作帝建	139
장문휴張文休	198, 235
장산성獐山城	111, 113, 114
장안長安	193, 200, 201, 237, 261, 263, 268

장안성長安城	115, 263
장창당長槍幢	033, 105, 109
적금서당赤衿誓幢	088, 089, 105
전륜성왕사상轉輪聖王思想	153, 166
전사서典祀署	128
전제왕권專制王權	012, 017, 021, 022, 027, 037, 049, 056, 061, 063, 064, 073, 074, 075, 076, 077, 078, 085, 099, 153, 160, 161, 162, 163, 165, 166, 228, 230, 231, 233, 234, 235, 238, 241, 242, 243, 245, 246, 248, 271

전제정치專制政治	153, 163, 164, 165, 223, 224, 226, 228, 229, 234, 237, 240, 242, 243, 246
----------	---

전제주의專制主義	110, 160, 265
정전丁田	072, 127
정종眞宗	132, 207
조부調府	073, 098, 127, 140, 241
중경重慶	125
중사성中事省	241, 242
중시中侍	016, 022, 023, 061, 062, 086, 098, 099, 112, 115, 117, 118, 125, 126, 132, 175, 207, 224,

중시中侍	226, 228, 229, 231, 238, 255, 260
중위제重位制	059, 061
진골眞骨	059, 088, 256, 257, 281
진골귀족眞骨貴族	011, 012, 016, 021, 056, 059, 060, 061, 062, 064, 076, 077, 078, 100, 110, 115, 118, 123, 127, 175, 176, 206, 217, 220, 232, 250, 251, 252, 256, 257, 258, 259, 260, 277, 281, 284
진표眞表	157, 158, 166
집사부執事部	016, 023, 058, 061, 097, 098, 099, 100, 112, 115, 131, 193, 228, 229, 240, 244, 260, 265, 266
집사시랑執事侍郎	130, 131

ㄸ

차득공車得公	026, 058, 072, 073
창부倉部	098, 241
천명부인天明夫人	252
청금서당靑衿誓幢	036, 088, 089, 105
청주靑州	101, 103, 108, 109, 238, 254
촌주村主	064
총관總管	035, 069, 101
최치원崔致遠	114, 173, 180, 189, 190, 191
춘추春秋	162, 253
충담사忠談師	230, 248, 266
촉천무후則天武后	188, 190, 196

ㅁ

탄항관문炭項關門	148, 149, 150, 194, 202
태백산太伯山	033, 074, 075, 160, 162
태수太守	103, 135, 136, 262, 274
태종太宗	021, 154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011, 012, 017, 021, 022, 023, 024, 025, 026, 028, 029, 030, 035, 036, 037, 049, 052, 053, 054, 055, 056, 057, 059, 060, 061, 062, 063, 064, 076, 077, 081, 087, 124, 129, 132, 141,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196, 197, 240, 248, 251, 252, 255, 281
태현太賢	042, 157, 158, 169
토번吐蕃	187, 195, 263, 264
토함산土含山	015, 074, 160, 163
통문박사通文博士	128, 197

ㅂ

배강진貝江鎭	138, 139, 140
평양성平壤城	044, 050
표훈表訓	157, 159, 160, 176, 177, 178, 179, 230
품주粟主	098, 229

ㅅ

하서州河西州	101, 103, 108, 109, 143, 238
하슬라도何瑟羅道	145
한산주漢山州	101, 103, 108, 109, 133, 134, 138, 238
한화정책漢化政策	016, 017, 097, 224, 226, 227, 228, 229, 234, 235, 238, 240, 242, 244, 246, 247, 248, 260, 265, 267, 279
현영憲英	126, 219, 221, 222
현령縣令	103
혜공왕惠恭王	015, 017, 097, 101, 132, 160, 168, 173, 228, 246, 249, 251, 255, 257, 258, 259,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5, 276, 277, 279, 280, 281, 282, 283, 284
혜성曄星	013, 093, 117, 248, 267, 268, 269, 270, 276, 277
혜통惠通	156, 157
화백和白	254
화엄십찰華嚴十刹	074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075
화엄종華嚴宗	074, 075, 128, 230
황금서당黃衿誓幢	088, 105
황룡사皇龍寺	129, 158, 168, 177, 245, 258, 274

황복사皇福寺	176, 178
회흘回紇	262
효명태자孝明太子	124, 162
효성왕孝成王	016, 024, 126, 132, 147, 198, 200, 201, 202, 207, 208, 209, 219, 220, 221, 222, 225, 226, 227, 228, 249, 255, 256, 269, 270, 273
효소왕孝昭王	008, 014, 080, 086, 100, 105, 115, 116, 117, 118, 119, 123, 124, 125, 126, 143, 144, 145, 153, 157, 166, 196, 197, 254, 255
흑금서당黑衿誓幢	088, 105, 142
흑수말갈黑水靺鞨	187, 198
흑옥대黑玉帶	089, 092
흙돌欬突	083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동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노중국 계명대

위원(가나다순)

김동소 대구가톨릭대
김리나 홍익대
김명자 안동대
문명대 동국대
성호경 서강대
신형식 이화여대
이희준 경북대
주보돈 경북대
최병현 서울대
최병현 송실대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장

편집위원회

위원장

노중국 계명대

부위원장

주보돈 경북대
이희준 경북대

위원(가나다순)

김복순 동국대
김세기 대구한의대
이강근 서울시립대
이영호 경북대
이임수 동국대
이한상 대전대
임영애 경주대
임재해 안동대
경상북도 문화유산국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 총서 05

신라의 왕권 강화와 발전

편저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발행인 경상북도지사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 054-880-3176 F. 054-880-4229

발행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8874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38
T. 070-7113-9011 F. 054-336-8323

디자인 전명철, 천진영, 이종선, 김새얼,
임소라, 김다영, 최셋별

사 진 오세운

제 작 디자인공방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16호
T. 02-2285-4132 F. 02-266-9821
<http://www.designgb.co.kr>

인 쇄 ㈜태웅씨앤피

인쇄일 2016년 11월 1일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ISBN 978-89-6176-194-9 98910
978-89-6176-189-5 98910(세트)

이 책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opyright©2016 by Gyeongsangbuk-do